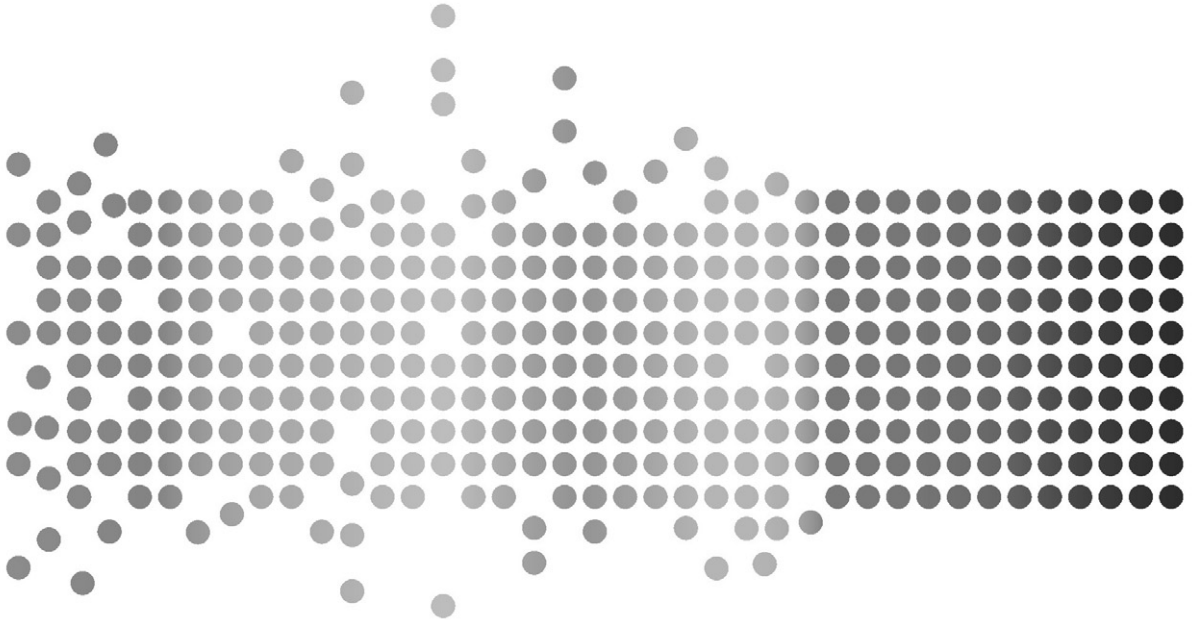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versity of Baby Boomers in Korea

정경희 · 오영희 · 이윤경 · 박보미



연구보고서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1년 12월
저자 정경희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 대명기획
가격 9,000원

©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821-4 93330

머리말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출산율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던 시기에 태어나 급격한 경제성장과 IMF 외환 위기,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베이비 부머는 현재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며, 지금까지 사회의 중심에서 활동하여 왔으나 최근 본격적인 퇴직을 시작하였다.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며, 이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현재의 노인복지정책과는 다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베이비 부머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다.

베이비 부머가 경험한 다각적이며 급격한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이들이 노인 세대로 편입이 시작되는 2020년부터는 노인 내의 다양성이 더욱 심화되고, 복지욕구도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관심의 초점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두어지고 있어 베이비 부머 자체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그들을 위한 전향적인 노인복지정책방안 모색은 소홀한 실정이다. 특히 베이비 부머가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성과 구체적인 삶의 다양한 양상, 그러한 다양성이 그들의 노년기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이비 부머에 대한 조사 자료를 심층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을 살펴보고, 그에 기초하여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 출생 코호트)가 갖고 있는 삶의

다차원성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인복지정책 구축의 방향성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실시되었다.

본 보고서는 정경희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의 오영희 부연구위원, 이윤경 부연구위원, 박보미 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해주신 본 원의 윤석명 연구위원과 이소정 부연구위원, 소중한 검토의견을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미혜 교수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의 한경혜 교수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진은 사례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해준 최성미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제3절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일반특성	18
제2장 유형별 베이비 부머의 삶의 모습	31
제1절 남자유형 I(남자 저소득층 불안정·비독자적 근로활동형)	31
제2절 남자유형 II(남자 저소득층 안정적·독자적 근로활동형)	48
제3절 남자유형 III(남자 중상층 불안정·비독자적 근로활동형)	61
제4절 남자유형 IV(남자 중상층 안정적·독자적 근로활동형)	71
제5절 여자유형 I(여자 저소득층 불안정·비독자적 근로활동형)	81
제6절 여자유형 II(여자 저소득층 안정적·독자적 근로활동형)	106
제7절 여자유형 III(여자 중상층 불안정·비독자적 근로활동형)	131
제8절 여자유형 IV(여자 중상층 안정적·독자적 근로활동형)	148
제3장 유형별 베이비 부머의 삶의 특성 및 함의	167
제1절 종합	167
제2절 정책적 함의와 과제	182
참고문헌	193

부 록	197
부록 1. 사례연구 기본질문	197
부록 2. 영역별로 나타난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제특성	201
제1절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일반특성 및 가족관계	201
제2절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218
제3절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경제상태	229
제4절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사회 참여	240
제5절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부모 및 자녀에 대한 부양 관련 가치관	279

표 목차

〈표 1- 1〉 베이비 부머의 유형화 기준	17
〈표 1- 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일반특성	22
〈표 1- 3〉 사례연구 대상의 일반특성	24
〈표 3- 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삶의 현황	174
〈표 3- 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우선 정책과제	183

부표 목차

〈부표 1- 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자녀 및 손자녀 현황	203
〈부표 1- 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수	204
〈부표 1- 3〉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부모 생존율	204
〈부표 1- 4〉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본인 부모와의 접촉 실태	205
〈부표 1- 5〉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 실태	206
〈부표 1- 6〉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부모와의 도구적 교환 실태	207
〈부표 1- 7〉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부모와의 경제적 도움 제공 실태	208
〈부표 1- 8〉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수혜 실태	208
〈부표 1- 9〉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교환 실태	209
〈부표 1-10〉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친가와 배우자 가족과의 접촉 빈도·친밀감 비교	210
〈부표 1-1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211
〈부표 1-1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별거자녀와의 접촉 실태	213
〈부표 1-13〉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자녀와의 도구적 교환 실태	213
〈부표 1-14〉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지난 1년간의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부양 수혜 실태	214
〈부표 1-15〉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경제적 도움 제공하는 성인자녀수	214

〈부표 3- 5〉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경제적 계층의식	233
〈부표 3- 6〉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청소년시절 경제생활수준	234
〈부표 3- 7〉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10년 후 경제수준에 대한 기대	235
〈부표 3- 8〉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소비대비 지출비율	236
〈부표 3- 9〉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월 저축비율	237
〈부표 3-10〉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경제적 노후 준비율	238
〈부표 3-11〉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주택연금 인지도 및 이용의사	239
〈부표 3-12〉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공적연금 가입여부 및 월 연금액 인지도	240
〈부표 4- 1〉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경제활동여부 및 최장 직종과의 관계	241
〈부표 4- 2〉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현 직업의 종사상 지위	242
〈부표 4- 3〉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현 직업의 종사기간	243
〈부표 4- 4〉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243
〈부표 4- 5〉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계속 고용희망	244
〈부표 4- 6〉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계속 고용에 대한 불안함	245
〈부표 4- 7〉 40대 이후 퇴직 경험한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생활변화(나빠진 비율)	246
〈부표 4- 8〉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노후 경제활동 희망여부 및 이유	247
〈부표 4- 9〉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근로활동 희망하지 않는 이유	247
〈부표 4-10〉 노후 경제활동 희망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희망 근로 형태	248
〈부표 4-11〉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노후 일의 중요성	249
〈부표 4-12〉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여가활동 1순위	250

〈부표 4-13〉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상위 5개 여가 활동(여가 1순위) ·251	
〈부표 4-14〉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상위 5개 여가 활동 (1순위, 2순위, 3순위 합)	252
〈부표 4-15〉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여가활동 빈도(1순위)	253
〈부표 4-16〉 상위 5개 여가별 여가활동 빈도(여가1순위)	253
〈부표 4-17〉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1순위) 254	
〈부표 4-18〉 상위 5개 여가별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1순위) ..	254
〈부표 4-19〉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에 즐기고 싶은 여가 활동 1순위	256
〈부표 4-20〉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에 즐기고 싶은 여가 활동 상위 5개(여가 1순위)	257
〈부표 4-2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에 즐기고 싶은 여가 활동 상위 5개(1순위, 2순위, 3순위 합)	257
〈부표 4-2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현재 삶에 있어서 여가의 중요도 259	
〈부표 4-23〉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삶에 있어서 여가의 중요도 259	
〈부표 4-24〉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여가의 중요도 점수	260
〈부표 4-25〉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자원봉사단체 참여여부	261
〈부표 4-26〉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자원봉사활동 기간	261
〈부표 4-27〉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빈도	262
〈부표 4-28〉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경로	262
〈부표 4-29〉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이유	263
〈부표 4-30〉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자원봉사단체 참여 희망 여부 264	
〈부표 4-3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자원봉사단체 참여 여부 및 희망여부 유형	265

〈부표 4-3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정치사회단체 참여 여부	265
〈부표 4-33〉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정치사회단체 참여자의 평균 활동기간	266
〈부표 4-34〉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정치사회단체 참여 빈도	267
〈부표 4-35〉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정치사회단체 참여 경로	267
〈부표 4-36〉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정치사회단체 참여 이유	268
〈부표 4-37〉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정치단체 참여 희망 여부	269
〈부표 4-38〉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현재 삶에 있어서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	270
〈부표 4-39〉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삶에 있어서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	270
〈부표 4-40〉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사회참여 활동 중요도 점수	271
〈부표 4-4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1순위)	272
〈부표 4-4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 상위 3개 응답(1순위)	272
〈부표 4-43〉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 (1순위, 2순위, 3순위 합)	273
〈부표 4-44〉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 상위3개 응답(1순위, 2순위, 3순위 합)	273
〈부표 4-45〉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향후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 이용 의향	274
〈부표 4-46〉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향후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 비용 지불 의향	275

〈부표 4-47〉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평생교육 기관 접근성의 중요성	276
〈부표 4-48〉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평생교육 기관 비용의 중요성	276
〈부표 4-49〉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평생교육기관 강사 질의 중요성	277
〈부표 4-50〉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평생교육기관수준 및 질의 중요성	277
〈부표 4-5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평생교육기관 선택시 중요하게 여기는 점 점수	277
〈부표 4-5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정도	· 278
〈부표 5- 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279
〈부표 5- 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바람직한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태도	280
〈부표 5- 3〉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선호하는 노후 거주지	281
〈부표 5- 4〉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한 조건	282
〈부표 5- 5〉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에 희망하는 동거자	282
〈부표 5- 6〉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부모의 자녀 부양 기간	283
〈부표 5- 7〉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희망하는 노후 생활	283
〈부표 5- 8〉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최근 가장 큰 관심사	284
〈부표 5- 9〉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	285

〈부표 5-10〉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성공적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1순위)	286
〈부표 5-1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성공적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2순위)	286
〈부표 5-1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성공적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3순위)	287
〈부표 5-13〉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향후 노인이 되었을 때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287

그림 목차

[그림 1-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분포	15
-------------------------------	----



Abstract

A Study on the Diversity of Baby Boomers in Korea

Accounting for 14.6% of the national population, Korean baby boomers are, in terms of their socioeconomic backgrounds, a widely heterogeneous group. However, they have by and large been lumped together in most of contemporary policy discourse as "soon-to-be" senior citizens. To chart effective policy options that are responsive to the heterogeneity of baby boomer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clear picture of their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needs. This study categorizes baby boomers into 8 types according to their "gender",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As a result, the 8 types of baby boomers are: male type I (5.7%), male type II (15.9%), male type III (1.4%), male type IV (24.4%), female type I (14.3%), female type II (10.4%), female type III (12.5%), and female type IV (15.5%). This study employs a combination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On the quantitative side, this study analyzed a national survey conducted in 2010 by KIHASA on 3,027 baby boomers. To add here qualitative data, the authors looked in-depth into 33 cases (about 4 cases for each type) to better grasp of the

different needs of Korea baby boomers.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consists of a review of the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baby boomers by type and the life histories of selected interviewees. The second part discusses, based on the survey data and interviews, the history, current living conditions, and future of baby boomers. In the last part, the authors present the living profiles of each type and policy suggestions.

요약

1. 연구의 목적

- 양적 접근 및 질적 접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유형별 베이비 부모의 삶의 현황 및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았음.
- 베이비 부모에 대한 조사 자료를 심층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베이비 부모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구체적인 삶의 다양한 양상, 그러한 다양성이 그들의 노년기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실시하였음.
- 베이비 부모를 8개로 유형화한 후 유형별로 2010년도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재분석(베이비 부모 3,027명)하고 유형별 평균 4사례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음.
 - 베이비 부모의 기본 특성과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성과 소득, 최장기 종사 직종의 지위를 반영하여 총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표 1〉 베이비 부머의 유형화 기준

성별	가구소득수준		
	생애에 걸친 중사상의 지위	저소득층 (가구소득 균등화지수 적용 후 하위 1/2)	중상층 (가구소득 균등화지수 적용 후 상위 1/2)
남자/여자	불안정·비독자적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경제활동무경험)	유형 I (저소득층으로 생애에 걸쳐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유형) - 남자: 5.7% - 여자: 14.3%	유형 III (중상층이지만 생애에 걸쳐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유형) - 남자: 1.4% - 여자: 12.5%
	안정적·독자적 (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단독자영업자)	유형 II (저소득층이지만 생애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유형) - 남자: 15.9% - 여자: 10.4%	유형 IV (중상층으로 생애에 걸쳐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유형) - 남자: 24.4% - 여자: 15.5%

2. 주요 연구 내용

가. 베이비 부머의 공통점과 유형별 차이

- 베이비 부머는 계층의 고착화가 가시화된 세대임.
- 경제상황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 즉 노후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소득수준은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등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현대 노인과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 간의 삶의 유형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 고용상의 지위가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다름.

- 자녀중심의 가족에서 부부중심의 가족으로의 변화가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음.

나. 유형별 제특성

□ 남자유형 I의 삶의 특성

- 불안정한 경제 상태로 인하여 결혼·자녀출산이 제약되어 무자녀 비율 높음.
- 다수가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인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음.
- 자녀 및 부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각종 사회참여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노후에도 사회참여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 노후의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음.
- 모든 측면에서 노후준비가 부족함. 경제적인 측면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률이 가장 낮고, 가입은 하였으나 미불입중인 경우가 31.4%에 달하고 있음.
- 일찍 경제활동 시작, 항상 다른 직업을 모색하였으나 대안이 없었음. 또한 현재도 다른 일을 준비할 여유가 없음.
 - 대체적으로 높은 고용불안정성과 높지 않은 임금수준, 이로 인한 낮은 직업만족도를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노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 희망함
-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틀에 박힌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 건강상태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낮을 뿐만 아니라 건강행위 실천율도 낮아 6개의 건강행위 중 3.09개만 실천하고 있음.

□ 남자유형 II의 삶의 특성

- 자신의 삶의 안정성이 부모와의 관계 및 자녀출산행위 등에 소득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무자녀 비율도

높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지역주민과의 접촉 낮음.
- 남자유형 I에 비하여 약간 높은 건강 실천율을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이들 역시 경제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건강실천행위의 수준이 낮음.
- 이들의 약 1/3은 자신을 중산층과 하층의 경계선에 있는 집단으로 보고 있음.
- 공적 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85%로 매우 높음.
- 약 1/3이 최장기 종사한 일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이미 직업적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들의 20%가 현재 일용직 및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어 종사상의 지위가 불안해진 상황으로 고용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 남자유형Ⅲ의 삶의 특성

-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배우자 가족에 대한 친밀감이 높고, 지원 및 교류가 높음.
- 남자 중 가장 높은 흡연율과 음주율을 보이는 등 건강행위 및 건강상태 모두 남자 저소득 상용직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는 등 고용상의 불안정성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체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인 경제적인 노후준비를 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유형과는 달리 배우자 중심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타 유형에 비하여 동창이나 지역모임참여가 활발하며 타 유형보다 삶에서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남자유형Ⅳ의 삶의 특성

- 낮은 무자녀율, 높은 부모 생존율 등 가족자원이 풍부하고, 다세대 가족의 실현가능성 높음.

- 남자부모 중심의 세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으로 현재에도 부부관계를 잘 관리하고 있음.
 - 남자 중 건강행위실천을 가장 잘하고 있으며 주관적 및 객관적 건강상태도 좋음.
 - 노후의 경제활동이 소득수단이기도 하지만 자기발전 또는 여가활동의 의미도 있으며, 노후의 여가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 자신의 경제적 노후는 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국가는 건강관련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베이비 부머 중 가장 삶의 질이 높은 유형으로 긍정적 기대를 갖고 노후설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유료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이 있음.
- 여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I의 삶의 특성
- 남자의 경우와는 달리 고용상의 지위를 불문하고 저소득층으로서의 공통성을 많이 갖고 있음.
 - 일부 자원을 남자형제들에게 주고 본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으며,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결혼생활을 꿈꾸었지만, 신혼 초 재정적 빈곤 등은 쉽게 극복되지 못하여,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
 - 배우자 갈등을 겪어왔으나 이제는 이해하는 노후의 동반자로 보고 있으며, 자녀는 노후의 든든한 심리적 버팀목으로 인식하고 있음.
 - 현 상태에 비관적이며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 큼.
 - 공적연금 미가입률이 매우 높음.
 - 본인의 공적연금 가입률이 낮고, 사적이전소득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 거는 기대가 큼.
 - 현재 생활 유지에 급급하여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낮아 관심

환기 자체가 필요한 단계임.

- 가족, 친구지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보도 부족하고, 특별한 취미여가활동도 없어 노후에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높으며 무기력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상대적으로 만성질환율과 우울증상이 높음.
 - 특히 여자유형Ⅱ의 경우 이들 유형에게 소득과 시간의 제약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

□ 여자유형Ⅲ의 삶의 특성

- 부모와의 접촉 많을 뿐만 아니라 도구적 교환 활발함. 여자유형Ⅳ에 비하여 시대과의 관계 돈독
 - 시부모에 대한 정기적인 현금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교적 직장의 근무시간이 적었던 경우 시대가족과 자주 만나온 것으로 보임.
- 여자 중에서 친구관계 상대적으로 많음(친구 수 2.8명으로 가장 많음). 이는 여성의 관계중심성과 소득과 시간의 여유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임.
- 배우자의 중요성 인식 정도가 다른 유형보다 높음.
- 대체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높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음.
- 노후에 경제활동을 그리 원하지 않음. 반면 비교적 활발한 여가 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가시화하고 있음.

□ 여자유형Ⅳ의 삶의 특성

- 부모와의 접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도구적 교환도 활발함. 특히 본인 부모와의 접촉 및 교환이 활발한데, 이는 비교적 직장의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여유시간이 적은 경우 친정가족과의 접촉을 배우자 가족과의 만남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으로 보임.

- 여자유형Ⅲ과 더불어 높은 운동 실천율, 다양한 식품 섭취 등 높은 건강 실천율을 보이고 있음.
-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희망률은 43.0%로 낮은 편임. 여자 중상층은 노후에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며, 일을 원하는 경우도 자아실현을 위해서임.
-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다른 유형보다 자원봉사 희망률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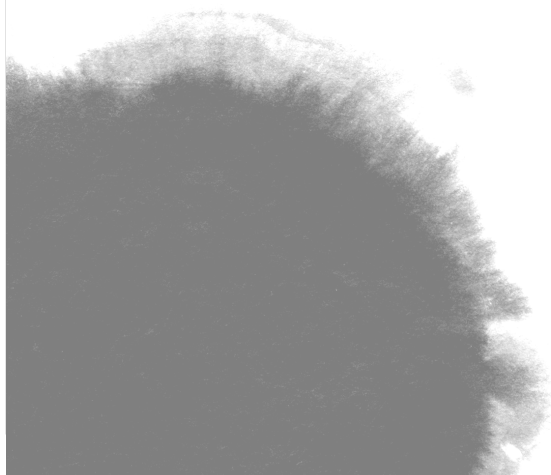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경제적인 이유로 노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 희망하는 저소득층 베이비 부머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 일·사회참여·여가의 연계가 밀접한 중상층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등 사회적 기여의 기회 제공
 -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개발 및 연계 서비스 제공 필요
 - 특히 중상층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던 여자 베이비 부머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전략의 1순위 대상으로 파악되었음.
 - 경제활동을 해온 중상층 이상의 여자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직장을 기반으로 한 퇴직 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이룬 은퇴 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 필요
- 저소득층 베이비 부머 중 공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미불입중인 대상에 대한 불입촉진 방안 마련
- 저소득층의 건강행위 실천율 제고 방안 마련
 - 남녀 모두 저소득층의 경우 운동이나 균형 잡힌 식생활 등 꾸준한 관심과 시간 및 돈이 요구되는 건강행위 실천율이 낮음

-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소득수준별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 현재 생활에 매몰되어 노후설계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내용 중심의 공적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기제 마련
 -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중상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전 문화된 민간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 공고화 프로그램 마련
 - 저소득층의 경우 부부관계가 안정기에 진입한 시기이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중년기 부부관계 강화프로그램 우선 실시 필요

01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출산율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던 시기에 태어나 급격한 경제성장과 IMF 외환위기,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베이비 부머는 현재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며, 지금까지 사회의 중심에서 활동하여 왔으나 최근 본격적인 퇴직을 시작하였다.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며, 이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현재의 노인복지정책과는 다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베이비 부머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다.

베이비 부머가 경험한 다각적이며 급격한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박시내·심규호, 2010; 한경혜 외, 2011)로 인하여 이들이 노인 세대로 편입이 시작되는 2020년부터는 노인 내의 다양성이 더욱 심화되고, 복지욕구도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관심의 초점은 베이비 부머의 규모가 갖는 사회적 과급 효과에 두어져 있다. 즉, 거시적인 차원에서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두어지고 있어 진정한 베이비 부머 자체에 대한 이해와 그들을 위한 전향적인 노인복지정책방안 모색은 소홀한 실정이다. 특히 베이비 부머가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성과 구체적인 삶의 다양한 양상, 그러한 다양성이 그들의 노년기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이비 부머에 대한 조사 자료를 심층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을 살펴보고, 그에 기초하여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 코호트)가 갖고 있는 삶의 다차원성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인복지정책 구축의 방향성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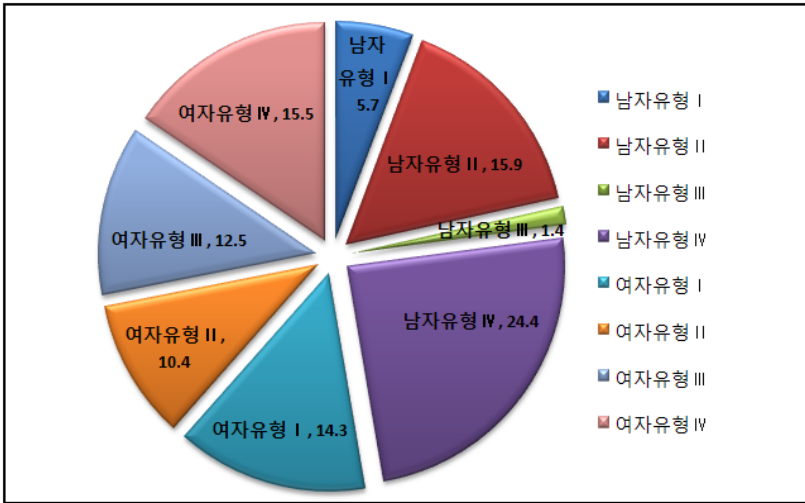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및 이론적 검토라는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2010년도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재분석(베이비 부머 3,027명)함과 동시에 유형별 사례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의 통합적 방법을 지향하였다.

양적 분석은 2010년 7월 5일~8월 15일 기간 중 200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중 베이비 부머 3,02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¹⁾. 기본 특성과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성과 소득, 최장기 종사 직종의 지위를 반영하여 총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1-1]과 같다.

1) 조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경희 외(2010). 『신노년층의 특성과 정책과제』에 자세히 보고되어 있음.

[그림 1-1]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분포



본 연구에서 베이비 부모를 유형화하는데 활용된 기준은 성, 경제상태와 종사상의 지위이다. 첫번째 기준인 성은 우리사회의 남성과 여성의 일상생활의 격차가 큰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우 세계적으로 볼 때 사회적 지위 및 경제활동 및 기회 부분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UNDP, 2011).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남자와 여자 간의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다.

둘째는 경제 상태로 경제적 자원이 갖는 폭 넓고 깊은 영향력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베이비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나타나고 있다(강소랑, 2011; 이현송, 2001). 구체적인 분류 기준으로는 균등화가구소득을 구하고 이 균등화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저소득층으로 그 이상인 경우를 중상층으로 분류하였다²⁾. 세 번째 기준인 종사상의 지위는 최장종사직종의 종사상지위에 기초하여 분류하였다³⁾. 최

2) 3,027명을 대상으로 가구균등화소득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50분위가 206만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가구균등화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었음.

장종사직종의 종사상지위가 '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단독자영업자'인 경우 다른 조사상의 지위에 비하여 안정성과 독자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최장종사직종의 종사상의 지위가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및 경제활동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와 구분하여 보였다. 이는 소득과는 다른 차원으로 생애에 걸친 이들의 삶의 궤적을 요약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차원으로 고려되었다(방하남 외, 2010; 신현구 외, 2010; 이은아, 2007).

이상과 같은 3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8가지 유형은 각각 남자유형 I, 남자유형 II, 남자유형 III, 남자유형 IV, 여자유형 I, 여자유형 II, 여자유형 III, 여자유형 IV로 명명하고자 한다.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을 통하여 성별 기준을, I ~ IV이라는 숫자는 현재의 소득수준과 일생동안의 고용상의 독자성과 안정성의 구성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유형 I은 소득수준도 평균 이하인 저소득층이면서 청장년기의 대부분을 불안정하거나 독자성이 결여된 종사상의 지위를 경험해온 유형이다. 유형 II는 소득수준은 평균 이하로 저소득층이지만 비교적 청장년기의 대부분을 안정하고 독자성이 있는 경제활동을 해온 유형이다. 한편 유형 III은 소득수준은 평균 이상으로 중상층으로 볼 수 있으나 생애에 걸친 경제활동은 불안정하거나 독자성이 결여되었던 특성을 갖고 있다. 유형 IV는 소득수준도 평균 이상으로 중상층이면서 생애에 걸친 경제활동도 안정적이고 독자적이었던 유형이다(표 1-1 참조).

- 3) 최장기 종사 직업의 종사상의 지위가 상용직, 고용주, 단독자영업자인 응답자의 70.2%가 현재도 이러한 범주의 종사상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비하여 29.8%는 현재 임시직, 일용직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시직,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및 경제활동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95.1%가 현재도 동일한 유형의 종사상의 지위를 갖고 있음. 이는 비교적 안정성과 독자성을 갖는 종사상의 지위를 향유한 베이비 부머의 10명중 3명 정도는 그러한 안정성과 독자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안정성이 낮고 독자성이 낮은 종사상의 지위를 경험한 베이비 부머는 인생 후반부에 와서도 그러한 불안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표 1-1〉 베이비 부머의 유형화 기준

성별	가구소득수준	저소득층	중상층
	생애에 걸친 중사상의 지위		
남자/여자	불안정·비독자적	유형 I (저소득층으로 생애에 걸쳐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유형)	유형 III (중상층이지만 생애에 걸쳐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유형)
	안정적·독자적	유형 II (저소득층이지만 생애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유형)	유형 IV (중상층으로 생애에 걸쳐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유형)

사례연구는 각 8개 유형별로 4명을 인터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남자유형Ⅲ은 3사례, 남자유형Ⅳ의 경우는 6사례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되어 총 33사례가 연구에 활용되었다. 이는 남자유형Ⅲ의 경우 전체수가 41명으로 사례연구 대상의 규모 자체가 작아서 사례연구 선정이 어려웠으며, 실제 다른 유형에 비하여 규모가 월등히 적다는 점도 반영한 결과이다. 반면 유형Ⅳ의 경우 사례 접촉도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이에 추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보다 많은 6명을 인터뷰하였다.

이 외에도 전문가 회의에서 지역이나 맞벌이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읍·면부 거주자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읍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 간의 차이가 적을 것으로 추정되어 별도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되 사례선정에 있어 유형별로 도시뿐만 아니라 읍·면부 거주자도 1명을 포함하였다. 또한 맞벌이여부도 다른 요인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맞벌이 여부를 사례선정시 반영하여 적절히 분배하였다.

사례연구대상은 2010년 조사대상자 중 각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 중 지역과 맞벌이 유무를 반영하여 접촉한 결과, 사례연구에 응해준 대상

자료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다. 사례연구 대상의 기본특성은 <표 1-3>과 같다⁴⁾.

제3절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일반특성

1. 전국 조사 자료상의 유형별 특성

3,027명에 대한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유형별로 재분석한 결과 나타난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일반특성은 <표 1-2>와 같다.

남자유형 I은 72.3%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이 48.6세이고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6.4%에 지나지 않는다. 전형적인 핵가족을 이루고 있는 비율이 59.0%로 평균보다 월등히 낮으며, 확대가족은 15.6%로 높지만 1인가구는 평균인 5.5%보다 매우 높은 13.9%에 달하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56.7%로 유형 중 가장 높다. 현재 이들의 85.5%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는 60점 만점에 35.9점으로 8개 유형 중 가장 낮다.

남자유형 II는 73.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이 50.7세이다. 교육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학력 46.5%, 중학교 22.3%, 전문대 이상 19.0%, 초등학교 이하 12.3%의 순서이다. 즉 이들의 교육수준에는 다양성이 있지만 전문대 이상 19.0%를 포함 약 65%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남자유형 I과 대별된다. 그러나 이들은 남자유형 I과 마찬가지로 평균보다 높은 1인가구

4) 각 사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에 있어 기본으로 한 질문 내용은 부록1에 제시하였음.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또한 무교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남자유형 I 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의 91.0%가 현재 취업중이며 삶의 만족도는 38.9점으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남자유형Ⅲ의 87.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50.6세이다. 학력은 전체 베이비 부머에 비해서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취업중인 비율은 87.8%인 집단이다. 이 유형의 경우 1인가구의 비율이 9.8%로 베이비 부머 평균 5.5%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종교의 경우 무교인 비율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38.1%이며 42.9%가 불교를 믿고 있어 8개 유형 중 불교신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삶의 만족도는 40.4점으로 거의 평균수준과 유사하다.

남자유형Ⅳ는 도시거주 비율이 86.9%로 높으며, 평균연령은 51.6세이다. 또한 이들의 교육수준은 전체 베이비 부머에 비해서 전문대 이상의 졸업 비율이 50.8%로 매우 높다. 가구유형은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97.6%가 취업을 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 수준도 43.1점으로 전체 베이비 부머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

여자유형 I의 경우 도시거주율은 76.3%로 전체 82.3%에 비해서 도시거주율이 낮으며, 여자유형 중에서도 도시거주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하 24.8%, 중학교 졸업 35.0%, 고등학교 졸업 36.4%, 전문대학교 이상 3.7%로, 베이비 부머 전체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44.0%로 거의 절반에 가깝고, 전문대 이상 졸업자도 24.8%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저학력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은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핵가족(부모+미혼자녀)형태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타 유형에 비해 1인가구, 부부가구의 비율이 높아 자녀와의 동거율이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불교, 개신교 순이었으며, 현재 취업중인 비율은

66.2%로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37.9점으로 평균 40.5점보다는 낮고,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자유형Ⅱ의 80.9%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평균인 82.3%보다 낮고,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 낮은 수준이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하 14.1%, 중학교 졸업 24.3%, 고등학교 졸업 53.4%, 전문대학교 이상 8.3%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자로 나타났다. 전체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자 비율이 10.6%, 전문대 이상 졸업자 비율이 24.8%인 것과 비교했을 때는 저학력 비율이 더 많다. 한편, 가구유형은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핵가족(부모+미혼자녀)형태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보다는 1인가구, 부부가구의 비율이 높아 자녀동거율이 전체에 비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여자유형 I 과 비슷한 가구유형 분포이다. 종교는 불교, 무교, 개신교 순이며, 현재 취업중인 비율은 61.1%로 여자유형 I 다음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38.9점으로 평균 40.5점보다는 좀 낮게 나타났고,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는 유형Ⅲ과 유형Ⅳ와 같은 중상층 소득의 유형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여자유형Ⅲ의 일반특성을 살펴보면 도시거주율은 86.5%로 전체(82.3%)에 비하면 높고, 특히 여자 저소득층(76.3%, 80.9%)보다는 약간 높고 여자유형Ⅳ(90.2%)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평균연령은 50.6세로 전체(50.1세) 또는 여자 저소득층(50.3세, 50.5세)보다는 높고, 여자유형Ⅳ(50.7세) 보다는 0.1세가 적은 수준이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가 8.4%, 중학교 26.1%, 고등학교 50.9%, 전문대학 이상 14.5% 등으로 전체 또는 여자유형 I 과 여자유형Ⅱ와 비교하면 초등학교 이하의 비율은 낮는데 반하여 전문대학 이상의 비율이 높다. 가구유형은 1인 가구 0.5%, 부부가족 11.6%, 핵가족(부/모+미혼자녀) 80.8%,

확대가족 7.1% 등으로 핵가족의 비율이 전체(74.0%) 또는 여자 저소득층(63.1%, 64.6%)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 취업중인 비율은 52.2%로 전체 8개 유형에서 가장 낮고, 삶의 만족도 점수는 전체(40.5점)보다 높은 수준인 42.0점으로 여자유형Ⅳ와 더불어 여자 중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여자유형Ⅳ의 도시거주율은 90.9%로 전체 (82.3%) 유형 중에서 가장 높고, 평균연령은 50.7세로 전체(50.1세) 또는 여자 다른 유형보다 높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가 3.0%, 중학교 15.3%, 고등학교 46.6%, 전문대학 이상 35.1% 등으로 전체와 비교하면 고등학교(전체 44.0%), 전문대학 이상(전체 24.8%)의 비율이 높다. 특히 전문대 이상의 비율이 여자유형Ⅲ보다 20.6% 높은 수준이다.

가구유형은 1인 가구 1.9%, 부부가족 6.0%, 핵가족(부/모+미혼자녀) 84.2%, 확대가족 7.9% 등으로 핵가족의 비율이 전체 8개 유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취업중인 비율은 59.9%로 전체 평균인 75.9%보다 낮으며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42.0점으로 전체 평균인 40.5점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여자 베이비 부머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 1-2〉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일반특성

(단위: %)

특성	남자 유형 I	남자 유형 II	남자 유형 III	남자 유형 IV	여자 유형 I	여자 유형 II	여자 유형 III	여자 유형 IV	전체
도시 거주율	72.3	73.8	87.8	86.9	76.3	80.9	86.5	90.2	82.3
평균 연령	48.6	50.7	50.6	51.6	50.3	50.5	50.6	50.7	50.1
교육수준									
초등학교 및 이하	25.0	12.3	0.0	2.7	24.8	14.1	8.4	3.0	10.6
중학교	28.5	22.3	17.5	8.8	35.0	24.3	26.1	15.3	20.7
고등학교	40.1	46.5	57.5	37.7	36.4	53.4	50.9	46.6	44.0
전문대학 이상	6.4	19.0	25.0	50.8	3.7	8.3	14.5	35.1	24.8
유배우율	62.8	82.0	85.4	94.2	75.2	77.1	95.8	91.9	85.7
가구유형									
1인 가구	13.9	10.4	9.8	3.7	7.9	5.1	0.5	1.9	5.5
부부가족	11.0	8.5	7.3	4.2	17.4	14.3	11.6	6.0	9.5
부/모+미혼자녀	59.0	66.9	70.7	82.8	63.1	64.6	80.8	84.2	74.0
확대가족	15.6	13.8	12.2	9.4	11.6	15.6	7.1	7.9	10.9
기타가족 ¹⁾	0.6	0.4	0.0	0.0	0.0	0.3	0.0	0.0	0.1
종교									
불교	24.0	22.5	42.9	19.7	30.8	33.7	32.7	27.3	26.5
개신교	17.0	15.4	11.9	21.1	17.6	24.7	24.0	25.4	20.7
천주교	2.3	6.7	7.1	9.6	7.4	9.9	11.1	18.6	10.0
유교·원불교·기타	0.0	2.3	0.0	0.4	1.9	1.0	0.8	0.2	1.0
무교	56.7	53.1	38.1	49.2	42.4	30.8	31.4	28.6	41.8
현재 취업증인 비율	85.5	91.0	87.8	97.6	66.2	61.1	52.2	59.9	75.9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²⁾	35.9	38.9	40.4	43.1	37.9	38.9	42.0	42.0	40.5
계(명)	173	480	40	737	431	314	380	469	3,02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2) 삶의 만족도 점수는 60점 만점임

2. 사례연구 대상의 유형별 특성

사례연구 대상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은 사례별로 다양하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몇 가지 도출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저소득층으로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해온 베이비 부모(남자유형 I)의 경우 이들은 비교적 빠른 나

이에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으나, 결혼과 출산은 늦은 편이다. 남자 저소득층이라는 공통점을 갖고는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유형Ⅱ는 30세 이전에 결혼하여 그리 늦지 않은 나이에 가정적인 안정을 이루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상층 소득을 갖고 있지만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해 온 남자 베이비 부머(남자유형Ⅲ)는 그 규모가 적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들은 본인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크지 않지만 아내의 소득이 많거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거나, 비록 일용직이기는 하지만 덤프트럭을 갖고 있어 내용상 독자성이 보장되는 경우이다.

베이비 부머의 약 1/4을 구성하는 가장 큰 규모의 유형인 남자유형Ⅳ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해 온 경험해온 중상층 소득을 갖고 있는 남자 베이비 부머로 대부분이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결혼과 자녀출산도 그리 늦지 않은 나이에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여자 베이비 부머인 여자유형Ⅰ~Ⅳ의 경우 본인의 결혼연령이나, 교육수준 및 현재 직업에 있어 유형을 분명히 구분하는 특징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는 이들의 특성보다는 배우자 즉 남편의 직업과 소득이 갖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형별 특징 외에도 33사례 중 출생지와 현재 거주지가 동일한 사례는 8사례에 불과하여 이들의 학업 및 취업과정 속에서 이동이 빈번히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그 만큼 이들의 지역사회 기반은 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표 1-3〉 사례연구 대상의 일반특성

유형	사례	성	출생지	거주지	출생년	결혼연령(세)	첫자녀출산시기(세)	자녀수(명)	자녀유무(배우자직업)	가족형태	학력	최초취업시점(세)	최장기직업		현재직업
													직업	종사상위위	
남자 유형 I	사례1	남	경남*	경남*	1955	25	32	2	맞벌이 유무(배우자직업)	부부	고등학교 중퇴	18~19	조선소 임금근로자	조선소 하청업체	자영업
	사례2	남	경북	부산	1955	35	37	1	홀벌이(배우자무직)	부부+미혼자녀	초등학교 졸업	18	유형업소 임금근로자	유형업소	임시직 임금근로자
	사례3	남	경북	서울	1956	30	31	1	홀벌이(배우자무직)	부부+미혼자녀	중학교 중퇴	17	공업사	공업사	단독 자영업자
	사례4	남	강원도	경남	1962	30(재혼)	25	2	맞벌이(공장직원)	부부+미혼자녀	고등학교 졸업	19	건축업(목수) 임금근로자	사출공장 직원	상용직 임금근로자
	사례5	남	전북*	전북*	1958	26	26	2	맞벌이(회사직원)	확대가족(부+부부+자녀)	고등학교 중퇴	18	자동차 정비공 임금근로자	자동차 정비공	상용직 임금근로자
	사례6	남	충남	대전	1961	29	29	2	맞벌이(철강회사직원)	부부+미혼자녀	중학교 졸업	20세 전후	건축업(전기) 임금근로자	건축업(전기)	상용직 임금근로자
	사례7	남	전남	인천	1956	25	26	1	홀벌이(배우자무직)	부부+미혼자녀	중학교 졸업	17세 전후	전기공 임금근로자	전기공, 택시기사	상용직 임금근로자
	사례8	남	전남*	전남*	1958	28	29	2	홀벌이(배우자무직)	부부+미혼자녀	고등학교 졸업	19~20	배관공 임금근로자	배관공	상용직 임금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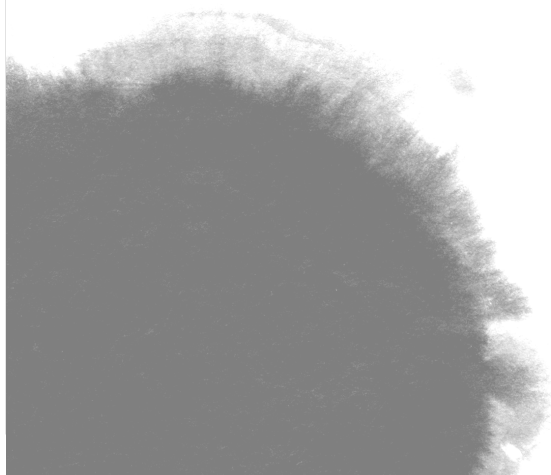
유형	시례	성	출생지	거주지	생년	결혼 연령 (세)	첫자녀 출산 시기 (세)	자 녀 수 (명)	맞벌이 유무 (배우자 직업)	가족형태	학력	최초 취업		최장기 직업		현재 직업
												시점 (세)	직업	직업	종사상위 직업	
남자 유형III	사례9	남	전남	서울	1958	34	34	2	맞벌이 (배우자직업)	부부+ 미혼자녀	초등학교 졸업	간접일일노 동자	임용직 임금근로자	간접일일노 동자	임용직 임금근로자	임용직 임금근로자
	사례10	남	경기도	서울	1959	25	24	1	홀벌이 (배우자무직)	확대가족 (모+부부 +자녀)	고등학교 졸업	토목기사 임금근로자	임용직 임금근로자	토목기사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템프트랙 소유)	
남자 유형IV	사례11	남	경기도	서울	1955	24	23	2	맞벌이 (식당운영)	부부+ 미혼자녀	초등학교 졸업	목수	임용직 임금근로자	식당운영 (카운터 담당)	무급가족 종사자	
	사례12	남	충남	서울	1955	29	32	2	맞벌이 (식당운영)	부부+ 미혼자녀	대학교 졸업	간접현장소 장	상용직 임금근로자	건축 감리	상용직 임금근로자	
	사례13	남	인천	인천	1963	30	30	2	맞벌이 (보합실업자)	부부+ 미혼자녀	전문대 졸업	전기검침원	상용직 임금근로자	전기검침원	상용직 임금근로자	
	사례14	남	경북	대구	1956	23	26	2	맞벌이 (식당매너저)	부부+ 미혼자녀	전문대 졸업	병원 검사실	상용직 임금근로자	이불회사 관리직	상용직 임금근로자	
	사례15	남	경남	대구	1955	28	29	2	홀벌이 (배우자무직)	부부+ 미혼자녀	대학교 졸업	고등학교 교사	상용직 임금근로자	고등학교 교사	상용직 임금근로자	
	사례16	남	전남*	전남*	1957	27	27	4	맞벌이 (미장)	부부+ 미혼자녀	중학교 졸업	운수사업 및 간접업	상용직 임금근로자	건설회사 운영	고용주	
	사례17	남	부산	충남	1962	28	28	1	홀벌이 (배우자무직)	부부	대학교 졸업	군인	상용직 임금근로자	군인	상용직 임금근로자	

유형	사례	성	출생지	거주지	생년	결혼 연령 (세)	첫자녀 출산 시기 (세)	자 녀 수 (명)	맞벌이 유무 (배우자 직업)	가족형태	학력	최장기 직업		현재 직업		
												직업	종사상지위		직업	종사상지위
여자 유형 I	사례18	여	전남	광주	1962	26	30	3	맞벌이 (공무원)	확대가족 (모+부부 +자녀)	고등학교 졸업	최초 취업 시점 (세)	직업	종사상지위	직업	종사상지위
												40	장수기코디, 요양보호사 각3년	임시직 임금근로자	요양보호사	상용직 임금근로자
												20	옷가게직원	임시직 임금근로자	마트 근무	임시직 임금근로자
여자 유형 II	사례20	여	전남	인천	1957	24	25	1	홀벌이 (전기공, 택시기사)	부부+ 미혼자녀	중학교 졸업	20	방직공장	임시직 임금근로자	무직	무직
	사례21	여	전남*	전남*	1959	25	25	3	맞벌이 (우체부)	확대가족 (모+부부)	고등학교 중퇴	18~19	미용사	무급가족종 사자	장애인 활동보조	임시직 임금근로자
	사례22	여	전남	광주	1960	23	25	3	맞벌이 (택시)	부부+ 미혼자녀	고등학교 졸업	18	세탁업	상용직 임금근로자	세탁업	단독 자영업자
사례23	여	충북	충북	1963	27	29	2	맞벌이 (자영업)	부부+ 미혼자녀	전문대 졸업	22~23	장수기코디	상용직 임금근로자	장수기코디	임시직 임금근로자	
사례24	여	경기	인천	1957	26	26	2	홀벌이 (학교강좌)	부부+ 미혼자녀	초등학교 졸업	16~17	봉제회사 공장직원	상용직 임금근로자	무직	무직	무직
사례25	여	충북*	충북*	1955	21	21	3	둘다 무직	부부+ 미혼자녀	초등학교 졸업	35세 전후	다방	단독 자영업자	무직	무직	무직

유형	시례	성	출생지	거주지	생년	결혼 연령 (세)	첫자녀 출산 시기 (세)	자녀 수 (명)	맞벌이 유무 (배우자 직업)	가족형태	학력	최초 취업		최장기 직업		현재 직업	
												직업	시점 (세)	직업	종사상위위		직업
여자 유형Ⅲ	사례26	여	강원*	강원*	1959	23	22	3	맞벌이 (택시)	부부+ 미혼자녀	고등학교	상조회 직원	51	상조회 직원	일용직 임금근로자	상조회 직원	상용직 임금근로자
	사례27	여	경북	경기	1959	33	31	1	홀벌이 (회사 직원)	부부+ 미혼자녀	고등학교	총합부역 상사	21	총합부역 상사	일용직 임금근로자	무직	무직
	사례28	여	충청	대전	1955	20	21	2	홀벌이 (세탁업)	부부+ 미혼자녀	초등학교	공장 생산직	미상	공장 생산직	일용직 임금근로자	무직	무직
여자 유형Ⅳ	사례29	여	전북	전남	1959	25	25	4	맞벌이 (간식회사)	부부+ 미혼자녀	고등학교	우체국	18	우체국	임시직 임금근로자	경리	상용직 임금근로자
	사례30	여	충남	인천	1959	25	31	3	홀벌이 (배우자무직)	부부+ 미혼자녀	중학교	가구공장 직원	20	가구공장 직원	상용직 임금근로자	가구공장 직원	상용직 임금근로자
	사례31	여	강원	서울	1961	26	26	2	맞벌이 (회사 직원)	부부+ 미혼자녀	초등학교	개발공장 직원	21	개발공장 직원	상용직 임금근로자	개발공장 직원	상용직 임금근로자
사례32	여	경기	서울	1958	27	27	2	홀벌이 (회사직원)	부부+ 미혼자녀	대학교졸 업	간호사	24	간호사	상용직 임금근로자	무직	무직	
사례33	여	강원*	강원*	1962	26	23	2	홀벌이 (공무원)	부부+ 미혼자녀	고등학교	화장품회사 영업사원	20	화장품회사 영업사원	상용직 임금근로자	무직	무직	

02

유용쟁벌 베이비 부머의 삶의 모습



제2장 유형별 베이비 부모의 삶의 모습

본 장에서는 베이비 부모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유형별로 그들이 삶의 모습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자료 분석이라는 양적접근과 사례조사라는 질적 접근의 통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조사 자료에 기초해서는 도출된 각 유형별로 갖고 있는 제특성을 가족관계,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경제 상황 및 경제적인 노후준비,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 가치관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삶의 현황을 이해해 보고자 하며 특히 각 삶의 영역이 갖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⁵⁾. 한편 사례연구를 통해서도 양적 분석에서 밝혀진 제특성의 좀 더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러한 삶의 현실에 이들의 삶의 궤적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이들의 노후의 삶에 대한 기대와 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남자유형 I (남자 저소득층 불안정·비독자적 근로활동형)

1. 양적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본 삶의 모습

5) 부록2에 영역별로 유형별 제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음. 본문에서는 부록에 제시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각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이 도출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함.

가. 가족관계

남자유형 I의 가족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자녀라는 사회적 자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율이 20.4%로 5명 중 1명은 자녀가 전혀 없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평균자녀수도 1.5명에 불과하다. 무자녀율은 베이비 부머 전체 평균인 5.1%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평균자녀수도 전체평균인 1.9명에 못 미치는 1.5명이다.

이들은 방위가족, 즉 부모나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다른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자녀출산과 관련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개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녀 출산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자신의 경제적 위상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자녀출산에 따른 부담이 이들의 낮은 출산수준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회적 연계망의 양적이 크기뿐만 아니라 연계망의 작동에 있어서도 이들의 상대적인 취약성이 도출되었다. 이들은 비동거 부모와의 접촉수준이 낮아서 18.5%만이 주 2회 이상의 접촉을 하고 있으며, 월 1회 미만 접촉한다는 응답률도 37.8%에 달하고 있다. 이는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약 40%가 주 2회 이상의 접촉을 하고 있으며, 월 1회 미만 접촉하는 비율이 10% 미만인 것에 비하여 볼 때 매우 큰 차이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이들의 6.3%만이 주 2회 이상 배우자의 부모와 접촉을 하고 있어 남자 베이비 부머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월 1회 미만이라는 응답도 51.5%로 매우 높다.

부모와의 접촉뿐만 아니라 2차적 비공식관계의 크기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1.8%는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가 전혀 없는데 이는 남자 베이비 부머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평균 친구수도 2.3명으로 남자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구적 도움의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다른 유형보다 제공 및

수혜율이 낮다. 부모와의 도구적 도움의 교환이나 자녀와의 도구적 도움의 교환의 절대적인 수준이 낮다. 41.9%가 집안일 도움을 부모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15.9%는 부모로부터 이러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평균 수준인 72.4%와 26.7%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경제적인 교환의 경우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배우자 부모의 경우 타 유형에 비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비율이 21.3%로 전체평균인 6.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가부장적인 관행이 아직 이들 사이에 강하게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적인 측면 외에도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들은 소극적이며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자녀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16.0%, 만족한다가 58.5%로 긍정적인 응답이 74.5%로 베이비 부머 전체의 83.8%보다 약 10% 낮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5.5%로 남자유형Ⅲ의 7.6%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상태의 불안이 부부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이 노후생활에 중요할 것으로 보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 80% 수준의 베이비 부머가 배우자를 노후에 중요한 관계로 보고 있어 노후생활에서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본 유형은 배우자를 언급한 비율이 61.8%로 남자유형Ⅳ의 88.9%의 약 2/3 수준에 불과하다.

나.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에 있어서의 남자유형Ⅰ이 갖는 특징은 복합적

이다. 먼저 흡연과 음주에 있어서는 그리 부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흡연율은 58.1%로 남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는 중간 수준이며 음주율의 경우도 74.4%로 남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남자유형Ⅲ과 남자유형Ⅳ)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이는 흡연이나 음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종사상의 지위상 직장을 단위로 한 회식의 기회 등이 적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46.2%로 평균 수준인 68.5%보다 월등히 낮고 가장 높은 운동 실천율을 보이는 중상층 상용직 종사자의 약 절반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관심이 없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점은 이들이 현실의 삶을 영위하기에 급급하여 장기적, 예방적 시각에서 관심과 돈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남자유형Ⅳ의 약 85%가 다양한 식품 섭취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본 유형은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려 노력한다는 응답률이 59.1%로 매우 낮다. 또한 건강식품 섭취율이 39.9%에 불과하여 동일한 유형의 여자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Ⅳ)의 71.1%의 약 절반 수준이다. 건강검진의 경우도 수진율이 69.8%로 중상층 베이비 부머(남자유형Ⅲ과 남자유형Ⅳ 및 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85% 내외가 건강검진을 받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본 유형의 건강행위를 요약해보면, 6개 항목 중 평균 3.09개를 실천하고 있어 베이비 부머 평균인 4.16에 비하여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8개 유형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건강행위를 살펴보면 본 유형이 비교적 개인적인 결단에 의하여 실천할 수 있는 금주·금연을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경제적 지출이 요구되는 운동 식생활이라는 측면에서는 타 유형의 베이비 부머에 비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상

황은 노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건강상태의 경우도 8개 유형 중 가장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건강상태 평가도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는 비율이 20.2%로 남자유형Ⅳ의 3.6%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객관적인 건강 지표에 있어서도 만성질환율이 33.1%로 타 유형의 남자 베이비 부머에 비하여 약 10% 높으며 우울증상도 남자 베이비 부머 중 가장 높은 13.4%이다.

요약하면 본 유형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흡연을 하거나 절주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운동, 식생활 관리, 건강검진 등 적극적인 개입 노력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의 주관적 및 객관적인 건강 상태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노후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 경제상황 및 경제적인 노후준비

예견된 것처럼 이들 남자유형Ⅰ의 총 가구소득수준은 8개 유형 중 가장 낮아 217만원이며 이는 가장 많은 가구소득을 갖고 있는 여자유형Ⅳ의 667만원의 약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들은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산 규모도 매우 적어 7천 3백만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는 여자유형Ⅳ의 6억 6천만원의 약 1/10 정도의 수준으로 소득보다도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적으로 자산보다 큰 규모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53.1%가 부채가 없고 100% 이상인 비율도 9.3%이다. 또한 수입의 9.5%를 저축하고 있으며 전혀 저축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37.0%에 달하고 있다. 이는 중상층 베이비 부머(남자유형Ⅲ과 남자유형Ⅳ 및 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가 20%대의 저축을 하고 있으며 5% 전후만이 저축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들의 향후 경제적 불안정성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하층이라는 계층의식을 갖고 있으며 청소년 시절의 경제생활수준이 나쁜 편이었다는 응답이 64.2%로 여자유형Ⅳ의 33.2%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 있어 이미 세대 간 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유형은 건강요양위험, 사망위험, 노후연금 등 노후를 위한 준비정도가 8개 유형 중 가장 낮다. 특히 개인적인 노후연금 가입률이 5.2%로 40.7% 가입률을 보이는 남자유형Ⅳ에 비하여 경제적인 노후준비가 매우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공적 연금 가입률이 36.6%로 남자 베이비 부머 중 가장 낮고, 남자유형Ⅳ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임을 동시에 감안해볼 때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적인 노후준비는 매우 부족한 현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

남자유형Ⅰ의 절대 다수인 84.4%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이들 다수가 최종 직종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이들의 종사상의 지위 또한 일용직이나 임시직에 집중되어 있다. 일을 하고 있는 본 유형의 약 1/3만이 일에 만족하고 있는데, 이는 여자유형Ⅳ의 72.5%가 만족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일의 불안정성이 일에 대한 낮은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의 68.4%가 계속 고용을 희망하고 있지만 남자유형Ⅳ의 86.0%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이 또한 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들이 노후에 있어 일에 거는 기대는 크다. 이들의 대부분인 91.9%가 일을 희망하고 있어 다른 유형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이들의 노후생활에 있어 일의 중요성은 5점 만점에 4.02점으로 제일 높다. 이

는 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이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이유로 83.5%가 소득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중상층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해온 베이비 부머(남자유형Ⅳ와 여자유형Ⅳ)의 경우 소득창출뿐만 아니라 자기 발전이나 여가활용을 이유로 응답한 것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즉 이들은 불안전하고 임금수준이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노후에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운동, 산책, 등산 등이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함께 하는 여가활동보다는 혼자서 하는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여가활동이 가장 손쉽고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들이 노후에 원하는 여가활동은 여행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현실에서 여행할 기회와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삶에 있어 여가가 중요하다는 응답을 통하여 여가활동이 삶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본 유형이 타 유형에 비하여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매우 낮아 42.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남자유형Ⅳ의 8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본 유형이 생각하는 삶에 있어 여가의 중요성은 5점 만점에 3.18점으로 8개 유형 중 가장 낮다.

또한 노후생활에서의 여가의 중요성에 대하여 중요하다는 응답은 65.7%로 이 또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여자유형Ⅳ의 93.0%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여가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 점수는 5점 만점에 3.18점으로 8개 유형 중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남자유형Ⅳ의 3.93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노후의 삶에서 여가활동이 갖는 중요성은 3.61점으로 보고 있어 현재보다는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또한 가장 높은 점수인 중상층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해온 베이비 부머(남자유

형Ⅳ와 여자유형Ⅳ)의 4.14점보다 낮다. 이러한 경향성은 사회참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삶에서 사회참여가 갖는 중요도는 2.73점, 노후생활에서의 중요도는 2.92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자가 전혀 없으며 노후에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률이 25.0%로 가장 높은 참가 희망률을 보인 여자유형Ⅳ의 58.0% 비하여 33%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 사회단체 참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남자유형Ⅰ이 베이비 부머 중 가장 사회참여의 정도가 낮고, 이는 중요한 타자가 적다는 사실과 함께 판단해볼 때 이들이 현재와 노후에 모두 사회에서 고립된 생활을 할 위험이 높은 집단임을 보여준다. 베이비 부머 전체 평균인 25.2%에 비하여 약 20%포인트가 높은 45.1%가 컴퓨터 및 인터넷을 전혀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보로부터도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들이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교육은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건강관리와 여가와 취미관련교육이다. 그러나 3순위에 있어서는 유형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본 유형의 경우는 취업 및 직업교육을 언급하고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평생교육의 경우는 다른 유형에 비하여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마. 가치관

남자유형Ⅰ이 노후의 부양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생각은 부모의 부양은 가족이 해야 하며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나 배우자가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유형의 베이비 부머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자신의 노후는 부부단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른 유형보다 강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71.5%가 자신 또는

배우자가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여자유형Ⅳ의 54.1%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책임에 대한 강한 선호는 실제 다른 유형이 의존할 수 있는 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의존할 수 있는 자녀의 가용성이 낮다는 현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유형이 실제로는 가장 자신의 경제적인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더 이들의 노후생활의 불안정성을 우려하게 한다.

또한 부모의 자녀 부양기간을 가장 짧게 잡고 있다. 베이비 부머의 자녀부양 시기에 대하여 학업을 마칠 때까지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높고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은 29.7%로 가장 낮다. 즉 자녀 부양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처해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학업을 마칠 때까지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상층(남자유형Ⅲ과 남자유형Ⅳ 및 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경우는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40~50%수준이다.

2. 사례조사를 통해 본 삶의 모습

가. 과거

남자유형Ⅰ은 교육을 일찍 마감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들은 계속 출생지에서 생활을 영위하거나 또는 일할 기회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여 이른 나이에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직업을 모색했으나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다.

00공고를 다니다가 내가 2년 중퇴를 했기 때문에 조선소에 들어가서 근로를 했죠.. 마흔 살 정도에서 내가 하는 일을 손을 놓고 다른 직업을 바꿔 볼까 하는 생각은 했어요... 가구 대리점이나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또 생각이...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하는 거 해보자 했는데 지금까지 왔어요 (사례1)

(고향은) 경북 oo이고 (△△에) 온 지 오래됐어요 어릴 때 왔어요.. (혼자)부산에 온 지는 스무 살. (사례2)

한 몇 가지했어요 기술 없재. 배운 게 없재. 공장에도 다녔고 (사례2)

중학교.. 졸업 안 했어요.. 17살인가.. 옛날에는 다 무조건 한양이잖아요 (사례3)

이러한 이들의 불안정한 경제 상태는 결혼이나 자녀출산도 제약하였다. 결혼도 이른 시기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상되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하여 자녀출산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결혼 안 하려하다가 했지.. 안 하는 게 돈이지 뭐. 방 얻어야지, 그때만 해도 전세방이라도 얻어야지. 돈 문제지. (집안에서 도움 받기가) 힘들었지. (사례2)

내가 생활능력이 없으니까 난 서른에 간다고 마음먹고 있었죠 (사례3)

자신이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를 원하지는 않지만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으로 연결되고 있다.

맨 처음에 시집와서 살림만 했죠 (부도 맞고 처음으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반대는 안 안했지만 내심 미안했죠 (사례1)

결혼만 시켜주면 지가 알아서 해야지. 마누라도 바라는 거 없고 (자녀한테 돈은 언제까지 대주실 생각이신지?) 졸업은 시켜줘야지.(사례2)

나. 현재

남자유형 I의 삶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단조롭고 딱딱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경제지 뭐. 돈. 먹고 살기가 빠듯하지. 물려받은 게 없으니깐.. 옛날보다는 그래도 나은 거지! (불만족스러운 것은) 좀 더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깐.. (사례4)

친하게 지내는 양반들은 보통 산에 가는 사람들하고 며 옛날에는 내가 낚시도 참 좋아했는데 요즘엔 안 가니까 거의 며 산행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같은 업종에 사업하는 양반들.. (사례1)

(모임은) 두 개인데 하나는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 두 번째도 초등학교 동창회인데 거기서도 상조회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회는) 한 달에 한 번 씩.. 지금 회원들이 30명 되는데요. 회비 냅니다. 한 달에 2만원이요. 상조회는 일 년에 분기별로 4번 만납니다. 회비는 5만원씩이요 16명 정도 되죠 (이거 말고) 다른 모임은 없습니다. 아, 또 하나 있네. 우리 저 00년도에 초등학교 졸업한 00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00시 초등학교가 00년도에 졸업한 모임이 있어요. 수천 명 되죠 (이 중) 약 삼사백 명 정도.. 일 년에 한 번(만나죠). 회비 참가비 있습니다. 한 학교에 50만원 정도..그거는 초등학교 월회가 있으니깐 그 재정으로 충당합니다. (사례1)

또한 이들은 현재의 일이 요구하는 생활패턴에 맞춘 틀에 박힌 생활을 하고 있다.

아침 6시에 기상입니다. 7시에 집을 나갑니다. 밥을 먹고 나가서 7시 30분까지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7시에 퇴근합니다.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직행입니다. 직원들 내가 가까운 쪽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와서 요즘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간단하게 샤워 좀 하고 (저녁 먹으면) 보통 8시나 8시 30분. 그 다음에 장부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뉴스 좀 보고 어쩌다 보면 맥주도 한 잔 하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그리고) 누우면 그냥 잠이죠.. (사례1)

외식은 가족끼리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가족 외에 외식은 많죠 거래처가 있으니...(사례1)

12시간 맞교대이다 보니깐 사람을 만나러 나갈 시간이 없어. (사례4)

일요일 날 아침은 내가 라면 끓이고.. 어디 안 가면 그냥 있는 거예요 요새는 돈 없으니까 더 못 돌아다녀요 누구 말마따나 주머니가 있어야지 나가든가 나가면 돈인데 뭐. (사례3)

또한 가족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가족끼리의 애정을 확인하고 공유하기 위한 활동을 할 마음의 여유는 없는 상태이다.

가사활동은 거의 도울 일이 없죠.. (아내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친구랑 갑니다) 네. 자기(아내)도 자기 어떤 취미생활을 해야 하니까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은) 없습니다. (사례1)

(여행 같은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잘 못 가)... 1년에... 한 번도 못 가지. (영화를 본다든지 다른 여가활동도 못 하고)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은) 노는 날 돌이 바람 쐬는 것뿐이라... 필요한 게 있을 때는 마트도 갔다가, 산에도 좀 올라갔다가 그러지 뭐. (사례2)

배우자와의 관계는 신혼 및 중년기의 적응과정을 거쳐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이며 노후생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자녀에 대해서는 소중하며 버팀목이 되는 존재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에서 부양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성격상 많이 싸우죠.. 40대까지는 싸워요 자주. 그리고 지금은 포기했으니까 둘 다 지금은 잘 안 싸워요.. (사례3)

마누라, 아들 제일 친하잖아. 한방에 같이 자고, 한집에서 밥 먹고 같이. 제일 친하고 서로 제일 낯지 뭐. (사례2)

자식이라는 의미. 그거는 머 어떤 엄격하게 얘기를 나누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증표 (그게 뭐예요?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일단 자식이 생겼으면 소중한 존재가 맞죠.. (사례1)

반면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부양의식을 갖고 있다. 즉 우리사회의 변화된 일반적인 의식, 부모는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과 그러나 자녀에게는 기대하지 않는 태도를 공유하고 있다.

전혀 부담스럽다는 거는 1%도 느끼지 않았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셔야 하죠). (사례1)

다. 미래- 노후생활

이들은 현실이 주는 삶의 무게 때문에 자신의 미래인 노후생활에 대해서는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2년 살지 내일 모레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예상은 못하는 거야, 미래라는 건. 서민들은 미래라는 게 없어요.. 서민들이 무슨 미래를 생각을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나 미래 생각하고 어디를 해외로 여행이나 갈까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못 멩기는데. (사례3)

그 결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다른 일을 준비할 여유가 없어 무력한 상태에 놓여있다.

(지금 받으시는 임금으로는 노후생활이) 안 되지. (안 되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다른 할 방법이 없는데, 뭐 시간이 나아 뭐 다른 걸 뭘 해 보든가 시간이 없으니까.. (사례2).

또한 노후를 생각해볼 때에도 구체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막연한 느낌만을 갖고 있다.

(하고 싶어 하는 슈퍼는) 노후 계획입니다... 65세 이후(에 할 생각입니다).
(슈퍼를 하면 지금보다) 좀 편하겠죠 편키는. (사례1)

(노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건 없고, 하면 밥값이라도 벌겠지. (내가 나이 들어서 뭘 해야 되겠다,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건 (없고)... 대충 놀지는 않고 뭐라도 하겠다... (생각하죠). (사례2)

따라서 매우 소극적인 노후준비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체념과 무기력 상태이다.

(노후 준비하고 있는 거) 없어요 (국민연금) 회사에서 들어가는 거지. (사례4)

(일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생각). (사례3)

(노후가 많이) 모자라죠.. 대책은 없어요 집 팔아서 갚는 것 밖에 없어요 (사례3)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노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구상을 해 놓는 거 같으면 세월이 지나고 며 하다보면 그 계획이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현재는 아까도 얘기 했듯이 빌라 저걸 조그마한 거를 청산하고 거기에 공원화 되면 내가 육십 다섯 정도까지는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연금은 〇〇〇 이런 보험 있어요.. (사례1)

즉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고 대비하기에는 현재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로또복권도 사 봐도 로또복권도 되지도 않고 요즘 마음이 굴뚝같아요 1억만 어디 딱 생겨라... (사례3)

그러나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담배를 끊는 것과 같은 자신의 결단에 의하여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된다.

40살 넘어가면서 부터는 체력이 떨어지더라고 지금은 먹으면 막걸리 한잔

반, 소주 한 병 그 정도 밖에 안 먹어요 ... 담배는 끊었어요 (사례3)

따라서 정부가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본적인 경제적인 생활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해본다.

저 나이 돼 갖고 개인적으로 뭐를 한다는 거는 좀 어렵거든.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좀 단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알아보면 많이 있거든... 떳떳하지 못하고 약간 비참한 생각이 ... 이대로 나간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사례2)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복지 저걸로 자꾸 현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대로 갈려고 그러는데 자식들보다도 정부에서 해 주는 게 더 많을 거야 앞으로 (사례3)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정부에만 의존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평생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온 만큼 그러한 삶의 태도가 몸에 배어있다.

살아지겠지 뭐. 나이가 들어도 일은 해야 되고 일은 한다고는 생각이 갖고 있으니깐 밥은 먹겠지 뭐. (걱정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살아지겠지요). (사례2)

그저 나는 앞만 보고 왔지 옆으로 뒤도 쳐다보지 않고 왔거든요 그런데 진짜 머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 이거를. 그래도 참 내 인생이 좌절하지 않고 여기까지 곳곳이 온 게 나는 내 인생을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례1)

노후생활에 있어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이는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구적인 측면에서 그러하다. 이는 자녀에게는 그러한 실제적인 부양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수발을 받고 싶다는 거는 우리 미누라한테 받아야죠 (그 다음으로는) 딸... 기왕이면... (요양서비스는) 네. 별로 받고 싶은 생각 없어요 (사례1)

(노후에 아내가) 더 중요해지겠지...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당장 물이라도 한 그릇 줄 사람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는데. 중요하죠.. 심적으로 밤에 사람이 이 갑자기 이플 때 그때는 정말 중요하죠 (사례1)

(노후에 여유시간이 많아지면 부부사이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나이가 들고 하면 부부가 최고지 ... 마누라 밖에 없어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다보면... 제일 가깝고 제일 오래 생활했으니까 구석구석 알고 눈빛만 봐도 알고 (그래서 나이 들면 배우자가 최고예요).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첫째 외롭겠지. (사례2)

(나이가 들면 아내를) 좀 (더) 도와줘야죠.. 그 사람이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면 밥도 내가 챙겨 먹어야 되고 (사례1)

(노후에 딸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가외인이기 때문에 그쪽에 자기 자식들도 있고 집안이 있고 하기 때문에...(사례1)

(아들이 결혼하면) 뭘 같이 살겠어요, 따로 살지. (같이 살면) 불편하지... 모든 게 다 불편하지. 따로 살아야 지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지. 따로 사는 게 편하지. (사례2)

3. 종합

남자로 평균 이하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불안정한 본 남자유형 I은 베이비 부머 중 가장 삶의 질이 낮은 상태이다. 경제적인 측면의 불리함과 종사상의 지위가 주는 불안정성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청장년기를 남자는 부양의무자라는 전통적인 성역할 하에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상당했을 것이다.

청소년 시절부터 경제사정이 나빴고 그래서 삶의 시작부터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하게 되어 인적자원이 적을 수 밖에 없었다. 즉 세대 간 계층의 고착화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삶이 주는 무게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도 없다.

이들의 불안정한 경제 상태로 인하여 결혼, 자녀출산이 제약되어 무자녀 비율이 높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다수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인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다.

본 유형은 일찍 경제활동 시작하였고, 항상 다른 직업을 모색하였으나 대안이 없었고, 현재도 다른 일을 준비할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대체적으로 높은 고용불안정성과 높지 않은 임금수준과, 이로 인한 직업에 대한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노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있어 소득창출 수단으로써의 일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자신과 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노후에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고, 소득창출을 위해 노후에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노후소득보장에 두고 있다.

또한 이들의 자녀 및 부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각종 사회참여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노후에도 사회참여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 노후의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높다.

모든 측면에서 노후준비가 부족하다. 경제적인 측면의 경우 공적 연금 미가입률이 36.6%로 유형 중 가장 높고 미불입중인 경우가 31.4%에 달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틀에 박힌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혼자 하고 돈이 들지 않는 운동/등산/산책이 유일한 여가활동으로 희망은 여행이나 현재 생활에서는 꿈도 못 꾸고 있다. 건강상태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낮을 뿐만 아니라 건강행위 실천율도 낮아 6개의 건강행위 중 3.09개만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 기초해볼 때 본 유형의 베이비 부머를 위해서는 첫째,

일자리 창출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시급할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 베이비 부머 중 공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미불입중인 대상에 대한 불입촉진 방안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생활에 매몰되어 노후설계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공적인 노후설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건강행위 실천율 제고, 사회적 연계의 중요성 등이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남자유형II(남자 저소득층 인정적·독자적 근로활동형)

1. 양적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본 삶의 모습

가. 가족관계

남자유형II는 남자유형I에 비하여 자녀가 없는 비율이 10.4%로 절반 수준이지만 이들 역시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무자녀율을 보여 저소득 남자 베이비 부머(남자유형I과 남자유형II)는 평생동안 고용상의 지위와 무관하게 자녀출산이 억제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단 자녀를 출산한 경우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자녀가 전혀 없는 사람들과 평균적인 베이비 부머의 출산행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분된다.

본 유형은 자녀동거율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월등히 낮는데, 이는 이들이 비교적 다른 남자 베이비 부머에 비하여 일찍 결혼하여 이들의 자녀가 결혼이나 취업, 교육 등의 이유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생애주기에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동거하지 않는 경우 비동거자녀와의 접촉도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또한 이들은 경제적 도움을 주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도 12.4%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적 부양을 행하고 있

다. 더불어 성인자녀의 부양시기에 대해서도 남자유형 I에 비하여 그 시기가 늦어 직장이나 결혼 등으로 생활의 안정이 확보될 때까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남자유형 I에 비하여 부모 세대가 생존해있는 비율이 높으며 비동거 부모와의 접촉 수준도 그리 낮지 않다. 이는 소득수준은 평균 이하지만 고용의 안정성 등 비교적 자기주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대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소득수준 자체보다는 자신의 삶의 안정성이 부모와의 관계 및 자녀출산행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편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수는 평균 2.5명으로 평균수준인 2.6명에 근접한 규모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일차적 비공식적 관계뿐만 아니라 이차적 비공식적 관계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상의 자기주도성이 낮은 소득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구적 도움의 경우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도구적 부양의 교환이 활발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부모에게 집안일 도움을 주는 비율이 70%이며 수혜율 또한 23.1%이다. 배우자 부모의 경우 다른 유형의 남자 베이비 부머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부모에 비하여 제공율은 낮지만 수혜율에 있어서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 즉 도구적 도움의 제공은 부모에게 편향되어 있지만 도움의 수혜는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 부모로부터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자녀와의 도구적 교환 또한 집안일 도움 제공율이 37.9%, 수혜율이 52.4%로 평균수준인 57.7%와 52.8%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고용의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남자유형 I에 비하여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 남자유형 I에 비하여 자신의 부모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이지만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도움의 수혜에 있어서는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간의 차이가 적다. 이는 경제적 도움의 교환 유형에 있어서도 부모와는 무교환율이 높지만,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는 도움을 주는 편이라는 응답이 78.7%로 본인의 부모의 70.9%보다 약 8%포인트 높다. 이러한 경향은 본인 가족과 배우자 가족과의 접촉 및 친밀감에도 보여지고 있다. 접촉빈도는 배우자 가족보다는 자신의 가족과 조금 더 자주 접촉하는 편이지만, 친밀감은 배우자 가족과 좀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답변이 75.5%로 평균인 71.1%보다 조금 높고, 남자유형 I의 70.0%에 비하여는 조금 더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자유형 I에 비하여 동창과 접촉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또한 노후에 중요할 것으로 배우자를 답한 비율이 81.9%로 남자유형 I의 61.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이들 생활의 배우자 중심성이 매우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나.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남자유형 II의 현재 흡연율은 47.5%로 남자 중 낮은 편에 속하며, 현재 음주율은 71.3%로 남자 베이비 부머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운동 실천율은 60.2%로 평균인 68.5%보다 낮은 수준이며 다양한 식품 섭취나 건강식품 섭취율 또한 남자유형 I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건강검진 수진율 또한 72.9%로 남자유형 I보다는 높지만 평균인 80.8%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건강생활 실천행위를 정리해보면 6개의 항목 중 평균 3.52개를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베이비 부머 평균 4.16보다 낮은 것으로 남자유형 I의 3.09보다는 높지만 8개 유형 중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금주나 금연보다 경제적인 투

자를 필요로 하는 건강실천행위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56.5%이며, 만성질환율이 24.4%, 우울증상 경험률 7.5%로 전체 점수가 2.58점이다. 이는 남자유형Ⅳ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건강실천행위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이들의 노후건강에 대한 우려와 건강행태의 변화가 요구된다.

다. 경제 상황 및 경제적인 노후준비

남자유형Ⅱ의 평균 가구소득은 약 250만원으로 남자유형Ⅰ의 217만 원에 비해서는 조금 높지만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평균 자산도 187만원으로 베이비 부머 전체 평균인 364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에 있어서도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다. 부채 또한 자산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고 소득의 84.6%를 소비하고 있고 저축의 비중이 9.3%에 불과하다.

계층의식은 하하, 하상, 중하라는 응답이 각각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남자유형Ⅰ의 12.2%만이 중하라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볼 때 중하라는 응답이 30.0%로 높다. 본 유형의 약 1/3은 자신을 중산층과 하층의 경계선에 있는 집단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청소년 시절의 경제생활수준은 50% 이상이 나쁜 편이었다고 응답하고 있어 부모세대부터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34.4%는 10년 후 경제수준이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나,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비율도 21.5%에 달하고 있어, 긍정과 부정이 혼재해있다.

이들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를 살펴보면 건강요양위험에 대비한 준비, 사망위험에 대비한 준비, 노후연금 가입률, 목돈 마련을 하고 있는 비율 모두 남자유형Ⅰ에 비해서는 높지만 평균 수준보다는 낮다. 저소

특층(남자유형 I 과 남자유형 II)은 고용상의 지위와 무관하게 경제적인 노후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노후준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남자유형 I 에 비하여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바로 높은 공적 연금 가입률이다. 공적 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85%로 매우 높지만 23.1%가 가입은 했어도 현재 불입하지 못하고 응답하고 있어, 이들을 지속적으로 연금액을 불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라.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

남자유형 II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1/3이 최장기 종사한 일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이미 직업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11.2%가 일용직에, 9.1%가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어 종사장의 지위가 불안해진 상황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45.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평균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즉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지만 현재의 종사상 지위의 불안정성이 낮은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36.4%가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낮은 만족도와 연계되어 있다 하겠다.

이들의 87.1%가 노후에 경제활동을 계속하기를 희망하며 종일근무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들이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기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소득이라는 응답이 71.5%로 가장 높지만 자기발전이라는 이유도 14.8%, 건강 12.0% 등 비경제적인 이유도 일정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자유형 I 과 차별화되고 있다.

이들은 노후 생활에 있어서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노후생활에 있어 일의 중요성 점수가 5점 만점에 4.02점으로 남자유형 I 과 동일

하다. 그러나 노후에 경제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큰 이유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로 남자유형 I의 경우 기능악화가 제일 큰 이유였던 것과 대비된다. 즉 남자유형 I는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문제를 느끼고 있어 일을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남자유형 II의 경우는 청장년기에 누리지 못한 여가를 즐기고 싶다는 자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남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남자유형 III과 남자유형 IV)와 공유하는 특징이다.

한편, 이들의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운동스포츠가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며 등산, 산책, 컴퓨터 및 인터넷, 친목모임의 순이다. 다른 유형에 비하여 컴퓨터 및 인터넷을 여가활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이들이 노후에 즐기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 등산, 낚시, 운동스포츠, 바둑장기·체스 순이다.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비교해보면 여행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며 바둑장기·체스 등도 향후에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서의 여가활동의 중요도는 5점 만점에 3.52점으로 남자유형 I의 3.18점 다음으로 낮은 점수이다. 또한 노후의 삶에 있어서의 여가활동의 중요성은 3.86점으로 이 또한 남자유형 I의 3.61점 다음으로 낮은 점수이다. 즉 현재의 삶이나 노후의 삶에 있어서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경제활동이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현재의 삶에 있어서의 여가활동의 중요성에 비하여 노후의 삶에 있어서는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지만, 삶에서의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은 노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사회참여활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원봉사의 경우 7.1%만이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도 계속할 의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63.4%는 현재뿐만 아니라 노후에도 자

원봉사활동을 할 의사가 없다. 그러나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28.5%에 대해서는 이들의 잠재적인 자원봉사참여 욕구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교육은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1순위 건강관리, 2순위 여가와 취미관련교육이며, 3순위는 취업 및 직업교육으로 남자유형 I와 동일하다. 노후설계 희망 교육의 경우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평생교육의 경우는 다른 유형에 비하여 비용의 중요성을 높게 보고 있다.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의 경우 전혀 사용할지 모른다는 응답이 24.4%로 남자유형 I의 45.1%보다 월등히 낮고, 매우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13.8%로 남자유형 I의 2.3%보다 11.5% 높게 나타나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그들의 고용상의 지위가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을 높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 가치관

남자유형 II의 가치관은 부모의 부양에 있어서의 자녀·가족의 책임인식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자유형 I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노후생활비 마련에 있어서의 본인이나 배우자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60.6%로 남자유형 I의 71.5%에 비하여 낮고 대신 연금이나 사회보험이라는 응답이 26.0%로 남자유형 I의 12.8%보다 월등히 높다. 이들은 공적 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많았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공적 연금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노후생활은 청장년기에 누리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는 것을 희망하는 비율 42.6%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염두에 둔 소득창출이라는 응답이 33.2%로 양분되고 있다. 소득창출이라는 응답은 평균 18.7%의 약 두 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남자유형 I와 함께 남

자로서 갖는 주부양자로서의 의무감과 저소득층이 갖는 소득창출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최근의 주요 관심사는 자녀교육과 생계비 마련의 순서이다. 특히 생계비 마련이라는 응답은 20.6%로 남자유형 I의 20.3%와 더불어 남자 저소득층 베이비 부머(남자유형 I과 남자유형 II)의 약 1/5이 기본적인 소득확보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사는 노후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예상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 46.8%가 경제적 어려움을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이 건강 및 기능약화도 41.5%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들의 37.8%는 노후소득 보장을 다른 35.5%는 건강보호장기요양서비스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건강 및 기능약화를 노후생활의 어려움으로 지적하는 응답 경향은 베이비 부머 전체의 54.7%가 자신의 건강 및 기능약화를 우려하는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실제 이들이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평균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과 함께 생각해보면, 이들이 ‘성공’을 생각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소득이 중요한 선결 요건이라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례조사를 통해 본 삶의 모습

가. 과거

남자유형 II는 비교적 전문성이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남자유형 I과 구별된다.

실업계에 자동차 정비과가 있었어요... 하다 보니 쪽 한 거지. (사례5)

하지만 남자유형 I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아내가 일을 해

야 하는 상황에 당면하였고 마음으로는 마땅치 않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맞벌이를) 지금 한 7년 쯤 하나... (아이들) 대학, 고등학교 때문에...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나중에는 반대를 할 수가 없었지. 애들을 가르쳐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수공을 해야지. 슬그머니 못이기는 척. (사례5)

(아내가 일) 안 하는 게 좋죠.. 이제 다 늙었는데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낫죠 (돈을 벌어서 오지만) 여성들이 전문직이 아니면 (일할 때 대우를 못 받잖아요)...(사례8)

(배우자는) 그냥 조그마한 인형이라고 할까. 그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한번씩 꺼내보고 싶은 손 닿는데 아무데나, 크면 못 갖고 다니니까.. 가까이에서 지금까지 내조를 해왔으니까, 나도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주고 싶어. (사례5)

나. 현재

남자유형Ⅱ는 남자유형Ⅰ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삶을 제약하고는 있지만 일부는 직업이 가져오는 안정성으로 인하여 비교적 정형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주말마다 하는 여가활동과 연중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족과의 만남이 대표적인 것이다.

뉘시요.. 한 달에 3,4번 정도 거의 주말에는 간다고 보면 돼. 주말에 가가지, 평일에는 일 하니까. (사례5)

(5시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식사하고 조깅도 하고 헬스도 다니고 (사례8)

(형제들과는) 6개월에 한 번은 모이니까, 일 년에는 보통 4,5번... 대화는 만날 찌그덩 찌그덩하는 대화지. (그냥 일상적인 대화지)... (사례5)

반면 바쁜 일로 인하여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즉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많은 노동시간을 요하는 경우 여가나 운동과 같이 자신을 위해 투자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

(취미는) 없어요.. 운동할 시간(도) 없어요 새벽에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오면 무슨 운동을 해. (사례6).

취미가 없어요 바쁘게 살다보니까 취미생활을 할 수 없어요 (사례7)

다. 미래- 노후생활

본 유형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 때문에 지금 직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은퇴와 관련된 관행에 따라서 예상하고 있는 은퇴에 대한 체감도와 은퇴시점에 대한 생각은 다르다. 비교적 정년이 보장되는 경우는 정년에 기초하여 자신의 은퇴시점을 확신하고 있는 반면 계약에 의하여 갱신되는 경우는 은퇴를 멀지 않은 사건으로 감지하고 있다.

(일은) 몸이 허락하는 한 해야지. 하는 일에는 정년이 없어요 (그럼 주변에서 몇 살 때까지 일을 하시나요?) 65까지는 해야지. (사례6).

(정년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내년 3월 달에 계약이 안 되면 나와야 되요..이걸 몇 년 전서부터 감지를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위기감 같은 건 없어요 (그래도) 이게 오고 있구나.. 느끼고 있지요 (사례7)

이들은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인 궁핍이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이슈이다. 이는 노후소득을 위한 체계적이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을 통하여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가능할지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한편,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을 받고, 부담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 아무래도 수입이 있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왕성하게 일을 할 때하고 (사례8)

돈이야. 궁핍하게 사는 것보다 넉넉하게 옆에 사람들에게 술도 한 잔씩 사고 그러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저축할 여유가 없다니까. (사례6).

노후에 뭘 기금이 어땠어. 이거 팔아가지고 시골에 가서 조그마한 집 짓고 살 아야지. (사례6)

늙고 힘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도움을 주길 바랄텐데 하지만 지금의 우리 자 식 세대에서 개네들이 어떻게 해 주는냐에 따라 다르겠죠. 개네들이 좋은 취 지를 갖고, 내가 예를 들어 내 월급에서 세금을 조금 더 떼더라도 국가에서 노인들을 위해 쓴다고 과감하게 낼 줄 아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 돈 이 아깝잖아. 그걸 반대하고 싫다고 하면 그 문제는 심각해지지. (사례5)

자식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열심히 일을 더하고 있어요 (사례7)

기금 (은퇴를) 생각하죠. 나이가 있으니까... 은퇴하면 애기들한테 기대지 않고 살아야 할 텐데.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못될까 봐). (사례8)

한편, 아직 질병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낄 연령대는 아니기 때문에 구 체적인 수발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자녀에 의존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질병은 없어요... (그러나)... (노후를 생각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내용은) 몸 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수발을 받아야 하는 나이는 75세나... (사례7)

(만약 몸이 안 좋아지면... 자식에게는 받고 싶지 않아요)... 부담을 주지 싶지 않아서요 (사례7)

내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수발을 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 (수 발이 필요해지면 누가 수발하면 좋을지는) 그건 그때 봐야 알지... 기왕이면

부인이 해줬으면 좋겠지. (두번째는) 자녀가 했으면 좋겠지만, 그 애들이 젊은 나이에 시간이 되간다. 이제 그러면 천상 간접적으로 받아야지. (사례5)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지하지만 자녀세대에게는 기대하지 않는 베이비 부머가 샌드위치 세대로서 갖는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내가 능력이 있게끔 해서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의 세대는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자식을 낳지 말아야지, 왜 낳느냐고 하지. 젊은 애들은 그래, 지금. (사례5)

저는 단순해요 저는 큰 의미를 갖고 사는 건 아니고 헛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게 그게 생각뿐이고 마음뿐이지 잘 안 되는 그게 조금 아쉽죠.. (사례7)

한편, 은퇴 후 생활양식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본 유형의 남자는 은퇴 후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는 자연선호형 은퇴생활을 선호하고 있지만 아내의 반대에 당면해 있다.

(선생님, 시골에서 계속 살고 싶으신 거죠?) 나는 갈 때까지 살고 싶어요 (아파트보다는 주택에서요?) 내도 아파트 살아봤는데 성격상 안 맞아요 갑갑하고 (사례8)

시골에 땅이 있어도 이 사람이 시골 자체를 싫어하니까.. (사례7)

이들은 은퇴 후 노후생활에서 의료비의 발생을 우려하고, 그 동안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가 되면 지출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항목은) 의료비(이고요). 노후에 지출할 때 축소를 해야 한다면 가장 우선순위로 옷 같은 거 사 입고 쇼핑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축소(할 것 같아요). (사례8)

그 나이 되도록 은퇴하고 친구들이 살아있다면 같이 대화하고 시간을 보냈으면.. 뭐, 일상에서 놀러나 다니고 구경하고 (여행 같은 거?) 그러죠 (사례8)

3. 종합

소득수준은 낮지만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위상을 가져온 남자유형Ⅱ는 소득의 부정적 영향을 고용상의 안정성이 일정부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평균자녀수 유지 및 밀접한 관계 유지, 부모와의 접촉빈도도 낮지 않아서 자신의 삶의 안정성이 부모와의 관계 및 자녀출산행위 등에 소득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 또한 남자유형 I 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노후준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남자유형 I 에 비하여 높은 비율이 공적 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높지만 23.1%가 현재 불입하지 못하고 응답하고 있다.

남자유형 I 에 비하여 약간 높은 건강 실천율을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이들 역시 경제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건강실천행위의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이들의 약 1/3이 최장기 종사한 일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이미 직업적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들의 20%가 현재 일용직 및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어 종사상의 지위가 불안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부족한 경제적인 노후준비로 높은 노후 경제활동 희망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가활동 자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삶에 있어서의 여가활동의 중요성에 비하여 노후의 삶에 있어서는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기는 하지만, 삶에서의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성은 노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경우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약 30%는 희망하

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징에 기초해볼 때 본 유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째, 공적 연금에 가입을 했지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연금액을 불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건강실천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예방적인 견지에서 지금 부터라도 적극적인 건강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이들의 다수가 고용상태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장의 기능직을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 교육이 시급히 요구된다. 셋째 이들에게 보여지는 배우자와의 노후설계의 차이가 보이므로 부부가 함께 노후를 설계하고 공감대를 형성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제3절 남자유형III(남자 중상층 불안정·비독자적 근로활동형)

1. 양적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본 삶의 모습

가. 가족관계 및 부양 관계

남자유형III은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무자녀 비율이 8.8%로 평균 5.1%에 비해서 높은 특성을 보인다. 남자유형 I과 남자유형II와 비교하면 1인가구 비율이 약간 낮지만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것이다. 자녀수는 평균 1.7명으로 전체 평균 1.9명에 비해 약간 낮지만 자녀동거 비율은 99.0%(베이비 부머 평균 82.7%)로 높게 나타난다. 이들 유형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도구적 교환에서 집안일 도움에 대한 제공율은 35.6%로 베이비 부머 전체 평균 57.7%에 비해 낮으며, 수혜율 또한 44.7%로 전체 평균 52.8%에 비해서 낮고, 그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만족하는 비율이 69.1%로 전체 베이비 부모의 83.8%에 비해서 낮게 나타난다. 이들 유형의 배우자와의 관계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7.5%로 전체 베이비 부모 2.7%에 비해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 생존율은 65.9%로 평균인 61.2%에 비해서 높은 반면, 접촉 빈도는 주 1회 이상 접촉하는 빈도가 29.6%로 평균인 55.9%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그러나 배우자 부모에 있어서는 37.6%로 전체 평균 38.2%와 유사한 수준이다. 본인 부모와의 교환실태를 살펴보면,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집안일, 간병이나 수발에서 각각 37.0%와 24.7%로 평균 72.4%와 34.2%에 비해 낮으며, 또한 받는 경우도 10.3%로 평균 26.7%에 비해 낮았다. 배우자 부모와의 교환실태는 도구적 도움 제공의 비율(집안일 56.0%, 간병 22.4%)은 베이비 부모 평균(65.5%, 23.5%)에 비해 낮으나, 수혜율은 35.9%로 평균 27.2%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도움의 교환을 살펴보면, 본인 부모에 대한 정기적인 현금지원의 비율(36.6%)은 높으며, 배우자 부모에 대한 현금지원(30.2%) 또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 세대로부터의 경제적 수혜 특성을 살펴보면 본인 부모로부터는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낮은 반면, 배우자 부모로부터는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의 비율이 16.6%로 베이비 부모 평균인 5.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친가와 배우자 가족과의 접촉빈도에서는 친가와 더 자주 접촉한다는 비율이 58.4%로 베이비 부모 평균인 47.9%에 비해서 높으며, 배우자 가족과 더 자주 접촉하는 비율은 27.0%로 이 또한 베이비 부모 평균인 23.9%에 비해 높다. 그러나 접촉빈도가 양가가 비슷하다는 비율은 14.6%로 평균인 28.1%보다 낮게 나타나, 본 유형에서는 친가와 배우자 가족과의 접촉빈도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친밀감에서는 평균에 비해 배우자 가족과 더 친밀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21.4%로 평균 12.1%에 비해서 높다. 요약하면 이 유형의 경우 남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친가에 대한 객관적인 접촉이나 지원이 높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배우자 가족에 대한 친밀감이 높고, 지원 및 교류가 높은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본 유형에서는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의 수가 3.3명으로 평균인 2.6명에 비해서 많으며, 가장 자주 접촉하는 지인의 경우 동창의 비율(47.9%)이 평균(25.7%)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노후생활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에서 배우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향은 같으나 형제자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10.3%)이 베이비 부머 평균(3.7%)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나. 건강행위 및 건강상태

남자유형Ⅲ은 금연, 금주, 건강검진, 운동실천 등의 6개 생활실천 항목 중 평균 3.36개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중 남자유형Ⅰ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흡연중인 비율이 63.4%이며, 음주는 82.9%로 남자 베이비 부머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습관에서는 운동을 하는 비율(65.9%)이 베이비 부머 평균인 68.5%에 비해 약간 낮으며, 자주 이용하는 운동시설은 집 주변(53.8%)과 민간상업 체육시설(26.9%)의 비율이 가장 높고, 공공체육 시설(11.5%) 등의 이용도 평균(6.3%)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는 연령대가 장년층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건강식품 섭취 비율이 높은 반면, 본 유형에서는 건강식품 섭취율이 39.0%로 베이비 부머 평균 59.7%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유형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다른 유형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좋다

라고 응답한 비율(57.5%)이 높고, 전체 평균(9.9%)과 비교할 때 나쁜 편(12.5%)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는 등 응답의 다양성이 큰 편이다. 만성질환과 우울증상은 평균수준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를 종합한 점수에 의하면 건강행위와 마찬가지로 남자유형Ⅱ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다.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

남자유형Ⅲ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평균 500만원으로 베이비 부머 평균 448만원에 비해 약 50만원 가량이 높다. 가구원수에 따른 균등화를 통하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27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평균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지만, 자산에 있어서는 평균 자산액이 3억 가량으로 평균 3억 6천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유형의 경우 자산액은 충분하지 못하지만 월 소득은 평균 이상인 유형이다. 이들의 경제적 계층의식에서는 대부분 중산층이라고 의식하는 비율(63.4%)이 높으며, 하층이라고 의식하는 비율 또한 36.6%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을 고려할 때 이 유형은 남자유형Ⅱ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들 유형의 노후 준비 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남자 베이비 부머들이 본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하여 본 유형에서는 배우자(여성) 중심의 노후준비가 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건강 요양위험에 대한 대비도 배우자의 비율이 높으며, 사망위험도 배우자가 높게 나타난다. 특히 목돈 마련에서 본인보다는 배우자의 노후 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노후 소득보장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인지도(85.4%)가 평균인 85.3%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이용 의사에서는 현재 주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22.0%)이 베이비 부머 평

균(19.4%)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적연금 가입 특성에서는 가입중이지만 미불입상태가 23.8%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금액에 대한 인지율에서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즉 본 유형은 임시직과 같은 비교적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남자들로서 비록 현재 소득은 일정수준 있으나 자산적인 여유가 부족하며, 노후에 대한 준비도 현재 소득수준에 비해서 미흡하다.

본 유형의 경제활동 특성을 살펴보면, 최종 직종과의 관계에서는 같은 일인 비율(62.5%)이 높게 나타나고,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직업의 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의 비중(50.0%)이 높으며, 일에 대한 만족도는 58.6%로 전체 베이비 부머 평균(55.8%)에 비해서 만족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비율(80.0%)은 평균 (77.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즉, 본 유형의 경우 계속적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비교적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를 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는 낮으나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유형이다. 이들 유형에서는 노후에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희망 이유에서도 소득이나 자기발전/여가(20.0%)보다는 건강을 이유로 하는 비율(24.0%)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므로'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노후의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14.6%)이 평균(8.6%)에 비하여 높으며,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들의 희망 근로형태는 자유 형태를 희망하는 비율이 32.0%로 평균인 23.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라.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남자유형Ⅲ의 여가활동 상위 순위는 운동과 친목모임이며, 이는 다른 베이비 부머가 등산이나 산책 등의 순위가 높은 것에 비해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결과이다. 따라서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친구와 함께 하는 비율(57.5%)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유형에서는 타 유형(평균 15.6%)과 달리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5.0%)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삶에서의 여가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노후 삶에서의 여가 중요도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이들 유형은 자원봉사 참여 비율이 12.2%로 평균 7.3%에 비해 높으며, 그 이유 또한 사회적 책임과 건강으로 나타났다. 본 유형에서는 현재 삶에서의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높다고 생각한 반면, 노후의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재 삶에서의 중요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노후교육과 노후 설계 컨설팅에 있어서는 정보화교육에 대한 욕구(14.6%)가 타 유형(2.6%)에 비해서 높고,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 이용의향은 46.3%이며, 이들은 서비스 비용 지불에 있어서는 무료라면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42.1%로 평균 64.1%에 비해 낮으며, 10만원 미만의 비용 지불에 대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가치관

남자유형Ⅲ의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해서는 자녀와 가족에 의한 책임이 가장 높으며, 본인의 책임 비율(19.0%)도 평균(15.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바람직한 노후 생활비 마련에서는 본인에 의한 준비(63.4%)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노후 거주 희망 지역은 농

어촌 지역의 비중(53.7%)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이 자녀에 대한 부양기간은 직장이 생길 때까지(31.0%), 결혼할 때까지(47.6%)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타 베이비 부머에 비해 더 오래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장 큰 관심사에서는 자녀의 취업과 결혼, 노후 소득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건강 및 기능악화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가 노인이 되었을 때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건강보호와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중(48.8%)이 가장 높으며, 여가문화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응답(7.3%)이 평균(5.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 사례분석을 통해 본 삶의 모습

가. 과거

농촌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남자유형Ⅲ은 현재까지 계속 다양한 일을 거치지만, 낮은 교육 등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는 자원이 부족하여 임시직으로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후에) 집에서 농사짓다가, 군대 다녀와서 사우디 갔다가.. 탄광에 갔다가.. 인제 노가다. 노동일.. (서울에 91년도에 올라와서) 한 20년 됐죠 (사례 9)

나. 현재

남자유형Ⅲ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맞벌이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높다. 이로 인해서 가족 내 역할구조가 다른 유형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보인다. 본 유형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을 함으로써 배우자가 수입

이 높거나 더욱 안정적인 직장에 종사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구소득이 일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특성을 갖는 유형이다.

예전에 목수일 할 때 많을 때는 4백 가까이 됐지, 일 없을 때는 뭐 형편없고 돈 백만원 못 벌 때도 있고 겨울도 그렇고 아내가 일을 한 것은 결혼하고 나서 3,4년 집에 있다가 계속 맞벌이 했죠. 살기 서로 다 힘들고 애들은 많지, 동생들은 결혼시켜야 되지, 그래서 집사람이 해야 한다고 하고 나도 좋다 하자...(아내가 큰 도움이 되었죠) 회사도 다니다, 식당도 다니다 그랬죠.. 지금은 식당 하는 수입으로 살고 있고, 내가 카운터를 해. (사례11)

이 유형의 베이비 부머에게 있어 배우자는 중요한 존재임으로 나타난다. 반면 자녀에 대해서는 존재감이 배우자만큼 크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의 의미는) 없으면 아쉽고, 단 하루라도 어디가면 서운하고 자는 것도 그렇고 몰랏요. 집사람이나 나나 의지를 많이 하고 사니까.. 없어서 안 되는 존재... (자녀는) 글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례10)

하지만 이 유형에서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가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배우자보다는 자녀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며 전통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례도 있다.

뭐 그냥 마누라는 마누라지 뭐... 내가 보이기에는 지금 바뀌야 되겠어. 틀렸어. 아들 둘 낳았지만 틀렸어. 나한테 막무가내로 (자녀는) 대를 잇는다는 것 그거 한가지 (의미)야. (돈이 생기면) 자식을 위해 써야지,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해서... (사례9)

자녀 양육을 마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베이비 부머의 경우 각종 모임을 활발히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례도 있다. 이는 특히 본 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학교동창간의 활발한 모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현 직업이 동일한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직업보다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많기 때문에 예전부터 알아왔던 동창과의 모임 또는 지역 중심의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그런데 동창 중심의 모임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반면, 지역중심의 모임에서는 주로 사적인 술자리이고 목적 없이 같이 만나는 자리의 특성을 갖는다.

(최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들이지 뭐. 거의 한달에 한번씩 만나고, 카페 모임을 한달에 한번씩, 체육대회나 망년회 뭐 이런 거... 산에도 가고 다른 학교랑 하는 모임도 있고요... 조기축구회도 나가고 (사례10)

요 근방에 있었으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한 40년 가까이 사니까, 여기는 또 동네가 조그맣고 31집뿐이 없어요 여기 달동네죠 이집 저집 모르는 게 없어요 뭐 하나까지 다 아니까... 이집 가서 술도 먹고, 저집 가서 술도 먹고.. 상조계도 있고 (사례11)

다. 미래- 노후생활

남자유형Ⅲ은 노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일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럼 5년 후, 쉰 여덟이 되었을 때는) 그냥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안 아파서 큰 병 없고 큰 사고 없으면 그 때까지(지금하고 똑같이 일하겠지요). 계획은 60까지 좀 더 여유 있게 벌면 시골에다 집 짓고 시골로 갈까 생각인데 과연 꿈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글썽 그것도 장담 못할 것 같은데? 그 때 상황이 또 안 좋으면 그 나이에서 딴 일이라도 해야지... 나이 더 먹으면 개인택시도 해보고 싶고, 죽는 날까지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 (사례 10)

노후에 대한 여가를 보내고 싶지만, 건강과 경제적인 여유에 대해서는 자신 없어 한다.

(10년 후 은퇴하고 나서 여가시간이 많아지면) 운동은 뭐 하고 싶긴 한데 다리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여유만 있다면야.. 죽는 날까지 골프 같은 것도 해보면 좋지. 근데 만만치 않잖아 경제가.. (시간이 남으면..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은) 없어요... 여행은 뭐 다 꿈인데 뭐. (사례 10)

3. 종합

남자유형Ⅲ은 전체 베이비 부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지만 그 안에서도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소득이 평균소득 이상이지만, 고소득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중산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자의 최종 종사 직종이 임시직, 일용직, 가족무급종사자 등의 상대적 으로 불안정성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생활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의 세대 특성상 남자 중심의 소득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이들의 경우 배우자(여성)의 소득활동이 함께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가구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유지되는 형태를 보이는 유형이다.

남자유형Ⅲ의 건강행위를 살펴보면, 흡연과 음주 비율이 높고 운동실천율도 낮으며, 건강보조식품 섭취 등도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건강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전반적으로 노년기의 배우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가치보다는 배우자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다. 이들 유형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연구에서 보면 자녀에 대한 높은 애착이나 기대를 두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어진다. 또한 이 유형의 관계에서는 친목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창 또는 지역주민 중심 등으로 살아온 생활에 따라서 자주 어울리는 사람의 대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남자유형Ⅲ은 타 유형에 비해 비교적 교육수준이 고졸이상인 경우가 많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집단이다. 그러나 타 유

형에 비해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집단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남자유형Ⅲ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의 경우 임시직 등의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집단으로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지역 내의 보건소 등을 활용하여 흡연,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 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있는 집단은 아니므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전의 직업적 경험을 살려서 지역사회 내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4절 남자유형Ⅳ(남자 중상층 안정적·독자적 근로활동형)

1. 양적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본 삶의 모습

가. 가족관계

비교적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해온 남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인 남자유형Ⅳ의 가족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자녀비율이 비율이 1.7%로 평균 5.1%에 비해 낮으며, 부모와 배우자 부모의 생존율(65.0%)이 높게 나타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본인 부모와의 접촉이 주로 이루어지며(주 1회 이상 58.8%),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주 1회 31.6%)은 평균(38.2%)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남자 부모 중심의 접촉이 빈번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특성은 부모와의 경제적 도움 제공 실태에서도 본인 부모에게는 정기적 현금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48.5%인 것에 비해, 배우자의 부모는 18.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 부모에 대한 지원은 현물지원의 비중(76.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유형의 양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남자 부모 우선 중심’이라는 점이다.

이들 유형의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80.5%)는 전체 베이비 부머에 비해서 만족하는 비율(71.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후생활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대상자에 있어서도 배우자를 뽑은 비율(88.9%)이 타 유형(전체 78.4%)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즉, 이들 유형에서는 배우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으로 현재에도 부부관계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도움을 받는 경우(41.6%)가 다른 베이비 부머(52.8%)에 비해서 낮으며, 자녀와의 만족도(만족이상 86.0%)에서는 다른 베이비 부머와 유사하다.

본 유형의 경우 가족 이외의 관계에서는 동창과 직장동료를 중심으로 하는 접촉이 높으며, 지역주민과의 접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남자유형Ⅳ는 타 유형의 남자 베이비 부머에 비해 가장 많은 건강생활 실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유형의 금연, 금주, 운동 등의 건강생활 실천 행위 수는 평균 4가지로, 이는 남자 베이비 부머 유형에서는 가장 높은 실천행위수이다.

본 유형의 건강실천행위 중 운동습관을 살펴보면, 78.2%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며, 특히 민간/상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29.5%)이 타 베이비 부머 유형(17.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율, 우울증상을

고려하여 건강점수를 산출하면 이들 유형의 건강점수는 2.67점으로 가장 높으며, 특히 남녀 베이비 부머의 평균점수가 2.52점인 것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이다. 이는 주관적 건강뿐 아니라 만성질환, 우울증에서도 이들 유형들은 타 유형에 비해서 양호한 건강상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경제 상태 및 경제활동

남자유형Ⅳ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628.4만원으로 베이비 부머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448.07만원에 비하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형의 약 40%는 월 6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에서도 이들 유형은 평균 5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자산대비 부채의 비율은 15.8%로 전체 베이비 부머가 66.7%인 것에 비해 낮다.

본 유형의 경우 경제적으로 상위 집단임을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들 유형의 경제적 계층의식은 상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이며, 중상은 40%로 이들 스스로도 높은 계층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10년 이후의 경제수준에 대한 기대감(좋아짐 47.9%)도 전체 베이비 부머(41.0%)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유형의 노후준비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요양위험에 대한 준비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90% 이상의 대책(준비)을 하고 있으며, 사망위험과 노후연금에 대한 준비는 본인(남성)의 준비율(52.7%, 40.7%)이 배우자(44.7%, 30.9%)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의 준비율도 베이비 부머의 평균(36.5%, 24.7%)에 비해서는 높다. 특이한 결과는 목돈마련의 경우 본인보다는 배우자의 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목돈과 같은 저축성의 경우 본인보다는 배우자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또한 이들 유형은 주택연금과 연금에 대한 인지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재 경제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풍족하며, 미래에 대한 준비도 관심을 가지고 튼튼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유형의 97.2%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장 종사한 직종과 같은 일을 하는 비율이 67.6%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자, 단독자영업자의 비율이 타 베이비 부머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종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비율이 66.0%로 매우 높으며,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계속 고용에 대한 불안함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현재 직종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들은 노후에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데, 그 이유는 소득보충을 위한 이유도 높기는 하지만, 자기발전과 여가활동(31.1%), 건강관리를 위한 것(19.4%)이라는 비중이 다른 유형(22.0%, 16.1%)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계속 경제활동을 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이들에게는 노후의 경제활동이 소득수단이기도 하지만 자기발전 또는 여가활동의 의미도 있으며, 노후의 여가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결과이다.

라.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남자유형Ⅳ의 여가활동 1순위는 운동과 등산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 관리에 높은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빈도 또한 주 2~3회 이상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 여가활동의 동반자로는 혼자 하는 비율이 평균보다는 낮지만 혼자 하는 비율이 37.1%에 달하고 있으며 그 외는 가족,

친구, 동호회 활동을 통해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노후에 즐기고 싶은 여가는 현재 여가와 유사하게 여행과 운동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삶과 노후에서의 여가를 비중 있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유형의 사회참여는 다른 베이비 부모와 큰 차이는 없으며,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이 약간 높은 정도이다. 그러나 자원봉사 참여 경로와 이유에서 이들은 타인에 권유에 의한 참여보다는 스스로 또는 대중매체 및 홍보 등을 통해 참여하고, 그 이유 또한 사회적 책임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이들 유형의 자원봉사 참여 전략은 자발성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유형이 희망하는 노후 설계 희망 교육 분야는 남자 유형 중 여가와 취미 관련 분야를 희망하는 비율이 16.4%로 높다. 물론 건강관리와 관련된 교육이 가장 높고(62.2%) 그 다음은 여가와 취미관련, 노후 경제교육의 비율(5.2%)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가 절반가량으로 나타났으며 10만원 미만의 유료라면 활용하겠다는 비중이 타 유형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노후설계 컨설팅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마. 가치관

남자유형Ⅳ에서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자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2.7%이며,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17.2%)이 남자유형Ⅰ(15.7%)에 비해 높으며, 바람직한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있어서는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녀 부양에 대해서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직장 생길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로

다른 베이비 부머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부모 부양과 자녀부양에 대해서는 본인 세대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으나 일반적인 바람직한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해서는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본인 세대는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부양하는 것에는 책임이 있지만, 본인 세대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향후 노후에 대해 자녀세대에 의한 부양은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유형에서는 노후에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타 유형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은 적은 반면, 건강과 기능 악화, 소외 및 고독감, 무료함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향후 국가의 노인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건강보호 장기요양서비스와 여가문화 지원, 고용연장 고용기회 확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 사례조사를 통해 본 삶의 모습

가. 과거

남자유형IV는 베이비 부머 세대 중에서도 고학력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과거에도 대학교육을 위해 가정에서 귀하게 자란 경우가 많았다. 아마도 이로 인해 현재에도 남성(친가) 중심 역할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2남 5녀 중 장남... 아마 그 시절에 시골에서는 거의 다 (학교를 더 가르치거나 그런 게 있어서)... 바로 밑에 동생은 저 때문에 많이 못 배우고 그랬죠 (사례 12)

나. 현재

남자유형Ⅳ는 청년기를 보낸 직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재취업을 하면서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대한 보충을 위해 맞벌이를 선택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녀의 교육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이들 중년기의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요 근래 와서 맞벌이 합니다. 지금도 감리하고 있는데 현장 소장할 때 연봉 7~8천 되다가 지금은 나왔으니까 연봉이 4~5천 정도 되니깐 집사람이 요즘 와서 조그만 식당합니다... 일단 들어오는 수입이 적으니깐 같이 떨어져 살아야 되니깐 그 전에 쓰던 가락이 있으니까 그 돈을 안 벌면 생활이 안 되죠 (사례12)

베이비 부머에 대한 자녀세대에 대한 부양은 일반적으로 결혼시키는 것까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 유형에서는 최근 관심사와 걱정거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올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비용지출로 나타났다. 이들일 경우 전세금을, 딸은 결혼 비용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즘 걱정거리. 부부간 대화거리는) 먹고 사는 거,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할 것 인지 자식들 좀 있으면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현재 집을 줄여서 개들 전세금 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사례12)

앞으로 부담이 되는 거는 뭐냐면 자녀 결혼, 그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지. 결혼시키려면 아들은 최소한 전셋집을 하나 얻어줘야 되겠지. 딸은 그게 안 되더라도 시집을 보내줘야 하잖아요. 수 천만원씩 들잖아. (사례15)

본 유형에서는 부모 부양에 대해서 전통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높게 나타나는데 사례연구에서는 부모를 직접 모시고 싶은 생각과,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 미안함, 죄책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모는 부모의 부양과 자녀의 부양, 그리고 본인의 노후에 대한 준비의 3중고는 현재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부모의 기능약화가 나타나는 시기가 점차 연령이 늦어지고, 자녀의 결혼 시기가 늦어짐을 고려하면 현재는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현상으로 보여진다.

직접 모시는 게 좋죠, 와서 계시면 서울 주변에 여동생들이 와 있는 애들이 있고, 천안 쪽의 동생들이 수시로 다니고 하니깐 (사례12)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의 병원비를, 형제자매가 나눠서 내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건 없어요. 단, 말이니까 동생들에게 미안하지. 동생들이 부모지만도 말이는 내가 사실은 형편이 아주 좋다면 내 혼자하고 싶어요 (사례15)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은) 내가 못 모시고 사는 거. (사례12)

베이비 부모 세대, 특히 이 유형과 같이 일정수준의 경제적 소득을 벌고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 본인에 대한 생각은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천에서 용 난거지, 시골에서 농사꾼 아버지 밑에서 산속에서 살다가 와서 서울에 와서 그래도 자식들 키우고 집 한 채 갖고 있으니까.. (본인에 대해 만족) 백프로 만족은 아니고 중상으로 가지 않을까. (사례12)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열심히 사는 사람. 내 부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사례15)

이 유형의 경우 본인들이 빠른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기에 그들 세대에 대한 안쓰러움이 있으며, 사회에서 이것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여튼 고생만 하다가 가는 세대이죠. 어떻게 보면 농경사회에서부터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 40년 동안 다 겪었던 세대이거든요. (사례12)

소모품이에요. 정말로 딱 우리가 느끼는 바는. 우리는 사회로부터 못 받았는데 우리 애들한테는 우리 아버지 때 번 것처럼 해 줘야 하거든. 금방 나도 외동 하나밖에 없는데 요양원 간다고 하잖아. (사례15)

다. 미래-노후생활

남자유형Ⅳ는 가까운 미래에는 부모부양과 자녀부양, 그리고 본인의 노후가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개인이 노후에 대해서 희망, 그리고 설계를 시작하는 단계인 듯 했다.

노후에 변화라면 아무래도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애기 엄마와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라든지.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부부동반 같이 여행 다니고 그런 거... (사례13)

노후에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 아직까지 해 본 게 없어서 딱히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건, 어딜 가서 밥을 퍼 주던, 다음은 여행. (사례15)

3. 종합

남자유형Ⅳ는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큰 여유를 느끼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이들은 가까운 미래

에 다가올 자녀들의 결혼으로 인한 지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유형은 부모 세대에 대한 부양 의식에서는 전통적인 과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 부양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 즉, 부모부양과 자녀부양 부담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 특히 이 유형은 경제적으로 상대적 여유가 있음으로 인해 부모 부양 부담에 대한 책임이 높은 것으로 비춰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세대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다.

본 유형은 경제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안정적인 유형으로 이로 인해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도 타 유형에 비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정책을 지원하는 형태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들 유형의 사회참여 특성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로 자원봉사 참여 경로와 이유에서 이들은 타인에 권유에 의한 참여보다는 스스로 또는 대중매체 및 홍보 등을 통해 참여하고, 그 이유 또한 사회적 책임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이들에게는 자발적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제5절 여자유형 I (여자 저소득층 불안정·비특수적 근로활동형)

1. 양적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본 삶의 모습

가. 가족관계

여자유형 I의 가족관계에서 특징으로는 무자녀율이 높다는 점과 동거 자녀율이 전체 평균뿐 아니라 모든 유형 중에서 제일 낮으며, 손자녀가 있는 비율은 반대로 가장 높다는 점이다.

전체의 무자녀율은 5.1%이고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는 약 1.1%와 1.4%인데 반해, 여자유형 I는 6.2%로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 무자녀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이며 직장이 불안정할수록 무자녀율이 높은 경향은 남자유형 I의 경우에도 나타나 유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자녀율은 36.9%로, 전체의 82.7%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그에 반해 손자녀가 있는 비율은 23.0%로 평균 11.8%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즉, 본 유형이 타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녀가 일찍 결혼하였고, 일찍 손자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의 형제자매수를 살펴보면 여자유형 I의 경우 5.3명으로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생존율은 본인 부모의 경우 55.3%로 평균 61.2%뿐 아니라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낮으며, 배우자 부모의 생존율 역시 44.8%로 전체(60.2%)와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자유형 I의 경우 현재 본인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는 돌아가셨지만, 형제자매는 꽤 많은 형태를 띠는 가족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위상을 부모, 자녀와의 접촉 및 부양의 교환실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동거

부모와의 접촉 실태를 살펴보면, 타 유형에 비해 접촉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전체의 경우 9.8%만이 월 1회 만난다고 응답한 반면, 본 유형은 16.5%가 월 1회 만난다고 응답하여, 접촉 빈도가 타 유형에 비해 드문 것을 알 수 있다. 여자의 경우 저소득보다는 중상층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경우 더 자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인부모와의 접촉에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부모와의 접촉에 있어서는 평균보다 주 1회~2회 이상 만나는 빈도가 48.7%로 전체 평균인 38.2%보다 높아서,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간의 접촉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 부모와 집안일 도움을 주고받는 비율을 살펴보면 여자 베이비 부머 전체에 비해 제공률이 낮고(77.7%) 수혜율 역시 낮으며(15.1%), 간병이나 수발 도움 제공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4.3%). 앞서 나타난 부모와의 접촉빈도가 낮다는 사실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본인 부모와의 접촉도 적고 도구적 교환 실태 역시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배우자 부모에서도 동일하다.

이런 결과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유형은 생존한 부모의 비율도 타 유형에 비해 적을 뿐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와의 접촉 및 도구적 교환 비율도 적어, 타 유형에 비하여 부모와의 관계유지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인 부모와의 경제적 도움 제공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뿐 아니라 정기적 현금지원을 하는 비율이 7.6%로 8개 유형 중 가장 낮다. 타 비정기적 현금 지원이나 현물지원이 높고 특히 미지원이 높게 나타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부모와의 경제적 도움 제공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수혜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현물지원을 받는 비율이 13.5%로 평균에 비하여 높고, 여자 베이비 부머 내에서도 가장 높은 등, 전반적으로 본 유형은

교환을 자체는 낮지만(무교환율: 여자유형 I 9.7%, 전체 5.1%),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현금적인 부분보다는 현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 직장의 불안정성, 본인 부모와의 낮은 접촉빈도 등에 의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의 양적인 차이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취약함이 발견되었다.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 혹은 만족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기는 했으나, 타 유형과 비교해 볼 때, 만족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4.5%로 나타나 전체의 2.7%,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2.3%~2.5% 수준과는 두 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다. 남자의 경우 고용상태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높고 낮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으로 보인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타 유형에 비해 만족하지 않는다가 20.2%로 가장 높게 나타나(전체 16.3%, 여자 타 유형 12.3%~14.1%)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도 낮아서, 가족관계의 질적인 부분에서 취약성이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인 면에서 자녀에 대한 지원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데 기인하는 것일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족 외의 자원인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수는 없다는 응답이 10.8%로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보다 높게 나타났으며(여자유형Ⅲ 3.6%, 여자유형Ⅳ 4.2%), 전체 친구수는 평균 2.4명으로 전체 2.6명,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2.7명~2.8명보다 낮게 나타났다.

노후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배우자 65.7%, 자녀 20.6%로 나타나, 타 유형보다 자녀관계를 더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베이비 부머 전체 배우자 78.4%, 자녀 10.4%). 특히 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유형의 경우 배우자라는 응답이 약 83%로 나타나고, 자녀는 7.9%인 것과 비교하면,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는 경제활동 유형보다는 소득에 의한 차이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노후에 배우자에 대한 기대보다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기대가 더 높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나.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여자유형Ⅰ의 경우 대부분이 흡연에 대해, 피운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현재 피우고 있다는 응답이 6.7%로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인 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1.1%와 1.9%에 비하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에 있어서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현재도 마신다는 응답이 52.7%로 여자 베이비 부머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본 유형은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 상대적으로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다른 여가나 방법 말고 술 혹은 담배로 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운동의 경우 안 한다는 응답이 39.6%로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21.3~26.6%보다 높게 나타나, 소득 간의 차이를 보였다. 운동장소로는 집주변 81.7%, 집안 4.2%로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응답률(집주변 64.0와 64.8%, 집안 3.6%와 3.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유형의 경우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약 40%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 현실의 삶에 사는 것에 급급하여 미래의 건강적인 면-예방적 차원에서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동을 하고 있더라도 집안이나 집주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운동이 아닌 간단한 운동 중심이 될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기는 했으나, 타 유형에 비하면 그 비율이 적은 편이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은 5.2%로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 0.0%와 2.0%)에 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이유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서 살펴본 운동 장소에서 민간, 상업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2%로 전체의 17.3%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으로 나온 것 역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역시 2.3%로 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1.0%보다 높게 나타나, 앞서 가족영역에서 살펴본 친한 친구 수가 적다는 사실과 동일한 맥락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몸이 약해서가 14.0%로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2.0%와 7.0%와 비교할 때 매우 높게 나타나, 이미 건강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움을 받지 못해 운동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유형은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주변 자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유형이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 섭취 여부에서도 발견되는데, 다양한 식품 섭취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11.2%로 전체의 6.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식품 섭취를 안한다는 응답이 42.4%로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 약 28%)의 응답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영양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음식 섭취의 부재와 자원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여자유형Ⅰ의 건강행태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검진 수검여부를 살펴보면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 24.8%로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약

12%와 두 배 가까이 차이를 보여, 이 부분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보다는 현실의 삶에 급급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행태를 통해 본 유형이이 경제적, 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흡연과 음주율은 높은 편임에도 운동과 건강검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건강행태는 노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건강상태의 경우에 여자 베이비 부머 중 나쁜 편이라는 응답이 18.1%로 매우 높게 나타나(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10.4%와 6.8%), 건강상태 역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인 건강지표에서도 만성질환율이 29.0%로 타 유형에 비해 조금 높으며, 특히 우울증이 있다는 응답이 17.6%로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 10.0%, 여자유형Ⅳ 8.5%)보다 높게 나타나 정신적인 건강상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주관적·정신적 건강상태에서 취약함을 겪고 있기에, 예방적 차원의 건강행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이런 경향은 다시 건강의 악화, 건강검진 미수검 등의 부정적 행태로 나타나, 결국 다시 건강상태에서 취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 추후 노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희망하는 건강관리 희망서비스를 살펴보면 타 유형과 비교했을 때 방문간호서비스,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 건강 및 질병 상담유형이 높아, 이들의 소극적인 건강행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 경제 상황 및 경제적인 노후준비

여자유형 I의 총 가구소득은 232만원으로 남자유형 I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594만과 667만원과 비교하면 약 1/3에 불과하다. 이들의 자산은 163백만원으로,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556~606백만원에 비하면 거의 1/4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자산이 낮아 부채비율은 높아, 부채가 100% 이상이라는 응답도 11.6%로 전체의 6.5%,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 2.4%, 여자유형Ⅳ 1.5%)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높다.

객관적인 경제적 상태가 낮은 만큼, 주관적인 경제적 계층의식도 낮은 편이다. 주관적인 경제 상태가 상이라는 응답은 전혀 나오지 않아, 타 유형과 차이를 보였으며, 하층이라는 응답이 69.6%로 나타나 남자유형 I 다음으로 본인의 위치를 가장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절 경제수준에 대한 응답에서도 나쁘다는 응답이 약 54.4%로,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평균 약 33.0%와 차이를 보여, 세대 간 세습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10년 후 경제 상태에 대해서도 매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전혀 나오지 않아 현 상태에 비관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23.2%로 전체 18.8%에 비해 높아,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감이 있지만, 수입대비 지출비율은 약 80.7%로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가 65%대인 것에 비하면 높은 편이며 저축 평균비율은 10.4%로 나타나, 높은 부채와 지출, 낮은 저축률로 인한 노후 경제적 불안정성이 예상된다. 더욱이 저축을 전혀 안한다는 응답도 32.2%나 되어, 본 유형의 경우 미래를 위한 준비보다는 현재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노후준비를 살펴보면, 본인의 건강요양위험, 사망위험, 노후연금, 목돈마련 등에 있어서 여자 베이비 부머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것은 본인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본인은 가장 낮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배우자가 없을 경우 노후준비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택연금을 모른다는 응답이 25.8%로 남자 유형 I의 26.0%와 더불어 8개 유형 중 가장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연금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택이 없는 경우가 33.6%로 높게 나타났다. 공적연금 미가입률이 65.7%로 여자유형 III의 71.6%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전체 35.8%에 비해 2배 가까이 되어 노후 경제적 부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

여자유형 I의 72.9%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이들 다수가 최종 직종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이들의 종사상 지위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에 집중되어있다. 이들의 일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39.3%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33.6%, 불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도 27.0%로 나타나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 및 일용직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고용의 불안정성과 저임금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노후 경제활동에 대한 희망여부를 살펴보면 56.9%로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직무만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타 여자 베이비 부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일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가 경제적 여유 때문이라는 이유는 0.5%에 불과해, 경제적인 여유로 꼭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가 53.5%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타 유형보다 기

능약화(14.4%), 가내 역할(29.4%) 등의 이유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 앞서 건강에서 살펴본대로 건강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경제활동 상태로 접어드는 악순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이유 등으로 노후에 일을 그만두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현재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1순위 여가는 산책, 운동, 친목모임이며, 1순위~3순위까지 합으로 볼 때는 빈도 높은 순으로 친목모임, 산책, 화초 가꾸기 등으로 나타났으며,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은 주로 혼자서 라는 응답이 54.0%로 나타나, 1순위 여가는 주로 혼자 할 수 있으며 비용이 적은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노후에 즐기고 싶은 여가 1순위의 상위 3개 응답은 여행, 운동, 등산 순으로 나타나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노후에 하고 싶은 것에서 여행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여가 1~3순위 합인 상위 3개의 경우에도 여행, 친목모임, 등산 순으로 나타나 역시 여행이 가장 높다.

여가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점수화하면 현재 여가의 중요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9점, 노후의 여가 중요도는 평균 3.98점으로 나타났다. 여자유형 I의 경우 현재 삶에서 여가의 중요도는 3.46점, 노후의 여가 중요도는 3.82점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점수보다 낮았으며, 특히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노후의 여가를 현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지만, 타 계층보다는 여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자원봉사 참여는 낮은 수준이며(4.4%), 현재 하고 있으며 향후 의향 있다는 응답이 3.7%, 현재 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의향 있다는 응답이 38.3%, 현재 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57.5%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비율은 낮지만 향후 하고 싶은 의향은 남자보다는 높고,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도 여자유형 IV보다는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여자 베이비 부머의 평균과 비슷하다.

즉, 현재 자원봉사활동 정도에서는 타 유형과 약간 차이가 나지만, 노후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은 타 유형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회참여활동의 중요도 점수를 내 본 결과, 현재의 삶에서 중요도는 3.03점, 노후에는 3.20점으로 나타나 평균 3.17점과 3.33점보다는 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여가와 마찬가지로 사회참여에까지 신경 쓰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노후설계컨설팅 의향에서 관심 없다는 의견이 64.6%로 전체의 56.1%보다 높게 나타나, 미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환기 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후설계를 받을 경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에 대해서는 비용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고소득층의 경우 강사 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컴퓨터 인터넷 사용정도의 경우, 매우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하여 전체 13.6%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고도 52.7%이다. 즉, 여자유형 I의 1/2 이상이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으로, 가족자원 및 친구자원의 취약함과 동시에 인터넷상의 취약함까지 존재하고 있어, 이들 유형의 사회고립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 가치관

여자유형 I이 노후의 부양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생각은 부모의 부양은 자녀 및 가족이 해야 하며(57.6%) 그 다음으로 국가(19.2%)가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른 유형에서도 자녀 및 가족이 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중상층의 경우 그 다음으로 연금 및 사회보험이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21.8%와 29.5%), 여자유형 I의 경우는 이러한 응답률이 12.3%로 적고, 국가가 부양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여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연금이나 사회보험 부분에서 취약했던 여자유형 I의 경제 상태를 미루어 볼 때, 준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녀나 가족에게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녀를 노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관계로 택한 것 과도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책임 뿐 아니라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서도 본인이라는 응답 (39.9%)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이 국가(19.0%)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 중상층(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경우 연금 및 사회보험이 1순위로 나타나고(36.1%와 39.4%) 국가는 5순위에 해당하는 것(6.1%와 4.0%)과 차이를 보여, 여자유형 I 유형은 본인 외에는 주변 자원(배우자, 자녀, 연금 및 사회보험)에 걸 수 있는 기대가 매우 낮으며,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국가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후 희망하는 거주지는 농어촌(47.0%)이 가장 높아, 여자유형Ⅳ은 대도시(29.2%)를 1순위로 응답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이들의 인 구학적 특성 혹은 경제적 상황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노후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에서 건강 기능 및 악 화(46.2%), 경제적 어려움(44.8%)을 들고 있어, 순위에서는 타 유형과 차이가 없었으나 그 비율에 있어서 다른 유형은 경제적 어려움은 소득 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노인이 되었을 때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이 45.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관련이 41.5%이다.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경우는 노후 소득 보장은 약 24%대 밖에 안 되며, 건강관련은 50%대이다. 이는 본 유형이 건강적인 노후준비보다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더 불안함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사례조사를 통해 본 삶의 모습

가. 과거

여자유형 I의 방위가족관계를 살펴보면, 타 유형보다 형제 수가 많은 것으로 앞서 살펴본 양적 결과에서 제시되었다. 현재 베이비 부머들이 어렸을 당시 많은 형제자매 사이에서 남이를 선호하는 사상이 남아있었다. 경제적 상태가 넉넉하지는 못했던 시기였기에, 적은 자원은 주로 남아들에게 돌아갔고, 이에 여자들은 교육적 혜택이나 경제적 혜택을 덜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여자 저소득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 I과 여자유형 II)는 학력이 타 유형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와 같은 이유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낮은 학력은 추후 이들의 불안정한 취업, 빈번한 직장 이동, 빈곤한 경제 상태 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지금도 우리 친정에는 그렇게 선호하잖아. 이들을. 아들만 다 해주고 ... 거기
는 책가방 놓고 일해야 돼... (하지만) 남자들은 공부하라고 했으니 인천으로
다 보냈지. (사례19)

아무래도 아들을 위했지. ... 네. 학교 같은 거 저기하고 옛날에 살기가 힘드
니까, 집에서는 도움 받기가 힘들었지. ... 배우고 싶은데 못 배워서 나는 가
르치고 싶었지만 형편상 형편이 안 되니까 딸들은 못 배웠지. (사례20)

결혼을 하면서 더 이상은 고생 안 하고 편히 살고 싶다는 바람을 꿈
꿨지만, 현실에서는 신혼 초부터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넉넉지 못한 살림은 가정 내 불화나 저출산을 가져왔다. 특히 저소득
베이비 부머층의 무자녀율이 다른 유형보다 낮은 것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내가... 고생했으니까 시집가서는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저기는 했었지.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 신혼 때도 안 좋았어. (사례20)

신혼 때는 너무 없으니까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 집 아저씨는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다 나한테, 그 화가 다 나한테 오더라고 아무 이유도 아닌 것 가지고 트집을 잡고 사람을 막 묶는 거야. 그래 갖고 없는 고생 스트레스 막 우리 집 아저씨가 그 화를 내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사례20)

(자녀분은 아들 하나만 낳고 싶었어요?) 애를 강원도 있을 때 둘을 지웠어요... 어려워서 지웠어요 (사례20)

나. 현재

여자유형 I의 사례대상자는 시부모를 직접 모시고 살거나,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모시고 살면서 간병, 수발 등의 부양을 하고 있으나, 정서적으로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갈등, 스트레스 등이 보여진다.

시어머님 우리 아래층에 사세요... 친정 아버님 살아계셔. 엄마도.. 서울에 계세요. 두 분이 그냥 사셔. (사례18)

(친정 아버님은) 혼자 사세요... 용돈 드리지. 생활비로.. 우리도 한 달에 10만 원씩 드리지... 엄마 돌아가시고부터. (시댁부모님도 다들 살아 계세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지)... 결혼했을 때(부터). ... (시어머니) 부담스러운 존재지. 참말로 안 계시면 얼마나 맘이 편하겠소 ... 시부모 모시는 사람은 다 그래. 정신적으로 안 계시면 날아갈 거 같지. (사례21)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시어머니하고 갈등 그거제. ... 시어머니와 속된 말로 연이 안 켜어. 연이 안 닿았어. (사례18)

그러나 이런 시어머니 부양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본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세대를 모시는 것을 자신 세대

의 당연한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부모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것을 당연한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식 세대에게는 기대하지 않고 ‘마음을 비움’으로써, 비록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나 갈등을 겪고는 있지만, ‘억울하다’라고는 느끼지 않는다.

(시모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스트레스 안 받아. 무시하고 그냥 살아. 나 할 일 하고 직장 다니고 그러고 살아요. ... 우리는 부모한테 해주고 자식들한테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 그럼 우리는 예구 그래 뭘 바라냐 그냥 마음을 비우고 ... 세대가 그러니까 그런가보다 하지. 억울하다 생각은 안 해. (사례18)

(억울한 거) 그런 거 없어. 당연하지 뭐. 며느리가 해야지. ...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해야지. (사례21)

반면 친부모와는 전화나 비정기적 현금 지원 등을 통해 접촉을 하고 있으며, 친밀감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유형의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지원은 타 유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들에게 자녀의 학원비, 대학원 등록금은 가계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이자 어려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움은 대학교 등록금 뿐 아니라 결혼자금이나 결혼 시 전세값까지는 부모로서 해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등록금 등의 빚을 갚아나가거나 갚은지 얼마 안 되었으며, 몇 천만원에서 억 가까이 되는 자녀의 결혼자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막연히 그때까지 책임을 쥐어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학교 등록금 낼 때는 부담스럽지. ... 8월 달에 등록금 내야하잖아, 부담스럽긴 하지. ... 왜 그러냐면은 부모니까 거기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결혼까지는 시켜준다고 (사례18)

(자녀들)... 학비만 대줬지. ... (4년 동안) 다 대줬지. (결혼할 때) 집 같은 거
는 능력이 되면 보태줘야지, 머. 근데 모르겠어. 그때 가 봐야 알지. (별로 보
태줄) 돈은 없어. (사례4)

자식에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 외에 노후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도
움을 받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자신 세대들의 역할이
자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거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은 ‘우리가 나중에 니네들한테 기대진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
신랑이나 나나. (사례18)

자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중에 그래도 우리 아들이 하나지만 부모한테 저기
쪽으로는 도움을 못 줄망정 든든한 맛. ... 우리는 뭐 바라지도 않아. (사례20)

자녀에 대해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받겠다는 의지가 없지만, 자식에
대해 정서적으로는 그 존재만으로 든든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그 관계 역시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노후에 자식이) 중요해지지. 부모를 책임지고 인제 그럴 거 아냐. (자식에게
내 노후를) 기대 안하지. (사례21)

(노후에 자식이) 중요해지겠지. ...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
식을 못 버리잖아. ... 나 역시도 나이 먹으면 자식한테 의지하지. (사례18)

배우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혼 초에는 경제적인 이유, 배우자의
음주 습관 등의 이유로 갈등을 겪었으나, 긴 세월을 함께 해 오면서 그
갈등을 겪는 횟수 또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소지가 줄었다기
보다는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해’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부부싸움을 했을 때, 자연스레 시간이 흘러 푸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드니까 싸울 일이 없어 라고 그래야 되니? 모르겠어... 지금은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애. (사례19)

(부부싸움) 그런 거 없어. 한 달에 한 번 안 해. ... 우리는 싸우고 그냥 풀어져 버려. (어떻게?) 그냥 밥 먹고 말해. (사례21)

우리도 젊었을 땐 (며칠 동안 말을 안 한적) 있었어. ... 그때는 막 싸우고 했는데. ... 응. 싸우는 것은 확실히 줄어들고 젊었을 때는 이렇다웠는데, 나이 드니까는 서로 이해할라고 하제. (사례18)

그리고 노후로 갈수록 단 둘이서만 살게 될 것을 예상하여, 노후를 함께 지낼 ‘동반자’로 보고 있다. 물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것인지 그대로일지에 대해서는 사례마다 달리 보고 있지만, 노후에 함께 해야 할 ‘동반자’로 여기는 것은 모두 같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내 보호자. 내 옆에서 시중 들어주는 사람. 내 옆에 버팀목. 든든한 꼭 있어야 되는... (사례18)

가정의 가장이지. 없어서는 안 되지. 있어야지. 남자가 없으면 안 되지. ... (앞으로 서로 사시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해하고 꾸려나가고 살아야지. 지금 까지 살아왔는데. (사례21)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남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둘 만 살게 되니까) 남편을 의지를 해야 할 것 같아. (사례20)

특히 노후 간병이나 수발이 필요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배우자의 도움을 가장 원하고 있으며 자식에게까지는 넘어가기를 원치 않고 있어, 노후 배우자에 대한 ‘동반자’로서의 의존도가 크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몸이 안 좋아진다면... 신랑이 해줘야지 신랑이 요양원으로 들어와야지.
(자식은) 하면 좋은데 기대를 안 한다 이거지. 배우자가 못할 형편이면 요양
원에 들어가야지. (사례18)

본 유형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젊어서 경찰 경험이 있었으며,
결혼 후 잠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경제활
동을 시작한 경우가 많다. 주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일하신 게 경제에 보탬이 되려고요?) 그렇지. (사례20)

(일을 한 이유는) 경제력이 떨어져서... (사례21)

앞서 살펴보았듯 신혼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배우자만의
수입으로는 살기 빠듯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자 맞벌이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배우자들은 일종의 찬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은) 반대는 안 했어요 버는 걸 원했어요 (사례20)

(일을 시작하실 때 남편은)... 표현으로 하자면 그냥 좋은 거지. 좋아하지. (사례21)

배우자, 자녀 이외의 다른 인적자원으로서 친한 친구나 이웃에 대해
살펴보면, 이들의 주요 친밀한 지인으로는 주민, 직장동료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웃주민이나 직장동료는 자주 만나므로 더 친밀하지만, 그만큼
만나지 않으면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특히 직장동료의 경
우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면 그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성
높은 관계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이는 노후의 주변 인적자
원으로 남기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직장생활 할 때 (사람들)하고, 아파트에서 그냥 사는 사람. (사례20)

(자주 만나는 사람은) 마을에서 와서, 주위 사람.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례21)

지금은 아무래도 회사에서 나왔으니까 멀어지더라고 ... 아무래도 멀어지지.
같이 있을 때는 가까웠는데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두니까 멀어지게 되더라고
차츰차츰. (사례20)

본 유형의 취미활동은 딱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바쁜
경제활동, 뜻을 함께 할 주변인의 부재, 시간과 자본의 부재 등 때문
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취미란 어떤 특별한 활동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소
소하게 시간을 보낼 때 행해지는 모습 - 간단한 운동, TV보기, 화초 가
꾸기 등으로 보인다.

취미는 뭐라고 할까, 취미도 여러 가지지. 운동이라 해. (사례21)

(취미) 화초 (가꾸기)나. (티비도 보시고요?) 네. (사례20)

취미 딱히 별로 없는데. ... 안 해봤는데 기회가 되면 (벨리 댄스를) 하고 싶
어. 한 달에 수강료 얼마인지 알아보고만 있어요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
고 있어. 같이 할 사람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가. (사례18)

이들은 남는 자투리 시간에 주로 TV를 시청하고 있으며, 혹은 아무
의미 없이 TV를 켜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티비는) 시간 볼까? 많이 보는데. 퇴근해갖고 볼 일 없으면 텔레비
보잖아, 켜고 (음) ... 대충 그냥 항상 티비는 켜져 있으니까. (사례18)

쉬지. 쉬고 밥 준비하고, 텔레비전 보고 놀지. (사례21)

이런 여가활동은 부부단위, 부모-자녀 단위보다는 개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노후에 부부가 함께 보낼 시간이 상당히 많고 노후에

배우자와 동반자로 지내게 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활동은 극히 드물고, 개인 활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추후 배우자와의 시간이 함께 길어질 때, 갈등요소로 발전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부부가 최근에) 함께 한 거? ... 없어. (사례19)

(가족이랑 같이 활동하는 것) 없어...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 없어. (운동을 함께 한다거나) 아냐, 아냐...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없어. (사례21)

한편, 본 유형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노후’와 관련하여, 노후에 가장 걱정하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건강과 경제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문제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고요?) 네. (사례20)

돈... 많이 있어야지. 노인네 돼서는 돈이 많이 있어야 돼. (사례19)

그러나 이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건강이나 경제적 상태에서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되는 점은 없는듯해 보인다. 예를 들어 건강의 경우, 직장이 있는 경우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 외에, 따로 운동을 찾아서 열심히 하지는 않는 듯하다. 운동을 못하는 이유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의 부족 등이다.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실시하고 있는 운동의 종류는 전문적인 운동보다는 걷기나 산책과 같은 종류여서, 소극적인 운동 형태로 보인다.

(운동 하는 거) 없어요 아침에 걷기 운동 하다가... (사례20)

(운동은 일주일에) 한 두어 번 해. 걸어, 걸어. 한 시간 정도 걸어. (사례21)

노후의 경제적 준비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 국민연금, 그리고 배우자의 연금을 기대하고 있어, 노후준비가 부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 외 준비로 목돈 저축, 개인연금이나 부동산은 거의 없는 편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노후에 돈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 상태로는 부족한 것은 막연히 짐작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받는 액수가 얼마인지, 배우자의 연금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 노후 자금 마련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이 ‘그때가 봐서’ 꾸러가 보겠다는 현 상태로는, 추후 노후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연금 들어놨잖아. 4대 보험하고 국민연금 들어가고 ... (퇴직하시면 얼마나 타는지는) 모르겠네, 확실히 얼마 타는지... 그건 잘 몰라. ... (노후자금은) 아니 딱히 해결된 건 아니고 그냥 퇴직금 있고, 연금 있고 하니까.. (사례18)

(노후 준비) 없어요 연금이 없었는데 이쪽 회사에 두 달 다니면서 거기는 (국민) 연금이 있더라고 (개인연금은) 없어요 (사례20)

(국민연금 말고 다른 연금은) 없어. 다른 건 ... (노후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그제 걱정이지. 그냥 살아. 농사져서 외롭게 사는 거지. ... 다 꾸러야지. 다 꾸러가야지. 남편이 해결해 주겠지. (사례21)

본 유형의 삶에 대한 만족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등의 이유로 객관적인 상황이 행복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불만족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만족도의 기준을 ‘과거보다 나아진 삶’ ‘더 안 좋은 사람보다는 나은 삶’이라고 잡아, 만족하거나 혹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내 생활에 자꾸 위만 쳐다볼 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작게 만족하는 것 같애. (사례19)

그냥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어디냐 하고 사는 거지... (사례18)

본인세대와 그 이전세대를 비교하여 생각할 때, 본인세대들은 그래도 더 나은 세대이며, 이전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 덕분에 부모 부양이라던가 자녀 부양에 대해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노인 세대) 측은해. 안쓰러워. ... 우리 세대가 제일 좋잖아. (사례19)

그전에 비하면 우리 세상은 편하지. ... 아유, 노인분들 불쌍하지. (사례21)

다. 미래-노후생활

여자유형 I은 몇 년 후의 삶 역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족관계 내에서는 자녀의 결혼 등으로 인한 분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분가 등을 예상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배우자와 단둘이 살게 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제상태 역시 지금과 크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부부 두 사람만) 함께 살 것 같다... 아들 결혼하면 따로 나가서 살아야지. 뭘 같이 살아. (사례20)

(5년 후도 지금과) 차이는 별 거 없어. ... (애들은) 5년 (후)이면 결혼하지. (사례21)

10년 후가 지난 후에는 경제적인 일은 그만두었을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에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못해본 여가를 즐기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

(63세가 되었을 때는)에 ... (다른 직업을 구하고 싶거나 그렇지) 안 해요..
(사례21)

(60세 이후 시간이 많으면) 노인대학 다니면서 친구들 사귀고 그럴 것 같아..
.. (그리고) 종교 활동 할 것 같아 왜냐면 시간이 더 여유가 있으니까 더 많
이 갈 것 같아. (사례18)

(그리고 시골에서 살고 싶고)...보건소에서 건강 체조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컴퓨터에 들어가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 (사례19)

(일을 그만두고는) 그때는 머 여가생활하고 놀지 머... 인자 머 (지금도 하고
싶은 것들인) 노래교실도 다니고, 컴퓨터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가서 스포
츠댄스 그런 것도 하고.. 지금은 인제 시간이 없으니까. (사례21)

특히 10년 후인 노후에는 남편과 단들이 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본인들 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를 않길 바라는 면
도 있다.

그러면 신랑하고 나하고 오붓하게 살 것 같아요 (사례18)

(장가 간 아들과 같이 사실 생각) 그런 건 없어. (같이) 살 수도 없고 가봐야
부모들은 좋지. (사례21)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단들이 살게 된 동반자로서의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하며 지내겠다는 응답과, 노후에는 배우자와는 여가를 지내
고 싶지는 않다는 응답 모두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좋거나,
비록 현재는 함께 많은 여가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노후에는 나아
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와, 여전히 따로 여가활동을 하는 지금의 모습
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의 답변으로 양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만약에 여유시간이 많아지면 남편과의 사이는 좋아질 거 같애. (사례19)

(여가 생활하게 되면)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 (남편은 같이 할 생각은 없지. (사례21)

희망하는 거주지는 전원을 좋아하는 응답자는 농촌을, 문화생활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도시를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실제로 주거지를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바탕에는 실질적인 경제 상황 등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일 없으면... 남편과 (계속 ○○에 살 거예요). (사례18)

(이 아파트에서) 아직은 계속 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으면.. (사례20)

아이고, 내 고향 여기서 지키고 살아야지. 나가봐야 뭐가 있어. 경제적인 것 뭐 특별한 것이 있어. 돈이 많아야 뭐 꿈도 꾸보고 그러지. (사례21)

끝으로 이들은 아직 노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으며, 그 때 살아가면 어떻게든 꾸려나가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상태로는 5년, 10년이 지나도 크게 정신적으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지 않아,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내가 생각해보면 옛날에 엄마들 생각으론 사십 오십 되면 굉장히 늙었을 꺼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막상 내가 40~50대 돼보니까 너무 젊은 거야. 이렇게 꼬맹이들이 사, 오십대 생각하면 굉장히 늙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막상 오십이 되니까 너무 젊고, 아직도 내가 청춘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만약 60이 돼서도 굉장히 활동적으로 살고 있을 것 같아. 딱히 돈은 안 벌어도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살고 있을 것 같아. (사례18)

3. 종합

여자유형 I의 방위가족을 살펴보면 형제자매도 많고,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을 받아 자원을 양보해야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가족을 살펴보면, 살아계신 부모의 비율도 낮고 타 유형에 비해 살아계신 부모와의 접촉 및 도구적 교환이 적다. 또한 무자녀율이 높는데, 이는 좋지 않은 경제적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손자녀 비율이 높은 것은 빠른 결혼 및 사회활동 진입으로 인한 생애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는 만족 및 보통의 비율이 높지만, 타 유형보다 불만족 점수가 높는데, 이는 경제적 요인이 원인일 수 있다. 친한 친구나 이웃에 대한 숫자도 타 유형에 비해 적으며, 친한 이웃이 주로 직장동료 혹은 동네사람이며, 지속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 인적 자원의 취약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노후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를 중요시하지만 타 유형보다 자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자녀에 대하여 노후 부양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정서적 의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부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수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건강이나 노후 등에 대한 준비실천율 역시 떨어진다. 특히, 본 유형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 가입률이 65.7%로 매우 낮고, 저축률 역시 타 유형에 낮은 편이며, 사적연금 등 기타 노후준비는 거의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뿐 아니라 노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건강과 경제 상태를 꾀고 있지만, 본 유형은 특별히 하는 운동이 없고, 따로 건강을 챙기는 행위 역시 타 유형보다 낮으며,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타 유형에 비해 나쁘게 생각하는 응답이 높아, 노후 건강적인 측면이 우려된다.

이들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임시직 중심이며,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타 유형에 비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은 남자유형 I 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공적연금 미가입이 매우 높은 등 현재 경제 상태 및 노후 경제 상태에 대한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노후에 대한 경제적 막연한 두려움은 있지만, 현재 경제 상태에 급급하여 노후컨설팅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여가활동은 딱히 없거나, 하는 경우 주로 혼자하고 비용이 적은 활동 위주(산책, 운동, 친목모임, 화초 가꾸기 등)이다.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 건강적인 측면, 노후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 유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적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들의 경우 주택연금의 경우 알고 있어도 주택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예방적인 접근을 통해 예견되는 노후의 건강 문제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본 유형의 경우 음주 및 흡연율이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 가장 높아, 스트레스를 여가가 아닌 음주나 흡연으로 푸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건강의 예방적 차원 뿐 아니라 여가적 차원에서도 이들의 여가활동 및 운동을 장려해야 하며, 이들의 주요 여가활동에 운동이 포함되는 만큼,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들의 특성상 민간상업 체육시설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집 내부나 집주변에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장소의 체육시설 점검 및 확충 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 유형의 경우 노후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 인적자원도 적고, 인터넷 등을 하지 못하는 비율도 과반수를 넘어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고립될 위험도 큰데, 이에 더하여

건강이나 경제적인 면도 어려움이 있다. 이들의 경우 현재 삶에 급급해서 노후에 대해서는 막연히 걱정만 하고 있는데, 노후에 이들이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무료 노후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제6절 여자유형II(여자 저소득층 인정적·독자적 근로활동형)

1. 양적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본 삶의 모습

가. 가족관계

여자유형II의 가족관계에서의 특징으로는 무자녀율이 여자유형I보다 낮은 것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소득보다 높다는 점과 손자녀가 있는 비율이 20.0%로 높은 편이라는 점이다.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III과 여자유형IV)의 무자녀 비율은 약 1%대인데 반해, 여자유형II은 5.3%로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 무자녀 비율이 여자유형I 다음으로 낮다. 남자 베이비 부머의 경우에도 저소득인 경우(남자유형I과 남자유형II) 무자녀비율이 10~20%로 높게 나타나, 소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손자녀가 있는 비율은 20.0%로 평균 11.8%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이를 통해 본 유형은 아직은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손자녀 역시 있는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형제자매수를 살펴보면 5.3명으로 모든 유형 중에서 여자유형I과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생존율은 전체평균(61.2%)보다 조금 높은 63.4%인 반면, 배우자 부모의 경우 45.3%로 나타나, 본인 부모는 살아 계시지만 배우자 부모는 돌아가신 형태의 가족형태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현황을 부모, 자녀와의 접촉 및 부양의 교환실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동거 부모와의 접촉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에 비하면 월 1회 미만으로 만나는 비율이 비슷하기는 하지만(전체 9.8%, 여자유형Ⅱ 10.9%),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는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가 월 1회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8.5%와 6.9%로,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 부모와 만나는 빈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 유형에서 살펴본대로, 여자의 경우 저소득층보다는 중상층이, 상대적으로 독자적이며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해온 경우 부모와 더 자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부모와의 경제적 도움 제공 실태를 살펴보면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비정기적 현금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 유형에 비해 미지원이 13.0%로 가장 높고, 현물지원은 5.7%로 타 유형보다 가장 높게 나타나, 타 유형과 비교해볼 때 미지원 혹은 현물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 수혜 역시, 미지원이 가장 높긴 하지만(83.2%), 다른 유형과 달리 현물지원이 높게 나타나(전체 8.3%, 여자유형Ⅰ 9.8%), 본 유형은 현물지원 부분에서 교환이 타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도움 교환 실태를 살펴보면 무교환이 본인 부모의 경우 10.4%, 배우자 부모와의 경우 10.2%로 평균 5.1%, 6.0%에 비교했을 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 베이비 부머 내에서도 무교환 비율이 가장 높고,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와의 경제적 도움의 교환에 제한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자원의 질적인 면을 확인해보고자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를 살펴보았다. 보통 혹은 만족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기는 했으나, 여자 베이비 부모 중에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로,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2.7%, 여자유형Ⅲ의 2.3%와 여자유형Ⅳ의 2.5%의 수준과는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서는 만족하는 편 85.8%, 보통 11.1%, 만족하지 않는다 1.7%로 나타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평균수준이지만, 자녀와의 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자유형Ⅰ이나 여자유형Ⅲ보다 높게 나타나,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해온 여자 베이비 부모(여자유형Ⅰ과 여자유형Ⅱ)보다는 자녀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외의 자원인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 2.2명으로 평균 2.6보다 낮고,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며, 이는 여자유형Ⅰ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자주 접촉한 지인은 주로 지역주민이며, 그 다음으로 동창이다. 이는 본 유형이 경제적인 제약과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제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배우자 63.5%, 자녀 21.8%로 나타났는데, 자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비율이 타 유형보다 가장 높아 타 유형보다 자녀관계를 더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전체평균 배우자 78.4%, 자녀 10.4%).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와의 관계가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더 긍정적이며, 주변 친구 이웃 자원이 타 영역보다 적은 것과 동일한 맥락의 결과이다.

나.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여자유형Ⅱ의 경우 대부분이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현재 피우고 있다는 응답이 4.8%로 나타나,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모

(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1.1%와 1.9%에 비하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 흡연을 했지만 지금은 안 피운다는 응답이 약 3.5%로 여자 베이비 부머 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과거에 흡연자 중 금연으로 돌아선 자들이 여자 타 유형에 비해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주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보인다. 현재도 술을 마신다는 응답은 43.6%이며, 과거에 마셨었다는 10.2%로, 현재 음주율은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며, 과거 음주 경험률은 전체 유형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를 통해 본 유형이 과거에는 음주를 하였으나 현재는 많이 마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여자유형Ⅰ이 음주율, 흡연율이 가장 높다면, 여자유형Ⅱ은 과거 경험하다 그만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동여부에서는 안한다는 응답이 39.2%로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26.6%와 21.3%보다 높게 나타나, 소득 간의 차이를 보였다. 운동장소로는 집주변 90.0%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우 집주변에서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경우 집주변이 64.0%와 64.8%인 것과 비교해볼 때도 크게 차이 나는 수치이다. 이를 통해 여자유형Ⅱ의 경우 규칙적인 운동이 부재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집주변에서 실시하여 전문성 있는 운동이 아닌 간단한 운동 중심이 될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61.3%를 나타냈다. 이는 여자유형Ⅳ의 같은 이유 61.0%와 비슷한 수치이며,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해온 여자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Ⅰ과 여자유형Ⅲ)의 경우 56% 내외인 것과 차이를 보인다. 즉,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중 시간적 부족은 직장의 이유와 같이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이유 외에 몸이 약해서 12.1%인데 이는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경우 더 낮은 수치로, 소득과 건강 간에 이미 관련성이 구축되어 있고, 이러한 저소득층의 낮은 건강수준이 이로 인해 운동을 또 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유형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지만, 몸이 약하고 게을러서, 그리고 타 유형보다는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식품이나 건강식품 섭취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식품 섭취여부에서 그렇지 못한 편은 약 5.7%, 건강식품 섭취 안함은 44.1%로 나타났다. 건강식품 섭취와 관련해서는 섭취 안한다는 응답이 여자 유형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유형Ⅰ의 42.4%와 비슷하고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약 28.0%와는 차이를 보여, 소득 계층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다양한 식품섭취 여부도 여자유형Ⅰ 다음 수준이기 때문에, 식품섭취나 건강식품 섭취를 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말했듯, 경제적 이유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건강검진 수검여부와 관련해서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24.3%로,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13.2%와 11.1%보다 낮고, 여자유형Ⅰ의 24.8%와 거의 비슷하여, 역시 건강을 챙기는 예방적 관점의 행위를 타 유형에 비해 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자유형Ⅱ는 건강관리에 신경 쓸 경제적 취약뿐 아니라, 시간적 취약, 주변 인적 자원의 취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부정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운동 외의 식품이나 건강식품 섭취에서도 부족한 면을 보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건강검진율도 낮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건강상태악화와 더불어 노후 건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객관적 건강점수에서는 평균 2.30점으로 평균점수 2.52점보다 낮으며 여자 베이비 부머 전체에서도 가장 낮고 특히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2.52점과 2.58점과 비교할 때 낮다. 객관적인 점수뿐 아니라, 만성질환 수를 살펴보면 32.3%로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 가장 높고, 베이비 부머 중에서도 남자유형Ⅰ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우울증에 있어서도 우울증상이 있다는 응답이 17.9%로, 역시 전체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주관적인 건강상태 역시 나쁜 편이라는 응답이 19.4%로 전체 11.1%보다 높으며,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11.4%와 6.4%보다 높게 나타나, 객관적 건강행태뿐 아니라 주관적 건강상태까지 좋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행태는 여자유형Ⅰ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건강상태나 만성질환율, 우울증 등은 여자유형Ⅰ보다 더 나빠서, 전반적으로 가장 안 좋은 건강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친구 및 이웃) 자원이 타 유형에 비해 가장 적은 것과 관련되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경제상황 및 경제적인 노후준비

여자유형Ⅱ의 총 가구소득은 241만원으로 전체 448만원과 비교했을 때 1/2수준이며, 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594만원과 667만원과 비교하면 약 1/3에 불과하다. 이들의 자산은 144백만원으로, 8개 유형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체 평균 365백만원의 절반 정도이고,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556백만원과 606백만원에 비하면 거의 1/4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자산이 낮는데 부채비율은

가장 높아, 부채가 100% 이상이라는 응답도 14.4%로 전체의 6.5%,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2.4%와 1.5%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가장 높다.

객관적인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주관적인 경제적 계층의식에서도 낮은 편으로 하층이라는 응답이 60.5%로 나타나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20.6%와 18.2%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시기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좋지 않은 편이었다는 응답이 48.6%로 약 절반 정도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이는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평균 수준인 약 33.0%와도 차이를 보이는 수치이다. 이를 통해 경제상태의 세대 간 세습의 가능성도 염두해 볼 수 있다. 10년 후 경제 상태에 대해서도 매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2.6%로 전체 3.0%보다 낮으며,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20.8%로 나타나 전체 18.8%에 비해 높은 등,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감과 더불어, 수입대비 지출비율은 약 101.6%로 100.0%가 넘어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저축 평균비율은 10.1%로 나타나, 수입보다 많은 지출, 높은 부채, 낮은 저축률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저축을 전혀 안 한다는 응답도 33.0%나 돼, 본 유형의 1/3이 이상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거의 없으며, 실제 생활을 하는 것도 벅찬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노후준비를 살펴보면, 본인의 건강요양위험, 사망위험, 노후연금, 목돈마련 등에 있어서 여자 베이비 부머 유형 중 여자유형Ⅰ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연금 가입률이 9.6%로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30.1%와 37.7%와 비교할 때 매우 낮으며, 목돈 마련 등의 비율이 38.5%로 역시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62.5%와 68.2%보다 낮아, 노

후자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주택연금에 대해 82.1%로 알고는 있으나, 주택이 없다는 응답이 34.4%로 남자유형 I 다음으로 가장 높아, 정작 알고 있어도 주택연금은 쓰기 힘들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적연금 가입상태를 살펴보면 미가입률이 47.1%로 전체 35.8%에 비하면 높은 편이며, 앞서 살펴본 주택연금의 사용 불가능, 저축 및 목돈 금액의 부재, 높은 지출 등은 미래 노후에 매우 경제적 상황이 열악할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라.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

여자유형 II의 61.3%가 일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단독자영업자(36.6%), 상용직 임금근로자(25.8%)로 나타났다. 이들의 일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48.2%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보통 28.5%, 불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23.3%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평균 19.5%에 비하면 조금 높은 수치이다.

40대 이후 퇴직 경험이 있는 경우, 그 후 생활변화에 대해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전반적 생활만족 등에서 나빠졌다는 응답이 여자 베이비 부머 중 가장 높게 나와 본 유형이 직장의 유무에 의해 가장 생활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경제활동에 대한 희망여부를 살펴보면 56.5%가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 III과 여자유형 IV)의 37.1%와 43.0%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노후 일이 중요함에 대한 5점 척도 점수에서 3.66점으로 여자 베이비 부머 중 가장 높은 중요도 점수를 나타냈다. 이들이 이렇게 일을 중요시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이유에는 소득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 자기발전 및 여가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일하기를 희망하지 않은 43.5%의 경우, 경제적 여유로 인하

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여가를 즐기기 위해, 가내 역할, 기능 악화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기능악화의 경우 남자유형 I 을 제외하면 그 비율이 가장 높아, 앞서 살펴본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경제적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현재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1순위 여가는 산책, 책읽기, 운동 순이며, 1순위~3순위까지 합으로 볼 때는 빈도 높은 순으로 친목모임, 산책, 책읽기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들의 여가가 동적이기보다는 정적인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자는 주로 혼자서라는 응답이 56.70%로 나타나, 1순위 여가는 주로 혼자 할 수 있으며 비용이 적은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노후에 즐기고픈 여가 1순위의 상위 3개 응답은 여행, 등산, 운동으로 나타나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노후에 하고 싶은 것에서 여행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고 그 다음이 등산으로 나타났다. 여가 1~3순위 합위의 상위 3개의 경우에도 여행, 친목모임, 등산 순으로 나타나 역시 여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가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점수를 내 보았을 때, 현재 여가의 중요도는 평균 3.62점, 노후의 여가 중요도는 평균 3.91점으로 전체평균점수보다 낮았으며, 여자 베이비 부머 내에서 여자유형 I 다음으로 낮은 점수이다. 노후의 여가를 현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지만, 역시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 III 과 여자유형 IV) 보다는 여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자원봉사 참여는 1.6%로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며, 이는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직장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의향 있다는 응답자는 1.6%, 현재 하고 있지만 향후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0.0%,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의향 있다는 응답이 37.1%, 현재 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가 61.3%로 나타나, 현재 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하려는 사람의 비율은 타 유형과 비슷하지만, 현재 하거나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미래에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비율이 높아, 타 유형보다 자원봉사 활동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참여활동의 중요도 점수를 내 본 결과, 현재의 삶에서 중요도는 3.10점, 노후에는 3.35점으로 나타나 평균 3.17점 3.33점과 비교해볼 때 현재의 중요성은 좀 낮지만, 미래의 중요성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설계컨설팅 의향에서 관심 없다는 의견이 62.9%로 전체의 56.1%로 높게 나타나, 미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환기 자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노후설계를 받을 경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에 대해서는 강사의 질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와 비슷하게 비용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컴퓨터 인터넷 사용정도의 경우, 매우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하여 전체 13.6%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도 33.9%로 전체 25.2%보다 높아, 본 유형의 1/3 이상이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건강의 취약, 경제적 자원의 취약, 주변 자원의 취약과 더불어 정보의 취약성까지 가지게 되어, 힘든 노후와 사회고립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마. 가치관

여자유형Ⅱ의 경우 노후의 부양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생각은 부모의 부양은 자녀 및 가족이 해야 하며(47.3%) 그 다음으로 연금(20.1%)이 해줘야한다고 보고 있다.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이라

는 응답(42.4%)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연금, 국가, 배우자, 자녀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 유형에 비해 배우자라는 응답이 적고, 국가라는 응답이 높아 타 여자유형보다 본인과 본인의 연금보험, 그리고 국가를 더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희망하는 거주지는 농어촌(45.5%)이 가장 높아, 여자유형Ⅳ가 대도시(29.2%)를 1순위로 응답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그 다음으로 자녀 가까이(13.5%)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경제적 영향 및 건강의 악화를 고려해서 선호를 밝혔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노후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에서 건강 기능 및 악화(51.4%), 경제적 어려움(38.3%)으로 여자유형Ⅰ과 유사한 응답유형을 보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응답률(44.8%)이 여자유형Ⅰ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다.

반면, 노인이 되었을 때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이 43.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관련이 42.4%로 유사하다.

2. 사례조사를 통해 본 삶의 모습

가. 과거

현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우, 과거 남아선호사상이 남아있는 시기에 자랐으며, 여자유형Ⅱ 유형의 경우 역시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었으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남아에 비해 교육에 대한 지원을 덜 받았으며, 이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시대가 그러했음을 받아들여 ‘희생’이라기보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안 그래도 (남자를) 학교 더 가르쳤죠. 동생들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가르쳐주고 ... 동생들 내가 가르치고 다 키워어요. (사례22)

아무래도 그렇죠 (아들은 더 많이 교육시켰지요) ... (속상해도) 어떻게 해. 안보내주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러는 거지. (사례24)

자연히 해야 되는 갑다 하고 했어요. ... 희생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사례22)

베이비부머 세대의 청년기에는 결혼이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 특별히 어떤 이유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

그때 당시는 그렇죠 (결혼 안 한 게 이상한 일이었죠) 아주 안 한다는 거는 결합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사례23)

본 유형 역시, 여자유형 I 처럼 결혼을 통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꿈꾸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신혼 초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과거 집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던 양적 분석결과에서 비춰볼 수 있듯이, 이 유형의 경우 원래 사는 집이 부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잘 사는 것도 없고 더 힘들어. (사례25)

(결혼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돈이) 없었으니까 부지런히 벌어야 되겠구나, 애들은 커지고 (사례24)

이런 빈곤한 경제 상태는 자식을 더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자식을 덜 낳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당시 아이 덜 낳기 운동의 영향과 더불어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이 여자유형Ⅱ의 무자녀율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애기들 많으면 어떻게 살아. 먹고 살아야 하는데 힘들잖아. 가르치고 해야 하는데 그걸 할 능력이 없잖아. (사례25)

딸이고 아들이고 하나 더 낳아보래. ... 그런데 아니라고 돈 가진 것도 없는데 애만 줄줄이 낳으면 그때는 전세방 얻기도 어려웠어요 ... 안 된다고 안 낳는다고 (사례24)

나. 현재

여자유형Ⅱ 역시 여자유형Ⅰ와 비슷하게 친정부모보다는 시부모를 모시고 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집안을 모셔야 하는 시대적 분위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비록 모시고 사는 것은 시부모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친정부모와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부모와의 관계에서는 타 유형처럼 역시 어려움을 겪고 갈등(스트레스)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시댁에는)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 주로 친정 쪽을 많이 가게 돼. (사례23)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같이 사는 자체가 힘들지.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그 게 막 시집살이시키고 그런 게 있었잖아. (사례25)

이래로의 부양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 부양’을 살펴보면, 자녀 역시 일종의 ‘부양’해야 하는 관계로 보고 있다.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인데, 자녀의 학원비나 대학교 등록금이 가장 힘든 점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하여, 뒤늦게 맞벌이를 가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식이란 부양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이지. (사례23)

그거 다녀가지고 애들은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이 장사는 하게 된 거야. (사례25)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하여 더 이상 학비를 부담하지 않게 되자, 그 이후부터 경제적 부담이 줄고, 그런 여유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그만큼 자녀의 경우 가계경제에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

(학비는 많이 부담스러워서) 대출 받았죠. 요즘엔 더 비싸진다던데. ... (딸들이 졸업하고 나서는) 학비가 안 나가니까 훨씬 안정이 되죠. ... 남편하고는 애들 졸업하면서부터... 놀러도 다닌 것 같아. (사례24)

자녀에 대한 부양이 등록금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 유형 역시 자녀의 결혼자금까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혼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으나 ‘막연히’ 책임을 지는 선에 대하여 자녀의 결혼까지로 생각하고 있음이 보여진다.

결혼 자금, 의무적으로 있어야죠. 부모로서는... (사례22)

학자금은 그렇죠. 학비, 부모가 하는 게 당연한 거고 ... 결혼자금까지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 결혼자금까지 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아직 마련할 방안은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지. (사례23)

그러나 이런 자녀에 대한 부양과는 달리, 자녀들이 자신의 노후를 부양해 줄 것이라는 기대나, 부양해 주길 원하는 마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들이 본인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느꼈던 힘든 점 때문이기도 하며, 자식세대 역시 힘들 것이라는 생각, 본인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끝으로 시대적 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거(자녀한테 노후비용)는 안 기대고 싶어요 내 능력이 되면 그런데 뭐 기대는 건 상상도 못하지. 그런 생각(억울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사례23)

(자식하고 같이 안 사실 생각이지요?) 네. (억울하지 않으세요? 선생님은 할 만큼 했는데 나중에 부양은 받지 못하잖아요?) 아니요 (사례22)

자녀들에게 부양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보험’과 같은, 있으면 그 자체로 든든한 존재로 느끼고 있다. 이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도와주길 바라고,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부양’하는 것은 아니며, 자녀를 노후에 있어 정서적 지지자로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식이란) 보험이라는 느낌이죠 아무래도 든든하니까 자식이니깐. ... 내가 손발 못 쓰면 지그들이 모시면 모를까 지금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례22)

노후에 자녀들은 중요하죠.. 혼자 사는 건 아니고 어쩌면 가족이라는 게 있는 거고 내 자식이니까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 (사례23)

배우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사이가 매우 살가워 보이지는 않는다. 배우자는 젊은 시절 갈등의 원인이었으며, 의무적 관계의 연장이기도 하다.

지금은 의무적으로 사는 거죠 (사례22)

(남편의 존재) 웬수죠, 뭐... 진짜 없으면 안 되고 있으니까 부담스럽고 이런 거같이 있을 때는 하도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사례23)

오늘날에 들어서는 싸우는 횟수가 줄기는 했으나, 갈등이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 풀기보다는, 자연스레 풀어지게 두는 것으로 보인다.

(남편하고 싸우면) 말 안 해요 ... 그러다가 우연찮게 해주면 ...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그런 건 없어요 (사례22)

그러나 배우자와 함께 힘든 많은 시기를 함께 겪어오면서, 또 자녀들의 출가 등으로 인한 가구경제의 여유로움 등이 생기면서, 현재는 그 전보다 더 사이가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다.

나이가 드니까 싸울 거리를 안 만들게 되더라고 서로 피하게 되더라고 ... 이젠 그런 걸 다 겪고 나니까 ‘이러면 어때’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사례23)

(남편과 사이) 나이 먹어서 괜찮아요 젊었을 때는 티격태격 했어. ... 애들 졸업하면서부터 괜찮아진 것 같아.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 요즘 싸울 일은 없는 것 같아. (사례24)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배우자가 과거에 갈등의 원인이지만, 지금처럼 앞으로도 함께 할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노후에도 그 중요성이 변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남편의 의미) 동반자. 늙어서 같이 항상 옆에 있는 사람. 남보다는 의지가 되지. 나이 먹어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느끼겠더라고 (사례24)

(노후 남편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아질 것도 아닌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의지가 될 것 같죠. 애들이 없으면 아무래도 남편한테 의지가 될 것 같아. (사례22)

그러나 부부가 함께하고 있는 활동은 거의 없어서, 노후에 단 둘이 남았을 때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부부가함께 하는 활동은) 없어요 (사례23)

본 유형이 친밀하다고 느끼는 주변인으로는 주민과 직장동료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동료의 경우 직장이 바뀌거나 이사를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연결고리도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노후까지 이 인적자원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유형의 경우, 가사와 일을 함께 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이 적어 주민보다는 직장동료와 친해질 가능성이 높고, 저소득이라는 상황 때문에 직장이직이 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자원의 취약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동네 이춤마을 친구들 ... (나중에 내려가서 살면) 멀 어지죠, 아무래도 친구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 (사례22)

직장 다니면 다닐 때나 많이 다니지. 그만두면 얼마 못 만나잖아. 아무래도 끊기고 회사생활하면 시간 내기가 힘들니까 주말되면 집안 살림 밀렸던 일하 다보면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뜬해져요. 관두면 뜬해지고 (사례24)

(지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크게 없고 동기간들이지 뭐 ... 그냥 (동네) 할 머니들만 있어 가지고 그냥 형님 아우하면서 사는 거지. (사례25)

취미로는 주로 간단한 운동을 꼽고 있으나 그마저도 요즘 들어 지주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인 여가시간에 많이 하는 취미생활로는 TV시청을 꼽고 있다. 여자유형 I보다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 는데, 여가생활은 주로 영화 혹은 무료로 이루어지는 공연으로 보인다.

등산가는 거. 요산에 등산 잘 다녀요 매일 갔었는데 요즘에는 못 갔어. (사례25)

티비 많이 봐요 주말에 많이 보죠, 심심하면...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 보죠
말 할 사람 없는데 신랑하고 오래 있으면 말을 하겠어, 애들하고 뭘 말을 하
겠어. (사례22)

다른 취미는 텔레비전보고 그러지, 다른 거는 뭐. (사례25)

여기 콘서트 오면 가끔 가. 1년에 한두 번. 영화는 자주 봐요 재미난 거 있
을 때만 보는데 1년에 4, 5번 보게 되나? 친구들과하고도 가고 직장에서도 가
고 모임에서도 가고 이래. (사례2)

여행의 경우, 자식이 아직 출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못 가거
나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식이 출가한 경우에는 자
주 가는 것으로 나타나, 자식부양에 대한 책임에서 해방되면 여가에 투
자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여행은) 동네에서 가자고 하면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가고 (사례25)

(여행은) 못 가요 (사례22)

(여행은) 봄, 여름, 가을로 가요 1박으로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요 시간이
많으니까. (사례24)

본 유형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결혼 이전에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결혼은 곧 퇴사라는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자영업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하였다가, 후에 경제적 상황, 무료함 등의 이유로 인
해 다시 재취업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생활은) 여기 저기 다니다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없으니까. 가난했으
니까. 한 16,17(살). (사례24)

이주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결혼하면 그냥 그만두는, 누가 그만두라고 어거지

로 한 건 아닌데 관례가 그랬었어요 (사례23)

맞벌이로서 취업을 했을 때, 남편들은 반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면에는 가구경제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취업 등의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

애들도 크고 가게에 도움도 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했더니 크게 그런 건(반대한 건) 없었어요 (사례23)

대부분 현재 가구 경제 상태까지 오기까지 주식이나 투자 등으로 인한 일확천금의 기회, 타인의 도움은 없었으며, 꾸준히 순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내가 오로지 노력으로 (사례22)

부모님한테 받은 게 있으면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겠어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산거지, 그러니까. (사례25)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금전문제를 꼽고 있다.

(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금전문제가 어렵죠 (사례22)

본 유형에게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점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크게 건강과 경제적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몸 안 좋아서 병원가야 하는데 돈은 없고 그러면 비참하지. (사례23)

여자유형 I 보다는 노후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는 조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정도에 따라 아직 노후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봤다는 단계, 생각은 해봤지만 걱정은 안한다는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단계, 구체적인 방

법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민은 한다는 단계 등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노후생각, 앞으로 생각하면 걱정은 되지만 그런 거 미리 걱정할 건 없어... 믿는 구석은 (없어도)... (사례24)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서 살아야지... (노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았어요) (사례24)

(노후자금방법) 노후에는 모르지. 아직까지 돈벌어놓은 건 없고 그때 가서 애들이 어떻게 도와줄 건지, 아니면 집이라도 팔아서 어떻게 되겠지. (사례25)

그래도 (노후) 생각은 많이 하죠 심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는 아니고 지금 생활이 그러니까 해야지, 해야지 그 정도죠 노후대책을 세워야지 그 정도 (사례23)

이들은 현재 별고 있는 것만으로는 노후에 충분치 않으며, 경제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현재 상태를 판단하고 있다.

내가 노후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사례23)

노후준비는 부족해요 지금이라도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데 ... 노후준비는 아직 안됐네요 ... 부족할 것 같네요 내 생각에는 (사례22)

그러나 이런 노후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상태 파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후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은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가지고 있는 집, 국민연금, 배우자 연금 외에는 딱히 준비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들지 않아, 한번에 경제적 취약함에 다가설 수 있는 위험도 내포되어 있다.

(노후) 해결방안은 남편이 잘 벌어야 되는데 사업이 잘 돼야 하는데 안 그러면 뭐, 집이라도 팔아서 ... 실버타운이라도 들어가지 않을까? ... 사실 내가 노후가 대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23)

나는 국민연금 못 들었고 신랑은 직장생활 계속하니깐 많이 들었고 ... 개인연금은 없어요 보험은 있죠 ... (그것 말고 노후 준비하는 건 다른 건) 없고 ... (사례22)

국민연금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제가 못 넣고 있어요 (사례23)

그 이유로는 미래를 걱정할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학연금 빼면 노후준비를 위해서 해 놓은게) 없어요 살기 바쁜 데 그런 거 어떻게 해봐. (사례24)

건강과 관련하여서도 역시 노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삼고 있지만, 지금 예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의 경우 특별한 운동을 꾸준히 한다기보다는, 돌아다니는 것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숨쉬기 운동. 지금 노동만 하죠 돌아 당기고 (사례22)

특별히 돈 내고 하는 건(운동) 없어요 공원 들고 산에 가는 게 전부. (사례24)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건강식품이나 약 역시 못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건강식품 같은 거 먹으려고 구입하기도 하고.. (근데) 안 먹죠 먹어야지 효과를 본다는데. (사례23)

노후에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간병수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식이 하는 것은 원치 않고, 배우자 혹은 국가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아들보다는 남편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사례22)

가족보다는 의료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 가족은 누가 할 사람이 있어요?

당장 나도 싫은데. (사례2)

이 유형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과 불만족의 경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객관적인 현실은 어려움에 가까우며 가장 힘들다고까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지금이 최악이라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혹은 이전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매우 힘들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자부심 등으로 인해 만족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만족하는 사례의 경우에는 힘들었던 시기에 비하면 지금 이 정도는 ‘괜찮다’ 정도로 수긍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지금이 최고 힘들어요 다쳐서 일 못하는 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집 사서 빚 얻어가지고 힘들고 (사례22)

(지금 사는 것이) 불만족스럽죠 많이. 경제적인 게 어려운 게 좀 있으니까. (사례23)

만족해요 나는 욕심 안 부리니까 만족해요 내 생활에만 비교하니까 이정도만 조그만 거에 만족을 느껴야지, 없는 거에 만족하면 인생은 고달프니까 조그만 거에 만족해요. (사례22)

그런 대로 뭐. 그렇게 고생해서 살았으니 지금 와서 여유 있게 사는 구나. ... 힘들었지만 괜찮았다 싶지 뭐. (사례24)

여자유형II는 자신의 세대에 대해 고생하고 불쌍했지만, 윗세대에 비하면 괜찮은 세대라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 세대는) 외면당하는 저기라고 하는데. 사회에서도 외면당하고 자식들한테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아. (윗세대는) 사회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내 생각으로는 굉장히 노인 분이 부담되는 것 같아요 ... 자식들한테 기대는 세대잖아요. 자식들이 많이 부담스럽지. (사례23)

다. 미래-노후생활

여자유형II는 5년 후의 미래에 대해, 일을 하고 있으면 계속 일을 할 것이며,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일에 있어서의 지속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은) 앞으로 5년 정도는 계획이 그랬는데, 애들 학교가 끝나지 않으면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례23)

글쎄요. 지금도 (일을) 못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뭘 할까. (사례25)

가족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은 분가시키고, 남편과 단둘이 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분가시킴으로써 여유를 얻게 되고, 남편과 단둘이 살게 되면, 사이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편과의 관계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애들 다 가면 둘이 더 좋아진다잖아. 관계가 믿을 사람이 둘밖에 없으니까. (사례24)

마음은 더 풍족할 것 같아요 애들 보내고 하면. (사례22)

거주지는 크게 변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나, 거주지의 변화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르죠. 여기서 살지, 시골로 갈지 모르겠어요 (사례24)

10년 후에는 일을 하더라도 경제적 의미보다는 소일거리에 가까우며, 시간 못한 여가를 즐기며 살고 싶다고 한다. 단, 10년 후 건강상태가 좋을지 나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건강상태에 따라 남편과 함께 살거나, 혹은 남편이 없는 경우는 혼자서 살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10년 후에도) 몇 년 하고나면 식당 같은 거라도 장사하고 싶어요 (사례22)

즐겁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복지관 같은 데도 가고 될 수 있으면.. (사례25)

(나는) 기운이 없어 가지고.. (10년 후에도) 애네 아빠가 건강하니까 같이 살지 않을까? (사례24)

그땐 죽지 뭐 살겠어? (자녀들하고 함께) 살면 부담가지. 자식들이 싫어하지. 혼자 사는 게 편해. 마음은 편한데 외로운 건 있겠지. (사례25)

희망하는 노후생활로는, 일을 하기보다는 여가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로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전원생활 등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생활은 혼자보다는 주변이웃과 친구, 혹은 자식과 함께 하길 원하고 있어, 현재 여가생활을 못하거나 하더라도 혼자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노후여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도 하고 싶고 취미활동도 하고 싶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사례23)

여유가 있으면 활발하게 하죠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 봉사단체에 가입도 하고 싶고 그런 거. (사례23)

(여가활동은) 동네사람... 이웃집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함께 하고 싶지) (사례22)

거주지역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대도시보다는 도시 근교 혹은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농촌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데 서울보다는 여기 살고 싶어요 ... 시골이 좋아. 아주 도시보다도 이

런 소도시가 좋아. (사례23)

난 늙어서 도시에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지금 애들이 있어서 그렇지... 응.
(시골로 가고 싶어요) (사례24)

전원생활하고 싶은데 시골에서 포도밭하고 싶어요. (사례22)

3. 종합

여자유형II는 무자녀율이 높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비교적 이른 출산으로 인하여 다수가 손자녀를 두고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의무적인 관계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례조사를 통해 노후 의지할 것이며 함께 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녀와의 관계는 만족 및 보통의 비율이 높고, 전체유형과 비교할 때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중요한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 다음으로 자녀를 택했으며, 그 비율이 전체유형 중 가장 높았다. 사례조사를 통해 이것이 부양에 대한 기대는 아니며, 정서적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가장 친한 친구는 주로 직장동료 및 주민으로 나타났는데, 직장동료의 경우 장기적 지속성이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건강과 경제 상태를 꼽고 있지만, 특별히 하는 운동이 없고 건강식품 섭취율은 가장 낮아서, 예방적 형태의 건강차원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 역시 가장 낮은 점 역시 노후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적 측면의 경우 가구소득도 적은 규모이며, 저축을 전혀 안한다는 응답이 약 1/3에 달하고 있으며 공적연금 미가입도 높아, 현재 경제 상태 및 노후 경제 상태에 대한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노후에 대한 경제적 막연한 두려움은 있지만, 현재 경제 상태에 급급

하여, 노후컨설팅에 대해 관심 없다는 의견은 62.9%로 높아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환기 자체가 필요한 듯하다.

여가활동은 딱히 없거나, 하는 경우 주로 혼자하고 비용이 적은 활동 위주(산책, 운동, 친목모임, 책읽기 등)이다. 자원봉사참여도는 전체적으로 다 낮게 나타났지만 본 유형에서 특히 낮게 나타나,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본 유형을 위해서는 첫째, 기본적인 경제적인 노후준비 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공적연금 가입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들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들지 않거나 미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화된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건강 상태 점수가 가장 낮으며, 상대적으로 만성 질환율과 우울증이 매우 높으므로 지속적인 건강검진과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셋째, 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비하여 노후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하므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환기 자체가 필요하다.

제7절 여자유형III(여자 중상층 불안정·비독자적 근로활동형)

1. 양적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본 삶의 모습

가. 가족관계 및 부양의 교환실태

여자유형III의 총 자녀수는 평균 2.1명으로 무자녀율(1.1%)은 매우 낮고, 자녀동거율(91.2%)은 전체(82.7%)보다 높은 수준이며, 여자유형IV의 자녀동거율(92.3%)보다는 약간 낮다. 한편, 부모의 경우 본인의 부모생존율은 58.4%이고, 배우자의 부모의 생존율은 51.9%로 전체(각

각 61.2%, 60.2%)평균보다 낮다.

본인의 부모와의 접촉은 주 2회 이상 39.5%, 주 1회 24.0%, 주 1회 미만~월 1회 28.0%, 월 1회 미만 8.5% 등으로 주 1회 이상 접촉률(63.5%)을 전체평균인 55.9%와 비교하면 더 높은 수준으로 자주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생존율은 전체보다 낮으나 부모와의 접촉은 더 활발한 수준이다.

또한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은 주 2회 이상 32.0%, 주 1회 28.6% 등으로 주 1회 이상 접촉(60.6%)을 전체(38.2%)와 비교하면 22.4% 포인트 더 높은 수준으로 타 유형에 비하여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이 매우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본인 부모와의 도구적 교환실태를 보면 집안일 도움 제공이 85.6%(전체 72.4%), 간병 수발 도움 제공 39.1%(전체 34.2%)이고, 배우자 부모와의 도구적 교환실태는 집안일 도움 제공이 87.6%(전체 65.5%), 간병 수발 도움 제공이 36.1%(전체 23.5%) 등으로 양가 부모들과의 도구적 교환실태도 타 유형에 비하여 활발하다. 또한, 본인 부모로부터의 집안일 수혜율은 34.5%(전체 26.7%), 배우자 부모로부터의 집안일 수혜율은 34.3%(전체 27.2%)로 전체에 비하여 부모로부터의 수혜율이 높은 편이다. 즉, 여자유형Ⅲ의 경우 부모와의 밀접한 접촉뿐 아니라 도구적 교환도 가장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 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움 제공 실태를 보면, 정기적 현금지원이 21.0%(전체 26.1%),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이 75.8%(전체 66.5%)였고, 배우자 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움 제공은 정기적 현금지원 45.8%(전체 23.9%),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51.2%(전체 68.5%)였다. 즉, 부모에 대한 정기적 경제적 지원은 배우자 부모(45.8%)가 본인 부모(21.0%)보다 2배 이상 더 높고, 본인 부모에 대한 정기적 현금지원은 전체 수준에 못 미치나, 배우자 부모에 대한 정기적 현금지원은 전체보다 약 2배 정

도 높은 수준이다.

한편 본인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수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부모들과의 경제적 도움 실태는 주로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응답(본인부모 94.9%, 배우자 부모 95.9%)이 8개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여자유형Ⅲ의 친가와 배우자 가족과의 접촉 빈도·친밀감을 보면, 접촉 빈도는 친가와 더 자주 접촉한다는 응답률인 39.8%(전체 47.9%)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배우자 가족과 더 자주 접촉한다는 응답 33.5%(전체 23.9%)는 가장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여자 중상층으로 비교적 직장의 근무시간이 적었던 경우 시대가족과 자주 만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과 만족’의 긍정적인 응답(69.1%)로 전체(71.1%)에 비하면 조금 낮은 수준이나 여자 저소득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Ⅰ 60.4%과 여자유형Ⅱ 57.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또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2.3%)은 전체(2.7%)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양질의 부부관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별거자녀가 있는 경우 별거자녀와의 접촉 실태를 보면 주 1회 이상 접촉한 비율이 78.6%(전체 72.2%)로 타 유형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고, 집안일 도움 제공률(71.5%)과 수혜율(55.7%)이 전체(각각 57.7%, 52.8%)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자 저소득층에 비해서는 집안일 도움의 교환이 조금 적은 수준이나, 손자돌보기 제공률은 83.6%(전체 76.5%)로 8개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1년간의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부양 수혜 실태는 비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이 67.7%(전체 59.6%), 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 5.9%(전체 6.7%), 경제적 지원 받지 않음 25.2%(전체 31.4%)

등으로 비정기적인 용돈 생활비 수혜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성인자녀수는 1명이 38.8%, 2명 이상이 17.8% 등으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자녀가 전체(50.8%)보다 많은 실정이지만,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의 긍정적인 응답이 85.8%로 전체(83.8%)보다 오히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 수는 4~5명이 21.1%(전체 19.8%), 6명 이상 7.6%(전체 6.0%) 등으로 친한 친구의 수(평균 2.8명)가 여자 베이비 부머 중 가장 많다.

자주 접촉하는 지인을 보면 지역주민(49.3%), 동창(17.3%), 종교 관련 교우(13.4%), 직장동료(12.6%) 등의 순으로 타 유형에 비하여 지역주민과 자주 접촉(전체 31.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는 배우자 83.2%(전체 78.4%), 친구 8.7%(전체 7.2%), 자녀 7.8%(전체 10.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저소득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I)의 배우자 중요성(65.7%, 63.5%)과 비교하면 약 20% 더 높은 수준이다.

나.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여자유형 III의 현재 흡연율은 1.1%로 매우 낮았고, 현재 음주율도 49.6%(전체 62.8%)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운동 실천율은 73.4%로 전체(68.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자주 이용하는 운동시설은 집주변이 6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민간/상업 체육시설 19.1%, 공공 체육시설 6.5%, 학교체육시설 4.0% 등으로 나타났다. 여자 저소득층 베이비 부머에(여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I) 비하여 민간/상업 체육시설 이용률(여자 베이비 부머 저소득층 각각 4.2%)이 높은 수준이다. 운동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는 타 유형에 비하여 관심 없음

14.0%(전체 10.4%)와 게을러서 20.0%(전체 16.1%)라는 응답이 조금 더 높았다.

다양한 식품 섭취를 위한 노력 여부에서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81.3%(전체 76.2%)로 높고, 건강보조식품 섭취율은 72.9%(전체 59.7%), 건강검진 수진율은 86.8%(전체 80.8%) 등으로 건강생활 실천행위수가 평균 4.77개(전체 4.16개)로 타 유형에 비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을 더 실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다 또는 좋은 편이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56.3%이고, 보통이다 32.4%, 나쁘다 11.4%로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54.3%) 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1%(전체 27.1%)이고 우울증상이 있는 비율은 10.0%(전체 10.2%) 등으로 전반적인 건강 점수는 2.52점(전체 2.52점)으로 전체와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본 유형은 타 유형에 비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건강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관리를 위한 희망서비스는 정기적 건강검진이 35.9%, 식이 또는 운동처방이 18.5%, 건강 및 질병상담이 14.5%,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가 9.0%, 건강교육이 8.2% 등으로 나타나고, 여자 저소득층 베이비부머(여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I)에 비하여 식이 또는 운동처방, 정기적 건강검진에 대한 희망서비스가 더 높다.

다. 경제상황 및 경제적 노후준비

여자유형 III의 가구소득 분포는 400~600만원 미만이 50.5%로 가장 높고, 600만원 이상 34.7%, 200~400만원 미만이 14.7% 등의 순이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594만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산규모도 5억 이상이 35.1%로 가장 높고, 그 다음 1~3억원 미만

34.3%, 3~5억원 미만 20.3%, 1억원 미만 10.3% 등으로 여자 저소득층의 경우 1억원 미만이 절반 정도인데 비하여 높은 자산 수준이다.

경제적 계층의식은 본인이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0%이며, 중층이 75.4%, 하층은 20.6%로 대부분 중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유형은 24.3%가 청소년 시절 경제생활수준에 대한 응답은 좋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41.2%가 보통, 34.6%가 나쁨으로 전체 8개 유형에서 청소년 시절 경제생활이 좋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향후 10년 후의 경제수준에 대한 기대에서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8%(전체 41.0%)이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5.5%(전체 18.8%)로 전체에 비하여 대체로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유형의 수입대비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66.3%(전체 75.8%)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대비 지출비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여자 저소득층(80.7%, 101.6%)에 비하면 지출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월 수입대비 저축비율을 살펴보면, 20.0% 이상을 저축하는 비율이 46.2%이고, 전혀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3.7%로, 여자 저소득층에서 전혀 저축을 하고 있지 못하는 비율 약 32%에 비하면 향후 경제적 노후준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노후준비율을 보면 건강 및 요양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국민건강보험 이외의 민간건강보험의 가입률 91.3%(배우자 91.5%)로 가장 높고, 목돈마련 등 62.5%(배우자 41.0%), 사망위험에 대한 준비율 39.3%(배우자 45.7%), 노후 생활자금을 위한 노후연금 가입률 30.1%(배우자 34.7%) 등으로 노후준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자금의 한 유형으로 활용 가능한 주택연금에 대한 인지율은

87.9%(전체 85.3%)로 매우 높으며, 주택연금을 향후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도 26.6%(전체 23.0%)로 타 유형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연금을 가입중인 비율은 24.5%로 전체의 51.4%보다 매우 낮는데 이는 여자유형Ⅲ의 경우 임시직이나 전업주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

경제활동 특성을 살펴보면, 71.8%가 경제활동 중으로 여자유형Ⅳ(60.6%), 여자유형Ⅱ(61.3%) 보다는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약 10% 더 높은 수준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최장 직종과 같은 일이 52.5%이고, 현직업의 종사상 지위는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율이 44.3%, 임시직 임금근로자 31.8% 등으로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율은 8개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 직업의 종사기간을 살펴보면, 5년 미만의 비율이 33.9%로 가장 많은데, 이는 육아를 거의 마치고 나서 다시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여자의 전형적인 근로패턴인 M자를 나타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는 비율이 47.0%이고 불만족하는 비율이 23.5%로 여자유형Ⅳ의 72.5%에 비하여 현재 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계속 고용 희망률은 65.7%이고, 현재 고용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은 21.4%로 높지 않았다.

노후에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는 37.1%만 노후에 일하기를 희망하여 8개 유형 중 가장 낮고, 노후 일의 중요성 점수는 3.49점으로 전체 3.75점보다 낮다.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이유는 소득(47.9%), 자기발전과 여가(30.3%) 등의 순이며, 여자 저소득층(72.5%, 59.3%)보다는 소득을 위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고, 여자유형Ⅳ(39.6%)

보다는 자기발전과 여가를 위해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노후에 경제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63.2%), 집안에서의 역할을 위해서(20.5%) 등으로, 여자 저소득층(약 54%)에 비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노후에 희망하는 경제활동 패턴은 종일근무(17.7%)보다는 파트타임(45.4%)과 자유 형태(36.9%)의 일을 노후에 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여자 저소득층(여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I)에 비하여 종일근무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이고, 자유형태의 일은 더 원하는 편이다.

한편, 최근 1개월 간 주로 한 전반적인 여가활동을 보면, 친목모임이 17.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운동(스포츠) 15.7%, 산책 9.5% 등산 9.2%, 화초 가꾸기 8.1% 등의 순이다. 1순위 여가활동 빈도의 경우 주 4회 이상 39.1%(전체 34.2%), 주 2~3회 31.5%(전체 27.5%) 등으로 주 2회 이상의 여가활동 빈도가 8개 유형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혼자서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친구와 함께 39.5%, 가족과 함께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타 유형과 비교하면 친구와 함께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노후에 즐기고 싶은 여가 1순위를 보면, 여행이 40.5%로 가장 높고, 운동(스포츠) 8.9%, 등산 8.7%, 친목모임 6.1%, 노래 부르기 5.0% 등의 순이다.

현재의 삶, 노후 삶에 있어서 여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 또는 중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각각 74.5%, 89.2%(전체 69.3%, 83.7%)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 저소득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I)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약 10% 더 높은 수준이다. 현재의 삶, 노후 삶에서의 여가의 중요도 점수도 각각 3.80점, 4.02점으로 전체(각

각 3.69점, 3.98점)보다 더 높다.

본 유형의 현재 자원봉사단체 참여율은 9.2%(전체 7.3%)로 타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향후 참여 의향도 전체평균인 43.9%에 비하여 훨씬 높은 51.6%이다. 또한 현재 정치사회단체 참여율은 1.6%(전체 1.8%)로 매우 낮으며, 향후 참여 의향도 5.0%(전체 4.9%)로 낮은 수준이다. 종합적으로 현재 사회참여활동 중요도 점수는 3.23점으로 전체(3.17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노후 사회참여활동 중요도 점수는 3.32점으로 전체(3.33점)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반적인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는 건강관리교육 29.4%, 여가·취미 관련 교육 25.5%, 자원봉사교육 10.7%, 노후준비교육 13.9% 등으로 타 유형에 비하여 여가·취미 관련 교육 또는 자원봉사교육 등에 대한 희망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마. 가치관

여자유형Ⅲ은 일반적으로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은 등 경제적 부양을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녀 및 가족이라는 응답이 55.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사회보험 21.8%, 본인 11.1%, 국가 8.7%, 배우자 2.6% 등의 순이었고, 타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녀 및 가족 또는 사회보험이라는 응답이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본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연금 등 사회보험 36.1%, 본인 33.0%, 배우자 21.4%, 국가 6.1%, 자녀·가족 3.4% 등으로 전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사회보험 또는 배우자라는 응답이 더 높은 수준이고 본인이라는 응답은 낮은데, 이는 여자의 경우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해 배우자 의존이 높고 자립성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노후에 희망하는 동거지는 부부 혹은 혼자라는 응답이 92.9%였고,

상대적으로 아들(4.2%)에 대한 희망률이 낮은 수준이다.

부모의 자녀부양 기간에 대하여는 결혼할 때까지 53.0%로 가장 높고, 그 다음 학업 마칠 때까지 21.9%, 직장 생길 때까지 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41.5%)에 비하여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약 11% 더 높은 수준이다.

희망하는 노후 생활을 살펴보면, 젊어서 못한 취미생활이라는 응답이 약 4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자원봉사 21.3%, 종교활동 13.4%, 자기계발 8.1%, 소득 창출 6.3% 등의 순이고, 타 유형에 비하여 소득 창출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본 유형의 최근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의 취업 및 결혼 51.3%(전체 33.7%), 자녀교육 17.4%(전체 25.6%), 본인의 건강 16.8%(전체 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에 비하여 자녀의 취업 및 결혼에 대한 관심이 약 18% 더 높은 수준이다.

노후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은 건강 및 기능약화 68.9%(전체 54.7%), 경제적 어려움 18.7%(전체 31.7%)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본인의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더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1순위)으로는 건강 47.6%(전체 45.1%), 경제적 안정과 여유 35.8%(전체 40.6%), 가족의 화목과 평안 7.6%(전체 4.6%), 자녀의 성공 6.8%(전체 6.4%) 등으로 전체에 비하여 건강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았다.

2. 사례를 통해 본 삶의 모습

가. 과거

여자유형Ⅲ은 청소년 시절에 경제생활이 안정된 가정, 아들·딸에 대한 성차별 없이 평등한 가치관을 가진 부모 슬하에서 자랐고, 이전 결

혼생활에서도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경제적 큰 어려움 없이 살아 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고등교육이나 고용이 안정된 직업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고향은 oo이고, oo을 벗어나서 살아보신 적이 없어요. 친정아버지도 공무원이었으니까. 형제는 4남 2남 중에 3남이고, 아들딸 구별 않고 모두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내만 세월이 그러니 대학을 보내더만.. (사례26)

2남 1녀 중 막내... 우리는 형제가 작다 보니까 가르치는 것도 똑같이 하고 배우도 똑같았어요.. 우리 엄마가 좀 개어있었지... (사례27)

이러한 안정된 생활의 원인 중 하나는 남편의 경제활동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것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혼 후 계속 oo에서 살았고 신혼살림은 전세(백만원이었다)로 오래 오래 살았어요 이후에 두 번 이사 갔어요 그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집을 마련하였는데 35세 그랬어요. 그게 이집이야. 6천 5백만원에 분양받은 것인데, 국민주택 용자도 1200만 원 받았어요 집안의 도움은 없었어요 이 용자는 다 갚았어요 (사례26)

남편은 화물 트럭을 오랫동안 27~28년 했어요 지금은 개인택시를 3년 동안 하고 있어요. 맞벌이는 2년 전부터 해요 그 전에는 결혼 후에 직업을 한 번도 안 가지고 가정주부만 했어요 (사례26)

그러나 비교적 남편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온 것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좀 더 개발하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오진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평가한다면? 자식 낳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 뭐. 더 열심히 살 걸 하는 후회는 있어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생각.. 자격증을 받고 그런 직장, 국가에서 인정하는 직장이 최고인 거 같애... (사례26)

고향은 경상북도예요.. 중3때 가족이 서울로 왔어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은 21살에 종합무역상사에서 12년 일했어요. 결혼하면서 그만뒀어요. 우리 때는 결혼하면 회사를 자동으로 그만둬야 했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실업계 나오면 은행, 종합상사, 무역회사 이 세 군데가 제일 좋은 직장이지... 실업계 나오면 무조건 경리였어... (사례27)

4남 2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우체국에 취업해서 8년 정도 다녔고, 결혼하고 그만뒀으니까... (사례29)

나. 현재

부부관계, 부모 및 자녀와의 관계, 친구 및 지역주민과 관계 등에서 평탄한 결혼생활,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 가족 및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접촉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적극적인 여가를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는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 십년 동안의 적응과정을 통해 배우자와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부가 서로에게 맞추어가는 과정의 결과인 것이다.

현재 생활에 만족해요. 심리적으로 안정됐고, 걱정거리는 없어요. 이웃들도 좋고.. 부부싸움 잘 안 해요. 싸울 일 별로 없어. 이제는 습관이고 뭐고 다 인정해 주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도 맞춘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맞추지...(사례26)

자녀도 가족계획 캠페인의 모토에 맞도록 감당할 만큼의 자녀를 낳아 키워서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키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며, 노후에 자녀가 심리적인 지지망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자식은 낳았으면 끝까지 살아야 하는 의무는 있는 거 같애... 자식이란 존재는 받은 짐이고,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의미이지... 그래서 많이 안 낳는 거 같

애... 혼인 같은 걸 하고 그럴 때 친정 엄마가 딸을 붙잡고 애를 많이 낳으라고 그래야 하는데, 아를 붙잡고 너는 하나만 낳아 그러잖아... 다들 그러는 게 많아... 그리고 생각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그리고 공부만 시키는 게 아냐. 우리 친구들도 80년대 출산한 애들은 거의 하나가 많아.. (사례26)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결혼 때문에 그렇지... 자식이란 버팀목이죠.. 그냥 이들은 든든하다는 거고 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고, 자식한테 크게 기대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기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프다든지 병이 난다든지 하면 둘이 살다가 한사람이 먼저 가면 자식이 없으면 그래도 오고 가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냐고, 자식 없이 사는 사람 보면 그렇더라고.. 자식이 있으면 미우나 고우나 자식이니까 와 볼 거 아니야.. 엄마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와보지 않을까? 그렇게 키우지도 않았고 우리 애들은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례28)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자식이죠.. 우리는 애 하나 딸 하나 없었으면 둘이 못살았을지도 몰라 애 때문에 일하고, 일 하니까 돈이 나왔고, 애 때문에 돈을 모았고, 애 때문에 살아야한다 이거야.. (사례27)

자신의 생식가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부모와 형제·자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갖고 있다.

어머니 생활비로 매월 15만원 정도 드려요.. 전화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찾아봐요.. (사례28)

친정식구들 형제간에 모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나들이 가요. 일 년에 4-5번씩... 근데 시댁하고는 잘 안 모여요 (사례29)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하여 이들은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삶의 안정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자원봉사와 같은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직장 동료도 있고, 아파트 주민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학교친구랑 가장 친하지 뭐... 고등학교 동창 서너 명... 모임 세 개 정도인데... 하나는 동네 주민(아파트주민)이랑 하고, 하나는 00향교.. 나머지 하나의 모임은 우리 딸의 초등학교 친구 학부모님... 우리들은 친하지 뭐, 입주도 같이 했고 나이들이 비슷하니까 친하지... 모이면 한 15명 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회비는 만원 정도.. 향교 모임은 40명...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회비는 5천 원이야. 그건 봉사를 한 달에 한 번 꼴은 하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은 10명으로 한 달에 한 번.. 회비는 만원 밖에 안 해... (사례26)

친구 모임은 매달이지 나는 세 건은 꼭 해야 돼요 이웃집 모임, 애로 인한 학부모 모임, 동창모임 가족모임은 행사적으로 가는 거니까. 한 달에 꼭 3번은 간다고.. (사례27)

자원봉사활동을 해요... 사회복지협의회 가서 일도 하고, 적십자 가셔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000자원봉사회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노인 위안 잔치 같은 것도 하고 우리가 얼마의 회비를 내어 그 돈으로 어른 들 자녀 없는 사람들 반찬도 만들어주고 청소도 해주고 목욕도 해주고 해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나가죠 (사례29)

나는 학교동창은 친한 사람 딱 1명 있어... 진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은 딱 1명... 그리고 언니들이 좀 있지.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언니들이 있어요..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5명 정도.. 모임은 많아요 봉사 모임 3개 하고요 여기 혼인 제도 있고 뽕기 제도 있고.. 그 세 개는 매월 만나요 그럼 모임만 한 10개 되는 거 같애.. (사례29)

한편, 배우자와의 관계도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시간을 함께 함으로써 남편이 생활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은 등산이야.. 한 달에 한두 번은 가는 거 같아요 보통 5시간은 산행을 하죠 남편이랑 같이 가요 다른 운동 하는 것은 없어요 여행은 일 년에 한두 번은 가는데. 아저씨가 좋아하니까. 영화나 음악회 공연을 보는 건 좋아하는 하는데 뭐 기회가 많지 않아. 음악회는 가수들 온다고 그러면 아주 열심히 가. 일 년에 네, 다섯 번은 가... (사례26)

문화활동이 영화 보는 거고 취미활동이 등산이야. 우리는 등산을 그냥 즐기면서 하고, 영화관에 자주 가요. 한 달에 한 번꼴은 가니까 개봉영화는 다 보게 되더라고.. (사례27)

저소득층 여자들이 구체적인 건강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들은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경제적 여유와 시간상의 여유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요가하고 기체조해요.. 일주일에 기체조를 두 번, 요가를 2번씩 해요.. 평소 저녁 설거지하고 아파트단지에 운동기구가 있어요.. 거기 가서 1시간 정도.. 그리고 야구장도 가요? 1년에 5번 정도.. (사례28)

노화방지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다이어트 한 적도 없고 그런 거 먹어 본 적도 없고 주름관리는 관심 쓰지, 내 손이 닿는 한.. 아이크림도 바르고 팩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하지. 건강관리를 위해 좋다는 거는 적당히 열심히 하고, 약 같은 거는 애들이 좋다는 거 보내주면 먹기도 하고.. 영양제 오메가3, 비타민 같은 것.. 운동은 시간 나면 걸어서 다니고, 티비를 볼 때도 앉아서 요가 동작도 좀 하고 그러지.. 수시로 하루에 30분은 하겠지. 우리가 현장에 가면 시간이 많으니까 아침에 사람이 없으니까 앉아서 계속 스트레칭하고 그러지. 현재 몸이 안 좋은 것은 없는데,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거 같애.. (사례26)

다. 미래-노후생활

노후의 삶에 대한 준비로 경제적 노후준비뿐 아니라 여가를 즐기기 위한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 취미생활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이들은 비교적 구체적인 설계 하에 다층적인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고 있다.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연금보험... 내가 60세부터 개시해도 되고.. 보험회사에서 드는 연금은 늦게 탈수록 더 많이 타는 거야.. 62세 정도 되면 내 앞으로 연금만 이백 정도 받으려고 마련 중이지.. 국민연금은 최하급을 들

어서 도움이 안돼요.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땅 장만해놓은 것도 있고.. 3백평형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사례27)

지금 갖고 있는 게 집과 개인택시 그거뿐이지 뭐. 개인택시는 한 1억 가까이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저축액은 한 1억 밖에 안 되겠지. 다른 재산은 없어요. 시댁도움은 없었고 남편이 벌어서 만드신 거야..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을 다달이 20만 원씩 10년을 했으니까. 하나(5만 원)는 내 꺼고, 하나(15만 원)는 신랑 꺼고 60세부터 사망시까지 받는데.. 또 70세 때 타려고 적금 넣어 놓는 거, 한 25년 넣어서 한 5년 있다가 타 더라고. 그건 한 달에 25만 원씩. 한 5년 넣었지. 그때 보니까 한 1억 정도는 타겠던데. 노후 자금하려고 넣어 놓았지. 그리고 종신보험 들어 놓는 거 있어요. 종신보험은 백열 번을 넣었어, 10 번만 더 하면 끝나지. 종신보험을 이주 연금으로 돌릴 수 있지.. 그건 얼마 나 오는지 잘 몰라.. 그건 각각 10만 원씩 넣었으니 합치면 1억 정도.. (사례26)

또한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여가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노후설계를 하고 있다.

10년 후에는 뭐 맨날 등산이나 가지 뭐... 지금 시간 있으면 영어 회화 배우러 가고 싶어. 그거 배우면 좋겠어. 어차피 필요로 하는 거 같으니까. 요기도 하고 싶고, 노래 교실도 가고 싶고.. (사례 26)

10년 후 건강만 지켜지면 봉사활동 다니고 산도 다니고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봉사활동 가면 일이 되게 많아요.. 일을 하다보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지 내가 해주면서 상대방이 힘이 덜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쾌감을 느끼는 거야.. 내가 해주면서 저 사람이 편해하니까 힘이 불끈 솟고 엔돌핀이 퍼지는 거야.. 내 체력이 떨어지니까 집에 와서는 조금 힘든 거지 그러니까 63세가 되도록 지켜만 준다고 하면 그때도 하고 싶어... (사례27)

3. 종합

여자유형Ⅲ은 여자로 안정적인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삶의 질이 높은 상태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부족해하는 시간과 돈에 있어 어느 정도의

여유를 확보한 유형이다.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이 활발하고, 도
구적 교환도 가장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부모와의 경제적 도움 수혜
는 주로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편이며, 배우자 부모에게 더 높
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양질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편이고, 비교적 직장의 근무
시간이 적어 친가 및 배우자 가족과 자주 만나고, 별거 자녀와의 접촉
도 빈번하며,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성인자녀가 많은 실정이나 자녀
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 친구 및 지역주민과의 접촉이
빈번하다.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상태도 양호한 편이며, 경제적 계층의식은
중상층으로 의식 하는 편이다. 각종 사회적 참여 정도가 높고, 노후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갖고 있으며, 노후설계를 여러 측면에서 준비하
고 있다.

이들 유형의 베이비 부머를 위해서는 부모,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감
을 감소시키고 독립적 삶을 즐길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좀 더 의미 있는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호
회 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구체적인 활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후건강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제8절 여자유형Ⅳ(여자 중상층 안정적·독자적 근로활동형)

1. 양적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본 삶의 모습

가. 가족관계 및 부양의 교환실태

여자유형Ⅳ의 총 자녀수는 평균 2.0명으로 무자녀율(1.4%)이 매우 낮고, 자녀동거율(92.4%)은 전체(82.7%)보다 높으며 여자 베이비 부머 중 가장 높았다. 본인의 부모생존율은 75.1%로 전체(61.2%) 유형에서 가장 높았고, 배우자의 부모의 생존율은 56.6%로 전체(60.2%)보다 낮으나,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본인의 부모와의 접촉은 주 2회 이상이 38.5%, 주 1회 26.8% 등으로 주 1회 이상 접촉(65.3%) 비율이 8개 유형 중에서 가장 높아 본인 부모와의 접촉이 매우 활발한 상태이다.

또한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은 주 2회 이상 29.8%, 주 1회 18.9% 등으로 주 1회 이상 접촉(48.7%)을 전체(38.2%)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배우자 부모와의 만남도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 1회 이상의 접촉 비율이 배우자 부모는 48.7%인데 반하여 본인 부모와의 접촉은 65.3%로 여자유형Ⅳ의 경우 본인 부모와의 접촉이 더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즉, 여자 중상층으로 비교적 직장의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여유시간이 적은 경우 친정가족과의 접촉이 배우자 가족과의 만남보다 더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 부모와의 도구적 교환실태는 집안일 도움 제공이 81.0%(전체 72.4%), 간병 수발 도움 제공 40.9%(전체 34.2%)이고, 배우자 부모에 대한 집안일 도움 제공이 84.3%(전체 65.5%), 간병 수발 도움 제공이 36.8%(전체 23.5%) 등으로 부모에 대한 도움 제공은 전체에 비하면 도구적 교환도 매우 활발한 수준이다. 그러나 여자유형Ⅲ과 비교하면

직장근무 등으로 여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본인 및 배우자 부모에 대한 집안일 도움 제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간병수발은 여자 유형Ⅲ과 비슷한 수준이다.

본인 부모로부터의 집안일 수혜율은 32.0%(전체 26.7%)로 전체 수준보다 높으나, 배우자 부모로부터의 집안일 수혜율은 26.9%(전체 27.2%)로 전체 유형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이다. 요약하면 여자유형Ⅳ의 경우 부모와의 밀접한 접촉뿐 아니라 도구적 교환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움 제공 실태를 보면, 정기적 현금지원이 배우자 부모는 51.9%, 본인 부모는 26.7%이다. 배우자 부모에 대한 정기적 현금지원은 8개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여자유형Ⅰ(15.6%)의 약 3배 정도 수준이고, 본인 부모에 대한 정기적 현금지원은 전체평균(26.1%) 수준이고,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모들과의 경제적 도움 실태는 주로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응답(배우자 부모 93.0%, 본인부모 88.8%)이 높은 수준이나, 여자유형Ⅲ(각각 95.9%, 94.9%)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수준이다.

친가와 배우자 가족과의 접촉 빈도는 친가와 더 자주 접촉한다(41.5%)와 배우자 가족과 더 자주 접촉한다(29.0%)는 응답이 모두 전체수준보다 낮고 ‘비슷하다(29.6%)’는 응답은 약간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친가와 배우자 가족과의 친밀감에서는 친가와 더 친밀하다는 응답(61.0%)이 전체(58.1%) 또는 여자유형Ⅲ(57.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의 긍정적인 응답(69.6%)이 전체(71.1%)에 비하면 조금 낮은 편이나,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2.5%)은 전체(2.7%)보다 오히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여자유형Ⅲ과 비슷한 양상으로 부부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별거자녀와의 접촉 실태(별거자녀가 있는 경우)에서는 주 4회 이상 접촉이 28.1%(전체 28.2%), 주 2~3회 29.2%(전체 23.4%), 주 1회 24.2%(전체 20.6%) 등으로 주 1회 이상의 만남은 8개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집안일 도움 제공률(70.1%)과 수혜율(52.0%)도 전체(각각 57.7%, 52.8%)에 비하여 높다. 그러나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 집안일 도움의 교환이 가장 낮고, 손자돌보기 제공률도 75.9%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년간의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부양 수혜 실태는 받지 않음 33.6%, 정기적인 용돈 생활비 지원 5.3%, 비정기적인 용돈 생활비 지원 57.0%, 생활물품 구매 지원 4.1% 등으로 경제적 부양을 받지 않는 비율이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 가장 높다.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성인자녀수는 1명 41.6%, 2명 이상 18.9% 등으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자녀의 비율(60.5%)이 8개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의 긍정적인 응답이 87.8%(전체 83.8%)로 전체 유형에서 가장 높아 자녀와의 관계가 원활한 것으로 짐작된다.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 수는 평균 2.7명(전체 2.6명)으로 친한 친구의 수가 많은 편이고, 친한 친구가 없다는 응답은 3.6%(전체 7.6%)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주 접촉하는 지인으로는 동창(21.3%), 직장동료(20.2%), 종교 관련 교우(16.4%), 지역주민(33.3%) 등으로 여자 4개 유형과 비교하면 대체로 지역주민과 접촉은 적은 반면, 직장동료, 종교관련 교우와의 접촉은 더 많은 수준이다.

노후생활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는 배우자 82.9%(전체 78.4%), 친구 7.3%(전체 7.2%), 자녀 8.0%(전체 10.4%) 등으로 여자 저소득층에 비하여 배우자 중요성에 대한 비율이 약 20% 더 높으나,

여자유형Ⅲ에 비하면 배우자 의존도가 약간 낮은 반면 자녀, 형제·자매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나.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여자유형Ⅳ의 흡연율은 1.9%, 현재 음주율은 52.6%(전체 62.8%)로 낮은 수준이나, 사회활동이 더 적은 여자유형Ⅲ의 흡연율(1.1%) 및 음주율(49.6%)보다는 약간 높다. 또한 운동 실천율은 78.7%(68.5%)로 8개 유형 중 가장 높았고, 자주 이용하는 운동시설은 집주변이 64.0%, 민간/상업 체육시설 23.5%, 공공 체육 시설 5.4%, 학교체육시설 2.7%, 민간 비영리/복지시설 0.5% 등으로, 여자 4개 유형 중 민간/상업 체육시설 이용률(여자 저소득층 4.2%)이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운동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는 타 유형에 비하여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61.0%(전체 59.7%), 게을러서 27.0%(전체 16.1%)라는 응답이 많다.

다양한 식품 섭취를 위한 노력 여부에서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82.1%(전체 76.2%) 높았고, 건강보조식품 섭취율 71.1%(전체 59.7%), 건강검진 수진율 88.9%(전체 80.8%) 등으로 타 유형에 비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을 더 잘 실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강생활 실천 행위수는 4.79개로 전체 평균 4.16개에 비하여 약 0.6개 더 많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다 또는 좋은 편이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51.3%(전체 54.3%)이고, 보통이다 41.8%, 나쁘다 6.8%(전체 11.1%) 등이며, 만성질환 유병률은 27.0%(전체 27.1%), 우울증상이 있는 비율은 8.5%(전체 10.2%) 등으로 종합적 건강점수는 2.58점으로 여자 4개 유형중 건강수준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여자유형Ⅳ는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 건강한 생활실천(4.79개)과 건강상태(2.58점)는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관리를 위한 희망서비스는 정기적 건강검진이 37.2%, 식이 또는 운동처방이 23.2%, 건강 및 질병상담이 8.3%,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가 7.2%, 건강교육이 7.4% 등으로 여자 여자유형Ⅲ과 비교하면 식이 또는 운동처방, 정기적 건강검진, 질병관리서비스에 대한 희망률이 조금 더 높다.

다.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여자유형Ⅳ의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는 400~600만원이 44.1%, 600만원 이상이 46.3% 등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667만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자산규모분포는 5억 이상이 44.6%, 평균 자산액은 6억 6백만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부채 비율은 14.04%로 가장 낮아 8개 유형 중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계층으로 파악된다.

경제적 계층의식은 본인이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6.0%이며, 중층이 75.8%, 하층은 18.2% 등으로 전체의 4/5 이상이 중상층이라고 의식하고 있다.

청소년 시절 경제생활 수준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20.7%, 보통이 46.1%, 나쁨이 33.2% 등이고, 이는 여자유형Ⅲ(24.7%)에 비하여 청소년시절 경제적 수준이 좋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간 낮은 수준이다.

향후 10년 후 경제수준에 대한 기대는 ‘좋아질 것이다’라고는 응답이 45.7%(전체 41.0%)로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15.1%(전체 18.8%)보다 훨씬 높아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수입대비 지출 비율은 평균 65.3%(전체 75.8%)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유형Ⅲ(66.3%)에 비하면 수입대비 지출 비율이 조금 더 낮은 편이다. 월 수입대비 저축비율은 20.0% 이상을 저축하는 비율이

49.4%(전체 23.7%)로 8개 유형에서 가장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 준비율을 보면 건강 및 요양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국민건강보험 이외의 민간건강보험의 가입률 91.5%(배우자 91.9%), 목돈마련 등 68.2%(배우자 40.0%), 사망위험에 대한 준비율 47.0%(배우자 51.0%), 노후 생활자금을 위한 노후연금 가입률 37.7%(배우자 42.5%) 등으로 노후 준비율이 높다. 이는 여자유형Ⅲ과 비교하면 본인의 노후 준비뿐 아니라 배우자의 노후 준비율이 모든 영역에서 대체로 더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본인에 대한 사망위험, 노후연금, 목돈마련 등에서는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라.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

여자유형Ⅳ의 경제활동 특성은 60.6%가 경제활동 중이며 39.4%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8개 유형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여자유형Ⅲ(71.8%)에 비하여 11.2% 낮은 수준이다.

현재의 일이 최장 직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최장 직종과 같은 일이 45.3%이며, 현직업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 임금 근로자가 44.2%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단독자영업자 28.4% 등이다. 여자유형Ⅲ에서 임시직 임금근로자(31.8%), 무급가족종사자(44.3%)의 비율이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현 직업의 종사기간을 살펴보면, 5년~10년 미만의 비율이 25.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0년 이상 25.7% 등으로 전체적으로 10년 이상(56.5%)비율이 여자 4개 유형에서 가장 높다.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의 긍정적인 응답이

72.5%로 8개 유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계속 고용 희망률도 83.1%로 남자 고소득 상용직(86.0%)과 비슷한 수준이며, 현재 고용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은 15.5%로 낮은 수준이다.

노후에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는 43.0%만 노후에 일하기를 희망하며,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이유는 자기발전과 여가(39.6%), 소득(38.6%) 등으로, 여자유형Ⅲ의 소득(47.9%), 자기발전과 여가(30.3%) 순과는 상이한 실정이고, 노후 일의 중요성 점수는 3.60점으로 여자유형Ⅲ(3.49점)보다 조금 더 높다.

또한 노후에 경제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에서도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가 75.4%로 여자 4개 유형에서 가장 높았다.

노후에 희망하는 경제활동 패턴은 종일근무(18.8%)보다는 파트타임(51.1%)과 자유 형태(29.7%)의 일을 하기를 희망하였고, 여자유형Ⅲ에 비하면 파트타임 일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개월 간 주로 한 전반적인 여가활동은 운동(스포츠) 16.4%, 친목모임 14.6%, 책읽기 11.4%, 산책 9.6%, 등산 8.4% 등으로 나타났다. 1순위 여가활동 빈도는 주 4회 이상 38.8%, 주 2~3회 27.0%, 주 1회 15.3% 등으로 여자 타 유형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1순위)은 ‘혼자서’라는 응답이 47.2%, 친구와 함께 30.0%, 가족과 함께 17.6% 등의 순으로, 여자유형Ⅲ과 비교하면 혼자 한다는 응답이 더 많고, 친구와 함께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노후에 즐기고 싶은 전반적인 여가활동을 보면, 여행이 39.4%, 운동(스포츠) 10.2%, 등산 8.3%, 책읽기 5.7%, 화초 가꾸기 4.9% 등의 순으로 여자 타 유형과 비슷한 경향이다.

현재의 삶 또는 노후 삶에 있어서 여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각각 78.9%, 93.0%(전체

69.3%, 83.7%)로 8개 유형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고, 현재의 삶 또는 노후 삶의 여가 중요도 점수도 각각 3.86점, 4.14점으로 여자 4개 유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자원봉사단체 참여율은 9.8%(전체 7.3%), 향후 참여 의향도 58.8%(전체 43.9%)로 8개 유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인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는 건강관리교육 29.0%, 여가·취미 관련 교육 24.7%, 노후준비교육 12.4% 등으로 여자 4개 유형과 비교하면 여가·취미 관련 교육 또는 자원봉사교육 등에 대한 희망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종합적으로 현재 및 노후 사회참여 중요도 점수는 각각 3.37점, 3.50점으로 여자 4개 유형에서 가장 높다.

마. 가치관

여자유형Ⅳ는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자에 대한 질문에, 자녀 및 가족이 40.3%, 사회보험 29.5%, 본인 17.4%, 국가 9.1%, 배우자 3.6% 등의 순으로 8개 유형 중 연금 등 사회보험이라는 응답이 비율이 가장 높다.

또한 본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서도 연금 등 사회보험 39.4%, 본인 37.7%, 배우자 16.4%, 국가 4.0%, 자녀·가족 2.6% 등으로 8개 유형 중 사회보험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본인을 위한 연금 가입률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노후에 희망하는 동거지는 ‘부부 혹은 혼자’라는 응답이 93.4%로 여자 4개 유형에서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아들(2.6%)에 대한 선호가 낮은 수준이다.

부모의 자녀 부양 기간에 대하여는 결혼할 때까지 49.9%, 직장 생길

때까지 24.4%, 학업 마칠 때까지 21.7% 등의 순이고, 여자유형Ⅲ의 결혼할 때까지(53.0%)라는 응답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나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이 역시 높은 수준이다.

희망하는 노후생활을 살펴보면, 젊어서 못한 취미생활이라는 응답이 39.4%, 자원봉사 22.8%, 종교활동 12.8%, 자기계발 10.9%, 소득 창출 7.9% 등의 순으로, 여자유형Ⅲ과 비교하면 자기계발, 자원봉사, 소득 창출에 대한 희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

최근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의 취업 및 결혼 43.9%(전체 33.7%), 자녀교육 26.4%(전체 25.6%), 본인의 건강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에 비하여 자녀의 취업 및 결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수준이고, 여자유형Ⅲ(17.4%)과 비교하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9% 더 높은 수준이다.

노후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은 건강 및 기능약화 65.6%(전체 54.7%), 경제적 어려움 19.2%(전체 31.7%), 소외·고독감 5.8%(전체 4.3%) 등이고, 여자유형Ⅲ(4.2%)과 비교하면 소외·고독감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더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1순위)으로는 건강 44.1%(전체 45.1%), 경제적 안정과 여유 45.2%(전체 40.6%) 등이고, 여자유형Ⅲ(47.6%)에 비하여 경제적 안정과 여유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향후 노인이 되었을 때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건강보호·장기요양서비스 50.9%(전체 43.5%), 노후소득보장 24.7%(전체 32.8%), 고용연장 고용기회확대 15.3%(전체 17.4%), 여가문화지원 7.4%(전체 5.1%) 등이며, 전체와 비교하면 건강보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더 높고, 여자유형Ⅲ과 비교하면 건강보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응답이 조금 낮고, 여가·문화 지원이 약간 더 높다.

2. 사례를 통해 본 삶의 모습

가. 과거

여자유형Ⅳ는 청소년 시절에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고 교육수준도 높으며, 이전 결혼생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부관계도 원만하게 지내온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그때부터 계속 서울 생활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고 결혼하고도 했어요 7년 정도 간호사로 취업했지요. 친정 쪽에서 1남 2녀 중 막내... 우리 친정집은 개방적이라고 해야 될까? 지금도 그렇고 아무래도 아들이 하나니까 그렇긴 한데 별로 그렇게 아들만 그런 건 못 느끼고 자랐어. 학교도 똑같이 보냈어요 아들·딸 상관없이 모두 대학을 졸업했어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대학 가르칠 정도는 된 거 같은데... (사례31)

아버님이 월남하셔서 가족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가족 내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고 단란하고... 첫아이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인거랑 여러가지 현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꿈을 깨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결혼생활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남편이 지금까지 직장생활 꾸준히 잘하고, 애들 잘 크고, 양부모님 살아 계시고... 공무원이니까 돈은 그 안에 사용하니까 그렇게 어렵거나 무리한 그런 건 없었어요. 감사해요. 지금까지도... (사례33)

결혼해서 처음에는 전세로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게 24평인가? 4년 살고 여기 계속 사는 거야. 88년도 이사 와서 지금까지. 20년 넘었지. 우리 큰애가 지금 스물일곱인데. 여기는 집을 사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저축한 거 하고 시택에서 도와주셨지... 왜냐하면 내가 시동생을 둘 데리고 있었거든. 시택에서 더 많이 줬겠지. 우리는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사례31)

나. 현재

여자유형Ⅳ는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계층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직장 동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직장생활 등으로 시간적으로 다소 자유롭지 않으나,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 생활에 만족해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회사 가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집도 없이 월세 산다는 사람 등... 경제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례30)

다른 여자 베이비 부모와 마찬가지로 오래 살면서 남편을 이해하고 익숙해지게 되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토로하지는 않고 있다.

지금은 오래 살다보니까 이해해주게 되더라고 우리 둘 때문에 싸운 건 거의 없어. 애들도 다 성장하고 애들 문제는 거의 없잖아.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싸우는 거 없어... 나이가 먹어 갈수록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례32).

우리는 살아가는 얘기, 애들 얘기, 난 또 동네에서 있었던 얘기, 남편은 회사에서 있었던 얘기... 부부도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야 해...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부부 간에 사이가 좋아지는 거야. (사례32)

저는 부부싸움을 안 해요 그냥 제가 빨리 마음을 바꿔서 바가지를 안 끊어요 빨리 제 선에서 처리하려고 하지, 화 같은 것을 안 내는 거죠 결혼해서 10년 정도는 많이 싸웠어요 이제 그쪽에 쓸 에너지가 없어 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의 많이 알잖아요 거의 이 사람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성향을 알기 때문에 마찰을 피하죠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바꿔 버리는 게 편해요 삶의 노하우가... 살다보니까 그레이지 불협화음이 없지요.. 싫어하는 행동은 안 하고 내가 바꾸고 화를 안 내버리죠 우리 남편도 화를 냈다가 조금 돌아서면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면 사과해요 미안하다고.. 안 살 거면 모르지만 살 거면 빨리 해결하는 게 서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사례33)

또한 비교적 시대과의 관계도 원만히 유지하고 있다. 이에는 경제적 인 여유와 사회생활을 통해 체득한 다양한 사람에 대한 이해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혼자 사시는데 경제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마음이 안 편하지. 생활비는 어머니가 필요하실 때마다 드려요 겨울 되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농사지을 때 30만원 드리고 백만원 넘게 드리지. 다달이 좀 드려야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또 빨리 그렇게 여유가 안 되네. 시부모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더 자주 갔는데 요새는 그만큼은 못가도 아무튼 1년 12번 보지 않겠어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오시기도 하고.. 친정 어머니도 똑같이 봐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한 10번은 보겠지. 친정에는 정기적으로 용돈 드리는 건 없고 명절 때만 드리지. 반찬 같은 것 해다 드리고 그러지. 돈으로는 용돈만 드리지. 우리 시어머니랑 나랑은 고부갈등 같은 것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성격이 좋으세요 내가 할 말은 하고 어머니가 또 잘 받아들이세요 내가 빠져도 우리 어머니는 안 빠져요 (사례31)

지금은 시부모님하고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나 시부모님과 소통은 잘 안 돼... 옛날 분이라... 옛날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지식한 생각을 이들이 말하면 그때는 그런다고 해. 그리고 돌아서서는 원래 자기 모습이야. 그래서 포기했어. 그러니까 부모다... 내 생각을 주입시키기 보다는 연로하시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해드리는 게 효도라는 생각을 바꿨어... 그렇지만 않으면 계속 부딪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사위기로 사위를 하잖아.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물을 떠서 사용하세요.. 바가지 세대라 그게 싫대... 나는 사위기로 목욕을 못한다고 수도에서 물을 받아서 물을 끼얹었잖아... 내 생각을 주입시키기보다는 엄마는 엄마 세대니까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효도다... (사례32)

시댁이나 친정 가족은 많이 만나죠 생신 때, 어버이날, 명절 두 번 등 다섯·여섯 번은 만나죠.. 시댁 부모님께서는 다달이 생활비 80만원씩 부쳐줘요.. 친정에는 가끔 생신 때 드리고 만나면 5만원, 10만원 푼돈 드려요.. 우리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는 소득이 전혀 없고 연세가 있으니까. (사례32)

시댁 쪽으로 정기적으로 가족이 모여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부모님이 거기 계시고 어차피 부모님 케어 해야 하니까.. 부모님 집에서 모이고, 회비는 남편들이, 아들들이 걷어서 그걸 회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10만원 정도 걷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례33)

시댁이니까 청소, 집안일, 일주일 정도 드실 반찬 세 끼 밥 차려야 되죠.. 농사일 돕죠 받도 댔어요 콩도 심고 거의 그렇게 1박 2일이죠 제가 (현재) 전업주부잖아요 돈벌이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보람을 느낄 일이 있어야죠 아마도 이걸 하면서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일주일치 반찬이랑, 빨래랑, 청소랑, 농사일이랑.. 이게 재밌어요 왜냐면 시부모님들이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모습 좋잖아요 좋아하셔요 자식들이 오는 거 좋아하셔요 효자랑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손자들도 같이 잘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세요 용돈 줘요 그 맛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고 대견해 하세요.. 제 삶은 거의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오래 됐어요 부모님이 지병이 한 10년이 넘게 있었는데, 이렇게 주말마다 들어가 는 건 5년도 넘은 것 같은데. (사례33)

또한 이들은 가족을 소중히 하고 있어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애정을 표출하고 있다.

애들이나 배우자나 소중한 존재죠 내가 가족을 중요시여기거든. 아주 집착이 라고 할 정도로.. 남편이나 자식들이 똑같이 중요해요.. (사례31)

둘을 낳았고.. 성별은 주신대로 낳았어요.. 첫째, 둘째를 낳았는데 아들이 태어 난거예요.. 그때는 아들이었죠 그게 제 잠재 속에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지극 정성을 드려서 키웠죠.. 물론 자녀한테 기대 많이 하죠 저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 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죠 (사례33)

삶의 의미야 내가 가정을 가졌으니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들 위하고 보호하는 거고 직장생활도 충실해야 되고 말 그대로 주어진 현실은 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족이든 며느리든 형제든 직장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 하죠 내게 주어진 것은 다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사례31)

자식이란 울타리. 든든한 맛이 있지... 없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애들이 있으니까 의지가 되잖아. 집에 딱 들어가면 애들이 있으면 좋잖아. 바라만 봐도 든든한 게 있잖아. 자식한테 나중에 늙어서 부양받고 싶은 건 없어. 우리는 시골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남편과 나의 연금 다 나오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둘이 실컷 살잖아... (사례30)

삶에 매몰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과 가정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평가하는 관점을 갖고 있다.

삶의 의미는 성장이에요 성공이랑 성장...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거죠 내 때보다는 자식 때가 더 나아지는 거. 7월보다는 8월이 더 좋아지는 거. 산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지금 생활에 80% 정도 만족해요.. 그냥 삶 자체가 살만하다 평안해요 마음의 평안. 감사하게도 삶의 굴곡이 별로 없이 평탄하게 왔어요. 그래서 만족. (사례33)

현재 생활에 만족해요 가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직장도 불안정하다해도 지금 다니고 있고 많은 월급이 아니어도 내가 일하고 월급 받을 수 있으니까.. 건강해서 일하고 월급 받고 그러니까 지금은 만족하고 그러나 직장생활 몇 년 하면 죽어라 싫을 때 있어. 그렇지만 한 열흘 지나면 괜찮더라고요 혼자 또 안간힘을 쓰지. 그걸 극복 하려고 훌쩍 떠나고도 싶고.. 그냥 영화도 보고 친구를 만난다거나 어떻게 해서든 극복을 해야지. 직장생활이 좀 힘들 때 있어요 슬럼프 있어요 일할 때도 너무 너무 싫어 지겨워죽겠네... 그런 것 포기도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극복하면 또 괜찮아져요 (사례31)

이들은 또한 가족과의 모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주는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휴식 또한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친정, 시댁 식구들이랑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은 없고 시댁 동기들과 1년에 6번 정도 모이나? 친정도 그 정도 모이겠죠 시간이 있으면 가족여행은 1년에 한두 번 가고 나 혼자도 가고 친구들이랑 1년에 4번 정도 영화, 공연, 뮤지컬 같은 것도 보고, 콘서트도 가고.. 남편하고 함께 하는 활동은 영화 보는 것밖에 없는데요. 1년에 두세 번... 그거 갈 새도 없이 바빠요. 한기해도 주말

에 집에 있고 싶은 것인지, 뭔지 모르게 나가기 싫은 거죠.. (사례31)

모임은 두개. 하나는 녹색엄마모임, 하나는 동창. 녹색엄마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3만원씩 회비를 내죠. 이사 가고 지금 14명 남았어. 그리고 동창 모임은 3개월에 한 번 모이고, 7명 정도이고 한 달 회비는 만원. 서울 친구들과 만 만나요. 1년에 한 번은 강릉 가서 만나고.. (사례31).

친구들은 이전 직장동료들이죠. 동네에서는 별로 친한 분이 없어요. 낮에 집에 없으니까. 계모임 2개하고 가끔 그냥 친구들, 아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술 한 잔 할 때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사례30)

나는 독서를 좋아해.. 회사 가서 점심시간에 보고, 잘 때 누워서 보고 책은 워낙 좋아해요. 배우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기타 배우고 싶고, 피아노 배우고 싶고.. 시간이 없으셔서 못 배워요.. 직장을 안 다니면 배우고 싶어요.. (사례30)

이들은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서적 건강의 안녕 외에도 신체적인 건강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방지를 위해 그냥 좋다면 써보는 거야. 화장품이나 몸에 좋다는 거 잘 먹죠. 가족들도 잘 먹이고 홍삼이나 비타민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먹고, 주름개선 및 미백 등 주름을 완화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써보는 거지.. 건강유지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짧은 거리는 걸어 다니려고 하고,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요. 엄청나게 움직여요. 내가 또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안 먹어요. 홍삼 같은 거 다 집에서 달여 먹어요. 외식도 싫어하고 가능한 만들어서 먹어요. (사례31)

노화방지는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단순하지만 잘 때 자고, 잘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때 그때 계절 식품 계절 과일 여기서 나는 것.. 운동하고 영양제는 종합비타민하고 오메가3, 낫을 먹어요.. 체질은 강하지는 않아도 건강해요 (사례33)

다. 미래- 노후생활

여자유형Ⅳ는 다양한 면에서 노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본인의 미래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다. 경제적 노후준비뿐 아니라 여가를 즐기기 위한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 취미생활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은퇴하면 그때는 즐기면서 살아야죠 배우고 싶고, 산에도 가고 싶고,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 보면, 나는 언제 저렇게 해 보나 그런 생각하거든. 맨날 시간에 쫓겨 사니까. 운동도 좀 하고 천천히 걸어도 보고 싶는데 못하잖아. 하나도 못해 보고 살았잖아. (사례30)

자식에게 부양받고 싶지는 않아... 내가 다 해놨잖아요. 암보험 들어왔고 실비보험 들어왔고 건강보험 들어왔고 돈 그거 있는 거하고 잡하고 저거 팔아갖고 시골 가서 살지 않겠어요? 큰 걱정 안 해 난 나도 내 부모한테 못하는데 자식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그런 거는 절대 생각 안 해... 만약 몸이 안 좋아져서 누가 수발을 들어야 된다면 신랑이 있으면 남편한테 받아야지, 그 다음에 길게 아프면 요양병원가야지. 애들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사례31)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게 걱정이죠 그러니까 운동하고 혈압 같은 거 잘 관리하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오래 사는 거는 둘째고.. 노인 되면 나 혼자 멋지게 잘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불쌍하게 보지는 않겠지. 노후대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멋지게 살아야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뭐라도 하고 멋지게 살아야지. 불쌍하게 보이면 안 돼. 나는 그런 게 있어. 피부를 팽팽하게 성형보다는 나이가 들면 늙는 게 좋을 것 같아. 머리도 지금 염색 같은 데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지고 살고 될 수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낫다고 생각해. 거기에 맞춰서 멋지게 늙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 (사례31)

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150~200만원 정도 받았지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연금은 없어요... 종합건강보험은 다달이 1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남편이랑 같이... 다른 보험은 없어요. 애들한테 교육비로 들어가야 하니까 조금 같은 거는 못해요... (사례33)

지금 은퇴 후에 저는 봉사활동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자식뒤틀바라지가 시작될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러면 자식뒤틀바라지가 시작될 것 같아요. 손주도 봐주고 살림해 달라고 하면 살림도 해줘야 되고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잘 살았기 때문에 자식한테도 원하면 해주고 싶어요 (사례33)

3. 종합

가장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삶의 질이 높은 상태이다.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이 활발하고, 도구적 교환, 경제적 도움이 활발하다.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친구 및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타 유형에 비하여 직장 동료 및 종교관련 교우와의 접촉이 많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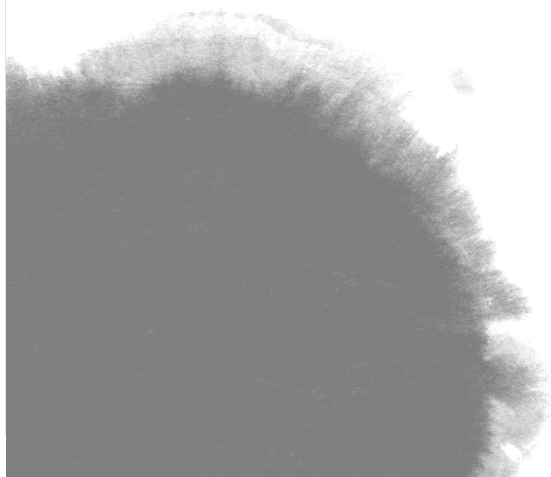
건강생활을 매우 잘 실천하고 건강상태도 양호한 편이며, 경제적 계층의식은 전체의 4/5 이상이 중상층으로 의식하고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현재 여가활동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노후에도 각종 사회단체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갖고 있다.

경제적 노후설계를 위하여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며, 노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건강 및 기능 악화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형의 베이비 부머를 위해서는 사회공헌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노후 재취업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그리고 건강 유지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03

유형별 베이비 부모의 삶의 특성 및 함의



제3장 유형별 베이비 부모의 삶의 특성 및 함의

제1절 종합

본 연구는 양적 접근 및 질적 접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유형별 베이비 부모의 삶의 현황 및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베이비 부모가 공유하는 특징과 더불어 유형별 차이가 동시에 발견되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 부모는 계층의 고착화가 가시화된 세대이다. 저소득층 베이비 부모는 청소년기의 경제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길어진 노년기의 양극화 현상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경제상황은 현재의 삶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 즉 노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 부모가 어느 정도 노후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는 성별이나 종사상의 지위와 상관없이 소득수준이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소득층은 현재의 삶을 영위하는데 급급하여 여유를 갖고 자신의 삶을 멀리 내다볼 여유가 없는 것이다.

셋째, 소득수준은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등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베이비 부모가 현재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은 그들의 사회적 자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및 자아실현 욕구의 충족이 더욱 더 중요해질 노후생활에서, 누적된

사회적 자본의 크기 차이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현세대 노인과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 간의 삶의 유형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유형별 분포를 보면 남자의 경우 유형Ⅳ(중상층 소득의 비교적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해온 유형)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유형Ⅲ(소득은 중상층이지만 본인의 경제활동은 비독자적인 유형)은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여자의 경우는 소득과 고용상의 지위의 조합이 다양하여 각 4개의 유형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베이비 부머의 청장년기 때 우리사회의 성역할 분담이 전통적인 것이었고 여자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부담 등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M자형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남자에 비하여 여자에게서 자녀나 부모와의 접촉 및 부양의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노후생활에도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건강 행위 실천율이 높지만, 우울증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등 다양한 차이점이 발견되어 남녀차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다섯째, 고용상의 지위가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다르다. 남자의 경우 소득과 고용상의 안정성과 독자성이 모두 확보된 유형Ⅳ의 삶의 질이 모든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반면 여자의 경우는 소득의 안정성과 더불어 경제활동에 따른 시간의 압박 등을 경험하지 않은 유형Ⅲ이 비교적 더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반면 남자의 경우 유형Ⅲ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건강행위를 하는 등 고용상의 불안정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남자유형Ⅰ이 가장 전반적인 삶의 현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수준도 낮고 전통적인 남자로서의 부양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한편 여자로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여자가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해온 경우는 그렇지 않는 여자에 비하여 양계적인 세대관계를 갖고 있는 등 전통적인 성역할의 변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가 여자에게서 가시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베이비 부머에게서 자녀중심의 가족에서 부부중심의 가족으로의 변화가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 십년 간의 결혼생활을 통하여 상당 부분 부부 간의 차이와 갈등이 해소되었으며 노후생활에 배우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 물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또한 소득수준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어, 중상층 베이비 부머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하는 활동을 하는 등 부부관계를 촉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반면, 자녀에 대해서는 삶의 의미이며 노후에 심리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어떠한 유형의 베이비 부머도 자녀를 도구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좀 더 세분화된 유형별 차이를 정리해 보면 <표3-1>과 같다.

남자유형 I(남자로 평균 이하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불안정한 경우)의 경우 불안정한 경제 상태로 인하여 결혼, 자녀출산이 제약되어 무자녀 비율 높다. 이들 중 다수가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를 하고 있다. 자녀 및 부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각종 사회참여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노후에도 사회참여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 노후의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들은 모든 측면에서 노후준비가 부족하다. 현재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급급하므로 미래의 노후를 대비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일찍 경제활동 시작, 항상 다른 직업을 모색하였으나 대안이 없었고, 현재도 다른 일을 준비할 여유가 없다. 대체적으로 높은 고용불안정성과 높

지 않은 임금수준 그리고 이로 인한 직업에 대한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노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다.

이 유형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틀에 박힌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혼자하고 돈이 들지 않는 운동/등산/산책이 유일한 여가활동이며,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여행이지만, 현재 생활에서는 꿈도 못 꾸고 있다. 여가활동만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 건강행위 실천율 또한 낮다. 현재의 삶의 질 수준이 8개 유형 중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노후의 삶의 질 또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남자유형Ⅱ(남자로 평균 이하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안정적인 경우)의 경우 자신의 삶의 안정성이, 부모와의 관계 및 자녀출산 행위 등에 미친 소득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무자녀 비율도 높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로 인하여 공적 연금에 가입한 비율이 높다는 강점이 있지만 일 중심적인 생활로 인하여 지역주민과의 접촉수준은 낮다. 또한 남자유형Ⅰ에 비하여 약간 높은 건강 실천율을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이들 역시 운동이나 다양한 식품섭취 등 장기적인 경제적·시간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건강실천행위의 수준이 낮다.

이들 중 약 1/3이 최장기 종사한 일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이미 직업적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들의 20%가 현재 일용직 및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어 종사상의 지위가 불안해진 상황으로 고용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의 약 1/3은 자신을 중산층과 하층의 경계선에 있는 집단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향후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가느냐에 따라서 중산층으로 진입하거나, 하층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집단이다.

남자유형Ⅲ(남자로 평균 이상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불안정한 경우)은 그 규모가 적다. 이들은 다른 유형에 비

해서는 배우자 가족에 대한 친밀감이 높고, 지원 및 교류가 높다. 또한 남자 중 가장 높은 흡연율과 음주율을 보이는 등 건강행위 및 건강상태 모두 남자 저소득 상용직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는 등 고용상의 불안정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인 경제적인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유형과는 달리 배우자 중심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타 유형에 비하여 동창이나 지역모임참여가 활발하며 타 유형보다 삶에서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남자유형Ⅳ(남자로 평균 이상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도 안정적인 경우)는 무자녀율이 낮고 부모 생존율 높은 등 가족자원이 풍부하고, 다세대 가족의 실현가능성 높다. 또한 남자부모 중심의 세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으로 현재에도 부부관계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남자 베이비 부머 중 건강행위실천을 가장 잘하고 있으며 주관적 및 객관적 건강상태도 좋은 편이다.

노후의 경제활동이 소득수단이기도 하지만 자기발전 또는 여가활용의 의미도 있으며, 노후의 여가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자신의 경제적 노후는 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국가는 건강관련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 중 가장 삶의 질이 높은 유형으로 긍정적 기대를 갖고 노후설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유료 노후 설계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이 있는 편이다.

여자유형Ⅰ(여자로 평균 이하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의존적인 경우)과 여자유형Ⅱ(여자로 평균 이하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독자적인 경우)는 남자 베이비 부머의 경우와는 달리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이들에게는 고용상의 지위보다는 소득의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부 자원을 남자형제들에게 주고 본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으며,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결혼생활을 꿈꾸었지만, 신혼 초 재정적 빈곤등은 쉽게 극복되지 못하여,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초기에 배우자 갈등을 겪어왔으나 이제는 이해하는 노후의 동반자로 보고 있으며, 자녀는 노후의 든든한 심리적 버팀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자 저소득층 베이비 부머인 이들은 현 상태에 비관적이며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 크다. 공적연금 미가입률 또한 65.7%로 매우 높다. 본인의 공적 연금 가입률이 낮고, 사적 이전 소득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 거는 기대가 큰 유형이다. 또한 현재 생활 유지에 급급하여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낮아 관심환기 자체가 필요한 단계이다.

이들은 가족 및 친구지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보도 부족하고, 특별한 취미·여가 활동도 없어 노후에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높으며 무기력한 생활을 할 가능성 또한 높다. 상대적으로 만성질환율과 우울 증상이 높다는 점은 정책적 관심을 요하는 측면이다. 특히 여자유형Ⅱ의 경우 이들 유형에게 소득과 시간의 제약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자유형Ⅲ(여자로 평균 이상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독자적이지 않은 경우)은 부모와의 접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도구적 교환도 활발하다. 여자유형Ⅳ에 비하여 시댁과의 관계 중심적이어서, 시부모에 대한 정기적인 현금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교적 직장의 근무시간이 적었던 경우 시댁가족과 자주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여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 친구가 상대적으로 많은데(친구의 수 2.8명으로 가장 많음), 이는 여자의 관계중심성과 소득과 시간의 여유가 동

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의 중요성 인식 정도가 다른 유형보다 높다.

노후의 경제활동을 그리 원하지 않는 반면 비교적 활발한 여가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유형은 대체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높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유형으로 삶의 만족도 또한 높다.

여자유형Ⅳ(여자로 평균 이상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독자적인 경우)는 부모와의 접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도구적 교환도 활발하다. 특히 본인 부모와의 접촉 및 교환이 활발한데, 이는 비교적 직장의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여유시간이 적은 경우 친정가족과의 접촉을 배우자 가족과의 만남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자유형Ⅲ과 마찬가지로 높은 운동 실천율, 다양한 식품 섭취 등 높은 건강 실천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희망률 43.0%로 낮은 편이다.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는 노후에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며, 일을 원하는 경우도 그 이유가 자아실현을 위해서이다. 이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다른 유형보다 자원봉사 희망률이 높다.

〈표 3-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삶의 현황

남자 (삶의 만족도 점수)	가족관계 및 부양의 교환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경제상태 및 경제적인 노후준비	사회참여활동	기초관
• 자녀 자원 부족: 부자녀 비율 높음(경제적 위상의 불안정성) • 자녀 및 부부 만족도 낮음 ※ 불안정한 경제 상태로 인한 결혼, 자녀 출산 제약	• 건강생활 실천행위 6개 항목 중 평균 3.09개를 실천 • 낮은 수준의 주관적 · 객관적 건강상태 ※ 현실의 취약한 삶으로 인하여 정기적, 예방적인 고령화 계획을 세우기에는 관심과 소득 부족 ※ 비교적 개인적인 결단에 의하여 실천할 수 있는 금주, 금연 노력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경제적 지출이 요구되는 운동 식생활은 실천을 낮음	• 청소년 시절부터 경제 사정이 나빴고, 미래의 경제상태에 대해서도 부정적 • 낮은 지출과 모든 측면(건강, 사망, 연금 등)에서 낮은 노후준비 • 공격 연금 미가입률 36.6%로 매우 높고, 미가입중인 경우가 31.4%임 ※ 세대 간 계층의 고착화가 발생했으며 이는 노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대체적으로 높은 고용불안정성과 높은 임금수준, 이로 인한 직업에 대한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노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 희망 • 혼자하고 돈이 들지 않는 운동/등산/산책이 유일한 여가 활동이며,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어행이지만 현재 생활에서는 꿈도 못꾸고 있음 • 각종 사회참여 정도가 낮고 노후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됨 • 약 절반 정도가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하지 모름 ※ 일찍 경제활동 시작, 향상 다른 직업을 모색하였으나 대안이 없었음. 현재도 다른 일을 준비할 여유가 없음 ※ 경제적인 이유로 맞벌이를 해야 하여 부인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음 ※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틀에 박힌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사회적 고립, 정보로부터의 고립가능성이 높음	• 노부모 부양은 가족이 해야 한다고 생각. 그러나 자신의 노후는 (비특 경제적 노후준비 부족(지민) 부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 구가의 정책우선순위는 노후소득보장이라고 생각 • 자녀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으나, 현실적 제한을 반영하여 학업까지도 부모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삶의 질이 가장 낮음 ※ 장부에 대한 기대 연금이 없다는 현실과 자녀의 고용성이 낮은 상황을 반영하여 본인의 경제활동을 통한 노후소득보장과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기대가 높음	

남자 삶의 만족도 점수	가족관계 및 부양의 교환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경제상태 및 경제적인 노후준비	사회참여활동	기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자녀율이 높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평균자녀수 유지 및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 • 부모와의 접촉 빈도도 낮지 않고 본인의 부모와의 도구적 교환도 활발함 • 지역주민과의 접촉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유형 I에 비하여 약간 높은 건강 실천율을 보이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이를 역시 경제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건강실천행위의 실천수준이 낮음 ※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운동, 영양관리 등의 실천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간 계층의 고착화 발생 • 미래에 대한 부정과 긍정 혼재 • 약 1/3은 자신을 중산층과 하층의 경제선에 있는 집단으로 보고 있음 • 경제적인 노후준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공적 연금에 가입률은 85%로 매우 높음. 그러나 23.1%가 가입은 했지만 현재 불입하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3이 최장기 종사한 일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등 이미 직업적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종사상의 지위가 불안해진 상황 • 일이 지겹기는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노후에 소득활동을 희망하고 있으며, 여기활동 자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 • 현재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약 30%가 자원봉사를 희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부모 부양은 그래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 • 자신의 노후는 부부단위로 준비하고 있으며, 공적 연금에 대한 기대 • 국가는 노후소득보장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하며 고용연장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삶의 안정성이 부모와의 관계 및 자녀출산행위 등이 소득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층과 하층의 경계에 있는 이들이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개입 필요 ※ 지속적으로 연금예을 불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에 일하기를 희망하며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필요 			

유형 II
(38.9)

남자 (삶의 만족도 점수)	가족관계 및 부양의 교환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경제상태 및 경제적인 노후준비	사회참여활동	기초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자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친가에 대한 객관적인 접촉이나 지원이 높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배우자 가족에 대한 친밀감이 높고, 지원 및 교류가 높음 친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상대적으로 형제자매의 중요성을 높게 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자 중 가장 높은 흡연율과 음주율을 보임 높은 건강검진율 건강행위 및 건강상태 모두 남자 저소득 상용직보다 낮은 점수를 보임 <p>※ 전통적인 성역할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부정적 건강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록 현재 소득은 일정수준 있으나 자산적인 여유가 부족하며, 노후에 대한 준비도 현재 소득수준에 비해서 미흡 대체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높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나, 배우자 중심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유형보다 삶에서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운동과 친목모임이 활발 민간 운동시설 이용 선호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참여 가시화 <p>※ 동창이나 지역모임이 활발하므로 이를 매개로 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필요</p> <p>※ 관심이 높은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유형에 비하여 성인 자녀의 부양기간을 길게 잡고 있음(취직, 결혼 시까지 등) 국가는 건강관련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 	
<p>유형 III (40.4)</p>					

남자 삶의 민족도 점수	가족관계 및 부양의 교환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경제상태 및 경제적인 노후준비	사회참여활동	기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자녀율이 낮고 부모 생존율은 높음 심리적인 자녀부양 부담감 크며,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과 부담감 수준 높음 <p>※삼중고는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자부모 중심의 세대관계 배우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으므로 현재에도 부부관계를 잘 관리하고 있음 동창과 직장동료 중심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접촉은 낮음 <p>※ 가족자원 풍부, 다세대 가족의 실현가능성 높은 유형</p> <p>※ 다양한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자 중 건강행위 실천을 가장 잘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도 높음 단, 음주율은 높은 편임 높은 운동실천율과 다양한 식품 섭취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대가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임 대체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높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일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계속 고용에는 불안감 갖고 있음 노후의 경제활동이 소득수단이기도 하지만 자기발전 또는 여가활동의 의미도 있으며, 노후의 여가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 운동/등산 등 건강과 관련된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호회 활동도 활발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음 상대적으로 유료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을 갖고 있음 90% 내외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 노후생활에 있어 사회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사회활동을 중요시할 것으로 예견됨. 자신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평생교육 등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이 중요 유료노후설계서비스 이용의사가 있으므로 증상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개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경제적 노후는 연금 등 자금이 마련하고 있어, 국가의 정책우선순위는 건강관련 정책이라는 응답이 높음 베이비 부머 중 가장 삶의 질이 높은 유형 공정적 기대를 갖고 노후설계를 시작하는 단계임 	
<p>유형 IV (43.1)</p>					

<p>여자 (삶의 만족도 점수)</p>	<p>가족관계 및 부양의 교환</p>	<p>건강행태 및 건강상태</p>	<p>경제상태 및 경제적인 노후준비</p>	<p>사회참여활동</p>	<p>기대관</p>
<p>유형 I (37.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생존율이 낮으며 무자녀율이 높음. 형제자매는 많음. • 타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 자녀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적 어려움, 직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관계 유지(질속, 도구, 경제적 부양의 교환)소홀 • 지역주민과 활발한 접촉 <p>※ 저소득층 여자 공통: 일부 자원을 남자형제들에게 주고, 본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는 했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결혼생활을 꿈꾸었지만, 신혼 초 재정적 빈곤 등은 쉽게 극복되지 못하여,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p> <p>※ 정서적으로 가까운 부모는 친정 부모이고, 모시는 사는 부모는 시부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 중 흡연율이 가장 높음 •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운동, 다양한 식품섭취, 건강검진 등 소홀 • 상대적으로 만성질환율과 우울증상률은 등 건강수준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상태에 비관적이며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 큼 • 공적연금 미가입률이 65.7%로 매우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낮으며, 향후 경제활동 희망률도 여자 중 가장 높음 • 여가활동, 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 인지 낮음 • 노후실계에 대한 관심이 낮아 관심하기 자체가 필요한 단계 • 가족, 친구사원 부족에 정보부족까지 더해 사회적 고립가능성이 높음 • 산책과 친목모임이 주요 여가활동이며, 희망하는 여가는 여행임. <p>※ 취미생활이 별로 없음</p> <p>※ 약 1/2이 컴퓨터 및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고 부양은 가족이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함 • 국가는 노후소득보장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본인의 공적연금을 낮고, 사적이진소득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 가는 기대가 큼 <p>※ 부모부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임</p> <p>※ 배우자 갈등을 겪어왔으나 이제 는 이해하는 노후의 동반자로 보고 있음</p> <p>※ 자녀는 노후의 든든한 심리적 버팀목임</p>

여자 (삶의 민족도 점수)	가족관계 및 부양의 교환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경제상태 및 경제적인 노후준비	사회참여활동	가치관
<p>•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p> <p>• 여자유형 I에 비하여 친구수가 적으며 주로 지역주민과 접촉함. 이는 소득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수월히 접촉할 수 있는 이웃 중심의 생활을 영위 하고 있기 때문임</p> <p>※ 저소득 여자는 부모세대의 남 아선호의 피해자로 나타남</p> <p>유형 II (38.9)</p>	<p>• 고용상의 지위를 불문하고, 저소득층인 경우 규칙적인 운동이 부재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집중원에서 실시함.</p> <p>• 건강상태 점수가 2.30점으로 가장 낮음. 상대적으로 만성질환율과 우울증상 높 음. 이는 이들 유형에게 소 득과 시간의 제약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p>	<p>• 현 상태에 비관적이며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 큼</p> <p>• 공적연금 가입률이 낮음 편이며 사적인 연금 가입률도 9.6%로 낮음</p>	<p>• 여자 중 가장 많이 노후 일의 중요성 인식</p> <p>• 여가를 즐긴 여부가 없음. 노후에 는 저금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 하지만 역시 여가를 생각할 여유 가 없음</p> <p>• 주요 여가활동은 산책이며, 희망 하는 여가는 여행임</p> <p>• 노후설계에 대한 인식도 낮음</p>	<p>• 국가는 정책적 우선 순위를 노후소득보 장에 두어야 함</p>	

<p>여성 (삶의 만족도 점수)</p>	<p>가족관계 및 부양의 교환</p>	<p>건강행태 및 건강상태</p>	<p>경제상태 및 경제적인 노후준비</p>	<p>사회참여활동</p>	<p>기치관</p>
<p>• 부모와의 접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도구적 교환도 활발함</p> <p>• 여자 고소득층 상용직에 비하여 시대의 관계가 돈독함</p> <p>• 시대 중심: 시부모에 대한 정서적인 현금지원</p> <p>• 친구의 수 2.8명으로 가장 많음</p> <p>• 지역주민과 활발한 접촉유지</p> <p>• 배우자의 중요성 다른 유형보다 높음</p>	<p>• 건강행위점수 4.77로 고소득층 상용직 4.79과 더불어 가장 높은 점수</p> <p>• 높은 운동 실천율</p> <p>• 다양한 식품 섭취</p> <p>• 건강식품 섭취</p> <p>• 높은 건강검진율</p> <p>• 고소득 여자는 공통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은 편임</p> <p>• 그러나 여자유형II에 비하여 주관적 경제 상태와 우울증이 약간 높은 편임</p>	<p>• 청소년 시절 경제생활이 좋았음</p> <p>• 40%대가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p> <p>• 대체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높은 노후 준비</p> <p>•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연금 이용의사 (약 1/4)를 갖고 있음</p>	<p>• 현재 경제 활동 참여율 71.8%로 가장 높음</p> <p>• M자형 경제활동유형의 대표 사례</p> <p>• 노후에 경제활동 그리 원하지 않음</p> <p>• 비교적 활발한 여가생활 및 중요성 인식</p> <p>•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사회, 노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기대됨</p>	<p>• 그래도 노부모 부양은 가족이 해야함</p> <p>• 자신의 경제적 노후는 연금으로 해결 예정</p> <p>• 자녀부양은 결혼할 때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p> <p>• 다른 유형보다 자원봉사 희망률 높음 (약 20%대)</p> <p>• 국가는 건강관련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p> <p>※ 적극적인 노후생활 상상</p>	
<p>유형 III (42.0)</p>					

여자 삶의 만족도 점수	가족관계 및 부양의 교환	건강상태 및 건강상태	경제상태 및 경제적인 노후준비	사회참여활동	기차관
<p>• 부모와의 접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도구적 교환도 활발함. 이는 고용상의 지위와 무관한 고소득여자의 특징임</p> <p>• 특히 본인 부모종심의 관계유지가 이루어지고 있음</p> <p>• 비교적 직장의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여유시간이 적은 경우 친정가족과의 접촉이 배우자 가족과의 만남보다 더 활발하게 유지</p> <p>• 다양한 사회적 관계 돈독</p> <p>• 지역주민보다는 동경, 직장동료와 접촉</p> <p>• 배우자의 중요성을 여자 저소득층보다 높게 인식, 반면 자녀의 중요성은 낮음</p> <p>※ 남녀 공통적으로 고소득층일수록 배우자의 중요성 인식 높음</p> <p>유형 IV (42.0)</p>	<p>• 높은 운동 실천율</p> <p>• 다양한 식품 섭취</p> <p>• 건강식품 섭취</p> <p>• 높은 건강검진율</p> <p>※ 고소득층의 공통적인 특징임</p>	<p>• 40%대가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p> <p>• 대체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높은 노후준비율을 보임</p> <p>•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연금 이용의사 (약 1/4)를 갖고 있음</p>	<p>• 현재 경제활동참여율(60.6%)에 비하여 노후의 경제활동 참여 희망률이 43.0%로 낮은 편이므로 여자가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임시직이 낮음</p> <p>• 일을 원하는 경우도 자아실현을 위해서임</p> <p>• 비교적 활발한 여가생활 및 중요성 인식</p> <p>•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참여 가시화되어 있으며 노후에도 동일한 현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p> <p>• 90% 내외가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안</p>	<p>• 연금/사회보험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음. 자신의 경제적 노후는 연금으로 준비중</p> <p>• 예외적으로 노후거주지 로 농어촌 선호가 갖고 대도시를 선호</p> <p>• 다른 유형보다 자원봉사 희망률 높음 (약 20%대)</p> <p>• 국가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건강관련 정책에 두어야 함</p>	

제2절 정책적 함의와 과제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유형별 우선순위의 정책과 정책내용별로 우선시 되어야 하는 대상과 전략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유형별 우선 정책과제

유형별로 도출된 우선적인 정책과제를 정리해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남자는 공적 연금에 가입하기는 했으나 지속적인 불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연금 수급액이 적으로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 부머에 대한 공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되며, 여자의 경우는 가입률 자체가 낮으므로 가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하여 공적인 노후소득준비를 출발시켜야 할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남자 저소득층 베이비 부머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그러한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작동시킴으로써 소득창출 수단으로서의 경제활동이 노년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남녀 베이비 부머는 모두 현재의 삶에 매몰되어 있어 노후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무료 노후설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노후의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예방적인 측면에서 건강검진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또한 남자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생활에 있어 배우자의 중요성이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중상층 베이비 부머의 경우 성과 중사상의 지위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노후에 있어 사회적 기여활동이 가능하며 또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자원봉사활동의 연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는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천율이 높은 대상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화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표 3-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우선 정책과제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창출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공적연금 미불입 대상자에 대한 불입 촉진 공적인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연금 미불입 대상자에 대한 불입 촉진 건강증진 정책 - 특히 기능직 직원 대상의 직장 프로그램 활성화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보건소 등을 활용한 흡연금주 프로그램 사회적 기여 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기여 활동 활성화
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가입 활성화 건강검진 참여 촉진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운동 촉진 공적인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가입 활성화 지속적인 건강검진과 사후관리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전문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전문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정책내용별 우선순위

가. 지역 및 직장 건강증진프로그램의 활성화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건강실천 행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남녀 차이가 매우 뚜렷하고, 소득계층 또는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자 흡연율의 경우 소득 계층 간 차이보다 고용 형태 간 큰 차이를 나타내어 비교적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해온 경우 흡연율이 약 45%인데 반하여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해온 경우 흡연율이 약 60%에 달하고 있다. 평소 흡연율이 낮은 여자의 경우 저소득층의 흡연율(약 6%)은 고소득층에 비하여 3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자유형 I, 남자유형Ⅲ, 여자유형 I, 여자유형Ⅱ에 대해서는 지역보건소와 연계한 금연프로그램의 실시가 더욱 요구된다.

남자의 음주율은 소득 계층 간 차이가 뚜렷하여 중상층의 음주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남자유형Ⅲ, 남자유형Ⅳ에 대한 금주 또는 절주에 대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다.

운동 실천율, 건강검진 수진율,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한 노력을 하는 비율 등의 경우 성 및 소득 계층 간 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남자유형 I의 경우 운동 실천율이 46.2%, 건강검진수진율 69.8%, 다양한 식품 섭취 노력 59.1% 등으로 건강실천 행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인 남자유형 I, 남자유형Ⅱ, 여자유형 I, 여자유형Ⅱ에 대해서는 보건교육이나 생활습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건강증진서비스의 제공 및 환경조성의 지지가 필요하다. 만성질환의 발병은 생활습관과 매우 관련이 높고,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는 물론이고 운동부족 등에 따른 과체중 등이 건강상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식습관 개선, 금연 및 절주 프로그램, 운동 실천율의 증가, 피로 관리 및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실시 등 중소기업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건강증진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나. 질병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의 강화

베이비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54.3%가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27.1%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10.2%는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병률, 그리고 우울증상 등 건강상태는 남녀 간, 소득 계층 간 차이 차이를 보인다. 특히 남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낮고(각각 41.6%, 41.4%), 만성질환유병률은 각각 33.1%, 32.3%로 가장 높으며, 우울증상이 있는 비율도 각각 13.4%, 17.9% 등으로 건강이 나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유형에 대해서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방지하고, 건강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질병의 지속 치료율과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 내실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베이비 부모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80.8%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향후 건강검진의 내실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건강검진 실시 이후 체계적이고 지속적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만성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연령이 증가하면 신체기능의 쇠퇴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베이비 부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희망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정기적 건강검진(38.4%)뿐 아니라 식이 또는 운동처방(17.4%), 건강 및 질병상담(13.3%), 건강교육(8.8%), U-헬스(4.8%) 등

의 질병예방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적절한 영양과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라. 공적연금 가입률 제고와 유연화 된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소득수준 향상

베이비 부머의 유형 중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유형은 남자 저소득 유형으로 남자유형 I 과 남자유형 II 이다. 이들의 경우 소득과 자산에서 모두 취약함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노후 준비에도 매우 취약함을 보이는 집단이다. 이는 노후연금이나 목돈 마련뿐 아니라 건강요양위험에 대한 대비에서도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공적연금 가입에 있어서도 미가입된 비율이 남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특히 남자유형 I 의 경우 가입중이지만 불입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31.4%로 노후의 경제상태가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형의 경우 노후가 되었을 때 빈곤이 계속 유지되거나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정책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남자유형 III 과 남자유형 IV 는 남자 베이비 부머 중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수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정책적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직접적 지원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단, 노후 경제관리의 현명한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스스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자 베이비 부머의 경우 저소득 유형 또한 남자 저소득 베이비 부머와 같이 공적연금 가입률이 낮으며, 노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자 베이비 부머의 경우 남자에 비해서 공적연금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자 베이비부머의 경우 자발적으

로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현재 연금가입기간의 조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베이비 부모의 전 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노후에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희망하는 일자리의 유형을 살펴보면,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 보다는 파트타임, 자유형태의 일의 형태를 희망하고 있다. 즉, 이는 노후를 중장년기처럼 일에만 매달리는 형태가 아닌 일과 여가를 함께 보내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낸다. 이를 위해 베이비 부모층이 노후가 되었을 때 계속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화된 노동시장의 구현이 요구된다.

마. 노후설계 인식 환기 및 무료상담 제공

베이비 부모의 노후설계와 관련하여, 노후에 대한 걱정은 있으나 준비하고 있는 바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설계 컨설팅 이용 의향에 있어서도 전체의 56.1%가 의향 자체가 없다고 응답해, 노후준비에 대한 준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상관없이 고소득이고, 안정적인 종사상 지위에 있었을수록 노후설계 이용 의향이 증가하여, 노후설계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에 한해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저소득일수록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노후설계는 전 유형 전 영역에 걸쳐 계획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하지만, 특히 관심이 더 적은 저소득층 유형을 고려하여 접근해야할 것이다.

고소득층의 경우 노후설계를 받을 의향이 약 50% 정도로 나타나므로, 좀 더 이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관심과 의지가 없으므로 인식 확산에 대한 정책 및 근접성을 높일 수 있

는 무료 상담 설치 등이 필요하다.

한편,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건강관리, 여가와 취미, 노후준비 이 3가지 주제에 대하여 관심이 높으므로 이런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면 될 것이다.

특히 남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 여자유형 II의 경우 경제적인 면과 건강적인 측면 모두 현재와 노후준비 모두 취약하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할 것이다.

바. 정보격차의 해소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각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남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 의 경우,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각각 45.1%와 52.7%로 나타나 전체 평균 25.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상층에 해당하는 남자유형 IV 과 여자유형 IV 의 경우에는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8.1%와 12.8%에 불과하며, 매우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응답이 남자유형 IV 는 30.1%까지 달해 정보 접근성의 차이가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제도 및 관련 정보가 컴퓨터나 인터넷 형태로 많이 제공되고 있는 만큼, 경제적 소외된 사람들이 자원의 접근 면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커져, 자원 접근성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날 현상이 크다.

특히, 남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 의 경우 자원봉사자나 교육시설(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등)을 이용한 무료강좌 강습 개설과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유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저소득의 경우 현재 생활하는 바에 컴퓨터나 인터넷 필요성이 없으면 굳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지도 없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도 필요하다.

사. 다각적인 사회참여의 활성화

베이비 부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전체 7.3%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향후 참여 희망률을 보면 전체 43.9%가 희망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노후에도 희망하는 비율은 6.9%이며, 특히 현재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노후에 할 의향이 있는 비율이 전체의 37.0%를 차지하여, 많은 경우 현재는 비록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후에 참여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93%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약 절반 가까이가 노후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유가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가 가장 높았으므로, 노후 여가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뿐 아니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스스로 참여했다는 응답 다음으로 주변의 권유가 높아, 주민이나 직장 동료들의 친구인맥 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유형마다 다르므로(소득여부, 시간의 자율성 여부), 원인별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남자유형Ⅱ의 경우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희망의향이 약 30%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남자유형Ⅳ의 경우에는 소득과 직종 모두 안정적이어서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여가 보람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런 내적 동기와 보람을 강화시켜 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경우는 현재 참여율도 가장 높을 뿐 아니

라, 현재 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에 의향 있다는 응답이 약 40%대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더 활발해질 것이다.

아. 부부단독가구 증가에 대한 대비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사람에 대하여 모든 유형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다수인 93.3%가 부부 혹은 독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식 세대들에게 부양받기 어려울 것을 알고 있는 세대의식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 통계대로라면 베이비 부머가 노후에 접어들면 거의 모든 가구가 부부 혹은 독거가구일 것이다. 그러나 부부가구의 경우, 그동안 쌓인 갈등이나 여가활동패턴 등이 달라 생기는 문제점 등을 극복해야 하므로, 부부상담이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독거 노인의 경우 경제적 건강적 면에서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노인을 위한 주거형태(실버그룹홈 등)나 노인돌보미 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 및 확충이 필요하다.

자. 자녀부양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 완화

베이비 부머의 부모로서 자녀부양기간에 대해 모든 유형에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경우 결혼할 때까지가 전체의 41.5%를 차지하였으며, 학업을 마칠 때까지 29.6%, 직장 생길 때까지 23.9%로 나타나, 자녀부양시기가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 세대의 젊은층의 학업시기가 길어지고 직장에 취업하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자금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자녀부양비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마땅한 준비가 없고, 자녀부양에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통계치를 보더라도

도, 노후 경제적 준비 미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등록금 대출 등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며, 더불어 베이비 부머 본인들의 노후준비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기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제시된 정책적 제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이유로 노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 희망하는 저소득층 베이비 부머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일·사회참여·여가의 연계가 밀접한 중상층을 대상으로 한 자원 봉사 등 사회적 기여의 기회 제공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개발 및 연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중상층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던 여자 베이비 부머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전략의 1순위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경제활동을 해온 중상층 이상의 여자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직장을 기반으로 한 퇴직 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이를 은퇴 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층 베이비 부머 중 공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미불입증인 대상에 대한 불입촉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저소득층의 건강행위 실천을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남녀 모두 저소득층의 경우 운동이나 균형 잡힌 식생활 등 꾸준한 관심과 시간 및 돈이 요구되는 건강행위 실천율이 낮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소득수준별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생활에 매몰되어 노후설계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내용 중심의 공적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기제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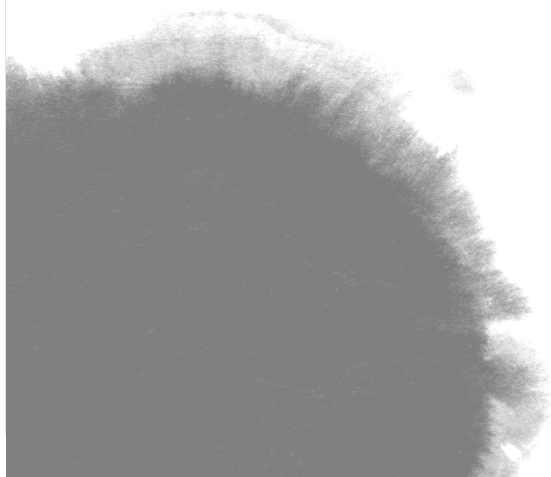
는 중상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전문화된 민간서비스 제공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 공고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경우 부부관계가 안정기에 진입한 시기이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중년기 부부관계 강화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소랑·문상호(2011).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관한 증험적(Evidence-Based) 정책설계 - 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20(2), pp.353-381.
- 방하남·신동균·이성균·한 준·김지경·신인철(2010). **한국 베이비 부머의 근로생애(work 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박사내·심규호(2010).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 효과 분석**, 2010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1권. 통계개발원
- 신현구·부가칭·이혜정(2010).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경험과 빈곤**.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복지재정DB 학술대회
- 윤소영(2009).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은아(2007). 중년기 남성의 가족 및 직업관련 변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 이현송(2001). 소득과 전반적 삶의 만족 간의 관계, **노동경제논집**, 24(1), pp.231~251.
- 정경희·손창균·박보미(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경혜·최현자·은기수·이정화·주소현·김주현(2011). **한국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지평**. MetLife Korea Foundation.
- UNDP(2011).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UNDP.

부록



부록

부록 1. 사례연구 기본질문

1. 과거: 베이비 부모는 어떠한 삶의 궤적을 밟아왔는가?

(목적: 현재의 삶과 미래의 계획에 미친 영향 파악)

- 출생지, 중고등학교 때의 거주지, 그 이후, 현재 거주지의 변동·일치 여부 등
- 학업: 대학교 진학 여부 (재수 여부) 및 이상의 진학 과정
- 형제·자매와의 관계
 - 가족에서의 자원배분: 균등 배분 또는 남자형제 중심여부 등
- 결혼
 - 결혼형태: 연애 결혼 또는 중매
 - 결혼에 기대한 것(결혼한 이유) 및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 자녀 출산(수, 시기 등)의 결정 요인 및 자녀에 대한 기대
- 취업
 - (군대) 취업 과정, 취업력(쉽게 직업을 얻었는지 여부 등, 최근의 직업변동을 중심으로)
 - 맞벌이 여부 및 그를 둘러싼 결정과정, 갈등 등의 경험

□ 경제적인 측면

- 결혼거주지, 집 마련 방법(전세/구매 등)
- 집을 마련한 시기
- 현재의 경제적 지위를 얻게 된 계기(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 등 투자, 부모로부터의 도움, 부부의 임금 등)

2. 현재: 일상생활은 어떠한가?

□ 지난 1주일 간의 생활

- 근무, 가사, 모임, 여가활동, 운동, 외식, 종교활동 등
 - 활동 여부, 차지하는 비중
 - 주요 활동 종류: 개인활동-가족활동-여가활동 등
- TV 시청 시간 및 유형
- 쇼핑: 종류, 시간대, 장소 등

□ 지난 1년간의 활동: 지난 1주일간의 생활에서 파악되지 않는 활동 내용의 파악

- 가족모임(부모/배우자 부모/형제자매/자녀 등)
- 여행, 음악회 등 여가활동
- 부부가 함께 한 활동, 가장 최근의 부부싸움/갈등
- 자녀와 함께 한 활동, 가장 빈번한 대화주제
- 친구 등과의 모임, 동창모임 등(빈도 및 주요 활동내용)

□ 현재의 주요 관심사 및 어려운 점

- 가장 큰 관심사 및 가장 큰 어려운 점
- 경제:
 -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 노후를 위한 준비 실태(국민연금, 개인연금,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등)

- 부부관계: 부부관계의 유형, 갈등 경험 여부, 해소 방법
- 자녀와의 관계: 가장 어려운 점(가치관의 차이, 실제적인 부양문제 등)
- 부모와의 관계: 가장 어려운 점(지나친 간섭, 경제적인 부양, 신체적인 부양 등)
- 심리적인 측면: 삶의 의미 등
- 건강:
 - － 노화방지에 대한 관심 정도
 - － 건강관리 등 건강유지를 위한 노력
 - － 현재 약국, 병원 등 이용 행태
 - －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등

3. 미래: 무엇을 꿈꾸며 걱정하는가?

■ 시기별

- 5년 후/ 10년 후/ 55세, 65세 이후 등 특정 연령대에 그려보는 본인의 삶
 - 거주형태
 - 예상 은퇴시기 및 은퇴 후 활동
 - 예상되는 생활상 (자녀 결혼 또는 독립여부, 배우자·친구·부모 등과의 관계의 변화)
 - 지금과의 변화 여부
 - 예견되는 변화
 - 긍정적인 변화 또는 부정적인 변화 여부
- 예상되는 5년 후/10년 후/노후의 모습
 - 여유 시간의 활용 방법 등 예상되는 삶의 모습
 - 배우자/친구 등과의 관계의 구체적인 모습

- 경제적인 상태(여유, 부족 등) 및 대응방안
- 건강문제
 - 건강이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연령)
 - 비용, 보호방법 등
- 노인의 사회에서의 위상
- 노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의 변화 등에 대한 예상

부록 2. 영역별로 나타난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제특성

제1절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일반특성 및 가족관계

1. 일반특성

유형별 도시 거주율을 살펴보면, 남자유형 I 72.3%, 남자유형 II 73.8%, 남자유형 III 87.8%, 남자유형 IV 86.9%, 여자유형 I 76.3%, 여자유형 II 80.9%, 여자유형 III 86.5%, 여자유형 IV 90.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도시 거주율이 높으며, 소득이 올라갈수록, 여자일수록 도시 거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도시 거주율은 82.3%이다.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남자유형 I 48.6세, 남자유형 II 50.7세, 남자유형 III 50.6세, 남자유형 IV 51.6세, 여자유형 I 50.3세, 여자유형 II 50.5세, 여자유형 III 50.6세, 여자유형 IV 50.7세로 약 50세 전후이며, 전체 평균연령은 50.1세이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비율이 24.8%이지만 유형별 교육수준의 차이가 커, 전문대 이상의 학력 비율이 남자유형 IV의 50.8%와 여자유형 I의 3.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핵가족화가 보편화됐음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 5.5%, 부부가족 9.5%, 부/모+미혼자녀 74.0%, 확대가족 10.9%, 기타가족 0.1%이다. 남자유형 I과 남자유형 II의 경우 1인가구 비율이 10%를 넘는 수준에 달하고 있음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베이비 부머의 종교는 무교가 41.8%, 불교가 26.5%, 개신교가 20.7%, 천주교가 10.0%, 기타가 1.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무교의 비율이 낮다.

현재 취업중인 비율은 평균 75.9%이며 남녀 간에 차이가 커 남자의

경우 4개의 유형 모두 85%를 넘어서고 있고 남자유형Ⅳ의 경우는 97.6%에 달하고 있는 반면 여자는 모두 70% 미만이며 특히 여자유형Ⅲ의 경우는 52.2%로 8개 유형 중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60점 만점에서 평균점수가 40.5점이며 남자유형Ⅳ가 가장 점수가 높아 43.1점이며 다음이 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로 42.0점이다. 반면 남자유형Ⅰ은 35.9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으며 남자유형Ⅳ와 비교하여 7.2점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가족관계 및 부양의 교환실태

베이비 부모에게 가용한 가족규모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중상층에 비하여 자녀가 없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발견되지만 특히 남자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여자에 비하여 높으며 고용상태가 불안한 임시직의 경우 더욱 더 무자녀 비율이 높아 각각 20.4%와 10.4%이다. 반면 남녀 모두 중상층의 경우 대부분이 생존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자녀가 있는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나 여자유형Ⅰ의 경우 그 비율이 36.9%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손자녀가 있는 비율은 가장 높아 23.0%이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고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자 베이비 부모의 경우 다른 베이비 부모에 비하여 자녀를 일찍 결혼시켜 손자녀를 두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표 1-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자녀 및 손자녀 현황

(단위: %, 명)

구분	무 자녀율 (%)	총 자녀수 (명)	자녀결혼여부		자녀 동거율 (%)	손자녀가 있는 비율 (%)
			미혼 자녀수	기혼 자녀수		
전체	5.1	1.9	1.7	0.2	82.7	11.8
유형						
남자유형 I	20.4	1.5	1.3	0.3	88.3	14.3
남자유형 II	10.4	1.9	1.7	0.2	78.2	11.5
남자유형 III	8.8	1.7	1.5	0.2	99.0	6.6
남자유형 IV	1.7	2.0	1.9	0.1	88.4	3.7
여자유형 I	6.2	2.1	1.6	0.5	36.9	23.0
여자유형 II	5.3	1.9	1.5	0.4	85.7	20.0
여자유형 III	1.1	2.1	1.8	0.3	91.2	11.9
여자유형 IV	1.4	2.0	1.8	0.2	92.4	8.5

한편 베이비 부머의 방위가족(family of orientation) 현황을 살펴보면 본인의 생식가족 현황에 비하여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수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여자 저소득 베이비 부머(여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I)의 경우 본인의 형제·자매수가 5.3명으로 조금 높은 편이다. 또한 부모 생존율의 경우 남녀 중상층이며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베이비 부머(남자유형 IV 과 여자유형 IV)의 경우 부모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하여 부모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적고, 따라서 배우자 부모의 연령도 낮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 부머의 방위가족의 제특성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자신이 형성한 생식가족에서는 유형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베이비 부머는 가족계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출생하여 제특성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경우 가족계획정책이 확산되던 시기에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출산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가

치관에 따라 자녀출생행태에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자신의 경제적 위상의 불안정성이 자녀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1-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수

(단위: %, 명)

구분	본인의 평균 형제·자매수	배우자의 평균 형제·자매수 ¹⁾
전체	5.1	5.0
유형		
남자유형 I	5.1	5.1
남자유형 II	5.0	4.9
남자유형 III	4.9	5.4
남자유형 IV	4.9	5.0
여자유형 I	5.3	5.0
여자유형 II	5.3	5.1
여자유형 III	5.2	5.0
여자유형 IV	5.0	5.1
계	100.0	100.0
(명)	(3,027)	(2,593) ¹⁾

주: 1)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2,593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1-3〉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부모 생존율

(단위: %)

구분	본인 부모의 생존율	배우자 부모의 생존율 ¹⁾
전체	61.2	60.2
유형		
남자유형 I	51.9	65.5
남자유형 II	60.1	68.8
남자유형 III	65.9	45.6
남자유형 IV	65.0	74.3
여자유형 I	55.3	44.8
여자유형 II	63.4	45.3
여자유형 III	58.4	51.9
여자유형 IV	75.1	56.6

주: 1)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2,593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다음으로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자원으로서 갖고 있는 위상을 부모, 자녀와의 접촉 및 부양의 교환실태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비동거 부모의 경우를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의 약 1/3은 주 2회 이상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약 10%는 월 1회 미만의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모와의 접촉실태에 있어서 유형별 차이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 먼저 남자에 비하여 여자 베이비 부머가 부모와 더 자주 접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두드러지는 특징은 중상층이 저소득층에 비하여 부모와의 접촉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별 특성과 소득수준별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경우 부모와의 접촉이 가장 활발하다. 반면 부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남자유형Ⅰ의 경우 부모와의 접촉수준이 제일 낮아 18.5%만이 주 2회 이상의 접촉을 하고 있어 여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Ⅳ의 약 40%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고 월 1회 미만 접촉한다는 응답률도 37.8%에 달하고 있다. 본인의 부모와의 접촉행태에서 보여지는 남녀 간의 차이는 배우자의 부모와의 접촉에서 더 크다. 이는 아직 남편가족 중심의 가족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부표 1-4〉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본인 부모와의 접촉 실태

(단위: %, 명)

구분	주 2회 이상	주 1회	주 1회 미만~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전체	32.3	23.6	34.3	9.8	100.0 (1,656) ¹⁾
유형					
남자유형Ⅰ	18.5	16.0	27.7	37.8	100.0 (60)
남자유형Ⅱ	26.9	25.8	38.2	9.1	100.0 (223)
남자유형Ⅲ	21.0	8.6	63.2	7.3	100.0 (23)
남자유형Ⅳ	31.1	27.7	36.2	4.9	100.0 (421)
여자유형Ⅰ	27.1	16.1	40.4	16.5	100.0 (224)
여자유형Ⅱ	35.1	19.4	34.5	10.9	100.0 (182)
여자유형Ⅲ	39.5	24.0	28.0	8.5	100.0 (221)
여자유형Ⅳ	38.5	26.8	27.8	6.9	100.0 (300)

주: 1) 별거중인 부/모가 있는 응답자 1,65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1-5〉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 실태

(단위: %, 명)

구분	주 2회 이상	주 1회	주 1회 미만~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전체	20.6	17.6	38.4	23.3	100.0 (1,444) ¹⁾
유형					
남자유형 I	6.3	10.6	31.6	51.5	100.0 (70)
남자유형 II	13.9	15.3	32.9	37.9	100.0 (262)
남자유형 III	20.4	17.2	31.6	30.9	100.0 (16)
남자유형 IV	15.9	15.7	44.7	23.7	100.0 (509)
여자유형 I	24.8	23.9	30.5	20.8	100.0 (116)
여자유형 II	29.8	8.4	43.5	18.3	100.0 (83)
여자유형 III	32.0	28.6	32.1	7.4	100.0 (170)
여자유형 IV	29.8	18.9	40.2	11.1	100.0 (217)

주 1) 별거중인 부/모가 있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1,4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한편 부모와의 부양 교환실태를 살펴보면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부모에게 집안일 도움이나 간병이나 수발과 관련된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는데,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는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자의 경우 소득수준이나 고용상태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적는데 비하여 남자의 경우는 소득수준이나 고용상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자의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해왔던 경우가 그렇지 않은 남자에 비하여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여자의 경우 저소득층인 경우 중상층에 비하여 부모에게서 집안일 도움을 받는 비율이 낮는데 이는 이들 집단이 유지하고 있는 부모와의 밀접한 접촉이 실제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경제적인 부양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진다. 즉 남녀 중상층이면서 안정적인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베이비 부머(남자유형Ⅳ·여자유형Ⅳ)의 경우 모두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비율이 더 높다. 그러나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비율에 있어 절대적인 수준이 남

자의 경우 여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중 상층으로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해온 경우 거의 절반 정도가 부모에게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있다. 반면 동일하게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해온 중상층이지만 여자인 경우는 26.7%로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는 정기적 현금지원이 남자의 경우 18.5%이지만 여자는 51.9%로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정리하면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해온 중상층은 약 50%가 남편의 부모에게, 약 20% 정도가 아내의 부모에게 정기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저소득자는 미지원율이 소득수준이나 고용의 안전성과는 상관없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의 부모와의 경제적 도움의 교환유형을 살펴보면 절대 다수가 도움을 주는 편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으며 무교환이라는 응답률은 5.1%인데 이러한 응답률은 남녀 모두 고용의 안전성과는 무관하게 저소득층 베이비 부머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표 1-6〉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부모와의 도구적 교환 실태

(단위: %, 명)

구분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집안일 도움 ¹⁾		간병이나 수발 도움 제공률	집안일 도움 ¹⁾		간병이나 수발 도움 제공률
	제공률	수혜율		제공률	수혜율	
전체	72.4	26.7	34.2	65.5	27.2	23.5
유형						
남자유형 I	41.9	15.9	17.5	42.8	17.5	5.0
남자유형 II	70.1	23.1	29.7	59.6	26.5	13.8
남자유형 III	37.0	10.3	24.7	56.0	35.9	22.4
남자유형 IV	62.3	30.1	32.6	53.2	30.1	17.6
여자유형 I	77.7	15.1	34.3	77.4	15.9	30.5
여자유형 II	76.8	25.6	32.4	68.9	20.4	35.7
여자유형 III	85.6	34.5	39.1	87.6	34.3	36.1
여자유형 IV	81.0	32.0	40.9	84.3	26.9	36.8

주: 1) 별거중인 부/모가 있는 응답자 1,65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항목별 무응답을 제외함.

〈부표 1-7〉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부모와의 경제적 도움 제공 실태

(단위: %, 명)

구분	본인 부모 ¹⁾				배우자 부모 ²⁾			
	정기적 현금지원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현물 지원	미지원	정기적 현금지원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현물 지원	미지원
전체	26.1	66.5	1.6	5.8	23.9	68.5	0.9	6.7
유형								
남자유형 I	20.6	71.2	0.0	8.3	2.3	72.0	4.4	21.3
남자유형 II	21.8	64.1	2.1	12.0	5.4	82.4	0.3	11.9
남자유형 III	36.6	60.0	0.0	3.5	30.2	69.8	0.0	0.0
남자유형 IV	48.5	49.6	0.6	1.3	18.5	18.5	76.3	4.0
여자유형 I	7.6	80.0	1.8	10.6	15.6	15.6	75.2	9.0
여자유형 II	8.5	72.7	5.7	13.0	26.9	26.9	62.1	11.0
여자유형 III	21.0	75.8	1.5	1.7	45.8	45.8	51.2	3.0
여자유형 IV	26.7	70.5	0.6	2.3	51.9	51.9	44.9	2.4

주: 1) 별거중인 부/모가 있는 응답자 1,65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항목별 무응답을 제외함.

2) 별거중인 부/모가 있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1,4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1-8〉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수혜 실태

(단위: %, 명)

구분	본인 부모 ¹⁾				배우자 부모 ²⁾			
	정기적 현금지원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현물 지원	미지원	정기적 현금지원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현물 지원	미지원
전체	0.1	7.3	8.3	84.3	0.3	5.9	8.1	85.8
유형								
남자유형 I	0.0	3.6	7.4	89.1	0.0	4.5	12.4	83.2
남자유형 II	0.8	7.4	7.4	84.4	0.6	5.4	9.2	84.9
남자유형 III	0.0	2.0	5.4	92.7	0.0	16.6	11.6	71.8
남자유형 IV	0.0	6.7	6.7	86.6	0.4	7.1	7.9	84.6
여자유형 I	0.0	7.5	13.5	79.0	0.0	7.7	6.7	85.6
여자유형 II	0.0	7.0	9.8	83.2	0.5	5.8	9.0	84.7
여자유형 III	0.1	6.7	7.6	85.6	0.0	3.9	5.1	91.0
여자유형 IV	0.0	9.5	7.6	82.9	0.0	3.9	8.3	87.8

주: 1) 별거중인 부/모가 있는 응답자 1,65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항목별 무응답을 제외함.

2) 별거중인 부/모가 있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1,4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1-9〉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교환 실태

(단위: %, 명)

구분	본인 부모 ¹⁾				배우자 부모 ¹⁾			
	무교환	도움 주는 편	받는 편	비슷한 정도	무교환	도움 주는 편	받는 편	비슷한 정도
전체	5.1	87.1	3.1	4.8	6.0	87.4	2.4	4.2
유형								
남자유형 I	8.3	88.3	1.2	2.2	17.7	70.9	6.0	5.4
남자유형 II	11.4	81.6	3.6	3.3	11.8	78.7	2.5	7.0
남자유형 III	3.5	91.4	0.0	5.1	0.0	83.3	0.0	16.7
남자유형 IV	1.2	92.9	2.5	3.4	3.2	88.8	3.1	4.9
여자유형 I	9.7	79.1	5.7	7.2	6.8	88.2	2.8	2.2
여자유형 II	10.4	76.4	4.0	7.4	10.2	87.7	2.1	0.0
여자유형 III	1.1	94.9	1.8	2.4	2.8	95.9	0.0	1.3
여자유형 IV	1.7	88.8	2.9	6.6	2.7	93.0	1.3	3.0

주: 1)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만 분석대상으로 함. 본인부모 1,561명, 배우자 부모 1,347명임.

한편, 친가와 배우자 가족과의 접촉빈도와 친밀감을 비교해보면 친가와 더 자주 접촉한다는 응답률이 47.9%인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응답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배우자의 가족과 더 자주 접촉한다는 응답률은 여자유형Ⅲ의 경우 33.5%로 가장 높아, 남자유형 I과 남자유형Ⅱ가 15%대인 것에 비하여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보이고 있다. 즉 여자 중상층으로 비교적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이 적었던 여자유형Ⅲ의 경우 시댁가족과 좀 더 밀접한 접촉을 해온 것이다. 친가와 배우자 가족과의 접촉빈도가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유형 I에게서 가장 높아 32.8%이며, 배우자 가족과 더 자주 접촉한다는 응답은 15.0%로 가장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친밀감의 경우도 유사하여 남자유형 I의 경우 배우자 가족과의 친밀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1-10〉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친가와 배우자 가족과의 접촉 빈도·친밀감 비교

(단위: %, 명)

구분	접촉 빈도			친밀감		
	친가와 더 자주 접촉	배우자 가족과 더 자주 접촉	비슷	친가와 더 친밀	배우자 가족과 더 친밀	비슷
전체	47.9	23.9	28.1	58.1	12.1	29.8
유형						
남자유형 I	52.2	15.0	32.8	56.2	7.1	36.7
남자유형 II	55.6	15.6	28.9	58.2	12.2	29.6
남자유형 III	58.4	27.0	14.6	50.7	21.4	27.9
남자유형 IV	52.1	18.9	29.0	55.2	12.3	32.5
여자유형 I	46.6	27.6	25.9	60.2	14.6	25.3
여자유형 II	46.1	27.4	26.5	62.0	10.2	27.8
여자유형 III	39.8	33.5	26.7	57.0	11.3	31.7
여자유형 IV	41.5	29.0	29.6	61.0	12.0	27.0

주: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2,59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남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Ⅲ에게서 가장 높아 남자 14.2%, 여자 12.6%이다. 즉 성별과는 상관없이 높은 소득수준과 안정적인 고용상황은 양질의 부부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자의 경우 소득수준보다는 고용상태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및 중상층 모두 임시직일 경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와 7.6%로 매우 높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고용상태보다는 소득의 영향력이 커 저소득자의 경우 임시직과 상용직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와 5.6%이다.

〈부표 1-1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9.1	62.0	26.3	2.5	0.2	100.0 (2,593) ¹⁾
유형						
남자유형 I	5.5	64.5	24.6	5.0	0.5	100.0 (108)
남자유형 II	6.2	69.3	21.8	2.1	0.6	100.0 (393)
남자유형 III	4.0	62.0	26.5	7.6	0.0	100.0 (35)
남자유형 IV	14.2	66.3	19.1	0.4	0.0	100.0 (645)
여자유형 I	5.5	54.9	35.1	4.0	0.5	100.0 (324)
여자유형 II	2.4	55.1	37.0	5.6	0.0	100.0 (242)
여자유형 III	7.3	61.8	28.6	2.1	0.2	100.0 (363)
여자유형 IV	12.6	57.0	28.0	2.5	0.0	100.0 (431)

주: 1)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2,593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다음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자에 비하여 남자가 접촉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4회 이상 접촉한다는 비율이 여자의 경우 28.1%~42.1% 수준인 것에 비하여 남자는 12.0%~24.2%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남자유형II가 남자 중 가장 높은 24.2%를 보이지만 이는 여자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여자유형IV의 28.1%보다도 낮은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월 1회 미만이라는 응답에 있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8개 유형 중 여자유형IV의 경우 주 4회 이상의 밀접한 접촉을 하는 비율 또한 여자 중 가장 낮은 28.1%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 2~3회라는 응답은 29.2%로 8개 유형 중 가장 높다. 또한 월 1회 미만으로 접촉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또한 적다. 이는 여자유형IV의 경우 직장생활에 소요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 시간적 압박이 심해 잦은 접촉을 하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동거 자녀에게 집안일 도움의 교환에 있어 소득수준이나 고용상태와 무관하게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경우도 동일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손자녀 돌보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남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유형 I의 경우 손자녀 돌보기를 제공한다는 응답이 43.1%에 불과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 남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남자유형Ⅲ과 남자유형Ⅳ)의 경우 고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게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40%를 넘고 있어 8개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비율은 8개 유형 중 여자유형Ⅳ가 가장 높아 약 60%에 달하고 있고, 반대로 남자유형 I의 경우 약 35%에 불과한 등 유형별 차이가 매우 크다. 이는 남자유형 I은 가장 경제적인 여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자유형Ⅳ은 경제적인 여력도 있고 자녀의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중상층이면서 안정적인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베이비 부머(남자유형Ⅳ과 여자유형Ⅳ)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다. 또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저소득층이면서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남녀 베이비 부머(남자유형 I과 여자유형 I)에게서 가장 높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 차이보다는 현재의 소득수준과 일생동안의 고용의 안정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고 일생동안 고용의 불안정성 문제와 씨름을 해야 했던 베이비 부머의 경우 자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적을 것이며 이는 자녀와 돈독한 관계 형성을 저해했을 것이다.

〈부표 1-1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별거자녀와의 접촉 실태

(단위: %, 명)

구분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주 1회 미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전체	28.2	23.4	20.6	12.1	15.7	100.0 (1,066) ¹⁾
유형						
남자유형 I	13.2	17.9	30.7	9.2	29.2	100.0 (50)
남자유형 II	24.2	21.4	16.1	12.7	25.7	100.0 (160)
남자유형 III	12.0	26.3	38.1	0.0	23.6	100.0 (13)
남자유형 IV	16.7	22.1	25.9	13.2	22.0	100.0 (190)
여자유형 I	33.5	27.5	14.3	10.8	13.9	100.0 (215)
여자유형 II	31.3	17.8	26.5	16.7	7.7	100.0 (133)
여자유형 III	42.1	22.3	14.2	10.6	10.8	100.0 (166)
여자유형 IV	28.1	29.2	24.4	11.9	6.4	100.0 (138)

〈부표 1-13〉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자녀와의 도구적 교환 실태

(단위: %)

구분	집안일 도움 ¹⁾		손자녀 돌보기 제공률 ²⁾
	제공률	수혜율	
전체	57.7	52.8	76.5
유형			
남자유형 I	21.1	47.8	43.1
남자유형 II	37.9	52.4	75.0
남자유형 III	35.6	44.7	84.3
남자유형 IV	30.7	41.6	78.9
여자유형 I	74.4	60.4	80.2
여자유형 II	79.5	56.5	78.1
여자유형 III	71.5	55.7	83.6
여자유형 IV	70.1	52.0	75.9

주: 1) 별거자녀가 있는 1,06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2) 별거 손자녀가 있는 345명 중 무응답 5명을 제외함.

〈부표 1-14〉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지난 1년간의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부양 수혜 실태

(단위: %, 명)

구분	받지 않음	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	비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	생활물품 구매 지원	계 (명)
전체	31.4	6.7	59.6	2.2	100.0 (1,066) ¹⁾
유형					
남자유형 I	30.1	5.3	64.6	0.0	100.0 (50)
남자유형 II	39.1	7.5	50.0	3.4	100.0 (160)
남자유형 III	44.2	0.0	55.8	0.0	100.0 (13)
남자유형 IV	48.3	4.7	43.6	3.4	100.0 (190)
여자유형 I	20.6	10.7	68.1	0.6	100.0 (215)
여자유형 II	20.0	6.1	71.6	2.3	100.0 (133)
여자유형 III	25.2	5.9	67.7	1.2	100.0 (165)
여자유형 IV	33.6	5.3	57.0	4.1	100.0 (138)

주: 1) 별거자녀가 있는 1,06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부표 1-15〉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경제적 도움 제공하는 성인자녀수

(단위: %, 명)

구분	없음	1명	2명 이상	계 (명)
전체	49.2	36.3	14.5	100.0 (2,867) ¹⁾
유형				
남자유형 I	65.2	25.4	9.4	100.0 (137)
남자유형 II	55.4	32.3	12.4	100.0 (427)
남자유형 III	43.0	47.3	9.8	100.0 (37)
남자유형 IV	45.0	41.1	14.0	100.0 (723)
여자유형 I	56.9	30.3	12.8	100.0 (404)
여자유형 II	55.8	31.3	13.0	100.0 (297)
여자유형 III	43.4	38.8	17.8	100.0 (376)
여자유형 IV	39.5	41.6	18.9	100.0 (463)

주: 1) 자녀가 있는 응답자 2,873명중 무응답 7명을 제외함.

〈부표 1-16〉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계 (명)
전체	21.5	62.3	13.1	3.0	100.0 (2,873) ¹⁾
유형					
남자유형 I	16.0	58.5	17.9	7.6	100.0 (137)
남자유형 II	17.1	63.1	14.1	5.7	100.0 (430)
남자유형 III	12.4	56.7	30.9	0.0	100.0 (37)
남자유형 IV	22.7	63.3	11.9	2.2	100.0 (726)
여자유형 I	16.6	63.2	15.0	5.2	100.0 (405)
여자유형 II	23.4	63.8	11.1	1.7	100.0 (295)
여자유형 III	22.5	63.3	12.6	1.5	100.0 (376)
여자유형 IV	28.5	59.3	11.5	0.8	100.0 (464)

주: 1) 자녀가 있는 응답자 2,873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비공식적 지지망과 선호 지지망

비공식적 지지망인 친구의 경우 친한 친구가 없다는 응답은 7.6%이며 평균 친한 친구 수는 2.6명이다. 이를 8개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저소득층의 경우 친한 친구가 없다는 응답이 다른 유형보다 높아 10%를 넘고 있다. 이는 친한 친구 형성과 유지에 있어 소득 수준이 제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균 친구수를 비교해보면 남자유형Ⅲ의 경우 가장 많아 3.3명에 달하고 있으며 다음이 남자유형Ⅳ으로 2.9명이다. 남자보다는 좀 적기는 하지만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자유형Ⅲ이 2.8명, 여자유형Ⅳ의 경우 2.7명으로 저소득 여자 베이비 부머에 비하여 높다. 또한 남자와 여자 모두 중상층으로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베이비 부머(남자유형Ⅲ과 여자유형Ⅲ)의 경우는 친구와의 교류관계 유지에 소요할 시간

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관계로 평균 친구수가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소득 수준이 하락한다면 고용의 불안정성은 오히려 친구관계 유지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부표 1-17〉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 수

(단위: %, 명)

구분	없음	1명	2명	3명	4~5명	6명 이상	(평균)	계 (명)
전체	7.6	10.9	30.7	25.1	19.8	6.0	2.6	100.0 (3,027)
유형								
남자유형 I	11.8	17.3	25.7	24.2	16.3	4.7	2.3	100.0 (155)
남자유형 II	10.2	13.4	29.2	22.6	19.3	5.5	2.5	100.0 (455)
남자유형 III	7.2	5.3	14.2	27.1	33.5	12.7	3.3	100.0 (41)
남자유형 IV	5.7	6.6	26.5	28.9	25.2	7.1	2.9	100.0 (772)
여자유형 I	10.8	13.3	33.3	22.5	14.9	5.3	2.4	100.0 (432)
여자유형 II	11.7	15.2	38.1	14.7	17.6	2.7	2.2	100.0 (294)
여자유형 III	4.2	8.8	34.0	24.3	21.1	7.6	2.8	100.0 (389)
여자유형 IV	3.6	9.7	32.3	31.5	17.1	5.9	2.7	100.0 (510)

베이비 부머의 현재 자주 접촉하는 지인을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모든 소득수준이나 고용상태에서 모두 남자에 비하여 지역주민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적으로 여자가 비공식적인 연계에 있어 남자보다 활발하다고 하는 사실이 소득수준이나 고용의 안정성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종교관련 교우와의 접촉도 모든 소득수준과 고용상태에서도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직장동료를 자주 접촉하는 지인으로 답한 비율은 소득 수준이나 고용상태와 상관없이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대체적인 경향성 외에도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상용직의 경우 소득수준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임시직에 비하여 지역주민과의 접촉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상용직⁶⁾의 경우 직장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지역주민과 접촉할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특히 남자유형Ⅳ의 경우 지역주민이라는 응답이 13.1%로 여자유형Ⅳ의 33.3%에 비하여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직장동료라는 응답도 42.8%로 여자유형Ⅳ의 20.2%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례수가 작기는 하지만 남자유형Ⅲ의 경우 동창이라는 응답률이 월등히 높아 47.9%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고 본인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표 1-18〉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자주 접촉하는 지인

(단위: %, 명)

구분	동창	직장동료	종교관련 교우	지역주민	기타 ¹⁾	계 (명)
전체	25.7	27.9	9.6	31.2	5.6	100.0 (3,027)
유형						
남자유형Ⅰ	26.4	39.5	5.0	24.2	4.9	100.0 (172)
남자유형Ⅱ	32.8	36.6	5.4	22.5	2.8	100.0 (479)
남자유형Ⅲ	47.9	25.0	0.0	24.8	2.3	100.0 (41)
남자유형Ⅳ	33.1	42.8	4.2	13.1	6.8	100.0 (738)
여자유형Ⅰ	14.3	19.9	10.9	52.3	2.7	100.0 (431)
여자유형Ⅱ	27.1	14.8	16.3	37.9	3.9	100.0 (313)
여자유형Ⅲ	17.3	12.6	13.4	49.3	7.5	100.0 (379)
여자유형Ⅳ	21.3	20.2	16.4	33.3	9.0	100.0 (470)

주: 1) 자녀관련 학부형(1.6%), 동호회관련 지인(3.2%)을 포함한 결과임.

6) 최장기 종사상의 지위에 의한 분류이나 현재 종사상의 지위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 <부표 4-2> 참조

〈부표 1-19〉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생활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

(단위: %, 명)

구분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구	기타	계 (명)
전체	78.4	10.4	3.7	7.2	0.3	100.0 (3,027)
유형						
남자유형 I	61.8	16.5	13.3	7.7	0.8	100.0 (172)
남자유형 II	81.9	6.5	3.8	7.8	0.0	100.0 (479)
남자유형 III	73.4	9.2	10.3	7.2	0.0	100.0 (41)
남자유형 IV	88.9	3.7	2.3	5.1	0.0	100.0 (738)
여자유형 I	65.7	20.6	6.1	7.3	0.4	100.0 (431)
여자유형 II	63.5	21.8	4.5	8.9	1.5	100.0 (313)
여자유형 III	83.2	7.8	0.4	8.7	0.0	100.0 (379)
여자유형 IV	82.9	8.0	1.8	7.3	0.0	100.0 (470)

제2절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1. 건강실천행위

베이비 부머의 건강실천행위 중에서 흡연습관에 대한 결과를 보면,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59.5%이고,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에는 피우지 않는 경우가 16.7%, 그리고 현재에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경우는 23.8%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약 절반정도가 현재에도 흡연하고 있는 반면, 여자의 경우 7% 이하가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소득 계층 간 차이보다 고용형태간의 차이가 더 뚜렷하여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베이비 부머(남자유형 I과 남자유형 III, 각각 63.4%, 58.1%)가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베이비 부머(남자유형 II와 남자유형 IV, 각각 41.9%,

47.5%)에 비하여 흡연율이 10% 이상 더 높다. 여자의 경우는 소득 계층 간 차이가 더 뚜렷하여 여자 저소득층(여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I, 각각 6.7%, 4.8%)의 흡연율이 여자중상층(여자유형 III과 여자유형 IV, 각각 1.1%, 1.9%)보다 더 높고, 흡연 중단율은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베이비 부머(여자유형 II과 여자유형 IV, 각각 3.5%, 2.6%)가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베이비 부머(여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II, 각각 1.4%, 1.5%)에 비하여 더 높았다.

〈부표 2-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흡연습관

(단위: %, 명)

구분	피운 적 없음	과거 흡연 경험	현재도 피움	계 (명)
전체	59.5	16.7	23.8	100.0 (3,027)
유형				
남자유형 I	15.7	26.2	58.1	100.0 (172)
남자유형 II	21.0	31.5	47.5	100.0 (480)
남자유형 III	12.2	24.4	63.4	100.0 (41)
남자유형 IV	22.3	35.8	41.9	100.0 (737)
여자유형 I	91.9	1.4	6.7	100.0 (431)
여자유형 II	91.7	3.5	4.8	100.0 (313)
여자유형 III	97.6	1.3	1.1	100.0 (380)
여자유형 IV	95.5	2.6	1.9	100.0 (470)

베이비 부머의 27.8%가 술을 마신 적이 없으며, 과거에는 마셨으나 현재에는 마시지 않는 경우가 9.4%, 그리고 현재에도 술을 마시고 있는 경우는 62.8%로 높은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약 3/4정도가 현재 음주하고, 여자도 절반 정도가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소득 계층 간 차이가 뚜렷하여 남자 중상층(남자유형 III과 남자유형 IV, 각각 82.9%, 80.6%)이 남자 저소득층(남자유형 I 과 남자유형 II, 각각 74.4%, 71.3%)보다 음주율이 9%포인트 이상 더 높았으나, 여자의 경우는 일정한 양상은 없다.

〈부표 2-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음주습관

(단위: %, 명)

구분	마신 적 없음	과거 음주 경험	현재도 마심	계 (명)
전체	27.8	9.4	62.8	100.0 (3,027)
유형				
남자유형 I	14.0	11.6	74.4	100.0 (172)
남자유형 II	11.4	17.3	71.3	100.0 (481)
남자유형 III	12.2	4.9	82.9	100.0 (41)
남자유형 IV	10.3	9.1	80.6	100.0 (737)
여자유형 I	40.1	7.2	52.7	100.0 (431)
여자유형 II	46.2	10.2	43.6	100.0 (314)
여자유형 III	45.1	5.3	49.6	100.0 (379)
여자유형 IV	40.6	6.8	52.6	100.0 (470)

베이비 부머의 68.5%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운동 실천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녀 간은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소득 계층 간 차이와 고용형태간의 차이가 뚜렷하여 중상층 또는 안정적인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베이비 부머인 경우 저소득 또는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베이비 부머에 비하여 운동 실천율이 더 높다. 즉, 남자유형IV(78.2%)의 운동 실천율이 가장 높으며, 남자유형III(65.9%), 남자유형II(60.2%), 남자유형 I(46.2%)의 순이다. 여자의 경우는 소득 계층 간 차이가 더 뚜렷하여 여자유형IV(78.7%)의 운동 실천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 여자유형III(73.4%)이며, 여자유형 I과 여자유형II(60.8%, 60.4%)에서는 고용 형태 간에 차이는 거의 없다.

〈부표 2-3〉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운동습관

(단위: %, 명)

구분	운동함	운동 안함	계 (명)
전체	68.5	31.5	100.0 (3,027)
남자유형 I	46.2	53.8	100.0 (173)
남자유형 II	60.2	39.8	100.0 (480)
남자유형 III	65.9	34.1	100.0 (41)
남자유형 IV	78.2	21.8	100.0 (737)
여자유형 I	60.4	39.6	100.0 (432)
여자유형 II	60.8	39.2	100.0 (314)
여자유형 III	73.4	26.6	100.0 (379)
여자유형 IV	78.7	21.3	100.0 (470)

운동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이 6.3%, 학교체육시설이 3.4%, 민간·상업스포츠 시설이 17.3%, 민간 비영리/복지시설이 1.8%, 집주변이 67.9%, 집안이 2.9%로 나타나고 있다.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집주변에서의 운동형태가 조금 더 높는데 비해, 남자의 경우 민간·상업스포츠 시설, 공공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유형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소득 계층 간 차이가 뚜렷하여 중상층인 경우 민간·상업스포츠 시설 이용이 많은데 비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집주변에서의 운동형태가 높으며, 고용 형태 간의 차이는 일정하지 않다.

〈부표 2-4〉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자주 이용하는 운동시설

(단위: %, 명)

구분	공공 체육 시설	학교체육 시설	민간/상업 체육시설	민간비영리/ 복지시설	집주변	집안	기타	계 (명)
전체	6.3	3.4	17.3	1.8	67.9	2.9	0.5	100.0 (2,073) ¹⁾
남자유형 I	2.5	2.5	3.7	-	86.4	1.2	3.7	100.0 (81)
남자유형 II	6.9	3.8	6.2	1.7	77.5	3.8	-	100.0 (289)
남자유형 III	11.5	7.7	26.9	-	53.8	-	-	100.0 (26)
남자유형 IV	8.8	4.7	29.5	2.3	51.5	2.4	0.9	100.0 (577)
여자유형 I	4.2	1.5	4.2	3.4	81.7	4.2	0.8	100.0 (262)
여자유형 II	2.6	1.6	4.2	1.1	90.0	0.5	-	100.0 (190)
여자유형 III	6.5	4.0	19.1	2.5	64.0	3.6	0.4	100.0 (278)
여자유형 IV	5.4	2.7	23.5	0.5	64.8	3.5	-	100.0 (370)

주: 1)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2,073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베이비 부모가 운동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라는 이유가 5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게을러서가 16.1%, 관심이 없어서가 10.4%, 몸이 약해서가 7.7%,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3.9%, 같이할 사람이 없어서가 1.6%, 주위의 운동여건이 안되어서가 0.4%, 기타가 0.2%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남자는 소득 계층 간 차이가 뚜렷하여 중상층의 경우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20% 정도는 게을러서라고 응답하였으나 고용 형태 간에는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반하여 남자유형II는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약 63%로 높은 수준이나, 남자유형 I의 경우는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37.6%, 관심이 없어서 22.6%,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12.9% 등으로 나타났다.

〈부표 2-5〉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운동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주위 운동여건 부족	같이 할 사람 없어서	몸이 약해서	관심 없음	게을러서	기타	계 (명)
전체	59.7	3.9	0.4	1.6	7.7	10.4	16.1	0.2	100.0 (955) ¹⁾
유형									
남자유형 I	37.6	12.9	-	3.2	9.7	22.6	12.9	1.1	100.0 (93)
남자유형 II	63.0	6.3	0.5	-	7.8	9.4	13.0	-	100.0 (192)
남자유형 III	71.4	-	-	-	-	7.1	21.4	-	100.0 (14)
남자유형 IV	70.8	-	-	1.9	1.2	8.1	18.0	-	100.0 (161)
여자유형 I	55.2	5.2	0.6	2.3	14.0	8.1	14.5	-	100.0 (172)
여자유형 II	61.3	1.6	1.6	3.2	12.1	8.1	12.1	-	100.0 (124)
여자유형 III	57.0	-	-	1.0	7.0	14.0	20.0	1.0	100.0 (100)
여자유형 IV	61.0	2.0	-	1.0	2.0	7.0	27.0	-	100.0 (100)

주: 1)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955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베이비 부모의 다양한 식품 섭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가 17.3%, 그렇다가 58.9%, 보통이다가 16.8%, 그렇지 않다가 6.6%, 전혀 그렇지 않다가 0.3%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체적으로

다양하게 식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한 경우가 76.2%로 나타나, 음식을 통한 건강유지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자의 경우 고용 형태 간 차이가 소득 계층 간 차이 보다 뚜렷하여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유형Ⅳ는 85.1%, 남자유형Ⅲ은 66.7%, 남자유형Ⅱ는 70.6%, 남자유형Ⅰ은 59.1%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소득 계층 간 차이는 뚜렷한 반면 고용 형태 간의 차이는 매우 적다.

〈부표 2-6〉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다양한 식품 섭취 여부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17.3	58.9	16.8	6.6	0.3	100.0 (3,027)
유형						
남자유형Ⅰ	11.1	48.0	26.3	14.0	0.6	100.0 (171)
남자유형Ⅱ	12.9	57.7	20.0	9.2	0.2	100.0 (480)
남자유형Ⅲ	16.7	50.0	23.8	9.5	-	100.0 (42)
남자유형Ⅳ	24.6	60.5	10.6	4.2	0.1	100.0 (737)
여자유형Ⅰ	11.1	56.0	23.4	9.3	0.2	100.0 (432)
여자유형Ⅱ	13.4	58.8	22.0	5.1	0.6	100.0 (313)
여자유형Ⅲ	18.4	62.9	13.2	5.5	-	100.0 (380)
여자유형Ⅳ	20.0	62.1	12.8	4.5	0.6	100.0 (470)

베이비 부머의 59.7%가 건강식품(종합비타민, 칼슘제, 보약 등)을 섭취하고 있고,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가 건강보조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조식품의 섭취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근로활동을 해온 유형(남자유형Ⅱ와 남자유형Ⅳ)은 소득 계층 간의 차이는 뚜렷하였으나,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근로활동을 해온 유형(남자유형Ⅰ과 남자유형Ⅲ)의 경우는 소득 계층 간의 차이는 없다. 여자의 경우 소득 계층 간의 차이는 뚜렷하였으나 고용 형태 간의 차이는 매우 적었다.

〈부표 2-7〉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건강식품 섭취 여부

(단위: %, 명)

구분	섭취 함	섭취 안함	계 (명)
전체	59.7	40.3	100.0 (3,027)
유형			
남자유형 I	39.9	60.1	100.0 (173)
남자유형 II	46.9	53.1	100.0 (480)
남자유형 III	39.0	61.0	100.0 (41)
남자유형 IV	63.0	37.0	100.0 (737)
여자유형 I	57.6	42.4	100.0 (432)
여자유형 II	55.9	44.1	100.0 (313)
여자유형 III	72.9	27.1	100.0 (380)
여자유형 IV	71.1	28.9	100.0 (470)

베이비 부머의 80.8%가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율은 남녀 모두 중상층에서는 85% 이상의 건강검진율을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소득 계층 간 차이 뚜렷하여 남자의 경우 중상층(남자유형III과 남자유형IV, 각각 69.8%, 72.9%)이 저소득층(남자유형 I 과 남자유형II, 각각 87.8%, 85.5%)에 비하여 건강검진율이 더 높고, 고용 형태 간에는 일정한 경향은 없다. 여자의 경우는 중상층 및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베이비 부머의 경우 건강검진율이 더 높은 수준이다.

유형별로 흡연, 음주, 건강검진, 운동실천, 다양한 식품섭취, 건강식품 복용 등 6개의 건강생활 실천행위를 요약해보면 평균적으로 6개 중 4.16개를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중 여자유형IV의 건강생활 실천율이 가장 높아 4.79이며 다음이 여자유형III으로 4.77개이다.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건강생활 실천율이 높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도 발견된다. 남자 중에서는 남자유형 I 이 3.09개로 실천율이 가장 낮다.

〈부표 2-8〉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건강생활 실천행위수

(단위: %, 명, 개)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계(명)	평균 갯수
전체	0.2	2.2	8.4	16.8	28.5	31.7	12.3	100.0 (3,027)	4.16
유형									
남자유형 I	-	11.0	21.5	31.4	22.7	11.6	1.7	100.0 (172)	3.09
남자유형 II	0.6	4.6	17.3	24.9	29.7	17.9	5.0	100.0 (481)	3.52
남자유형 III	-	2.4	21.4	38.1	16.7	19.0	2.4	100.0 (42)	3.36
남자유형 IV	0.1	1.4	9.6	18.6	34.0	30.4	6.0	100.0 (738)	4.00
여자유형 I	0.2	2.3	6.0	16.0	27.4	36.2	11.8	100.0 (431)	4.24
여자유형 II	-	1.0	4.4	15.9	27.6	36.8	14.3	100.0 (315)	4.38
여자유형 III	-	0.3	1.6	5.5	30.8	37.6	24.2	100.0 (380)	4.77
여자유형 IV	-	-	1.9	8.9	21.4	43.7	24.0	100.0 (471)	4.79

주: 흡연, 음주, 건강검진, 운동실천, 다양한 식품섭취, 건강식품복용 등 6개 생활실천 항목을 건강실천행위=1, 비건강실천행위=0으로 부호화하여 6개 항목을 더한 값임.

〈부표 2-9〉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건강검진 수신여부

(단위: %, 명)

구분	받은 적 있음	받지 않음	계 (명)
전체	80.8	19.2	100.0 (3,027)
유형			
남자유형 I	69.8	30.2	100.0 (172)
남자유형 II	72.9	27.1	100.0 (480)
남자유형 III	87.8	12.2	100.0 (41)
남자유형 IV	85.5	14.5	100.0 (738)
여자유형 I	75.2	24.8	100.0 (431)
여자유형 II	75.7	24.3	100.0 (313)
여자유형 III	86.8	13.2	100.0 (379)
여자유형 IV	88.9	11.1	100.0 (469)

2. 건강상태

베이비 부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본인의 건강에 대하여 동년배와 비교하여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3.9%, 좋은 편이다가 50.4%, 보통이다가 34.7%, 나쁜 편이다가 9.9%, 매우 나쁘다가 1.1%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54.3%로 절

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남자의 경우 소득 계층 간 차이가 고용형태간 보다 더 뚜렷하여 남자의 경우, 남자유형Ⅳ 67.9%, 남자유형Ⅲ 65.0%, 남자유형Ⅱ 56.5%, 남자유형Ⅰ 41.6%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소득 계층 간 차이는 뚜렷하여 중상층이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고용형태 간에는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베이비 부머의 경우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부표 2-10〉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

구분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 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계(명)
전체	3.9	50.4	34.7	9.9	1.1	100.0 (3,027)
유형						
남자유형Ⅰ	2.3	39.3	38.2	17.9	2.3	100.0 (173)
남자유형Ⅱ	4.6	51.9	32.9	9.0	1.7	100.0 (480)
남자유형Ⅲ	7.5	57.5	22.5	12.5	-	100.0 (40)
남자유형Ⅳ	6.8	61.1	28.5	3.5	0.1	100.0 (737)
여자유형Ⅰ	0.7	43.4	37.8	16.9	1.2	100.0 (431)
여자유형Ⅱ	2.2	39.2	39.2	15.9	3.5	100.0 (314)
여자유형Ⅲ	3.4	52.9	32.4	10.3	1.1	100.0 (380)
여자유형Ⅳ	3.8	47.5	41.8	6.6	0.2	100.0 (469)

베이비 부머의 만성질환율을 살펴보면, 비교적 낮은 수준인 27.1%가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의 경우 유형별로 일정한 경향성은 없으나, 여자의 경우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취약계층 여자의 건강상태가 가장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베이비 부머의 10.2%가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의 경우 저소득층으로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해온 경우(남자유형 I) 우울증상의 유병률이 13.4%로 상대적으로 높고, 여자의 경우 저소득층의 우울증상의 유병률은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해온 경우(여자유형 I, 17.6%)와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해온 경우(여자유형Ⅲ, 17.9%)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표 2-1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만성질환 및 우울증상 여부

(단위: %, 명)

구분	만성질환		우울증상		계(명)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27.1	72.9	10.2	89.8	100.0 (3,027)
유형					
남자유형 I	33.1	66.9	13.4	86.6	100.0 (172)
남자유형 II	24.4	75.6	7.5	92.5	100.0 (480)
남자유형 III	24.4	75.6	9.8	90.2	100.0 (41)
남자유형 IV	24.7	75.3	4.7	95.3	100.0 (738)
여자유형 I	29.0	71.0	17.6	82.4	100.0 (432)
여자유형 II	32.3	67.7	17.9	82.1	100.0 (313)
여자유형 III	26.1	73.9	10.0	90.0	100.0 (380)
여자유형 IV	27.0	73.0	8.5	91.5	100.0 (469)

이상의 베이비 부머의 건강 상태를 요약해보면 주관적 건강, 만성질환, 우울증 3개 항목 중 2.52점으로 대체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여자유형Ⅱ이 2.30으로 가장 낮고 남자유형Ⅳ이 2.67점으로 가장 높은 등 유형별 차이가 보이고 있다.

〈부표 2-1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건강 점수

(단위: %, 명)

구분	없음	1점	2점	3점	계(명)	평균 점수
전체	2.5	8.6	23.7	65.3	100.0 (3,027)	2.52
유형						
남자유형 I	7.6	7.6	29.7	55.2	100.0 (172)	2.33
남자유형 II	1.7	7.7	21.7	69.0	100.0 (480)	2.58
남자유형 III	-	12.2	19.5	68.3	100.0 (41)	2.54
남자유형 IV	0.3	4.5	23.4	71.8	100.0 (738)	2.67
여자유형 I	5.1	12.0	25.5	57.4	100.0 (432)	2.35
여자유형 II	4.5	13.1	30.6	51.9	100.0 (314)	2.30
여자유형 III	1.8	11.3	19.0	67.8	100.0 (379)	2.52
여자유형 IV	1.9	7.4	21.9	68.7	100.0 (470)	2.58

주: 건강점수는 주관적 건강(좋다, 나쁘다), 만성질환(없다, 있다), 우울증(없다, 있다)로 건강=1, 비건강=0으로 부호화하여 3개 항목을 더한 값임.

베이비 부머의 건강관리를 위한 희망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기적 건강검진이 38.4%, 식이 또는 운동처방이 17.4%, 건강 및 질병상담이 13.3%, 건강교육이 8.8%, 스트레스와 우울증관리가 5.9%, u-헬스가 4.8%, 질병관리서비스가 4.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희망서비스가 없는 경우도 5.2%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 모두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 및 질병상담, 건강교육,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에 대한 희망서비스가 높은 반면, 중상층에서는 식이 또는 운동처방, 정기적 건강검진에 대한 희망서비스가 대체로 더 높았다.

〈부표 2-13〉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건강관리를 위한 희망서비스의 내용

(단위: %)

구분	없음	건강 및 질병 상담	건강교육	식이 또는 운동 처방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	약물오용관련 교육 상담
전체	5.2	13.3	8.8	17.4	5.9	0.5
남자유형 I	7.6	18.0	8.1	10.5	4.1	-
남자유형 II	6.4	14.1	11.9	14.8	4.0	1.0
남자유형 III	9.5	7.1	7.1	11.9	2.4	-
남자유형 IV	6.4	11.4	7.5	18.6	2.0	0.3
여자유형 I	4.2	15.8	9.8	15.8	9.8	-
여자유형 II	4.5	17.9	8.9	15.7	8.9	0.3
여자유형 III	2.9	14.5	8.2	18.5	9.0	1.6
여자유형 IV	4.5	8.3	7.4	23.2	7.2	-

〈부표 2-13〉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건강관리를 위한 희망서비스의 내용(계속)

(단위: %, 명)

구분	정기적 건강검진	질병관리 서비스	u-헬스	방문간호 서비스	기타	계(명)
전체	38.4	4.0	4.8	1.6	0.0	100.0 (3,027)
남자유형 I	39.0	2.9	8.1	1.7	-	100.0 (172)
남자유형 II	38.5	4.0	3.7	1.7	-	100.0 (481)
남자유형 III	45.2	4.8	11.9	-	-	100.0 (42)
남자유형 IV	44.0	3.0	6.4	0.5	-	100.0 (737)
여자유형 I	35.3	3.7	3.0	2.6	-	100.0 (430)
여자유형 II	32.6	5.4	3.5	2.2	-	100.0 (313)
여자유형 III	35.9	3.2	4.7	1.6	-	100.0 (379)
여자유형 IV	37.2	6.0	4.5	1.5	0.2	100.0 (470)

제3절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경제상태

1. 소득 및 자산 현황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448만원이다. 남자유형 I 과 남자유형 II에서는 평균 216만원과 249만원으로 나타났다. 남자유형 III의 가구소득은 월평균 500만원이며, 남자유형 IV는 628만원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여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I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이 평균 231만원과 240만원으로 나타났다. 여자유형 III과 여자유형 IV의 경우 가구소득이 593만원과 667만원으로 여자유형 IV가 8개 유형 중 가장 높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나타냈다.

〈부표 3-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월평균 총 가구소득

(단위: 만원, %, 명)

구분	200만원 미만	200~400 만원미만	400~600 만원미만	600 만원이상	계(명)	평균 액수
전체	15.9	34.1	28.3	21.7	100.0(3,027)	448.07
유형						
남자유형 I	40.5	58.4	1.2	0.0	100.0(173)	216.56
남자유형 II	31.7	61.9	6.5	0.0	100.0(480)	249.79
남자유형 III	0.0	19.5	46.3	34.1	100.0(41)	500.68
남자유형 IV	0.0	9.5	50.8	39.7	100.0(738)	628.40
여자유형 I	37.5	58.3	4.2	0.0	100.0(432)	231.68
여자유형 II	31.0	65.2	3.8	0.0	100.0(313)	240.76
여자유형 III	0.0	14.7	50.5	34.7	100.0(380)	593.65
여자유형 IV	0.0	9.6	44.1	46.3	100.0(469)	667.22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가구소득을 균등화한 수치를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유형 I이 가장 낮으며, 여자유형IV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표 3-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월평균가구소득(가구원수에 따른 균등화)

(단위: 만원, %, 명)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미만	200~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계(명)	평균 액수
전체	9.7	36.4	30.6	23.3	100.0(3,019) ¹⁾	240.64
유형						
남자유형 I	23.3	76.7	0.0	0.0	100.0(172)	124.53
남자유형 II	20.6	79.4	0.0	0.0	100.0(480)	135.08
남자유형 III	0.0	0.0	63.4	36.6	100.0(41)	275.15
남자유형 IV	0.0	0.0	57.7	42.3	100.0(738)	331.34
여자유형 I	22.4	77.6	0.0	0.0	100.0(429)	131.32
여자유형 II	19.0	81.0	0.0	0.0	100.0(311)	134.71
여자유형 III	0.0	0.0	62.8	37.2	100.0(379)	315.95
여자유형 IV	0.0	0.0	50.1	49.9	100.0(469)	355.85

주: 1) 무응답 8명을 제외한 3,019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자산 규모는 평균 364백만원이며, 1억 미만이 29.2%, 1~3억 미만이 31.7%, 3~5억 미만이 15.9%, 5억 이상이 23.2%로 나타났다. 남자유형 I의 경우 1억 미만이 73.3%로 가장 높으며, 1~3억 미만이 25.6%로 대부분 3억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유형 II의 경우 1억 미만이 45.7%이며, 1~3억 미만이 33.8%로 나타났다. 3~5억 미만이 11.7%로 남자유형 I이 평균 72.67백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남자유형 II는 187.12백만원의 평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유형 III은 306.96백만원, 남자유형 IV은 511.07백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여자 베이비 부모의 경우는 여자유형 I은 162.87백만원의 평균 자산을 가지고 있어 남자유형 I에 비해 높은 자산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유형 III의 경우는 555.82백만원, 여자유형 IV은 606.39백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부표 3-3〉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자산분포

(단위: 백만원, %, 명)

구분	1억미만	1~3억 미만	3~5억 미만	5억이상	계(명)	평균 액수
전체	29.2	31.7	15.9	23.2	100.0(3,022) ¹⁾	364.48
유형						
남자유형 I	73.3	25.6	1.2	0.0	100.0(172)	72.67
남자유형 II	45.7	33.8	11.7	8.8	100.0(479)	187.12
남자유형 III	24.4	36.6	17.1	22.0	100.0(41)	306.96
남자유형 IV	9.5	31.8	23.2	35.5	100.0(738)	511.07
여자유형 I	53.6	31.3	7.4	7.7	100.0(431)	162.87
여자유형 II	49.5	39.0	7.3	4.2	100.0(313)	143.81
여자유형 III	10.3	34.3	20.3	35.1	100.0(379)	555.82
여자유형 IV	7.0	24.7	23.7	44.6	100.0(469)	606.39

주: 1) 무응답 5명을 제외한 3,02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베이비부머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66.7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채가 없는 비율은 42.8%, 30% 미만이 36.1%, 30~60% 미만이 12.2%이며,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비율 또한 6.5%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에서는 우선 남자와 여자 모두 저소득에서 부채의 평균 비율이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중상 집단에서는 부채의 비율이 20% 미만으로 소득집단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3-4〉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자산대비 부채비율

(단위: %, 명)

구분	없음	30% 미만	30-60% 미만	60-100% 미만	100% 이상	계(명)	평균 비율
전체	42.8	36.1	12.2	2.4	6.5	100.0(2,979)	66.74
유형							
남자유형 I	53.1	16.7	20.4	0.6	9.3	100.0(162)	105.46
남자유형 II	44.8	28.5	12.0	2.6	12.2	100.0(467)	149.16
남자유형 III	42.5	45.0	10.0	0.0	2.5	100.0(40)	14.80
남자유형 IV	38.3	45.2	12.2	2.7	1.6	100.0(737)	15.80
여자유형 I	46.3	27.9	11.1	3.1	11.6	100.0(423)	128.91
여자유형 II	39.5	30.4	12.4	3.3	14.4	100.0(306)	105.30
여자유형 III	43.5	40.6	10.9	2.7	2.4	100.0(377)	17.40
여자유형 IV	43.0	42.8	11.6	1.1	1.5	100.0(467)	14.04

주: 1) 무응답 48명을 제외한 2,979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경제적 계층의식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계층의식은 본인이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9%이며, 중층이 55.5%, 하층은 41.6%로 나타났다. 경제적 계층의식은 저소득과 중상에 따라 저소득층은 하층을 중상층은 중층이라고 의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유형III은 여자유형III에 비해서 본인이 하층이라고 의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3-5〉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경제적 계층의식

(단위: %, 명)

구분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계(명)
전체	0.8	2.1	23.6	31.9	23.6	18.0	100.0(3,021) ¹⁾
유형							
남자유형 I	0.0	0.0	1.7	12.2	37.2	48.8	100.0(172)
남자유형 II	0.0	0.6	7.5	30.0	33.1	28.8	100.0(480)
남자유형 III	0.0	0.0	29.3	34.1	22.0	14.6	100.0(41)
남자유형 IV	1.1	4.5	39.8	35.1	15.2	4.3	100.0(737)
여자유형 I	0.0	0.0	5.8	24.6	33.9	35.7	100.0(431)
여자유형 II	0.6	0.0	5.1	33.8	31.8	28.7	100.0(314)
여자유형 III	1.6	2.4	35.7	39.7	16.1	4.5	100.0(378)
여자유형 IV	1.9	4.1	41.0	34.8	13.5	4.7	100.0(468)

주: 1) 무응답 6명을 제외한 3,02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베이비부모의 청소년 시절 경제생활 수준은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좋음이 13.5%, 평균이 35.1%, 나쁨이 31.2%, 매우 나쁨이 16.2%로 나타났다. 남자 베이비 부모의 경우는 청소년시절 경제 생활 수준을 여자에 비해서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자유형III의 경우 그와 같은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에 반해 여자유형III과 여자유형IV은 청소년 시절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매우 좋거나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표 3-6〉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청소년시절 경제생활수준

(단위: %, 명)

구분	매우 좋음	좋음	평균	나쁨	매우 나쁨	계(명)
전체	4.0	13.5	35.1	31.2	16.2	100.0(3,024) ¹⁾
유형						
남자유형 I	0.6	11.6	23.7	29.5	34.7	100.0(173)
남자유형 II	3.8	11.5	29.0	37.2	18.6	100.0(479)
남자유형 III	4.9	9.8	31.7	36.6	17.1	100.0(41)
남자유형 IV	3.4	13.0	35.0	33.3	15.3	100.0(738)
여자유형 I	4.6	12.0	28.9	32.4	22.0	100.0(432)
여자유형 II	4.2	11.5	35.8	32.3	16.3	100.0(313)
여자유형 III	6.1	18.2	41.2	25.9	8.7	100.0(379)
여자유형 IV	4.3	16.4	46.1	24.5	8.7	100.0(469)

주: 1) 무응답 3명을 제외한 3,02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베이비부머의 향후 10년 후 경제수준에 대한 기대에서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0%이며,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8%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남자유형 I의 경우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남자 중상층의 경우 임시직과 상용직 모두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자 저소득층의 경우 10년후 경제수준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남자 저소득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중상층(여자유형 III과 여자유형 IV)의 경우는 남자 중상층(남자유형 III과 남자유형 IV)과 같이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3-7〉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10년 후 경제수준에 대한 기대

(단위: %, 명)

구분	매우좋아짐	좋아짐	지금과 유사	나빠짐	매우 나빠짐	계(명)
전체	3.0	38.0	40.3	16.6	2.2	100.0(3,022) ¹⁾
유형						
남자유형 I	1.7	27.2	39.6	26.6	4.6	100.0(173)
남자유형 II	0.8	33.6	44.1	15.7	5.8	100.0(479)
남자유형 III	16.7	26.2	45.2	11.9	0.0	100.0(42)
남자유형 IV	4.9	43.0	36.5	14.7	0.9	100.0(737)
여자유형 I	0.0	34.6	42.2	20.4	2.8	100.0(431)
여자유형 II	2.6	35.5	42.2	17.9	1.9	100.0(313)
여자유형 III	4.2	40.6	40.1	14.5	0.5	100.0(379)
여자유형 IV	3.6	42.1	39.1	14.7	0.4	100.0(468)

주: 1) 무응답 5명을 제외한 3,02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소비

베이비부모의 유형별 수입대비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75.8%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대비 지출비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저소득에서는 약 80%대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유형II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101.6%로 높게 나타났다. 중상 유형에서는 소득의 약 60%대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표 3-8〉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소비대비 지출비율

(단위: %, 명)

구분	평균 비율	50% 미만	50~80% 미만	80~100% 미만	100% 이상	계(명)
전체	75.8	7.6	59.6	28.5	4.2	100.0(3,017) ¹⁾
유형						
남자유형 I	82.3	2.9	40.5	48.6	8.1	100.0(173)
남자유형 II	84.6	2.7	42.7	44.6	10.0	100.0(478)
남자유형 III	69.8	14.6	53.7	31.7	0.0	100.0(41)
남자유형 IV	66.7	11.1	72.5	16.0	0.4	100.0(738)
여자유형 I	80.7	3.3	47.2	41.4	8.2	100.0(428)
여자유형 II	101.6	1.0	48.4	42.9	7.7	100.0(310)
여자유형 III	66.3	10.3	74.9	14.2	0.5	100.0(379)
여자유형 IV	65.3	14.5	70.6	14.7	0.2	100.0(470)

주: 1) 무응답 10명을 제외한 3,01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베이비부모의 월 수입대비 저축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15.36%를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혀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17.6%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남자 저소득(남자유형 I 과 남자유형 II)의 경우 평균적으로 수입대비 약 9%대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저소득층(여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I)의 경우도 약 10%대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중상층 집단(남자유형 III, 남자유형 IV, 여자유형 III, 여자유형 IV)의 경우는 18%~23%대의 저축을 하고 있어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저축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 집단(남자유형 I, 남자유형 II, 여자유형 I, 여자유형 II)에서는 전혀 저축을 하고 있지 못하는 비율이 30%대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부표 3-9〉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월 저축비율

(단위: %, 명)

구분	평균 비율	전혀 없음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 이상	계(명)
전체	15.36	17.6	22.0	30.0	17.9	5.8	100.0(3,015) ¹⁾
유형							
남자유형 I	9.51	37.0	20.2	29.5	7.5	5.8	100.0(173)
남자유형 II	9.27	31.7	26.5	29.4	8.8	3.6	100.0(476)
남자유형 III	20.10	0.0	19.5	43.9	14.6	22.0	100.0(41)
남자유형 IV	18.23	5.7	20.6	34.1	24.3	15.3	100.0(738)
여자유형 I	10.42	32.2	24.3	25.2	11.4	6.8	100.0(428)
여자유형 II	10.10	33.0	26.0	26.9	8.3	5.8	100.0(312)
여자유형 III	20.04	3.7	17.4	32.7	25.6	20.6	100.0(379)
여자유형 IV	23.0	3.8	19.4	27.4	27.4	22.0	100.0(468)

주: 1) 무응답 12명을 제외한 3,015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4. 노후 준비 및 노후 의식

베이비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율을 살펴보면, 건강 요양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이외의 민간 건강보험의 가입률로서, 80%대의 높은 가입률을 볼 수 있다. 특히 중상층 집단은 90% 이상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며, 저소득층 집단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유형 I의 경우 건강요양 위험에 대한 준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망위험에 대한 준비율 또한 중상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남자유형 IV의 경우 52.7%가 사망보험 등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남자유형 I의 경우 사망위험에 대한 준비율은 2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노후 생활자금을 위한 노후 연금 가입은 남자유형 IV과 여자유형 IV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자에 비해 남자의 노후 연금 가입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저소득의 경우 노후 연금 가입률이 10% 안팎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긴급한 자금 필요에 의한 목돈 마련을 또한 중상층은 저소득층에 비해서 그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3-10〉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경제적 노후 준비율

(단위: %, 명)

구분	건강요양위험		사망위험		노후연금		목돈마련 등		계(명)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전체	84.1	85.3	35.9	36.5	24.0	24.7	44.2	40.3	100.0 (3,027)
유형									
남자유형Ⅰ	61.0	76.9	19.2	23.1	5.2	11.1	26.7	31.5	100.0 (172)
남자유형Ⅱ	75.0	82.2	27.7	18.8	10.4	9.4	19.2	36.0	100.0 (480)
남자유형Ⅲ	85.4	94.3	31.7	36.1	22.0	19.4	53.7	71.4	100.0 (41)
남자유형Ⅳ	91.0	91.5	52.7	44.7	40.7	30.9	48.4	64.0	100.0 (738)
여자유형Ⅰ	78.0	74.7	18.1	27.8	8.4	10.5	32.6	17.3	100.0 (432)
여자유형Ⅱ	82.4	68.5	22.4	21.5	9.6	10.3	38.5	9.1	100.0 (314)
여자유형Ⅲ	91.3	91.5	39.3	45.7	30.1	34.7	62.5	41.0	100.0 (379)
여자유형Ⅳ	91.5	91.9	47.0	50.1	37.7	42.5	68.2	40.0	100.0 (469)

노후 생활자금의 한 유형으로 활용 가능한 주택연금에 대한 인지율은 85.3%로 매우 높으며 특히 남자와 여자 모두 중상층 유형에서 주택연금에 대한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을 향후에 이용할 의향에 대해서는 남자유형Ⅳ, 여자유형Ⅲ 및 여자유형Ⅳ서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서는 무주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표 3-1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주택연금 인지도 및 이용의사

(단위: %, 명)

구분	인지율	이용의사				계(명)
		이용의사 있음	없음	생각해본적이 없음	주택없음	
전체	85.3	23.0	28.0	29.5	19.4	100.0(3,027)
유형						
남자유형 I	74.0	14.5	14.0	25.6	45.9	100.0(172)
남자유형 II	81.7	19.4	24.2	28.8	27.7	100.0(480)
남자유형 III	85.4	19.5	31.7	26.8	22.0	100.0(41)
남자유형 IV	92.9	27.7	35.7	29.4	7.2	100.0(737)
여자유형 I	74.2	15.5	21.6	29.2	33.6	100.0(431)
여자유형 II	82.1	19.4	19.1	27.1	34.4	100.0(314)
여자유형 III	87.9	26.6	32.9	32.1	8.4	100.0(380)
여자유형 IV	91.1	29.4	32.8	31.7	6.2	100.0(470)

베이비 부머의 공적연금 가입여부 및 월 연금액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남자유형II과 남자유형III 및 남자유형IV의 경우는 공적연금을 가입중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남자유형 I과 여자유형 I 및 여자유형II과 여자유형III의 경우는 공적연금 불입률이 낮다. 특히 남자유형IV의 경우 89.8%가 공적연금을 불입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자유형IV의 경우는 46.0%만이 불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여자가 경우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이는 결과이다.

노후에 받을 연금액에 대한 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12.1%이며, 대략 알고 있는 경우가 54.3%, 알지 못하는 경우가 33.5%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유형 I의 경우 연금액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비율이 56.9%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유형III의 경우 또한 45.5%로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여자유형 I과 여자유형II일 경우에 연금액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3-1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공적연금 가입여부 및 월 연금액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공적연금 가입 여부				계(명)	연금액 인지			계(명)
	미가입	수령중	불입중	가입, 미불입		정확히 알고있음	대략 알고있음	모름	
전체	35.8	0.5	51.4	12.3	100.0(3,027) ¹⁾	12.1	54.3	33.5	100.0(1,929) ²⁾
유형									
남자유형 I	36.6	0.0	32.0	31.4	100.0(172)	6.4	36.7	56.9	100.0(109)
남자유형 II	14.8	0.2	62.0	23.1	100.0(480)	9.0	52.8	38.1	100.0(409)
남자유형 III	19.0	0.0	57.1	23.8	100.0(41)	3.0	51.5	45.5	100.0(33)
남자유형 IV	3.8	1.1	89.8	5.3	100.0(737)	18.8	60.8	20.4	100.0(702)
여자유형 I	65.7	0.2	23.6	10.4	100.0(431)	2.7	32.9	64.4	100.0(146)
여자유형 II	47.1	0.3	33.8	18.8	100.0(314)	5.4	48.8	45.8	100.0(166)
여자유형 III	71.6	0.5	24.5	3.4	100.0(380)	5.7	62.9	31.4	100.0(105)
여자유형 IV	44.5	0.4	46.0	9.1	100.0(470)	14.7	59.1	26.3	100.0(259)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2) 본인응답자 3,027명 중 공적연금에 가입한 1,929명(불입자, 가입했으나 미불입자)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제4절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사회 참여

1. 경제활동

가. 현재의 경제활동 특성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 특성을 살펴보면, 79.6%가 경제활동중이며, 약 20%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비율은 남자의 경우 남자유형IV, 남자유형II, 남자유형III, 남자유형 I의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자유형IV의 경우 97.2%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여자유형 I, 여자유형III, 여자유형II, 여자유형IV의 순으로 경제활동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남자 베이비 부머와는

반대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여자의 경우 본인의 수입보다는 배우자의 수입에 의해 소득 수준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상층일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여자는 낮게 나타난다.

베이비 부모의 현재의 일이 최장 직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최장 직종과 같은 일이 비율인 54.1%이며, 유사한 일이 5.3%, 다른 종류의 일은 20.2%로 나타났다. 현재의 베이비 부모의 과반수 정도는 인생의 주요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자의 경우 최장직종과 같은 일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여자 베이비 부모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경력 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부표 4-1〉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경제활동여부 및 최장 직종과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경제활동 참여율 ¹⁾	최장 직종과의 관계			
		다른 종류의일	유사한 일	같은 일	계(명)
전체	79.6	20.2	5.3	54.1	100.0(2,889) ²⁾
유형					
남자유형 I	84.4	12.8	4.1	67.4	100.0(172)
남자유형 II	91.0	31.9	4.0	55.2	100.0(480)
남자유형 III	87.5	22.5	2.5	62.5	100.0(40)
남자유형 IV	97.2	24.1	5.4	67.6	100.0(738)
여자유형 I	72.9	18.0	6.1	48.9	100.0(395)
여자유형 II	61.3	20.1	7.6	33.8	100.0(314)
여자유형 III	71.8	12.5	6.8	52.5	100.0(280)
여자유형 IV	60.6	11.1	4.3	45.3	100.0(470)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은 제외함.

2) 본인응답자 3,027명 중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2,889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베이비 부머의 현 직업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31.9%이며, 단독 자영업자가 22.5%,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15.0%, 임시직 임금 근로자가 13.4%로 나타났다. 유형 구분을 최장 종사상 지위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자유형 I의 경우 여전히 임시직, 일용직 임금 근로자로 남아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남자유형 II의 경우 단독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유형 III의 경우는 현재도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자유형 II의 경우 여전히 상용직, 고용주, 단독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여자유형 I의 경우 여전히 임시직 또는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무급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자유형 II의 경우는 단독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으며, 여자유형 III의 경우는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여자유형 IV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와 단독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부표 4-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현 직업의 종사상 지위¹⁾

(단위: %, 명)

구분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단독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계(명)
전체	31.9	13.4	15.0	8.8	22.5	8.2	0.0	100.0(2,302) ²⁾
유형								
남자유형 I	0.7	32.9	60.3	0.0	3.4	2.7	0.0	100.0(146)
남자유형 II	33.1	9.1	11.2	5.3	40.2	0.9	0.2	100.0(438)
남자유형 III	5.9	14.7	55.9	0.0	11.8	8.8	2.9	100.0(34)
남자유형 IV	54.3	2.1	1.8	18.4	23.1	0.3	0.0	100.0(718)
여자유형 I	5.2	34.4	32.3	0.0	2.4	25.3	0.3	100.0(288)
여자유형 II	25.8	12.9	17.5	3.6	36.6	3.1	0.5	100.0(194)
여자유형 III	3.0	31.8	15.9	0.5	4.5	44.3	0.0	100.0(201)
여자유형 IV	44.2	4.2	6.3	13.7	28.4	3.2	0.0	100.0(285)

주: 1) 베이비부머의 현 직업의 종사기간을 살펴보면, 20년 이상인 경우 35.8%로 이들은 현 직업에서 계속 종사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음. 중년기 이후에 이직을 했을 가능성을 갖고 있는 5년 미만의 비율은 약 21.9%로 나타남. 즉, 베이비부머의 약 1/5는 주요 직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직업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경향은 남자에 비해서 여자 베이비부머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임시직과 저소득 상용직의 경우 5년 미만의 종사기간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자 베이비부머의 경우 육아를 거의 마치고 나서 다시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으로 여자의 전형적인 근로패턴인 M자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음.

2)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302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4-3〉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현 직업의 종사기간

(단위: %, 명)

구분	1년 미만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계(명)
전체	3.9	18.0	17.2	14.5	10.6	35.8	100.0(2,302) ¹⁾
유형							
남자유형 I	0.7	10.3	18.5	6.8	19.9	43.8	100.0(146)
남자유형 II	3.4	18.3	15.8	11.7	11.7	39.1	100.0(437)
남자유형 III	0.0	5.6	16.7	19.4	8.3	50.0	100.0(36)
남자유형 IV	1.5	10.0	13.2	13.9	10.6	50.6	100.0(717)
여자유형 I	10.1	25.1	18.8	13.9	7.0	25.1	100.0(287)
여자유형 II	6.7	38.1	19.6	13.9	10.3	11.3	100.0(194)
여자유형 III	7.0	26.9	17.4	18.9	9.0	20.9	100.0(201)
여자유형 IV	2.1	15.8	25.6	21.8	9.5	25.3	100.0(285)

주: 1)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302명을 대상으로 함

베이비 부머의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불만족하는 비율인 약 20%로 나타났다. 특히 불만족하는 비율은 남자유형 I 과 남자유형 II, 남자유형 III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비율은 여자도 동일하게 여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I, 여자유형 III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표 4-4〉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계(명)
전체	9.6	46.2	24.7	17.5	2.0	100.0(2,302) ¹⁾
유형						
남자유형 I	0.7	34.9	27.4	28.8	8.2	100.0(146)
남자유형 II	4.8	40.5	30.4	21.5	2.7	100.0(437)
남자유형 III	5.7	42.9	25.7	22.9	2.98	100.0(35)
남자유형 IV	16.0	55.0	18.0	9.9	1.1	100.0(717)
여자유형 I	3.1	36.3	33.6	24.2	2.8	100.0(289)
여자유형 II	6.7	41.5	28.5	22.8	0.5	100.0(193)
여자유형 III	6.5	40.5	29.5	22.5	1.0	100.0(200)
여자유형 IV	16.5	56.0	16.2	10.2	1.1	100.0(284)

주: 1)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302명을 대상으로 함

베이비 부모의 77.7%가 노후에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은 앞서 살펴본 현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성이 높는데 중상층이면서 안정적인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베이비 부모(남자유형Ⅳ와 여자유형Ⅳ)는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부표 4-5〉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계속 고용희망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명)
전체	10.6	67.1	8.9	11.5	1.9	100.0(2,302) ¹⁾
유형						
남자유형Ⅰ	6.8	61.6	9.6	17.1	4.8	100.0(146)
남자유형Ⅱ	6.9	67.0	11.4	11.7	3.0	100.0(437)
남자유형Ⅲ	5.7	74.3	5.7	11.4	2.9	100.0(35)
남자유형Ⅳ	15.6	70.4	5.0	8.4	0.6	100.0(717)
여자유형Ⅰ	4.9	67.0	11.8	13.2	3.1	100.0(288)
여자유형Ⅱ	6.7	68.4	8.8	15.0	1.0	100.0(193)
여자유형Ⅲ	8.5	57.2	17.9	14.4	2.0	100.0(201)
여자유형Ⅳ	15.8	67.3	5.6	10.2	1.1	100.0(284)

주: 1)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302명을 대상으로 함

베이비 부모의 현재 고용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저소득층(남자유형Ⅰ과 남자유형Ⅱ)에서 고용 불안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남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고용에 대한 불안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4-6〉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계속 고용에 대한 불안함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명)
전체	2.6	25.6	13.6	50.8	7.4	100.0(2,298) ¹⁾
유형						
남자유형 I	4.8	37.0	18.5	37.0	2.7	100.0(146)
남자유형 II	3.7	32.7	11.9	45.8	5.9	100.0(437)
남자유형 III	5.9	29.4	8.8	55.9	0.0	100.0(34)
남자유형 IV	2.5	22.2	12.3	53.8	9.2	100.0(716)
여자유형 I	3.5	27.1	17.4	46.5	5.6	100.0(288)
여자유형 II	1.0	32.3	14.1	45.8	6.8	100.0(192)
여자유형 III	1.0	20.4	13.9	57.7	7.0	100.0(201)
여자유형 IV	0.7	14.8	13.0	60.2	11.3	100.0(284)

주: 1)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302명 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함

40대 이후에 퇴직을 경험한 베이비 부머의 퇴직으로 인한 생활에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1%이며, 특히 남자유형 I 과 남자유형 II의 경우는 배우자와의 관계의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도 저소득층일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의 악화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자에 비해 남자 베이비부머의 퇴직은 배우자 관계의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 악화를 경험한 경우 또한 남자 저소득층(남자유형 I 과 남자유형 II)에서 높게 나타나며, 배우자 관계에서의 악화와 같이 여자에 비해 남자들의 관계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 악화 비율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서 느끼는 관계 악화 경험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 악화를 경험한 비율은 48.9%이며, 특히 남자 저소득층(남자유형 I 과 남자유형 II)의 경우 높으며, 여자 저소득층(여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I)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표 4-7〉 40대 이후 퇴직 경험한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생활변화(나빠진 비율)

(단위: %, 명)

구분	배우자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관계	전반적인 생활만족	계(명)
전체	21.0	10.1	7.5	48.9	100.0(875) ¹⁾
유형					
남자유형 I	46.2	29.3	13.5	68.5	100.0(57)
남자유형 II	38.6	21.8	12.7	66.7	100.0(162)
남자유형 III	16.7	0.0	0.0	25.0	100.0(12)
남자유형 IV	23.4	9.8	9.9	33.4	100.0(174)
여자유형 I	12.6	4.8	5.3	53.9	100.0(154)
여자유형 II	20.3	8.2	6.5	61.4	100.0(127)
여자유형 III	11.2	1.1	2.5	29.1	100.0(93)
여자유형 IV	9.9	5.3	1.2	33.7	100.0(95)

주: 1) 40대 이후 퇴직 경험이 있는 875명을 대상으로 함

나. 노후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

베이비 부머의 노후에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는 63.9%가 희망하고 있으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저소득층(남자유형 I 과 남자유형 II)에서는 노후에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90% 내외로 매우 높으며, 남자 중상층(남자유형 III과 남자유형 IV)의 경우는 그에 비해 낮았다. 여자 베이비부머의 경우 또한 저소득층(여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I)이 중상층(여자유형 III과 여자유형 IV)에 비해서 노후에도 계속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유형 III의 경우 노후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3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중상층의 경우 또한 소득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건강, 자기발전과 여가 등의 다양한 이유가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저소득층은 소득을 위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상층의 경우는 자기발전과 여가를 위해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표 4-8〉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경제활동 희망여부 및 이유

(단위: %, 명)

구분	노후 경제활동 희망률 ¹⁾	경제활동 희망 이유				계(명)
		소득	건강	자기발전/ 여가	기타	
전체	63.9	58.4	16.1	22.0	3.4	100.0(1,935) ²⁾
유형						
남자유형 I	91.9	83.5	12.7	3.8	0.0	100.0(158)
남자유형 II	87.1	71.5	12.0	14.8	1.7	100.0(418)
남자유형 III	59.5	52.0	24.0	20.0	4.0	100.0(25)
남자유형 IV	76.7	45.2	19.4	31.1	4.2	100.0(566)
여자유형 I	56.9	72.5	15.8	10.1	1.6	100.0(247)
여자유형 II	56.5	59.3	18.6	16.9	5.1	100.0(177)
여자유형 III	37.1	47.9	16.9	30.3	4.9	100.0(142)
여자유형 IV	43.0	38.6	14.9	39.6	6.9	100.0(202)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을 대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2) 본인응답자 3,027명 중 노후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1,93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베이비 부머 중 노후에 경제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가 69.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안에서의 역할을 위해가 17.2%로 높게 나타났다. 남자유형 I의 경우는 기능(건강)악화로 일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57.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자 베이비 부머 중 노후에 근로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가내 역할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부표 4-9〉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근로활동 희망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경제적 여유	일할 필요 없음	체면손상	여를 즐기 위해	가내역학	기능악화	계(명)
전체	1.0	4.3	0.5	69.0	17.2	8.1	100.0(1,096) ¹⁾
유형							
남자유형 I	0.0	7.1	0.0	28.6	7.1	57.1	100.0(14)
남자유형 II	0.0	4.8	1.6	79.4	4.8	9.5	100.0(63)
남자유형 III	5.9	0.0	0.0	94.1	0.0	0.0	100.0(17)
남자유형 IV	1.2	2.3	1.2	91.3	2.3	1.7	100.0(172)

구분	경제적 여유	일할 필요 없음	체면손상	여름 출기 위해	가내역학	기능악화	계(명)
여자유형 I	0.5	2.1	0.0	53.5	29.4	14.4	100.0(187)
여자유형 II	0.0	0.7	0.7	55.9	26.5	16.2	100.0(136)
여자유형 III	2.1	8.4	0.4	63.2	20.5	5.4	100.0(239)
여자유형 IV	0.7	5.2	0.0	75.4	14.9	3.7	100.0(268)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 중 노후 경제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1,09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노후에 희망하는 경제활동 패턴은 종일근무가 31.1%, 파트타임이 45.7%, 자유형태가 23.2%로 노후에는 종일근무 보다는 파트타임이나 자유로운 형태의 일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소득수준이나 최장 직종과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종일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은 약 30~40%대이다. 그에 비해 여자의 경우는 종일근무보다는 파트타임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와 여자 중상층의 경우는 자유형태의 일을 노후에 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4-10> 노후 경제활동 희망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희망 근로 형태

(단위: %, 명)

구분	종일근무	파트타임	자유형태	계(명)
전체	31.1	45.7	23.2	100.0(1,935) ¹⁾
유형				
남자유형 I	35.4	44.3	20.3	100.0(158)
남자유형 II	39.5	37.6	23.0	100.0(418)
남자유형 III	36.0	32.0	32.0	100.0(25)
남자유형 IV	36.2	41.3	22.6	100.0(567)
여자유형 I	23.2	61.0	15.9	100.0(246)
여자유형 II	26.4	55.1	18.5	100.0(178)
여자유형 III	17.7	45.4	36.9	100.0(141)
여자유형 IV	18.8	51.1	29.7	100.0(202)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 중 노후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1,93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베이비 부모가 느끼는 노후의 일에 대한 중요성은 70% 가량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비율은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서 높으며, 유형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점수를 살펴보면 남자유형 I 과 상용직이 각각 4.02로 가장 높았으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일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4-11〉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노후 일의 중요성

(단위: %, 명)

구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평균 점수 ¹⁾	계(명)
전체	13.3	57.4	20.6	8.1	0.5	3.75	100.0(3,027)
유형							
남자유형 I	22.5	59.5	14.5	2.9	0.6	4.02	100.0(173)
남자유형 II	20.2	64.6	11.7	3.5	0.0	4.02	100.0(480)
남자유형 III	9.8	46.3	29.3	14.6	0.0	3.52	100.0(41)
남자유형 IV	16.1	63.7	14.0	6.0	0.3	3.90	100.0(738)
여자유형 I	9.3	52.4	27.1	10.4	0.7	3.59	100.0(431)
여자유형 II	9.9	58.1	19.8	11.8	0.3	3.66	100.0(313)
여자유형 III	7.9	46.8	32.4	11.3	1.6	3.49	100.0(380)
여자유형 IV	9.1	53.2	26.8	10.4	0.4	3.60	100.0(470)

주: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 매우 중요하다가 5점까지로 5점 만점임.

2.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가. 여가활동

베이비 부모가 최근 1개월 간 주로 한 여가활동 중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순위에서만 살펴보면, 운동(22.6), 산책(14.2), 등산(13.2), 책읽기(10.0), 친목모임(8.3)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남자유형 I 만 1순위 산책을 응답했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운동 및 스포츠를 제시해 차이를 보였다. 여자의 경우는

저소득층(여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I)의 경우 산책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중상층(여자유형 III과 여자유형 IV)은 운동 및 스포츠를 제시해 차이를 보였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더하여 그 합을 기초로 한 여가 선호 순위를 살펴보면, 전체에서 친목모임(16.3), 운동 및 스포츠(14.0), 산책(10.8), 등산(10.7), 책읽기(7.0)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자 저소득층(남자유형 I 과 남자유형 II)은 1순위로 친목모임을 택한 반면, 남자 중상층(남자유형 III과 남자유형 IV)은 운동 및 스포츠를 응답해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의 경우는 여자유형 IV만 운동 및 스포츠를 1순위로 제시하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친목모임을 제시해 차이를 보였다.

〈부표 4-1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여가활동 1순위

(단위: 명, %)

구분	남자 유형 I	남자 유형 II	남자 유형 III	남자 유형 IV	여자 유형 I	여자 유형 II	여자 유형 III	여자 유형 IV	계(명)
책읽기	6.5	6.0	2.5	5.5	9.7	20.7	8.6	17.6	10.0
글쓰기	0.0	0.0	5.0	0.1	0.2	1.0	0.0	0.2	0.3
영화감상	3.3	2.9	0.0	3.8	4.8	2.4	4.8	5.2	3.9
전시회관람	0.0	0.0	0.0	0.0	0.2	0.0	0.0	1.3	0.2
뮤지컬 및 연극감상	0.0	0.0	0.0	0.3	0.5	0.0	1.1	0.0	0.3
노래부르기	1.3	1.8	7.5	0.5	2.9	2.7	3.5	1.1	1.9
악기 연주	0.0	1.1	0.0	1.0	0.2	0.7	0.5	0.0	0.6
음악듣기	3.3	2.7	0.0	2.9	4.8	2.7	5.6	3.7	3.6
춤추기	0.0	0.0	0.0	0.4	1.0	0.0	0.5	0.0	0.3
바둑, 장기, 체스	5.2	2.9	5.0	2.7	0.0	0.0	0.0	0.0	1.5
화투, 카드	2.6	0.4	0.0	0.8	0.2	2.0	0.5	0.0	0.7
여행	0.0	1.1	2.5	2.1	0.7	0.3	1.9	2.4	1.5
낚시	5.9	7.8	12.5	4.4	0.2	0.7	0.3	0.2	3.0
운동(스포츠)	7.8	18.8	27.5	33.0	15.7	12.2	26.6	23.9	22.6
스포츠관람	4.6	2.0	0.0	3.4	0.5	0.0	0.3	0.0	1.5
등산	15.7	16.4	10.0	17.0	7.5	10.9	11.6	11.5	13.2

구분	남자 유형 I	남자 유형 II	남자 유형 III	남자 유형 IV	여자 유형 I	여자 유형 II	여자 유형 III	여자 유형 IV	계(명)
공예	0.0	0.2	0.0	0.1	0.2	0.7	0.3	0.4	0.3
다도	0.0	0.0	0.0	0.0	0.0	0.0	0.3	0.2	0.1
사진찍기	0.0	0.2	2.5	0.3	0.0	0.0	0.5	0.0	0.2
교양강좌수강	0.0	0.0	0.0	0.0	0.2	0.3	1.3	2.6	0.7
그림그리기	0.0	0.7	0.0	0.0	0.0	0.3	0.0	0.4	0.2
서예	0.0	0.2	0.0	0.3	0.0	0.3	0.0	1.5	0.4
라디오듣기	4.6	3.5	0.0	1.1	7.5	4.8	3.2	1.7	3.3
컴퓨터 및 인터넷	4.6	9.5	2.5	3.3	2.4	1.7	3.2	2.0	3.8
게임	0.0	0.2	0.0	0.3	1.0	0.0	0.0	0.0	0.2
친목모임	10.5	9.3	15.0	6.5	12.6	8.5	8.3	4.8	8.3
화초기꾸기	5.2	1.6	0.0	1.1	4.8	5.1	4.3	2.6	3.0
산책	19.0	10.4	7.5	8.5	21.7	21.4	12.4	15.9	14.2
기타	0.0	0.2	0.0	0.5	0.2	0.3	0.3	0.7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53)	(451)	(40)	(728)	(414)	(294)	(372)	(460)	(2,912) ¹⁾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 중 무응답 115명을 제외함

〈부표 4-13〉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상위 5개 여가 활동(여가 1순위)

구분	(단위: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전체	운동, 스포츠 (22.6)	산책 (14.2)	등산 (13.2)	책읽기 (10.0)	친목모임 (8.3)
유형					
남자유형 I	산책 (19.0)	등산 (15.7)	친목모임 (10.5)	운동, 스포츠 (7.8)	책읽기 (6.5)
남자유형 II	운동, 스포츠 (18.8)	등산 (16.4)	산책 (10.4)	컴퓨터·인터넷 (9.5)	친목모임 (9.3)
남자유형 III	운동, 스포츠 (27.5)	친목모임 (15.0)	낚시 (12.5)	등산 (10.0)	산책 (7.5)
남자유형 IV	운동, 스포츠 (33.0)	등산 (17.0)	산책 (8.5)	친목모임 (6.5)	책읽기 (5.5)
여자유형 I	산책 (21.7)	운동, 스포츠 (15.7)	친목모임 (12.6)	책읽기 (9.7)	등산 (7.5)
여자유형 II	산책 (21.4)	책읽기 (20.7)	운동, 스포츠 (12.2)	등산 (10.9)	친목모임 (8.5)
여자유형 III	운동, 스포츠 (26.6)	산책 (12.4)	등산 (11.6)	책읽기 (8.6)	친목모임 (8.3)
여자유형 IV	운동, 스포츠 (23.9)	책읽기 (17.6)	산책 (15.9)	등산 (11.5)	영화감상 (5.2)

〈부표 4-14〉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상위 5개 여가 활동(1순위, 2순위, 3순위 합)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전체	친목모임 (16.3)	운동, 스포츠 (14.0)	산책 (10.8)	등산 (10.7)	책읽기 (7.0)
유형					
남자유형 I	친목모임 (16.3)	산책 (14.5)	등산 (10.9)	컴퓨터·인터넷 (7.0)	라디오듣기 (6.7)
남자유형 II	친목모임 (16.3)	운동, 스포츠 (11.4)	등산 (11.1)	산책 (10.6)	컴퓨터·인터넷 (9.5)
남자유형 III	운동, 스포츠 (16.3)	친목모임 (14.3)	낚시 (9.2)	산책 (9.2)	바둑, 장기, 체스 (8.2)
남자유형 IV	운동, 스포츠 (20.1)	친목모임 (16.0)	등산 (15.5)	산책 (7.1)	컴퓨터·인터넷 (6.1)
여자유형 I	친목모임 (18.0)	산책 (15.7)	화초가꾸기 (8.8)	운동, 스포츠 (8.6)	라디오듣기 (8.2)
여자유형 II	친목모임 (15.7)	산책 (15.2)	책읽기 (11.9)	등산 (8.7)	운동, 스포츠 (7.8)
여자유형 III	친목모임 (17.5)	운동, 스포츠 (15.7)	산책 (9.5)	등산 (9.2)	화초 (8.1)
여자유형 IV	운동, 스포츠 (16.4)	친목모임 (14.6)	책읽기 (11.4)	산책 (9.6)	등산 (8.4)

여가활동의 빈도를 살펴보면, 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가 활동에 대해서 모든 유형에서 주 4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여가활동 빈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순위 여가에 대한 활동 빈도는 그 폭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3순위 여가활동에 대한 빈도를 살펴보면, 점차 그 횟수가 줄어들어 월 1회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가 1순위를 기초로 한 상위 5개 여가활동에 대한 활동 빈도를 살펴보면, 운동스포츠는 주 4회 이상, 산책은 주 2~3회, 등산은 주 1회, 책 읽기는 주 4회, 친목모임은 월 1회로 나타나, 여가의 특성에 따라 빈도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부표 4-15〉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여가활동 빈도(1순위)

(단위: %, 명)

구분	주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1회	월 1회 미만	계(명)
전체	34.2	27.5	16.2	6.6	12.1	3.4	100.0(2,909) ¹⁾
유형							
남자유형 I	32.5	26.6	18.2	6.5	11.0	5.2	100.0(154)
남자유형 II	30.3	27.4	14.4	7.5	16.8	3.5	100.0(452)
남자유형 III	27.5	15.0	22.5	7.5	12.5	15.0	100.0(40)
남자유형 IV	30.1	25.1	21.3	8.0	12.0	3.6	100.0(728)
여자유형 I	37.4	28.4	15.0	3.9	11.4	3.9	100.0(412)
여자유형 II	34.8	30.0	15.0	6.8	11.9	1.4	100.0(293)
여자유형 III	39.1	31.5	10.5	6.5	10.2	2.2	100.0(371)
여자유형 IV	38.8	27.0	15.3	5.7	10.2	3.1	100.0(459)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 중 무응답 118명을 제외함

〈부표 4-16〉 상위 5개 여가별 여가활동 빈도(여가1순위)

(단위: %)

순위	여가종류	주4회 이상	주2~3회	주1회	2주1회	월1회	월1회 미만
1순위	운동, 스포츠	47.7	34.8	14.0	2.6	0.6	0.3
2순위	산책	34.9	50.6	11.3	2.2	0.5	0.5
3순위	등산	7.5	12.7	40.8	15.1	21.3	2.6
4순위	책읽기	55.5	27.9	9.0	4.1	3.4	0.0
5순위	친목모임	2.5	8.2	10.3	16.5	55.1	7.4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혼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남자나 여자 모두 소득이 높아질수록 혼자라고 답한 비율은 줄어들고 기타 응답의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남자의 경우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베이비 부머(남자유형 I 과 남자유형 III)는 혼자 여가를 즐기지 않을 경우 가족보다는 친구와 여가를 즐기는 비율이 높았으며,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베이비 부머(남자유형 II와 남자유형 IV)의 경우는 혼자 아닐 경우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비율이 높았다. 여자의 경우는 남자와

달리 직종에 따라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자들에 대한 비율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으며, 앞서 살펴 본대로 소득에 따른 비율의 변화는(중상층일 수록 친구 및 가족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높아짐) 살펴볼 수 있다.

여가활동 1순위 응답을 기초로 한 상위 5개 여가활동별 함께하는 자를 살펴보면 운동 및 스포츠는 친구, 산책은 혼자, 등산은 친구, 책읽기는 혼자, 친목모임은 친구인 것으로 나타나, 여가활동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부표 4-17〉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1순위)

(단위: %, 명)

구분	혼자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호회 활동	기타	계(명)
전체	46.8	15.6	30.8	6.5	0.3	100.0(2,911) ¹⁾
유형						
남자유형 I	60.1	5.2	28.8	5.9	0.0	100.0(153)
남자유형 II	51.3	14.4	27.2	7.1	0.0	100.0(452)
남자유형 III	32.5	5.0	57.5	5.0	0.0	100.0(40)
남자유형 IV	37.1	19.0	31.5	11.7	0.8	100.0(728)
여자유형 I	54.0	14.3	28.8	2.9	0.0	100.0(413)
여자유형 II	56.7	14.3	25.3	3.8	0.0	100.0(293)
여자유형 III	40.1	15.6	39.5	4.3	0.5	100.0(372)
여자유형 IV	47.2	17.6	30.0	5.0	0.2	100.0(460)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 중 무응답 116명을 제외함

〈부표 4-18〉 상위 5개 여가별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1순위)

(단위: %)

순위	여가종류	혼자	가족	친구	동호회 활동	기타
1순위	운동, 스포츠	37.0	12.7	34.6	14.9	0.8
2순위	산책	58.0	29.7	12.3	0.0	0.0
3순위	등산	18.7	21.2	48.2	11.9	0.0
4순위	책읽기	98.0	1.4	0.7	0.0	0.0
5순위	친목모임	0.4	2.5	93.8	2.1	1.2

노후에 즐기고 싶은 여가 1순위에 한해 상위 5개 여가를 살펴보면, 전체에서는 여행(37.0), 등산(13.0), 운동 및 스포츠(10.9), 낚시(5.9), 산책(3.5)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1순위를 살펴보면, 남자유형 I은 등산으로 응답하였고, 이 외 모든 유형에서는 여행이라고 응답해, 남자유형 I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노후에 하고 싶은 여가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총합을 기본으로 한 상위 5개 여가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여행이라고 응답해, 여행이 모두가 희망하는 노후 여가형태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여행이라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낚시나 운동 및 등산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운동 외에 남자에 비해 뮤지컬 및 연극 감상 및 노래 부르기가 높게 나타나, 남자는 신체적인 여가 활동에 여자는 문화적인 여가 활동에 더 관심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여자의 경우는 소득유형별 여가활동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남자의 경우 중상층이 저소득층보다 여행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소득·직종에 따라 희망 여가활동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부표 4-19〉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에 즐기고 싶은 여가 활동 1순위

(단위: %, 명)

구분	남자유형		남자유형		여자유형		여자유형		계(명)
	I	II	III	IV	I	II	III	IV	
책읽기	2.3	2.3	2.5	3.3	2.4	3.8	2.6	5.7	3.3
글쓰기	1.1	0.0	0.0	0.3	0.7	1.3	1.8	0.6	0.7
영화감상	0.0	0.4	0.0	1.6	2.4	2.2	1.3	1.3	1.4
전시회관람	0.0	1.0	0.0	0.0	0.7	0.6	0.0	2.1	0.7
뮤지컬 및 연극감상	0.0	0.4	0.0	0.8	0.9	3.8	1.8	3.8	1.6
노래부르기	2.3	1.5	0.0	0.5	5.2	4.4	5.0	4.3	3.0
악기 연주	1.7	2.7	0.0	1.9	0.7	1.6	1.6	2.8	1.9
음악듣기	0.0	1.0	0.0	0.5	0.7	1.0	1.6	1.1	0.9
춤추기	0.0	0.4	0.0	0.7	2.6	2.2	1.3	0.6	1.1
바둑, 장기, 체스	2.9	4.6	0.0	1.4	0.0	0.3	0.0	0.2	1.3
화투, 카드	0.6	0.6	0.0	0.3	1.4	0.6	0.5	0.2	0.6
여행	25.9	30.8	35.0	35.7	42.8	40.6	40.5	39.4	37.0
낚시	10.9	13.0	30.0	9.9	2.1	0.6	0.3	0.0	5.9
운동(스포츠)	6.3	9.6	12.5	16.7	9.2	7.0	8.9	10.2	10.9
스포츠관람	1.7	0.4	0.0	0.8	0.5	0.0	0.3	0.0	0.5
등산	32.2	16.7	10.0	15.9	8.9	7.9	8.7	8.3	13.0
공예	0.0	0.2	2.5	0.3	0.5	0.3	1.1	1.3	0.6
다도	0.0	0.0	0.0	0.3	0.0	0.3	0.3	0.2	0.2
사진찍기	0.6	2.1	0.0	1.1	0.0	1.0	1.8	0.4	1.0
교양강좌수강	1.1	0.2	0.0	0.1	2.6	1.9	2.9	1.9	1.4
그림그리기	0.6	0.6	0.0	0.1	0.5	1.3	0.8	1.5	0.7
서예	0.0	1.0	0.0	0.8	0.2	2.5	0.8	1.3	1.0
라디오듣기	0.0	0.6	0.0	0.0	0.5	0.6	0.0	0.0	0.2
컴퓨터 및 인터넷	0.6	2.1	0.0	0.1	0.7	1.0	1.6	1.1	1.0
게임	0.0	0.0	0.0	0.1	0.0	0.3	0.0	0.0	0.1
친목모임	2.3	2.1	7.5	3.3	4.0	3.2	6.1	1.9	3.3
화초가꾸기	0.0	2.5	0.0	1.9	5.9	3.5	5.0	4.9	3.4
산책	6.9	2.9	0.0	1.4	4.0	6.0	3.4	4.3	3.5
기타	0.0	0.0	0.0	0.1	0.0	0.0	0.0	0.6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74)	(478)	(40)	(736)	(425)	(315)	(380)	(4700)	(3,018) ¹⁾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 중 무응답 9명을 제외함

〈부표 4-20〉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노후에 즐기고 싶은 여가 활동 상위 5개(여가 1순위)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전체	여행 (37.0)	등산 (13.0)	운동, 스포츠 (10.9)	낚시 (5.9)	산책 (3.5)
유형					
남자유형 I	등산 (32.2)	여행 (25.9)	낚시 (10.9)	산책 (6.9)	운동, 스포츠 (6.3)
남자유형 II	여행 (30.8)	등산 (16.7)	낚시 (13.0)	운동, 스포츠 (9.6)	바둑, 장기, 체스 (4.6)
남자유형 III	여행 (35.0)	낚시 (30.0)	운동, 스포츠 (12.5)	등산 (10.0)	친목모임 (7.5)
남자유형 IV	여행 (35.7)	운동, 스포츠 (16.7)	등산 (15.9)	낚시 (9.9)	친목모임 (3.3)
여자유형 I	여행 (42.8)	운동, 스포츠 (9.2)	등산 (8.9)	화초가꾸기 (5.9)	노래부르기 (5.2)
여자유형 II	여행 (40.6)	등산 (7.9)	운동, 스포츠 (7.0)	산책 (6.0)	노래부르기 (4.4)
여자유형 III	여행 (40.5)	운동, 스포츠 (8.9)	등산 (8.7)	친목모임 (6.1)	노래부르기 (5.0)
여자유형 IV	여행 (39.4)	운동, 스포츠 (10.2)	등산 (8.3)	책읽기 (5.7)	화초가꾸기 (4.9)

〈부표 4-21〉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노후에 즐기고 싶은 여가활동 상위 5개
(1순위, 2순위, 3순위 합)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전체	여행 (23.2)	등산 (12.5)	운동, 스포츠 (10.1)	친목모임 (9.5)	화초가꾸기 (5.6)
유형					
남자유형 I	여행 (19.8)	등산 (19.4)	낚시 (12.5)	친목모임 (8.7)	운동, 스포츠 (8.3)
남자유형 II	여행 (20.5)	등산 (16.4)	운동, 스포츠 (9.7)	낚시 (9.5)	친목모임 (8.7)
남자유형 III	여행 (23.1)	낚시 (15.7)	등산 (13.0)	운동, 스포츠 (11.1)	친목모임 (11.1)
남자유형 IV	여행 (24.2)	등산 (15.3)	운동, 스포츠 (14.6)	친목모임 (10.0)	낚시 (7.0)
여자유형 I	여행 (24.7)	친목모임 (11.0)	등산 (10.4)	화초가꾸기 (9.1)	운동, 스포츠 (7.4)
여자유형 II	여행 (23.5)	친목모임 (9.1)	등산 (9.0)	화초가꾸기 (8.5)	산책 (7.4)
여자유형 III	여행 (24.2)	친목모임 (10.2)	등산 (9.0)	운동, 스포츠 (9.0)	화초가꾸기 (8.5)
여자유형 IV	여행 (23.0)	운동, 스포츠 (9.6)	등산 (9.0)	친목모임 (8.2)	화초가꾸기 (6.0)

현재의 삶에서 여가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의 경우보다 중상층이 여가의 중요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와 남자 모두 그러하지만,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저소득과 중상층 간의 중요도에 대한 차이의 폭이 여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노후 삶에 있어서 여가의 중요도에서도 같은 양상이 보여, 전반적으로 노후 삶의 여가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높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소득보다는 중상에서 그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기 종사직종의 안정성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안정적인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베이비 부머 층이 여가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약간 높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통해 여가에 대해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후여가의 중요도에 대해 현재와 노후에 대해 점수화하여 비교해보면, 현재의 중요도 3.69점, 노후 3.98점으로 나타나 노후에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상층일수록 현재와 노후의 삶에서 여가의 중요도 점수가 높다. 저소득층의 경우 비록 중상보다는 여가의 중요도 점수가 낮지만, 현재 삶에서의 여가 중요도 점수와 노후 삶에서의 여가 중요도 점수 간 차이가 크다는 점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부표 4-2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현재 삶에 있어서 여가의 중요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명)
전체	8.8	60.5	22.6	7.3	0.8	100.0(3,017) ¹⁾
유형						
남자유형 I	1.7	40.5	34.7	20.8	2.3	100.0(173)
남자유형 II	5.2	55.2	27.1	11.5	1.0	100.0(480)
남자유형 III	9.5	64.3	23.8	2.4	0.0	100.0(42)
남자유형 IV	14.7	67.4	14.2	3.5	0.1	100.0(737)
여자유형 I	2.8	53.2	31.5	12.0	0.5	100.0(432)
여자유형 II	8.6	56.5	24.9	8.0	1.9	100.0(313)
여자유형 III	7.9	66.6	22.9	2.4	0.3	100.0(380)
여자유형 IV	12.3	66.6	16.6	3.6	0.9	100.0(470)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 중 무응답 10명을 제외함

〈부표 4-23〉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삶에 있어서 여가의 중요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명)
전체	16.4	67.3	14.1	2.2	0.1	100.0(3,023) ¹⁾
유형						
남자유형 I	7.0	58.7	23.3	11.0	0.0	100.0(172)
남자유형 II	12.1	64.2	21.0	2.5	0.2	100.0(481)
남자유형 III	9.8	73.2	17.1	0.0	0.0	100.0(41)
남자유형 IV	22.4	69.9	7.2	0.5	0.0	100.0(737)
여자유형 I	12.7	60.2	23.4	3.7	0.0	100.0(432)
여자유형 II	14.7	64.4	17.9	2.9	0.0	100.0(312)
여자유형 III	13.7	75.5	10.0	0.8	0.0	100.0(379)
여자유형 IV	22.2	70.8	6.2	0.6	0.2	100.0(469)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 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함

〈부표 4-24〉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여가의 중요도 점수

(단위: 점)

구분	현재 삶에서 여가의 중요도	노후 삶에서 여가의 중요도
전체	3.69	3.98
남자유형 I	3.18	3.61
남자유형 II	3.52	3.86
남자유형 III	3.81	3.92
남자유형 IV	3.93	4.14
여자유형 I	3.46	3.82
여자유형 II	3.62	3.91
여자유형 III	3.80	4.02
여자유형 IV	3.86	4.14

주: 여가의 중요도 점수는 5점 만점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임.

나. 단체 활동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자원봉사단체 참여여부를 살펴보면, 여자와 남자 모두 중상층일수록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남자유형 I 은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왔으며, 소득이 올라갈수록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에는 여자유형 I 에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남자보다는 높게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는 소득의 영향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인다⁷⁾.

7) 대체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모든 유형에서 90% 이상이며, 참여하고 있는 자들의 수가 적으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부표 4-25〉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자원봉사단체 참여여부

(단위: %, 명)

구분	참여	비참여	계(명)
전체	7.3	92.7	100.0(3,024) ¹⁾
유형			
남자유형 I	0.0	100.0	100.0(172)
남자유형 II	8.1	91.9	100.0(480)
남자유형 III	12.2	87.8	100.0(41)
남자유형 IV	9.9	90.1	100.0(737)
여자유형 I	4.4	95.6	100.0(432)
여자유형 II	1.6	98.4	100.0(313)
여자유형 III	9.2	90.8	100.0(379)
여자유형 IV	9.8	90.2	100.0(470)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 중 무응답 3명을 제외함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자원봉사단체 참여자의 평균 활동개월 수를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는 더 장기간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4-26〉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자원봉사활동 기간

(단위: 개월, 명)

구분	평균	명
전체	90.7	222 ¹⁾
유형		
남자유형 I	-	0
남자유형 II	98.2	39
남자유형 III	116.3	5 ²⁾
남자유형 IV	97.2	73
여자유형 I	63.7	19
여자유형 II	89.2	5 ²⁾
여자유형 III	78.5	35
여자유형 IV	91.6	46

주: 1)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222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참여빈도를 살펴보면 월 1회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여자유형 I의 경우에는 주 1회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표 4-27〉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빈도

(단위: %, 명)

구분	주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1회 미만	계(명)
전체	2.7	6.7	22.0	16.6	37.2	14.8	100.0(222) ¹⁾
유형							
남자유형 I	-	-	-	-	-	-	-
남자유형 II	0.0	0.0	18.4	23.7	31.6	26.3	100.0(38)
남자유형 III	0.0	0.0	0.0	0.0	80.0	20.0	100.0(5) ²⁾
남자유형 IV	1.4	9.5	17.6	20.3	35.1	16.2	100.0(74)
여자유형 I	0.0	0.0	52.6	10.5	21.1	15.8	100.0(19)
여자유형 II	20.0	0.0	20.0	0.0	40.0	20.0	100.0(5) ²⁾
여자유형 III	5.7	17.1	20.0	14.3	40.0	2.9	100.0(35)
여자유형 IV	4.3	4.3	23.4	12.8	44.7	10.6	100.0(47)

주: 1)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222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자원봉사활동 참여경로를 살펴보면, 스스로라는 응답이 대부분의 유형에서 높은 편이다. 남자의 경우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주변인의 권유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는 편이다. 여자의 경우는 스스로라는 응답과 주변인의 권유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부표 4-28〉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경로

(단위: %, 명)

구분	스스로	주변의 권유	대중매체 및 홍보	기타	계(명)
전체	52.3	44.1	2.7	0.9	100.0(222) ¹⁾
유형					
남자유형 I	-	-	-	-	0.0(0)
남자유형 II	59.0	38.5	2.6	0.0	100.0(39)
남자유형 III	60.0	40.0	0.0	0.0	100.0(5) ²⁾
남자유형 IV	56.2	37.0	4.1	2.7	100.0(73)
여자유형 I	31.6	63.2	5.3	0.0	100.0(19)
여자유형 II	80.0	20.0	0.0	0.0	100.0(5) ²⁾
여자유형 III	45.7	51.4	2.9	0.0	100.0(35)
여자유형 IV	50.0	50.0	0.0	0.0	100.0(46)

주: 1)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222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자원봉사단체 참여 활동 이유를 살펴보면, 남자유형Ⅱ는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남자유형Ⅲ과 남자유형Ⅳ는 사회적 책임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여자유형Ⅰ은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는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사회적 책임 하에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자의 경우에는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부표 4-29〉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이유

(단위: %, 명)

구분	여가 보람	건강	사회적 책임	능력 활용	새로운 경험	대인 관계	성숙	계(명)
전체	28.6	4.5	20.1	13.8	9.8	10.7	12.5	100.0(222)
유형								
남자유형Ⅰ	-	-	-	-	-	-	-	-
남자유형Ⅱ	25.6	0.0	23.1	17.9	5.1	12.8	15.4	100.0(39)
남자유형Ⅲ	0.0	33.3	66.7	0.0	0.0	0.0	0.0	100.0(5) ²⁾
남자유형Ⅳ	25.7	8.1	32.4	5.4	10.8	12.2	5.4	100.0(74)
여자유형Ⅰ	22.2	0.0	5.6	22.2	33.3	11.1	5.6	100.0(18)
여자유형Ⅱ	33.3	16.7	16.7	0.0	0.0	16.7	16.7	100.0(5) ²⁾
여자유형Ⅲ	34.3	2.9	2.9	17.1	11.4	17.1	14.3	100.0(35)
여자유형Ⅳ	37.0	0.0	10.9	21.7	4.3	2.2	23.9	100.0(46)

주: 1)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222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노후 자원봉사단체 참여여부에 대하여, 저소득층보다 중상층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의 경우보다 남자의 경우에서 그 폭의 차이가 컸는데, 남자유형 I 은 노후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25.0%로 나타났으나, 남자유형 IV 은 45.5%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여자의 경우는 소득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체로 남자보다는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들을 현재 자원봉사활동여부와 미래희망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구분해 본 결과,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이 있는 43.9%이다. 현재 비록 하고 있지 않지만, 노후에 하고 싶다는 응답은 37.0%로 높게 나타났다. 즉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약 97%지만, 노후에 하고 싶다는 응답은 43.9%이고, 그 중에서도 비록 지금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후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추후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알 수 있다.

〈부표 4-30〉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자원봉사단체 참여 희망 여부

(단위: %, 명)

구분	참여	비참여	계(명)
전체	43.9	56.1	100.0(3,023)
유형			
남자유형 I	25.0	75.0	100.0(172)
남자유형 II	35.4	64.6	100.0(480)
남자유형 III	24.4	75.6	100.0(41)
남자유형 IV	45.5	54.5	100.0(737)
여자유형 I	42.0	58.0	100.0(431)
여자유형 II	38.7	61.3	100.0(313)
여자유형 III	51.6	48.4	100.0(379)
여자유형 IV	58.0	42.0	100.0(470)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4명은 제외함.

〈부표 4-3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자원봉사단체 참여 여부 및 희망여부 유형

(단위: %, 명)

구분	현재 하고 있고 향후 의향 있음	현재 하고 있으나, 향후 의향 없음	현재 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의향 있음	현재 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할 의향이 없음
전체	6.9	0.4	37.0	55.7
남자유형 I	0.0	0.0	24.6	75.4
남자유형 II	7.1	1.0	28.5	63.4
남자유형 III	12.5	0.0	10.0	77.5
남자유형 IV	9.5	0.4	36.0	54.1
여자유형 I	3.7	0.5	38.3	57.5
여자유형 II	1.6	0.0	37.1	61.3
여자유형 III	8.7	0.5	42.7	48.0
여자유형 IV	9.6	0.0	48.4	42.0

정치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유형에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5% 이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4-3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정치사회단체 참여 여부

(단위: %, 명)

구분	참여	비참여	계(명)
전체	1.8	98.2	100.0(3,027)
유형			
남자유형 I	0.6	99.4	100.0(173)
남자유형 II	1.7	98.3	100.0(480)
남자유형 III	4.9	95.1	100.0(41)
남자유형 IV	2.6	97.4	100.0(738)
여자유형 I	1.4	98.6	100.0(431)
여자유형 II	3.5	96.5	100.0(313)
여자유형 III	1.6	98.4	100.0(380)
여자유형 IV	0.4	99.6	100.0(469)

평균 활동 개월 수를 살펴보면, 유형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체로 80개월 이상으로 나타나, 참여하고 있는 소수인원은 장기간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4-33〉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정치사회단체 참여자의 평균 활동기간

(단위: 개월, 명)

구분	평균	명
전체	97.4	54 ¹⁾
유형		
남자유형 I	-	0
남자유형 II	86.1	8 ²⁾
남자유형 III	133.5	2 ²⁾
남자유형 IV	87.6	19
여자유형 I	97.9	6 ²⁾
여자유형 II	102.4	11
여자유형 III	124.8	6 ²⁾
여자유형 IV	79.1	2 ²⁾

주: 1) 정치사회단체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54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참여빈도를 살펴보면, 중상으로 갈수록 참여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참여빈도가 높았는데, 남자의 경우 대체로 월 1회 정도인 반면, 여자는 주 1회 혹은 그 이상도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4-34〉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정치사회단체 참여 빈도

(단위: %, 명)

구분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명)
전체	5.6	11.1	22.2	9.3	31.5	20.4	100.0(54) ¹⁾
유형							
남자유형 I	0.0	0.0	0.0	0.0	0.0	100.0	100.0(1) ²⁾
남자유형 II	0.0	25.0	0.0	12.5	37.5	25.0	100.0(8) ²⁾
남자유형 III	50.0	0.0	0.0	0.0	50.0	0.0	100.0(2) ²⁾
남자유형 IV	0.0	11.1	22.2	5.6	33.3	27.8	100.0(18)
여자유형 I	0.0	0.0	50.0	16.7	16.7	16.7	100.0(6) ²⁾
여자유형 II	9.1	0.0	36.4	18.2	18.2	18.2	100.0(11)
여자유형 III	0.0	33.3	16.7	0.0	50.0	0.0	100.0(6) ²⁾
여자유형 IV	50.0	0.0	0.0	0.0	50.0	0.0	100.0(2) ²⁾

주: 1) 정치사회단체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54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참여경로를 살펴보면, 스스로 혹은 주변인의 권유 두 가지 이유로 압축되어 나타났으며, 남자의 경우는 스스로, 여자의 경우는 주변인의 권유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중상층이 저소득층보다 주변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4-35〉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정치사회단체 참여 경로

(단위: %, 명)

구분	스스로	주변의 권유	대중매체 및 홍보	기타	계(명)
전체	30.2	69.8	-	-	100.0(54) ¹⁾
유형					
남자유형 I	0.0	100.0	-	-	100.0(1) ²⁾
남자유형 II	75.0	25.0	-	-	100.0(8) ²⁾
남자유형 III	50.0	50.0	-	-	100.0(2) ²⁾
남자유형 IV	16.7	83.3	-	-	100.0(18)
여자유형 I	50.0	50.0	-	-	100.0(6) ²⁾
여자유형 II	18.2	81.8	-	-	100.0(11)
여자유형 III	20.0	80.0	-	-	100.0(6) ²⁾
여자유형 IV	0.0	100.0	-	-	100.0(2) ²⁾

주: 1) 정치사회단체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54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정치사회단체 참여 이유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혹은 사회적 책임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 혹은 사회적 책임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중상층이 저소득보다는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는 응답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4-36〉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정치사회단체 참여 이유

(단위: %, 명)

구분	여가 보람	건강	사회적 책임	능력 활용	새로운 경험	대인 관계	성숙	계(명)
전체	19.3	-	31.6	3.5	12.3	28.1	5.3	100.0(54) ¹⁾
유형								
남자유형 I	0.0	-	0.0	0.0	100.0	0.0	0.0	100.0(1) ²⁾
남자유형 II	12.5	-	25.0	12.5	12.5	37.5	0.0	100.0(8) ²⁾
남자유형 III	0.0	-	50.0	0.0	0.0	50.0	0.0	100.0(2) ²⁾
남자유형 IV	5.0	-	30.0	5.0	5.0	45.0	10.0	100.0(18)
여자유형 I	50.0	-	16.7	0.0	0.0	16.7	16.7	100.0(6) ²⁾
여자유형 II	36.4	-	45.5	0.0	18.2	0.0	0.0	100.0(11)
여자유형 III	33.3	-	33.3	0.0	16.7	16.7	0.0	100.0(6) ²⁾
여자유형 IV	0.0	-	33.3	0.0	33.3	33.3	0.0	100.0(2) ²⁾

주: 1) 정치사회단체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54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노후 정치사회단체 참석여부에 대하여 성별에 상관없이 소득이 높아 질수록 그렇다는 의견이 높아졌다. 그러나 모든 유형에서 아니라는 응답이 95%이상을 웃돌아, 해석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부표 4-37〉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정치단체 참여 희망 여부

(단위: %, 명)

구분	참여	비참여	계(명)
전체	4.9	95.1	100.0(3,022) ¹⁾
유형			
남자유형 I	3.5	96.5	100.0(172)
남자유형 II	3.8	96.3	100.0(480)
남자유형 III	4.9	95.1	100.0(41)
남자유형 IV	6.5	93.5	100.0(737)
여자유형 I	4.2	95.8	100.0(431)
여자유형 II	5.1	94.9	100.0(312)
여자유형 III	5.0	95.0	100.0(380)
여자유형 IV	4.7	95.3	100.0(469)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5명은 제외함.

현재 삶에서의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으며, 중상층의 경우 중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다. 이런 경향은 성별에 차이 없이 나타났으나, 남자의 차이 폭이 여자보다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사회참여활동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아졌다. 남자의 경우에는 소득보다는 경제활동의 안정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며,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베이비 부머가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베이비 부머보다 그 중요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노후에서의 사회참여의 중요도를 비교해보면, 현재에서의 중요도는 5점 만점에 3.17점, 노후에는 3.33점으로 노후에서의 중요도가 조금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상층일수록 현재나 노후 모두에서 사회참여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부표 4-38〉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현재 삶에 있어서 사회참여활동의 중요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명)
전체	3.4	37.8	34.0	22.0	2.7	100.0(3,027)
유형						
남자유형 I	0.6	25.6	30.8	31.4	11.6	100.0(172)
남자유형 II	3.8	32.3	31.9	30.0	2.1	100.0(480)
남자유형 III	4.9	43.9	36.6	9.8	4.9	100.0(41)
남자유형 IV	4.1	42.8	34.1	17.9	1.1	100.0(738)
여자유형 I	2.1	32.7	33.6	29.0	2.6	100.0(431)
여자유형 II	3.5	34.5	35.5	21.4	5.1	100.0(313)
여자유형 III	2.1	39.7	37.6	19.2	1.3	100.0(380)
여자유형 IV	5.1	45.0	33.5	14.2	2.1	100.0(471)

〈부표 4-39〉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삶에 있어서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명)
전체	4.8	44.8	30.7	18.2	1.6	100.0(3,021) ¹⁾
유형						
남자유형 I	3.5	29.1	32.6	26.2	8.7	100.0(172)
남자유형 II	3.5	43.2	27.8	24.0	1.5	100.0(479)
남자유형 III	7.5	32.5	40.0	15.0	5.0	100.0(40)
남자유형 IV	5.3	50.7	29.1	13.9	0.9	100.0(739)
여자유형 I	4.4	40.0	28.8	25.1	1.6	100.0(430)
여자유형 II	7.0	40.9	32.6	18.5	1.0	100.0(313)
여자유형 III	3.4	43.0	36.7	16.4	0.5	100.0(379)
여자유형 IV	5.5	52.2	30.1	11.1	1.1	100.0(469)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6명은 제외함.

〈부표 4-40〉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사회참여 활동 중요도 점수

(단위: 점)

구분	현재 사회참여 중요도 ¹⁾	노후 사회참여 중요도 ¹⁾
전체	3.17	3.33
남자유형 I	2.73	2.92
남자유형 II	3.06	3.23
남자유형 III	3.36	3.21
남자유형 IV	3.31	3.45
여자유형 I	3.03	3.20
여자유형 II	3.10	3.35
여자유형 III	3.23	3.32
여자유형 IV	3.37	3.50

주: 사회참여 활동 중요도 점수는 5점 만점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임.

다. 노후교육 및 노후설계 컨설팅

노후에 필요한 교육을 3순위까지 확인하여 본 결과, 1순위만 살펴본
 았을 때나,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합해서 순위를 살펴본 았을 때 모두,
 상위 3개의 응답이 건강관리, 여가와 취미, 노후준비 순인 것으로 나타
 났다. 1순위 건강관련 내용은 유형별 큰 차이 없이 높게 나타났다. 2순
 위 여가관련 내용은 남자와 여자 층에서 약간 차이를 보여, 여자들은
 모든 유형에서 여가와 취미관련을 2순위로 꼽은 반면, 남자는 저소득
 임신직과 중상 임신직은 건강관리 역시 높게 응답하였다. 3순위 노후준
 비 주제에 관해서는 모든 유형에서 높게 응답하였으나, 성별에 관련 없
 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응답비율이 줄어들어, 중상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건강관련 주제에 흥미를 덜 느끼고 기타 주제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나타났다.

〈부표 4-4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1순위)

(단위: %, 명)

구분	남자 유형 I	남자 유형 II	남자 유형 III	남자 유형 IV	여자 유형 I	여자 유형 II	여자 유형 III	여자 유형 IV	전체
건강관리	58.4	65.4	58.5	62.2	69.1	65.3	65.2	62.0	64.1
여가와 취미관련	10.4	12.9	9.8	16.4	13.0	15.0	17.9	19.8	15.5
일반교양	1.7	0.8	2.4	2.0	2.1	1.6	1.6	3.0	1.9
정보화교육	2.3	2.7	14.6	2.7	1.2	2.9	1.8	3.2	2.6
자원봉사교육	0.6	2.9	4.9	3.3	3.9	6.1	6.3	4.7	4.1
취업및직업교육	10.4	7.7	0.0	3.1	3.9	2.9	0.5	0.9	3.6
노후준비교육	6.4	5.2	7.3	4.9	4.2	3.8	5.0	4.3	4.8
노후경제교육	9.8	2.3	2.4	5.2	2.1	2.2	1.6	1.7	3.2
고등교육	0.0	0.0	0.0	0.1	0.5	0.0	0.0	0.4	0.2
기타	0.0	0.0	0.0	0.0	0.0	0.3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73)	(480)	(41)	(736)	(431)	(314)	(379)	(469)	(3,023) ¹⁾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4명은 제외함.

〈부표 4-4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 상위 3개 응답(1순위)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건강관리(64.1)	여가와 취미관련(15.5)	노후준비(4.8)
유형			
남자유형 I	건강관리(58.4)	여가와 취미관련(10.4)	취업 및 직업(10.4)
남자유형 II	건강관리(65.4)	여가와 취미관련(12.9)	취업 및 직업(7.7)
남자유형 III	건강관리(58.5)	정보화(14.6)	여가와 취미관련(9.8)
남자유형 IV	건강관리(62.2)	여가와 취미관련(16.4)	노후경제(5.2)
여자유형 I	건강관리(69.1)	여가와 취미관련(13.0)	노후준비(4.2)
여자유형 II	건강관리(65.3)	여가와 취미관련(15.0)	자원봉사(6.1)
여자유형 III	건강관리(65.2)	여가와 취미관련(17.9)	자원봉사(6.3)
여자유형 IV	건강관리(62.0)	여가와 취미관련(19.8)	자원봉사(4.7)

〈부표 4-43〉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1순위, 2순위, 3순위 합)

(단위: %)

구분	남자 유형 I	남자 유형 II	남자 유형 III	남자 유형 IV	여자 유형 I	여자 유형 II	여자 유형 III	여자 유형 IV	전체
건강관리	30.5	30.1	32.5	28.4	31.4	29.5	29.4	29.0	44.4
여가와 취미관련	17.0	18.1	19.5	21.9	22.5	22.5	25.5	24.7	33.1
일반교양	4.1	4.4	8.1	5.4	5.6	6.4	7.8	8.7	9.3
정보화교육	6.1	7.2	8.9	8.0	6.6	4.3	6.0	7.0	10.2
자원봉사교육	6.1	6.8	8.1	8.1	8.7	9.9	10.7	10.2	13.1
취업및직업교육	10.4	9.3	2.4	4.5	4.4	4.8	1.7	2.0	7.3
노후준비교육	18.0	16.2	15.4	14.9	15.7	16.6	13.9	12.4	22.6
노후경제교육	7.6	7.3	4.9	8.6	4.9	5.4	4.6	5.9	9.8
고등교육	0.2	0.4	0.0	0.2	0.2	0.4	0.4	0.2	0.4
기타	0.0	0.2	0.0	0.0	0.0	0.1	0.0	0.0	50.2

〈부표 4-44〉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 상위3개 응답(1순위, 2순위, 3순위 합)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건강관리(44.4)	여가와취미(33.1)	노후준비(22.6)
유형			
남자유형 I	건강관리(30.5)	여가와취미(17.0)	노후준비(18.0)
남자유형 II	건강관리(30.1)	여가와취미(18.1)	노후준비(16.2)
남자유형 III	건강관리(32.5)	여가와취미(19.5)	노후준비(15.4)
남자유형 IV	건강관리(28.4)	여가와취미(21.9)	노후준비(14.9)
여자유형 I	건강관리(31.4)	여가와취미(22.5)	노후준비(15.7)
여자유형 II	건강관리(29.5)	여가와취미(22.5)	노후준비(16.6)
여자유형 III	건강관리(29.4)	여가와취미(25.5)	노후준비(13.9)
여자유형 IV	건강관리(29.0)	여가와취미(24.7)	노후준비(12.4)

향후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 이용 의향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보다는 중상층에서 그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남자유형Ⅳ와 여자유형Ⅳ은 약 50%대에 가까운 응답률을 나타내 다른 유형(특히 남자유형Ⅰ과 여자유형Ⅰ)과 차이를 나타냈다. 노후설계컨설팅의 경우 성별·직종보다는 소득에 따라 이용 의향 분포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부표 4-45〉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향후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명)
전체	43.9	56.1	100.0(3,027)
유형			
남자유형Ⅰ	36.6	63.4	100.0(172)
남자유형Ⅱ	39.6	60.4	100.0(480)
남자유형Ⅲ	46.3	53.7	100.0(41)
남자유형Ⅳ	49.5	50.5	100.0(738)
여자유형Ⅰ	35.4	64.6	100.0(432)
여자유형Ⅱ	37.1	62.9	100.0(313)
여자유형Ⅲ	46.7	53.3	100.0(379)
여자유형Ⅳ	52.3	47.7	100.0(470)

비용 지불 의향을 살펴본 결과, 남자유형Ⅰ과 여자유형Ⅰ은 무료라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약 80%로 나타나, 다른 유형에 비해 무료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소득이 오를수록 비용 지불 정도 의향 액수가 높아져, 중상층의 경우에는 무료와 유료의 비율이 50%대로 반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4-46〉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향후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 비용 지불 의향

(단위: %, 명)

구분	무료라면 이용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 원 미만	15~20만 원 미만	20만원 이상	계(명)
전체	64.1	24.7	7.7	1.3	1.1	1.2	100.0(1,330) ¹⁾
유형							
남자유형 I	85.7	14.3	0.0	0.0	0.0	0.0	100.0(63)
남자유형 II	65.4	24.6	7.3	1.0	1.0	0.5	100.0(191)
남자유형 III	42.1	42.1	15.8	0.0	0.0	0.0	100.0(19)
남자유형 IV	49.6	28.8	15.1	1.6	1.6	3.3	100.0(365)
여자유형 I	78.3	19.7	1.3	0.7	0.0	0.0	100.0(152)
여자유형 II	81.9	16.4	1.7	0.0	0.0	0.0	100.0(116)
여자유형 III	64.0	28.7	5.1	0.6	0.6	1.1	100.0(178)
여자유형 IV	63.8	24.0	6.9	2.8	2.0	0.4	100.0(246)

주: 1) 향후노후설계컨설팅 이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1,330명을 대상으로 함.

노후 평생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있어서 영역별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접근성, 비용, 강사의 질, 교육기관의 수준 및 질의 중요도 점수를 살펴본 결과 5점 만점에 강사의 질 4.30, 비용 4.18점, 교육기관의 질 4.18점, 접근성 3.89점, 기타 2.92점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유형 I의 경우에만 비용의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강사 질이 중요도 점수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후 평생교육기관 접근성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중요하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응답과 매우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 및 직종에 따른 유형보다는 성별에 따라 분포의 차이를 나타냈다. 비용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체로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중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줄었다. 강사의 질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 수준과 질의 중요성 살펴본 결과, 대부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부표 4-47〉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평생교육 기관 접근성의 중요성

(단위: %, 명)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명)
전체	19.7	57.1	16.0	7.0	0.1	100.0(3,027)
유형						
남자유형 I	15.6	52.6	17.9	13.3	0.6	100.0(173)
남자유형 II	14.6	54.8	20.8	9.8	0.0	100.0(480)
남자유형 III	12.2	53.7	24.4	9.8	0.0	100.0(41)
남자유형 IV	18.7	53.9	18.3	8.9	0.1	100.0(738)
여자유형 I	15.7	62.5	15.0	6.7	0.0	100.0(432)
여자유형 II	22.4	57.8	16.6	2.9	0.3	100.0(313)
여자유형 III	24.2	60.3	12.1	3.2	0.3	100.0(380)
여자유형 IV	27.1	58.6	9.8	4.5	0.0	100.0(469)

〈부표 4-48〉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평생교육 기관 비용의 중요성

(단위: %, 명)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명)
전체	32.4	54.5	11.4	1.5	0.1	100.0(3,024) ¹⁾
유형						
남자유형 I	50.3	43.4	6.4	0.0	0.0	100.0(173)
남자유형 II	37.0	50.9	11.1	1.0	0.0	100.0(479)
남자유형 III	26.2	47.6	16.7	9.5	0.0	100.0(42)
남자유형 IV	22.4	58.3	17.5	1.5	0.3	100.0(737)
여자유형 I	38.0	53.7	7.2	1.2	0.0	100.0(432)
여자유형 II	38.7	55.3	6.1	0.0	0.0	100.0(313)
여자유형 III	36.1	51.5	9.8	2.1	0.5	100.0(379)
여자유형 IV	25.4	59.7	12.4	2.6	0.0	100.0(469)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3명은 제외함.

〈부표 4-49〉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평생교육기관 강사 질의 중요성

(단위: %, 명)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명)
전체	37.0	56.6	5.8	0.5	0.1	100.0(3,027)
유형						
남자유형 I	24.3	65.9	9.2	0.6	0.0	100.0(173)
남자유형 II	35.3	55.3	9.2	0.2	0.0	100.0(479)
남자유형 III	22.0	63.4	14.6	0.0	0.0	100.0(41)
남자유형 IV	38.6	55.6	5.1	0.7	0.0	100.0(738)
여자유형 I	29.4	64.1	6.3	0.2	0.0	100.0(432)
여자유형 II	41.5	52.7	5.8	0.0	0.0	100.0(313)
여자유형 III	40.9	54.9	3.7	0.0	0.5	100.0(379)
여자유형 IV	43.2	52.8	2.6	1.5	0.0	100.0(470)

〈부표 4-50〉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평생교육기관수준 및 질의 중요성

(단위: %, 명)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명)
전체	29.6	59.8	9.6	1.0	0.1	100.0(3,027)
유형						
남자유형 I	19.8	61.0	18.6	0.6	0.0	100.0(172)
남자유형 II	26.3	61.6	11.3	0.8	0.0	100.0(479)
남자유형 III	24.4	53.7	22.0	0.0	0.0	100.0(41)
남자유형 IV	31.8	57.0	9.6	1.5	0.0	100.0(738)
여자유형 I	23.6	64.6	11.8	0.0	0.0	100.0(432)
여자유형 II	32.9	60.1	6.1	1.0	0.0	100.0(313)
여자유형 III	33.2	59.7	5.5	1.1	0.5	100.0(380)
여자유형 IV	33.6	57.9	7.2	1.3	0.0	100.0(470)

〈부표 4-5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평생교육기관 선택시 중요하게 여기는 점 점수¹⁾

(단위: 점)

구분	남자 유형 I	남자 유형 II	남자 유형 III	남자 유형 IV	여자 유형 I	여자 유형 II	여자 유형 III	여자 유형 IV	전체
접근성	3.70	3.74	3.67	3.82	3.87	3.98	4.05	4.08	3.89
비용	4.44	4.23	3.92	4.01	4.29	4.33	4.21	4.08	4.18
강사질	4.14	4.26	4.06	4.32	4.23	4.36	4.35	4.38	4.30
교육기관질	4.00	4.13	4.04	4.19	4.12	4.25	4.24	4.24	4.18
기타	.	.	.	2.52	.	.	4.05	3.00	2.92

주: 1) 5점 만점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중요하게 생각함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정도를 살펴보면, 소득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남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 은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는 응답이 약 50%대인 반면, 남자유형 II 와 여자유형 II 는 사용은 할 줄 알지만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자유형 III 과 여자유형 III 역시 사용할 줄 안다는 응답이 높았다. 남자유형 IV 과 여자유형 IV 은 매우 능숙하다는 응답이 타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부표 4-5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능숙하게 사용	사용할 줄 알		전혀 사용할 줄 모름	계(명)
		정보 찾는데 어려움이 없음	정보 찾는데 어려움이 있음		
전체	13.6	33.2	28.0	25.2	100.0(3,027)
유형					
남자유형 I	2.3	22.5	30.1	45.1	100.0(173)
남자유형 II	13.8	30.8	31.0	24.4	100.0(480)
남자유형 III	9.5	31.0	33.3	26.2	100.0(42)
남자유형 IV	30.1	43.1	18.7	8.1	100.0(738)
여자유형 I	2.1	17.2	28.1	52.7	100.0(431)
여자유형 II	4.5	27.2	34.5	33.9	100.0(313)
여자유형 III	5.5	32.5	34.3	27.7	100.0(379)
여자유형 IV	15.1	43.4	28.7	12.8	100.0(470)

제5절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부모 및 자녀에 대한 부양 관련 가치관

일반적으로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은 등 경제적 부양을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자녀 및 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보다는 중상층의 경우 자녀 및 가족이라는 응답이 감소하며, 연금 등 사회보험이 노부모 생활비 등과 같은 경제적 부양을 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다. 한편 저소득층은 중상층과 비교했을 때 국가라고 답한 비율이 높다.

여자와 남자의 경우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본인 및 자녀, 가족이라는 응답은 낮으며, 배우자 혹은 연금 및 사회보험이라는 응답은 높아, 배우자 혹은 연금 등에 대한 의존도가 남자보다 조금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부표 5-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본인	배우자	자녀·가족	연금 사회보험	국가	계(명)
전체	15.7	1.8	51.7	19.2	11.8	100.0(3,027)
유형						
남자유형 I	15.7	2.3	59.9	11.0	11.0	100.0(172)
남자유형 II	21.3	0.0	52.5	14.0	12.3	100.0(480)
남자유형 III	19.0	4.8	50.0	16.7	9.5	100.0(42)
남자유형 IV	17.2	0.4	52.7	20.3	9.3	100.0(738)
여자유형 I	9.0	1.9	57.6	12.3	19.2	100.0(432)
여자유형 II	15.0	2.9	47.3	20.1	14.7	100.0(313)
여자유형 III	11.1	2.6	55.8	21.8	8.7	100.0(380)
여자유형 IV	17.4	3.6	40.3	29.5	9.1	100.0(471)

본인의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본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저소득 그룹이 중상 그룹보다 본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본인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 소득그룹별로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은 본인이라는 의견이 높고, 중상층은 연금 등 사회보험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나타냈다.

남자의 경우 노후 생활비 마련방법에 대해 본인에 대한 자립이 높은 편이며, 이는 경제적 상황(가장)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자유형 I 과 여자유형 I 은 타 유형에 비해 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20% 이하로 낮아, 이들에 대한 대책접근이 필요하다.

〈부표 5-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바람직한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본인	배우자	자녀·가족	연금 사회보험	국가	계(명)
전체	49.1	9.5	3.3	28.7	9.3	100.0(3,024) ¹⁾
유형						
남자유형 I	71.5	0.0	4.1	12.8	11.6	100.0(172)
남자유형 II	59.8	0.8	3.1	26.0	10.2	100.0(480)
남자유형 III	63.4	0.0	7.3	24.4	4.9	100.0(42)
남자유형 IV	60.1	1.8	1.1	32.2	4.9	100.0(737)
여자유형 I	39.9	17.6	5.1	18.3	19.0	100.0(431)
여자유형 II	42.4	11.8	6.1	23.6	16.2	100.0(314)
여자유형 III	33.0	21.4	3.4	36.1	6.1	100.0(379)
여자유형 IV	37.7	16.4	2.6	39.4	4.0	100.0(470)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3명은 제외함.

노후에 살고 싶은 지역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여자유형IV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농어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소득수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남자와 여자의 경우 모두 저소득층보다 중상층에서 대

도시 및 중도시로의 응답률이 올라갔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도시 규모 상관없이 자녀와 가까운 곳에 살겠다는 응답이 최소 3.5%에서 최대 7.3%에 그쳤으나, 여자의 경우는 최소 9.5%에서 최대 13.5%로 나타나,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도시 규모보다 자녀와의 거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5-3〉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선호하는 노후 거주지

(단위: %, 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녀가까이	노인전용 거주지	계(명)
전체	17.2	24.7	45.3	8.9	3.9	100.0(3,023) ¹⁾
유형						
남자유형 I	10.5	26.2	57.6	3.5	2.3	100.0(172)
남자유형 II	10.0	20.6	61.9	6.3	1.3	100.0(480)
남자유형 III	7.3	29.3	53.7	7.3	2.4	100.0(41)
남자유형 IV	17.6	25.3	48.1	5.6	3.4	100.0(738)
여자유형 I	13.9	23.6	47.0	12.7	2.8	100.0(432)
여자유형 II	15.4	21.2	45.5	13.5	4.5	100.0(312)
여자유형 III	20.3	27.4	34.8	9.5	7.9	100.0(379)
여자유형 IV	29.2	27.9	25.6	11.9	5.3	100.0(469)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4명은 제외함.

선호하는 노후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한 조건을 살펴본 결과, 모든 유형에서 자연환경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자연환경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보다 문화여가시설과 자녀와의 거리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자는 사회적 소통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남자의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를, 여자의 경우 문화와 가족을 조금 더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5-4〉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노후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한 조건

(단위: %, 명)

구분	보건의료시설	문화여가시설	자연환경	자녀와의거리	사회적소통	기타	계(명)
전체	15.9	10.5	47.4	10.2	16.0	0.0	100.0(3,023) ¹⁾
유형							
남자유형 I	17.3	4.0	51.4	6.9	20.2	0.0	100.0(173)
남자유형 II	13.8	6.1	58.5	6.1	15.7	0.0	100.0(479)
남자유형 III	7.3	4.9	68.3	2.4	17.1	0.0	100.0(41)
남자유형 IV	13.7	10.8	50.8	6.6	17.9	0.1	100.0(738)
여자유형 I	13.9	10.0	48.7	14.4	13.0	0.0	100.0(431)
여자유형 II	16.3	10.9	46.0	14.7	12.1	0.0	100.0(313)
여자유형 III	19.0	13.2	40.4	13.7	13.7	0.0	100.0(379)
여자유형 IV	20.9	15.1	32.6	12.2	19.2	0.0	100.0(469)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4명은 제외함.

노후에 희망하는 동거지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부부 혹은 혼자라는 응답이 약 90%대 이상을 나타냈다.

〈부표 5-5〉 베이비 부모의 유형별 노후에 희망하는 동거자

(단위: %, 명)

구분	아들	딸	형편되는자녀	부부/독거	기타	계(명)
전체	2.8	0.7	2.5	93.3	0.7	100.0(3,023) ¹⁾
유형						
남자유형 I	7.0	1.2	4.7	87.2	0.0	100.0(172)
남자유형 II	2.1	0.6	1.5	95.0	0.8	100.0(479)
남자유형 III	0.0	0.0	2.4	95.1	2.4	100.0(41)
남자유형 IV	1.8	0.3	1.8	95.8	0.4	100.0(737)
여자유형 I	3.5	0.7	2.1	93.0	0.7	100.0(431)
여자유형 II	2.6	1.6	6.4	88.5	1.0	100.0(313)
여자유형 III	4.2	0.8	1.8	92.9	0.3	100.0(381)
여자유형 IV	2.6	0.9	2.1	93.4	1.1	100.0(469)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4명은 제외함.

부모의 자녀 부양 기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대부분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 마칠 때까지 혹은 직장 생길 때까지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자유형 I의 경우 다른 유형과 달리 학업 마칠 때까지라는 의견이 약 40%대로 가장 높았다.

〈부표 5-6〉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부모의 자녀 부양 기간

(단위: %, 명)

구분	학업 마칠 때까지	성년인 만20세 까지	직장 생길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손자녀 양육 까지	주거 미련 까지	기타	계(명)
전체	29.6	3.2	23.9	41.5	1.1	0.8	0.1	100.0(3,027)
유형								
남자유형 I	40.7	5.2	22.7	29.7	0.0	1.2	0.6	100.0(172)
남자유형 II	32.7	4.6	26.9	34.4	0.6	0.8	0.0	100.0(480)
남자유형 III	16.7	4.8	31.0	47.6	0.0	0.0	0.0	100.0(42)
남자유형 IV	34.0	4.1	22.8	37.7	0.7	0.7	0.1	100.0(738)
여자유형 I	27.1	2.5	28.2	40.0	0.9	1.2	0.0	100.0(432)
여자유형 II	34.4	2.9	18.8	42.4	1.6	0.0	0.0	100.0(314)
여자유형 III	21.9	1.3	20.6	53.0	1.8	1.3	0.0	100.0(379)
여자유형 IV	21.7	1.9	24.4	49.9	1.7	0.4	0.0	100.0(471)

희망하는 노후 생활을 살펴본 결과, 남자유형 I 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젊어서 못한 취미생활이라는 응답이 약 40%대로 높게 나타났다. 남자유형 I 은 소득 창출 활동이라는 응답이 약 50%로 높게 나타나 다른 유형과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가장 높은 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볼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자원봉사 등 의미 있는 일과 가사 및 자녀양육을 하며 노후를 보내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부표 5-7〉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희망하는 노후 생활

(단위: %, 명)

구분	취미 생활	자기 계발	자원 봉사	종교 활동	소득 창출	손자녀 양육	무위/ 안식	기타	계(명)
전체	42.3	7.5	16.8	9.1	18.7	2.4	3.1	0.0	100.0(3,027)
유형									
남자유형 I	25.0	2.9	8.1	5.2	48.8	2.9	7.0	0.0	100.0(172)
남자유형 II	42.6	4.6	11.3	4.8	33.2	0.6	2.9	0.0	100.0(479)
남자유형 III	46.3	9.8	7.3	7.3	29.3	0.0	0.0	0.0	100.0(41)
남자유형 IV	47.1	9.5	15.3	6.0	19.9	0.8	1.4	0.0	100.0(737)
여자유형 I	43.8	3.9	19.0	8.3	14.8	4.9	5.1	0.2	100.0(432)
여자유형 II	38.7	8.3	17.3	16.0	12.8	3.5	3.5	0.0	100.0(313)
여자유형 III	45.1	8.1	21.3	13.4	6.3	3.7	2.1	0.0	100.0(381)
여자유형 IV	39.4	10.9	22.8	12.8	7.9	3.0	3.4	0.0	100.0(470)

최근 가장 큰 관심사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 여자의 경우 자녀의 취업 및 결혼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남자의 경우 남자 저소득중상 상용직 그룹은 자녀교육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남자유형 I은 본인의 건강, 남자유형 III은 자녀의 취업 및 결혼으로 나타났다. 남자유형 I의 경우 본인의 건강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유형과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불안정한 상황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건강이라는 응답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상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자녀의 취업 및 결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부표 5-8〉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최근 가장 큰 관심사

(단위: %, 명)

구분	남자유형 I	남자유형 II	남자유형 III	남자유형 IV	여자유형 I	여자유형 II	여자유형 III	여자유형 IV	전체
	I	II	III	IV	I	II	III	IV	
자녀교육	18.0	29.0	19.5	36.2	15.0	23.6	17.4	26.4	25.6
자녀의 취업 및 결혼	22.1	19.4	46.3	29.1	34.3	34.1	51.3	43.9	33.7
생계비 마련	20.3	20.6	0.0	4.5	11.3	7.6	2.4	3.6	8.8
주택구입	7.0	2.7	2.4	2.3	4.6	3.8	1.6	1.9	3.0
본인의 건강	26.2	21.0	12.2	12.5	28.5	20.4	16.8	15.4	18.7
야기 및 취활동	0.0	2.1	0.0	4.3	0.0	1.6	1.6	2.3	2.1
노부모 부양	2.3	1.3	0.0	1.1	1.2	2.9	1.8	0.4	1.4
노후소득 가타	4.1	3.8	19.5	9.2	4.9	5.7	7.1	5.8	6.4
	0.0	0.2	0.0	0.8	0.2	0.3	0.0	0.2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72)	(480)	(41)	(738)	(432)	(314)	(380)	(469)	(3,027)

예상하는 노후 어려운 점을 살펴본 결과, 남자유형 I과 남자유형 II는 경제적 어려움을 제시했으며, 그 외 유형(남자유형 III과 남자유형 IV 및 여자유형 I~IV)은 건강 및 기능 악화를 제시하였다. 경제적인 면에서 남자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

락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저소득일수록 경제적 어려움 및 주거문제를 걱정요소로 생각하는 반면, 중상층은 경제적 문제보다는 소외 및 고독감을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해, 경제적 층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부표 5-9〉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노후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

(단위: %, 명)

구분	남자유형		남자유형		여자유형		여자유형		전체
	I	II	III	IV	I	II	III	IV	
배우자 관계	2.3	1.9	0.0	2.7	0.9	2.6	2.4	1.3	2.0
자녀 관계	0.6	2.3	2.4	1.8	3.0	1.9	0.5	2.4	1.9
친구 관계	0.0	0.2	0.0	0.7	0.2	0.3	0.3	0.4	0.4
건강 및 기능 약화	37.2	41.5	64.3	58.8	46.2	51.4	68.9	65.6	54.7
경제적 어려움	51.2	46.8	19.0	22.4	44.8	38.3	18.7	19.2	31.7
주거문제	1.2	0.6	0.0	0.7	2.1	1.0	0.3	0.4	0.8
소외 및 고독감	5.2	2.9	11.9	6.0	1.4	2.6	4.2	5.8	4.3
무료함	2.3	3.8	2.4	6.9	1.4	1.9	4.7	4.5	4.1
기타	0.0	0.0	0.0	0.1	0.0	0.0	0.0	0.4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72)	(480)	(41)	(738)	(432)	(314)	(380)	(469)	(3,027)

성공적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를 3순위까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순위는 건강 및 경제적 안정이며, 2순위는 건강, 3순위는 자녀의 성공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1순위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건강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중상층은 경제적 안정과 여유를 꼽아 차이를 나타냈다. 2순위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건강을 성공적 요인 2순위로 뽑았으며 그 비율 역시 비슷하게 나타나, 건강은 유형에 상관없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순위의 경우도 역시 모든 유형에서 자녀의 성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3개의 요소-경제적 안전, 건강, 자녀의 성공을 성공적 노후의 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소득층위별로 경제적 요소를 더 중요시하는가 건강을 더 중요시하는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5-10〉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성공적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1순위)

(단위: %, 명)

구분	남자유형		남자유형		여자유형		여자유형		전체
	I	II	III	IV	I	II	III	IV	
경제적 안정과 여유	35.5	39.1	36.6	45.1	39.9	35.3	35.8	45.2	40.6
건강	41.9	46.4	31.7	43.9	43.9	50.0	47.6	44.1	45.1
가족의 화목과 평안	4.7	5.6	9.8	3.4	3.2	4.2	7.6	4.1	4.6
자녀의 성공	7.0	4.2	2.4	4.1	10.7	10.3	6.8	5.3	6.4
친구관계	0.0	0.2	0.0	0.5	0.5	0.0	0.3	0.2	0.3
소득활동	9.3	3.3	7.3	2.2	1.9	0.3	0.3	0.2	2.1
자기계발활동	1.7	0.4	2.4	0.5	0.0	0.0	0.3	0.0	0.4
지속적사회참여	0.0	0.0	0.0	0.3	0.0	0.0	0.8	0.2	0.2
사회기여활동	0.0	0.0	2.4	0.0	0.0	0.0	0.0	0.2	0.1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0.0	0.8	7.3	0.0	0.0	0.0	0.5	0.4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72)	(480)	(41)	(738)	(432)	(314)	(380)	(469)	(3,027)

〈부표 5-11〉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성공적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2순위)

(단위: %, 명)

구분	남자유형		남자유형		여자유형		여자유형		전체
	I	II	III	IV	I	II	III	IV	
경제적 안정과 여유	28.5	28.6	26.8	27.3	24.1	32.4	31.1	27.7	28.2
건강	36.0	33.0	36.6	36.5	35.0	32.1	33.2	41.3	35.6
가족의 화목과 평안	15.7	11.5	14.6	13.8	11.4	13.5	12.4	11.1	12.6
자녀의 성공	9.9	14.2	7.3	13.8	20.9	15.7	15.6	14.5	15.1
친구관계	2.3	2.5	4.9	3.0	1.6	1.6	2.4	1.7	2.3
소득활동	5.8	7.9	4.9	2.3	5.1	2.2	1.3	1.3	3.5
자기계발활동	1.2	1.7	0.0	1.5	0.7	0.6	1.8	1.7	1.4
지속적사회참여	0.6	0.4	4.9	1.1	0.9	0.3	0.8	0.6	0.8
사회기여활동	0.0	0.2	0.0	0.4	0.0	1.3	0.3	0.0	0.3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0.0	0.0	0.0	0.3	0.2	0.3	1.1	0.2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72)	(479)	(41)	(737)	(431)	(312)	(379)	(470)	(3,021) ¹⁾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6명은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5-12〉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성공적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3순위)

(단위: %, 명)

구분	남자유형				여자유형				전체
	I	II	III	IV	I	II	III	IV	
경제적 안정과 여유	19.8	14.8	21.4	11.5	17.2	15.5	11.6	9.0	13.5
건강	14.0	10.6	16.7	10.7	15.5	7.7	7.1	8.1	10.5
가족의 화목과 평안	16.3	21.9	26.2	31.7	26.0	26.8	30.6	38.7	28.8
자녀의 성공	21.5	20.3	21.4	19.8	22.0	28.4	30.1	23.7	23.1
친구관계	4.1	7.1	4.8	6.9	3.7	5.5	5.3	6.4	5.9
소득활동	18.0	11.7	7.1	7.3	7.0	6.1	4.7	3.2	7.5
자기개발활동	2.3	5.0	0.0	3.7	3.0	4.2	5.0	2.4	3.7
지속적 사회참여	1.7	2.5	0.0	3.4	1.6	1.9	0.5	2.1	2.2
사회기여활동	0.6	2.3	2.4	3.3	0.9	1.3	1.1	1.9	1.9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1.7	3.8	0.0	1.6	3.0	2.6	4.0	4.5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72)	(479)	(42)	(736)	(431)	(310)	(379)	(468)	(3,017) ¹⁾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10명은 제외함.

향후 노인이 되었을 때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저소득층은 노후소득보장을 응답한 반면, 중상층은 노년기 건강보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시해 차이를 보인다. 이는 본인들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을 국가가 해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부표 5-13〉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향후 노인이 되었을 때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단위: %, 명)

구분	노후 소득보장	고용연장 고용기회확대	건강보호 장기요양서비스	여가문화 지원	평생교육	계(명)
전체	32.8	17.4	43.5	5.1	1.2	100.0(3,024) ¹⁾
유형						
남자유형 I	47.1	21.5	26.7	1.7	2.9	100.0(172)
남자유형 II	37.8	22.5	35.5	3.1	1.0	100.0(479)
남자유형 III	29.3	14.6	48.8	7.3	0.0	100.0(41)
남자유형 IV	24.5	23.6	43.8	7.3	0.8	100.0(738)
여자유형 I	45.0	10.4	41.5	2.3	0.7	100.0(431)
여자유형 II	43.3	8.9	42.4	3.5	1.9	100.0(314)
여자유형 III	24.3	14.8	54.1	5.8	1.1	100.0(379)
여자유형 IV	24.7	15.3	50.9	7.4	1.7	100.0(470)

주: 1) 본인응답자 3,02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3명은 제외함.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노후 가치관 및 인지도에서는 직종(임시직 및 상용직)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으로 소득그룹별, 성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그룹에서도 특히 남자유형 I의 경우에는 다른 그룹들과 달리 현재 건강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국가가 경제적인 면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유형 I이 다른 여자유형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남자에 비해 경제적인 책임감이 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본다.

성별로는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노후 관련 생활에 가족중심적인 면을 강조하는 반면, 남자의 경우 네트워크 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접근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303)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 2011년	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9,000원
	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미정
	11-03	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6,000원
	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살미아	5,000원
	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야채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7,000원
	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농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7,000원
	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6,000원
	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6,000원
	11-09	인구집단 의료이용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6,000원
	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방안	황나미	미정
	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7,000원
	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7,000원
	11-13	사회보장제정과 계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5,000원
	11-14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미정
	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6,000원
	비발간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제공	강유구	미정
	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6,000원
	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제정 수준에 관한 연구	고경환	6,000원
	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8,000원
	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7,000원
	11-17-4	2011 보건복지 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10,000원
	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미정
	11-17-6	사회복지제정 추계모형개발	원종욱	8,000원
	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5,000원
	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 정책 개선 방안	이태진	미정
	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7,000원
	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6,000원
	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미정
	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6,000원
	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7,000원
	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8,000원
	비발간	2011 기초보장평가 및 정책대안 모색	이태진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모니터링 및 현장보고	최현수	미정
	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미정
	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제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미정

11-27	다문화가족이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미정
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5,000원
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7,000원
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6,000원
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 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강혜규	미정
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분석	이삼식	7,000원
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5,000원
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6,000원
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6,000원
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미정
11-37-1	출산율 예측모형 개발	이삼식	6,000원
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 (외부)	미정
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 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7,000원
11-37-4	소득계층별 출산 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6,000원
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 (외부)	미정
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7,000원
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미정
11-37-8	외국의 이민정책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 (외부)	미정
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9,000
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모색: OECD 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소정	미정
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미정
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8,000원
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1)	오영희	6,000원
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미정
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8,000원
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판	이삼식	5,000원
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7,000원
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6,000원
11-37-19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10,000원
비발간	국제신포자음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사회연구관련 학술대회	이삼식	미정
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홍 (외부)	미정
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이삼식	미정
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방안	(미정) (외부)	미정
11-37-23	저출산고령화대응영세자영업자생활실태연구	박종서	미정
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8,000원
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10,000원
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 지원	김동진	11,000원
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의 정책동향	최은진	10,000원

	11-39-4	건강영향평가 DB구축	김동진	10,000원
	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9,000원
	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8,000원
	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8,000원
	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홍석표	5,000원
	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2차년도)	김승권	11,000원
	11-43	친서민정책으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김미숙	13,000원
	11-44-1	한국의 복지실태	남상호	미정
	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8,000원
	비발간	한국의 사회복지분석	남상호	미정
	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정영호	7,000원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정책방향 모색	박실비아	미정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분석	조재국	미정
	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7,000원
	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6,000원
■ 2010년	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원
	10-02	화귀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비아	5,000원
	10-03	해의의료시장 개척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7,000원
	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기혜	6,000원
	10-05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련	7,000원
	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곽노성	7,000원
	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선	5,000원
	10-08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석	7,000원
	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5,000원
	10-10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원
	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원
	10-12	한국 제3세대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노태명	8,000원
	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완	7,000원
	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원
	10-15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태명	7,000원
	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8,000원
	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분석	여유진	7,000원
	10-18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원
	10-19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6,000원
	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저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원
	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8,000원
	10-22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원
	10-23	민간 복지지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7,000원
	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원
	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7,000원
	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원
	10-28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0	장영식	10,000원
	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원

10-30-1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17,000원
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원
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홍찬	5,000원
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6,000원
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원
10-30-6	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원
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 (외부)	6,000원
10-30-8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원
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7,000원
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식	6,000원
10-30-11	입양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10,000원
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경수	6,000원
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6,000원
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염지혜	5,000원
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원
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30-17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원
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원
10-30-19	에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원
10-30-20	신노년층(에비노년층)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신우덕	5,000원
10-30-21	신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7,000원
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정은	8,000원
10-31-2	2010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9,000원
10-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원
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정은	6,000원
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원
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원
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원
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원
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원
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5,000원
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원
10-33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3년차)	오영호	9,000원
10-34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14,000원
10-35	취약위험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10,000원
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원
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원
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원
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정영호	11,000원
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	정영호	7,000원
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7,000원
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원